



가람(伽藍)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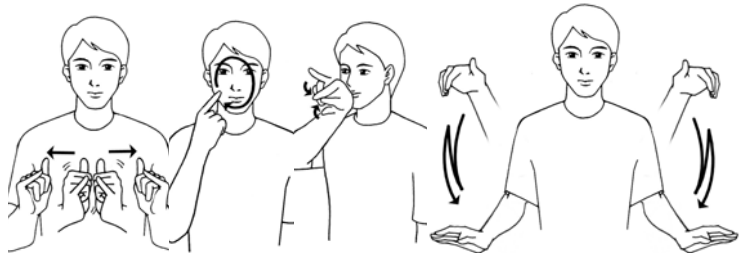
스님들이 거주하며 불도를 닦는 곳.
[목탁+궁]
=도량. 불도량. 사문². 사찰. 승방. 절.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가릉빈가(迦陵頻伽) 명

불경에 나오는 사람의 머리를 한 상상의 새.
[사람+얼굴+새]
=선조(仙鳥).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얼굴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을 입 앞에 대고 1·5지 끝을 붙인 다음, 두 손을 옆으로 벌려 상하로 흔든다.

가부좌(跏趺坐) 명 하자

왼쪽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오른쪽 발은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앉는 것.
▶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시작했다.
[앉은 모습을 나타내는 동작]
=결가부좌. 전가부좌.



두 주먹의 1지를 구부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오른손의 1지 위에 왼손의 1지를 'X'자 모양이 되게 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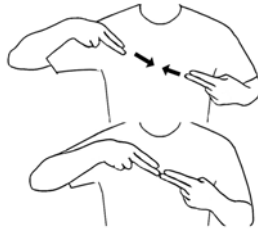
가사

가사(袈裟) (명)

장삼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스님들의 법의.

¶ 아무리 해진 가사에 찢어진 장삼을 입었을망정 장중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옷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연결]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쪽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의 손끝을 맞댄 다음,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운다.

가사불사(袈裟佛事) (명)

가사를 짓는 일.

[가사+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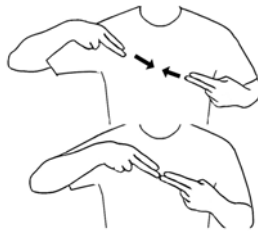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쪽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의 손끝을 맞댄 다음,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이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가사시주(袈裟施主) (명)

가사를 짓는데 드는 비용을 내는 일.
또는 그런 사람.

[가사불사+ 드리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쪽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의 손끝을 맞댄 다음,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이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가섭(迦葉) 명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처님이 죽은 뒤 제자들의 집단을 이끌어 가는 영도자 역할을 해냄으로써 '두타제일(頭陀第一)'이라 불린다.

[똑똑하다+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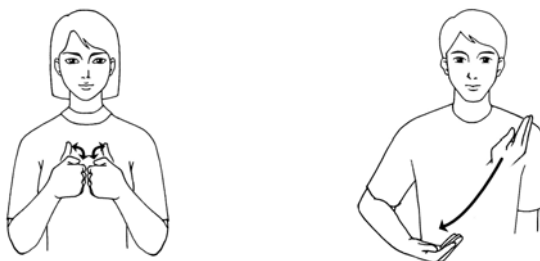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왼쪽 눈 밑에서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가전연(迦旃延) 명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논의를 펴는데 일가견이 있어 논의제일(論意第一)이라 함.

[의논+ 제자]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마주 보게 하여 두 번 굽혔다 편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가피(伽被) 명

부처님이나 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힘을 줌.

¶ 부처님의 가피 덕이라는 것을 일깨웠다.

[나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가호,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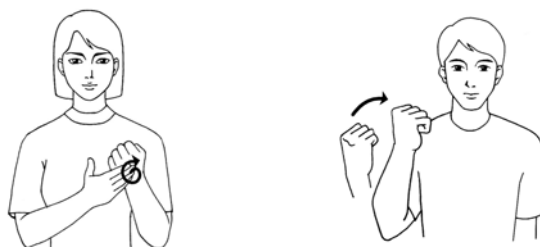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가피력(伽被力) 명

부처님이나 보살이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주는 힘.

[가피+ 힘]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을 쥐고 팔을 구부려 당긴다.

가행

가행(加行) 명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서 더욱 힘을 써서 수행하는 일.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노력. 안간힘. 애쓰다. 힘쓰다.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양 볼 밑에서 약간 흔들며 위로 올린다.

가행정진(加行精進) 명

번뇌를 끊고 성불하기 위해 더욱 힘껏 수행함.
[노력+ 정진함을 나타내는 동작]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양 볼 밑에서 약간 흔들며 위로 올린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손끝을 대고 밖으로 내민다.

가호(加護) 명

부처님 자비의 힘으로써 중생을 보호하여 주는 일.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가피(加被). 은혜.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각타(覺他) 명

삼각(三覺)의 하나. 스스로 깨달은 바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각(覺).
[깨닫다+ 돕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다.

각황(覺皇) 명

깨달음의 황제. 곧 부처님.
[비로자나불(큰 광명을 내 비춘다는 부처)의 손 모습+님]
=부처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간경(刊經) 명 하자

불경을 펴냄.
[부처+ 책+ 인쇄]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펴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대고 오른손을 두 번 들었다 내린다.

간경(看經) 명 하자

불경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음.
[부처+ 책+ 읽다]
=관경.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펴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으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두 번 오르내린다.

간화선(看話禪) 명

화두를 사용하여 진리를 깨닫고자하는 선.
[집중+ 과제+ 참선]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힘주어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왼 손목 쪽으로 당기면서 손가락을 모으고,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둥그렇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갈애

갈애(渴愛) 명 하타

①몹시 사랑함. ②번뇌에 얽혀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범부(凡夫)가 목마를 때 애타게 물을 찾듯이 색욕, 재물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다섯 가지 욕망에 애착함
[사랑+ 목마르다]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목을 가리킨 다음, 두 손의 2·5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번갈아 붙였다 떼다.

감로(甘露) 명

도리천에 있다는 달콤하고 신령스러운 액체.
[달다+ 물]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입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 혀 앞에서 왼쪽으로 두 번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다.

감로법(甘露法)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믿으면 끝없는 궁덕과 이익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감로+ 법]
=감로법우(甘露法雨).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입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 혀 앞에서 왼쪽으로 두 번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감로법우(甘露法雨)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갖 번뇌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감로의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감로+ 법]
=감로법.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입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 혀 앞에서 왼쪽으로 두 번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감로왕(甘露王) 명

아미타불을 달리 이르는 말. 부처님의 설법이 감로의 비처럼 중생에게 은혜를 주는 덕이 있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달다+ 왕]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입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 혀 앞에서 왼쪽으로 두 번 돌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감로차(甘露茶) 명

달고 정하게 달여 부처님 앞에 올리는 차(茶).

[감로+ 녹차]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입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 혀 앞에서 왼쪽으로 두 번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리고,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아래쪽을 오른손의 5지와 1·2·3·4지로 잡았다 내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감응(感應) 명

신심이 부처님이나 신령에 통함.

☯ 신의 감응을 받다.

[느끼다+ 통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끝이 양옆에서 마주보게 하였다가 접근시켜 맞닿게 한다.

개경(開經) 명

①본경을 설하기 전에 예비로 설명하여 진술한 서설로서의 경문. ②경을 펼치는 일.

[경+ 펴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개경계

개경계(開經偈) 명

불경을 외기전 부처님의 공덕이나 교리를 찬탄하는 글귀.

[개경+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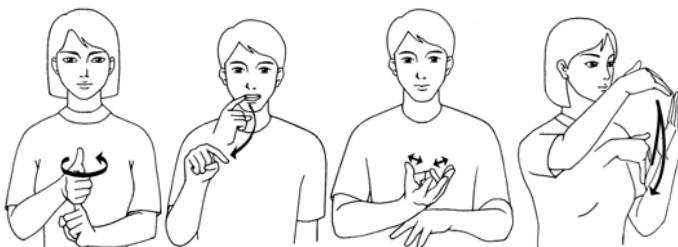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 다음, 손끝을 맞댄 두 손을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개금(改金) 명

불상에 금칠을 함.

[부처+ 금+ 칠(漆)]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둥글게 권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1·2·3·4지 끝을 대고 상하로 움직인다.

개금불사(改金佛事) 명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할 때 행하는 의식.

[금+ 칠(漆)+ 행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둥글게 권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1·2·3·4지 끝을 대고 상하로 움직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개산(開山) 명

절을 처음으로 세움.
[절+설립]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우고,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세운다.

개심(開心)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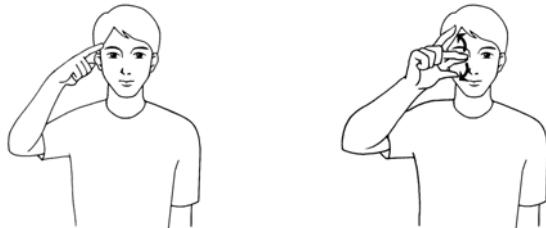
지혜를 일깨워 열어 줌.
[마음+열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댔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개오(開悟) 명

지혜를 열어 진리를 깨닫는 일.
[생각+뜨다²]
=깨닫다. 니르바나. 대오. 모지. 보리①.
성도. 열반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댔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다.

개종(改宗) 명 하자

믿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음.
¶ 개종하여 불자가 되었다.
[종교+바꾸다]



왼손의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ㄷ' 모양이 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 1·2지를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빼고, 1지를 펴서 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하게 한다.

개종

개종(開宗) 명 하타

한 종파를 처음으로 엮.
[종교+교파+시작②]



왼손의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C' 모양이 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 1·2지를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빼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약간 구부러 편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왼 손바닥을 스쳐 내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객사(客司) 명

선종계통의 절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곳.
[손님+방]
=응접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안으로 당긴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객스님(客-) 명

객승(客僧)을 높여 부르는 말.
[손님+스님]
=객승.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안으로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객승(客僧) 명

절에 손님으로 잠시 와 있는 스님.
☞ 객승의 참선.
[손님+스님]
=객스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안으로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거불(學佛) [명]

불전에 기도나 재를 올릴 때, 처음에 절하며 삼불을 청하는 절차. 나무불 타야중, 나무달마야중, 나무승가야중.

[부처+ 모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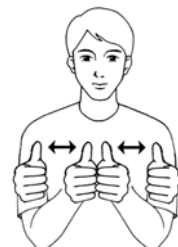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 손바닥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올려놓고 안으로 당긴다.

거사(居士) [명]

출가하지 않은 남자의 불명 밑에 붙이는 칭호.

[부처+ 민다+ 남자①]

=우바새. 처사. 청신남. 청신사.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뎠다.

건달바(乾闥婆) [명]

팔부 신장 중의 하나. 술과 고기를 먹지 않으며 향(香)만 먹으며 공중을 날아다님. 증유를 달리 이르는 말.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까지의 중간 몸은 향만 먹는다고하여 이렇게 이른다. ㉠ 건달바왕.

[향+ 흡입+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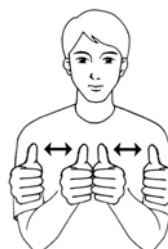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반쯤 구부려 오른쪽으로 돌리며 위로 올리고,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코밑으로 끌어당기며 5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손가락 끝을 모아 붙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려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건명(乾命) [명]

축원문에서 남자를 이르는 말.

[엄지로 남성을 나타내는 동작]

=남. 남성②. 남자. 사나이.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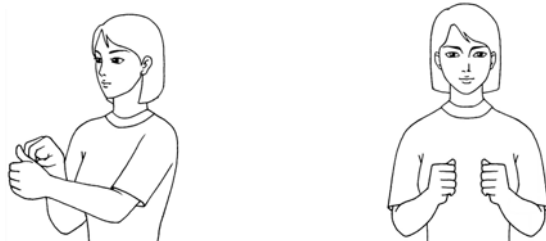
결망

결망(-網) 명

스님이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등에 배낭을 메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

=배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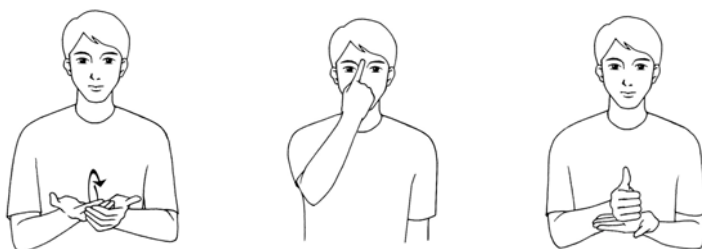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등을 댄 다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 세운다.

결사(乞士) 명

비구 오덕의 하나. 위로는 부처님에게 법을 빌어 지혜를 돕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 몸을 기르는 일.

[구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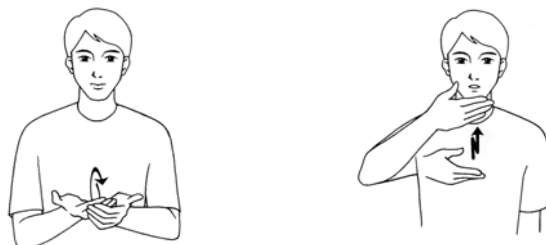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굽힌 두 손을 포개어 밖으로 타원형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결식(乞食) 명 하자

음식 따위를 빌어먹음.

¶ 결식을 다니다.

[구걸+ 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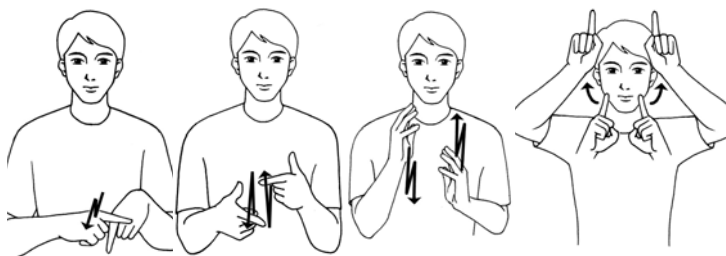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굽힌 두 손을 포개어 밖으로 타원형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다.

검림지옥(劍林地獄) 명

불경 불효의 죄를 지은 사람이 떨어지는 지옥. 시뻘겋게 단 뜨거운 쇠알의 열매가 달리고 앞이 칼로 된 나무 숲 속에서 온몸이 찢리는 고통을 받는다.

[칼+ 숲+ 지옥]

=검수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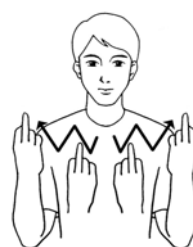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펴서 마주 세운 두 손을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린다.

검산(劍山) 명

수없이 많은 칼을 세워 만든 산. 옥줄이 죄인을 산에 부딪치게 하여 머리와 팔다리를 끊는다.

[칼+ 산맥]

=도산.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리고, 두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동시에 약간씩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양옆으로 벌린다.

검수(劍樹) 명

가지, 잎, 꽃, 과실이 모두 칼로 되어 있다는 지옥의 나무.

[칼+ 나무]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다.

검수지옥(劍樹地獄) 명

시뻘겋게 단 뜨거운 쇠 알의 열매가 달리고 잎이 칼로 된 나무 숲속에서 온몸이 찢리는 고통을 받는다.

[칼+ 숲+ 지옥]

=검림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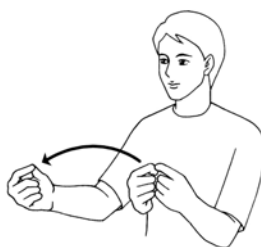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펴서 마주 세운 두 손을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댄다가 머리 양쪽에 올린다.

검(劫) 명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 하늘과 땅이 한번 개벽한 때에서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

[영원+ 동안]

=광검.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췄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민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밖에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을 약간 내린다.

검탁

검탁(劫濁) [명]

오탁의 하나. 기근, 질병, 전쟁 따위의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남을 이른다.
[더럽다+섞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콧등을 감싸며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린다.

계(偈) [명]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귀.
[글/2단으로 이루어진 묶음을 나타내는 동작<글/시의 운율적 리듬>]
=계구. 계문. 시(詩).



손끝을 맞댄 두 손을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계구(偈句) [명]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인 가타(伽陀)의 글귀. 네 구(句)를 한 계(偈)로, 다섯 자나 일곱 자를 한 구(句)로 하여 한시(漢詩)처럼 짓는다.
[글/2단으로 이루어진 묶음을 나타내는 동작<글/시의 운율적 리듬>]
=계. 계문(偈文). 시(詩).



손끝을 맞댄 두 손을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계문(偈文) [명]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인 가타(伽陀)의 글귀. 네 구(句)를 한 계(偈)로, 다섯 자나 일곱 자를 한 구(句)로 하여 한시(漢詩)처럼 짓는다.
[글/2단으로 이루어진 묶음을 나타내는 동작<글/시의 운율적 리듬>]
=계. 계구(偈句). 시(詩).



손끝을 맞댄 두 손을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게송(偈頌) 명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입에서 나오는 가락을 나타내는 동작]

=노래. 음악.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견성(見性) 명 하자

모든 망념과 미혹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성품인 자성을 깨달아 앎.

¶ 스님이 견성을 하였다.

[스스로+ 성격+ 스스로를 돌아봄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1·5지 끝을 붙인 두 손을 두 눈 앞에 댔다가 떼서 손목을 돌려 1·5지 옆면이 보이게 내린다.

견성성불(見性成佛) 명

자기 본래의 성품인 자성을 깨달아 부처님이 됨.

[견성+ 부처+ 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1·5지 끝을 붙인 두 손을 두 눈 앞에 댔다가 떼서 손목을 돌려 1·5지 옆면이 보이게 내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결가부좌

결가부좌(結跏趺坐) 명 하자

부처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 왼쪽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오른쪽 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앉는 것을 길상좌라고 하고 그 반대를 향마좌라고 한다. 손은 왼 손바닥을 오른 손바닥 위에 겹쳐 배꼽 밑에 편안히 놓는다.

☛ 결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앉은 모습을 나타내는 동작]
=가부좌. 전가부좌.



두 주먹의 1지를 구부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오른손 1지 위에 왼손 1지를 'X'자 모양으로 얹는다.

결제(結制) 명 하자

①안거제도를 준수함. ②안거를 시작함.

[참선+ 감히다]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손으로 내리 덮으며 동시에 약간 내린다.

결집(結集) 명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제자들이 모여 스승의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경전을 만든 일. 집대성하기 위하여 모인 일.

[경(經)+ 모으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였다가 가슴 중앙으로 두 번 모은다.

경(經) 명

불교의 교리를 밝혀놓은 전적(典籍)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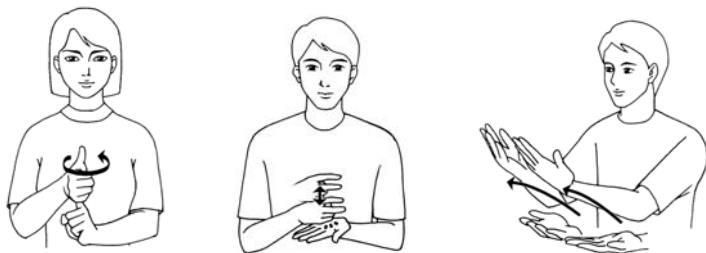
=불경(佛經). 불법(佛法).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경공양(經供養)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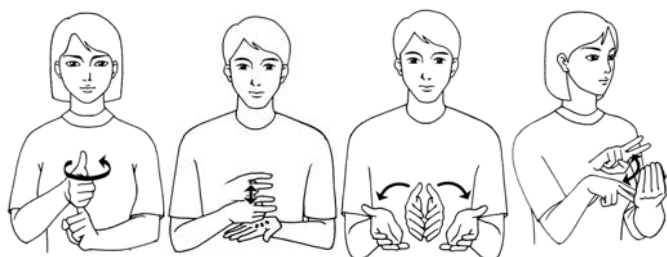
경전을 새로 쓰거나 간행할 때 법회를 엮. 또는 그 법회.
[불경+ 바치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경독(經讀) 명 하자

경전을 읽음.
[경전+ 읽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으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두 번 오르내린다.

경장(經藏) 명

삼장의 하나. 불경을 이르는 말로 불경 속에는 사물의 도리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경(經)+ 책]
=경전.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경전(經典) 명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경(經)+ 책]
=경장.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경책

경책(警策) ㄷ

대나무나 갈대로 만든 납작하고 긴 막대기. 앉아서 참선할 때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권태로워하는 사람의 어깨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데에 주로 쓰고, 독경이나 문답을 할 때 사승이 죽비(竹扉)대용으로 쓰기도 한다.

[막대기로 손바닥을 치는 동작]
=장군죽비, 죽비.



약간 구부린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왼손으로 향하게 하여 내리며 왼 주먹을 친다.

계(戒) ㄷ

죄를 금하고 제약하는 것.
[수계부처님께서 향불을 지지는 모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계단(戒壇) ㄷ

계를 주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단.
[계+ 받다+ 곳]
=계장.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기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계사(戒師) ㄷ

계를 주는 스님.
[계+ 스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계율(戒律) 명

불자가 지켜야할 규범.

[계+ 차례]

=율.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계율장(戒律藏) 명

삼장의 하나.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의 조례를 모은 책을 이른다.

[계율+ 책]

=율장.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계장(戒場) 명

계를 받는 도량(道場).

[계+ 받다+ 곳]

=계단.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기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계정혜(戒定慧) 명

불도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체인 계율, 선정, 지혜를 줄여 이르는 말. 계율은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 선정은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곳에 머물게 하는 것. 지혜는 미혹을 깨뜨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사제나 십이연기 또는 진여나 실상을 관(觀) 하는 것.

[계+ 참선+ 지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대고,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원 왼 팔목 등에 댄다.

계학

계학(戒學) 명 하자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배우는 것.
몸, 입,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방지함.
[계+ 공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계행(戒行) 명 하자

계를 받은 뒤에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함을 이른다.
[계+ 실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대고,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구부려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번갈아 밖으로 내민다.

고도(苦道) 명

번뇌로 말미암아 짓는 업 때문에 받게 되는 삼계육도의 고과(苦果).
[가시에 찔림을 나타내는 동작]
=고난. 고생. 고초.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고성제(苦聖諦) 명

사제(四諦의) 하나. 현세에서의 삶은 곧 고통이라는 진리를 이른다.
[고난+ 거룩하다+ 진리]
=고제.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끝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뒷면으로 스쳐 낸다.

고승(高僧)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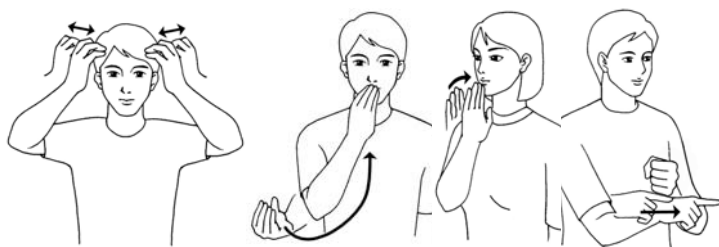
덕이 높은 스님.
[크다(매우)+스님]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고제(苦諦)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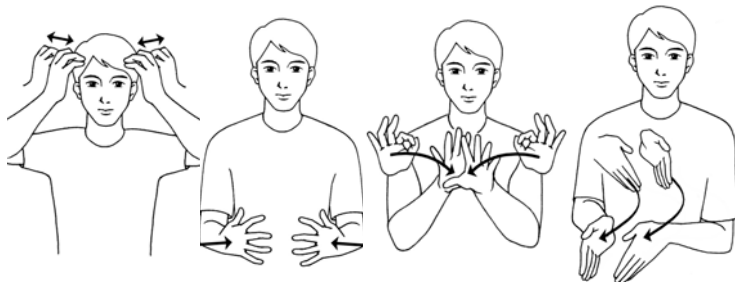
사제(四諦의) 하나. 현세에서의 삶은 곧 고통이라는 진리를 이른다.
[고난+ 거룩하다+ 진리]
=고성제.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고집멸도(苦集滅道)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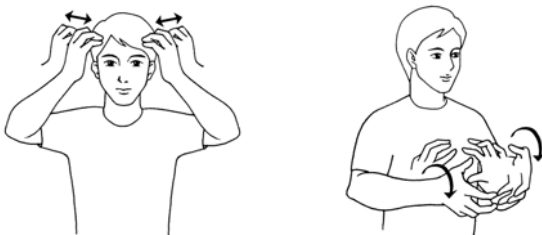
고(苦)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집(集)은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모임, 멸(滅)은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계, 도(道)는 그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한 수행을 이른다.
[고난+ 모이다+ 사라지다①+ 길]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펴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린다.

고해(苦海) 명

고통의 세계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세상을 이르는 말.
▶ 고해 중생.
[고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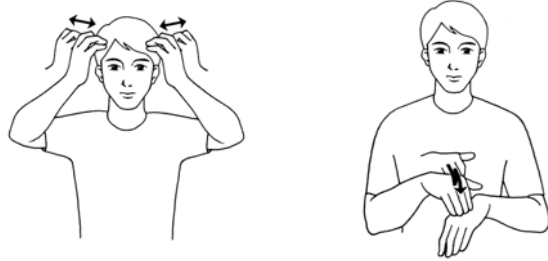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고행

고행(苦行) 명 하자

몸으로 건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수행을 쌓는 일.

[고난+수행(修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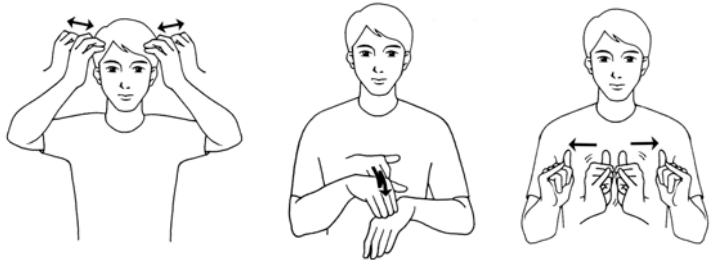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고행자(苦行者) 명

몸으로 건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수행을 쌓는 사람.

[고행+사람]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곡차(穀茶) 명

절에서 술을 이르는 말. 조선 시대에 진목대사가 술을 좋아하였는데 술을 ‘술’이라 부르기가 겹언찍어 ‘차’라고 하고 마신 데서 유래한다.

[얼굴에 취기가 오름을 나타내는 동작]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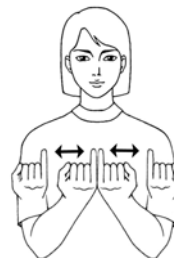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댔다가 이마에 댈다.

곤명(坤命) 명

추원문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새끼손가락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동작]

=부녀. 부녀자. 여성. 여인. 여자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뗀다.

공(空) ㉞

실체가 없고 자성(自性)이 없음을 이르는 말.

[안쪽에 아무 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동작]

=비다①. 없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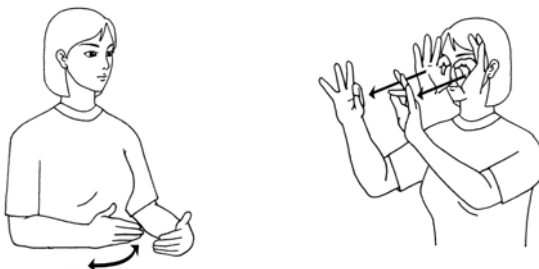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 안에서 손끝이 왼손바닥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인다.

공관(空觀) ㉞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일 뿐 실체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에 관(觀)하는 것이다.

[공(空)+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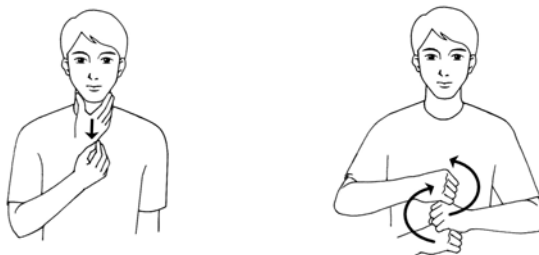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 안에서 손끝이 왼손바닥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인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다.

공덕(功德) ㉞

①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 ②좋은 일을 행한 덕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

[복+쌓다②]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는다.

공덕문(功德文) ㉞

스님이 시주를 받으려고 집집마다 돌리는 종이로 만든 주머니와 부적. 공덕을 기린 글이 적혀있다.

[공덕+문장]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공덕수

공덕수(功德水) 명

①부처님이나 보살에게 공양하는 물. ②모든 공양물.
[공덕+ 물]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다.

공덕심(功德心) 명

①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려는 마음. ②공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공덕+ 마음]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공덕업(功德業) 명

①선근 공덕을 쌓는 일. ②공덕을 쌓기 위하여 7월 초하루부터 7월 24일까지 길가에서 차를 끊어 오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
[공덕+ 업]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공덕의(功德衣) 명

①공덕 있는 사람의 옷. ②안거(安居)한 뒤에 일정한 기간만 입는 간편한 옷.
[공덕+ 옷]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가슴 앞의 옷을 살짝 잡아 흔든다.

공덕장(功德藏) ㉔

많은 공덕을 쌓음.

㉔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되었다.

[공덕+ 쌓다①]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위로 올린다.

공덕차(功德茶) ㉕

공덕을 쌓기 위해 길가에서 오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차.

[공덕+ 녹차]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아래쪽을 오른손의 5지와 1·2·3·4지로 잡았다 내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공덕천(功德天) ㉖

복덕을 주는 여신.

[공덕+ 높다+ 여자①]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목을 좌우로 흔들며 위로 올리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떼다.

공상(共相) ㉗

여러 가지 사물에 공통되는 모양.

[공통②+ 모양]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왼손은 왼쪽 가슴으로 당기고, 오른손은 오른쪽 가슴 밖으로 내밀며 1·5지 끝을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공수래공수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명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
[손이 비었음을 나타내는 동작+오다+손이 비었음을 나타내는 동작+가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두 손을 허리 양쪽에서 전후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기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두 손을 허리 양쪽에서 전후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내밀며 손끝을 약간 들어 올린다.

공안(公案)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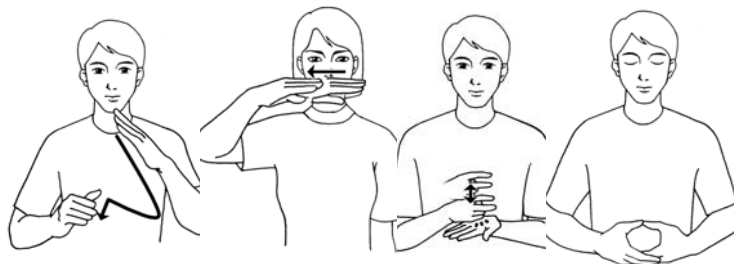
공정하여 범하지 못할 법령. 또는 그 법령에 의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표준.
[공(公)+바르다+법]



비스듬히 세운 왼손 밑에 오른손으로 '△' 모양을 그린 다음,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내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공안선(公案禪) 명

공안을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자 하는 선.
[공안+선]



비스듬히 세운 왼손 밑에 오른손으로 '△' 모양을 그린 다음,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내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공양(供養)¹ [땡] [하타]

삼보(三寶)나 죽은 이의 영혼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일.

☞ 부처님께 공양을 하다

[두 손으로 올리는 동작]

=드리다. 바치다. 봉사. 제출.

↔받다.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공양(供養)² [땡] [하타]

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

=먹다. 식사.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다.

공양미(供養米) [땡]

공양에 쓰는 쌀.

[공양+ 쌀]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2지 끝을 5지 끝에 두 번 뽕겨 치아에 댄다.

공양법(供養法) [땡]

밀교의 의식에 관한 방법과 규칙. 또는 그 방법과 규칙을 기록한 책. 부처님, 보살, 하늘, 신 따위를 염불 공양하는 방법과 규칙을 기록하였다.

[공양+ 법]

=의례.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공양주

공양주(供養主) ㄹ

절에서 밥 짓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
[공양+ 끓이다+ 사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약간 구부린 왼손 밑에서 같은 모양의 오른손을 두 번 오르내리고,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공즉시색(空卽是色)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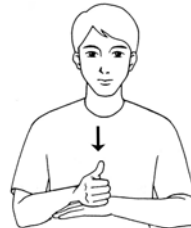
본성인 공(空)이 바로 색(色), 즉 만물이라는 말. 만물의 본성인 공이 연속적인 인연에 의하여 임시로 다양한 만물로서 존재한다는 것.
[비다②+ 물건+ 동일②]



왼쪽에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 안에서 손끝이 왼손바닥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인 다음, 오른쪽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바닥을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1·5지 끝 바닥을 맞댄다.

과(果) ㄹ

원인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
[마침/결과]
=결과. 기어이. 기어코. 끝끝내. 끝장. 드디어. 마지막. 마침내. 막내①. 말단. 최종. 최후.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과거세(過去世) ㄹ

삼생의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이른다.
[과거+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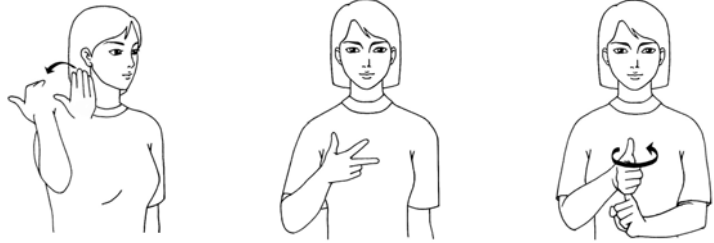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긴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과거칠불(過去七佛) 명

지난 세상에 나타난 일곱 부처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카시아파, 석가모니불.

[과거+ 칠(七)+ 부처]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긴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과보(果報) 명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결과+ 받다]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관(觀) 명 하타

지혜로써 경계를 비추어봄.
[눈과 시선을 구성하는 동작]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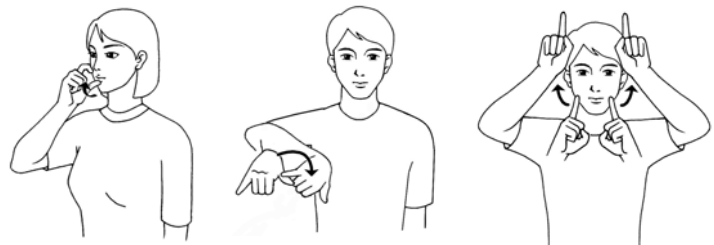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다.

관구지옥(灌口地獄) 명

죄인의 입에 끊임없이 물을 부어 고통을 주는 지옥. 음주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가는 지옥.

[물+ 파르다+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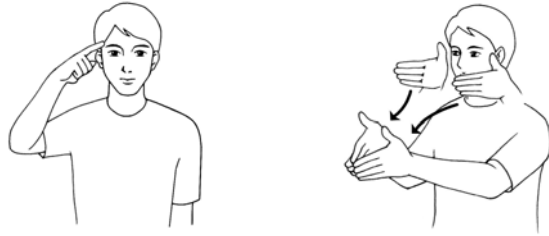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가 5지 끝을 아래로 향하게 기울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댈다.

관념

관념(觀念) 명

마음을 가라앉혀 부처님의 진리를 관찰하고 생각함.

[생각+ 집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힘주어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댄다.

관념염불(觀念念佛) 명

부처님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는 일.

[관념+ 합장+ 중얼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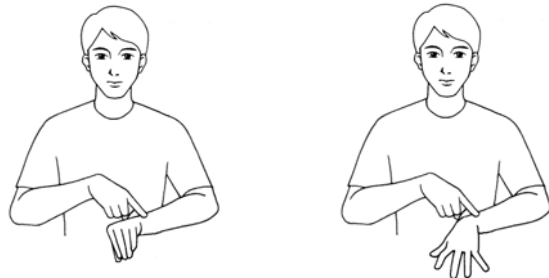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힘주어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대고,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 다음, 2·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두 손을 상하로 마주보게 하여 2지를 두 번 튕긴다.

관등(觀燈) 명

절의 주요행사 때 등대를 세우고 온갖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일.

[등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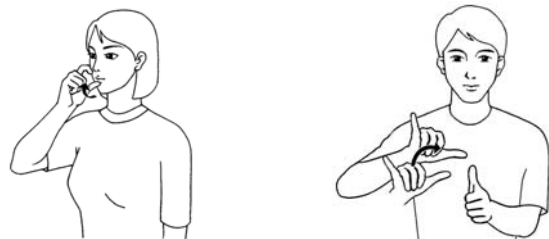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왼 손목에 대고 왼손의 손가락을 모아 쥐었다가 편다.

관불(灌佛) 명

①초파일에 향수, 감차(甘茶), 오색수(五色水) 따위를 아귀 부처님상의 정수리에 뿌리는 일. ②불상을 목욕시키는 일.

[물+사람에게 물을 붓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5지 끝이 왼 주먹의 5지 끝으로 향하게 기울인다.

관불삼매(觀佛三昧) ㉔

석가모니의 공덕과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펴봄.

[부처+ 집중]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힘주어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댄다.

관불회(觀佛會) ㉕

초파일에 향수, 감차(甘茶), 오색수(五色水) 따위를 아가 부처님상의 정수리에 뿌리는 법회.

[관불+ 행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5지 끝이 왼 주먹의 5지 끝으로 향하게 기울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㉖

아미타불의 원전에서 교화를 돕는 보살. 세상의 소리를 들어 알 수 있는 보살이므로, 중생이 고통 가운데 열심히 이 이름을 외우면 도움을 받게 된다.

[관세음+ 보살]

=관자재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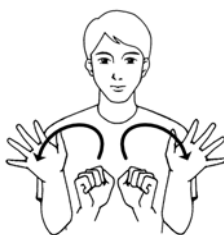


손등이 가슴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옆으로 반원을 그리며 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편다.

관음전(觀音殿) ㉗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

[관세음보살+ 궁]



손등이 가슴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옆으로 반원을 그리며 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에 올려 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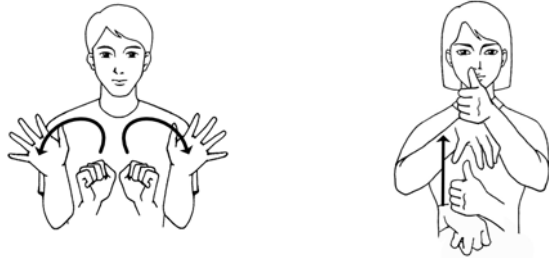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명

아미타불의 원편에서 교화를 돕는 보살. 세상의 소리를 들어 알 수 있는 보살이므로, 중생이 고통 가운데 열심히 이 이름을 외우면 도움을 받게 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손등이 가슴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옆으로 반원을 그리며 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편다.

관행(觀行) 명

마음으로 진리를 비추어 보고 그 진리에 따라 실천함.

[보다+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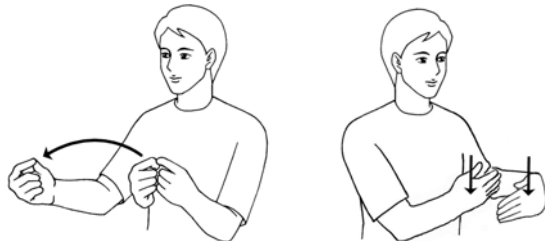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밀고,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구부려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번갈아 밖으로 내민다.

광겁(曠劫) 명

지극히 오랜 세월.

[영원+동안]

=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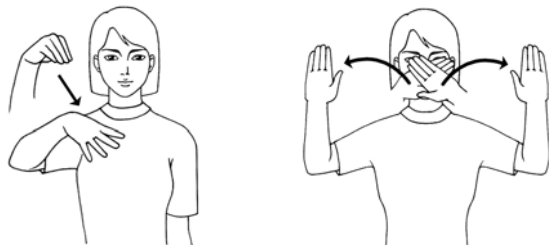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댔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민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밖에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을 약간 내린다.

광명(光明) 명

①부처님과 보살 등의 몸에서 나는 빛. ②번뇌나 죄악의 암흑에 신앙상의 지혜와 견해를 갖도록 밝게 해주는 빛.

[빛+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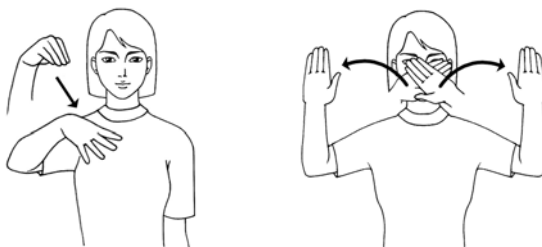


손가락을 모아 쥔 오른손을 머리 오른쪽에서 가슴 앞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광명진언(光明眞言) ㉔

불보살의 몸으로 지혜와 빛을 주는
다라니.

[광명+ 진언]



손가락을 모아 권 오른손을 머리 오른쪽에서 가슴 앞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떼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굽어 들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광목천왕(廣目天王) ㉕

사천왕(四天王)의 하나. 광목천을 다스리며 용신(龍神), 비사사신(毘舍闍神)을 거느리고 서쪽 세계를 지킨다.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떠 위엄으로써 나쁜 것을 물리친다. 악인에게 고통을 주어 도심을 일으킨다고 함.
[서(西)①+ 하늘②+ 왕]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괘불(掛佛) ㉖

①그림으로 그려서 걸어놓은 부처님의 모습. ②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거는 일.
[부처님+ 그리다+ 걸쳐 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괘불탱.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펴서 얼굴 옆에 세웠다가 손끝을 접는다.

괘불탱

괘불탱(掛佛幀) 명

①그림으로 그려서 걸어놓은 부처님의 모습. ②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거는 일.

[부처님+그리다+걸쳐 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괘불.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펴서 얼굴 옆에 세웠다가 손끝을 접는다.

교(敎) 명

교종 불교의 종파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에 선(禪)보다 교리를 중시하는 교파.

[가리켜 이르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가르치다. 교육.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든다.

교계(敎系) 명

스승에서 제자에게 차례로 이어가는 교법의 계통.

[가르치다+내림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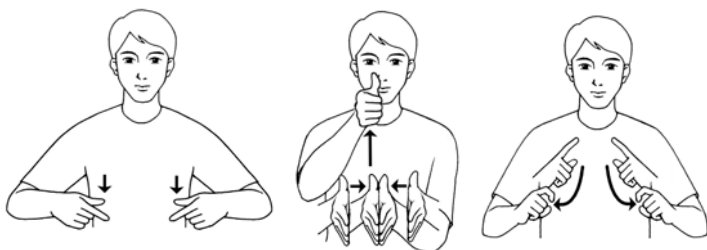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든 다음, 손끝을 모은 두 손을 상하로 두 번 마주 댔다 떼며 아래로 내린다.

교구본사(敎區本寺) 명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전국의 25개 교구마다 그 안에 있는 말사(末寺)를 관찰하기 위하여 둔 절.

[지역+본부+궁]



1·5지를 편 두 주먹을 마주 보게 모로 세워 내린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오른손만 위로 올리며 주먹을 쥐고 5지를 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교리(敎理)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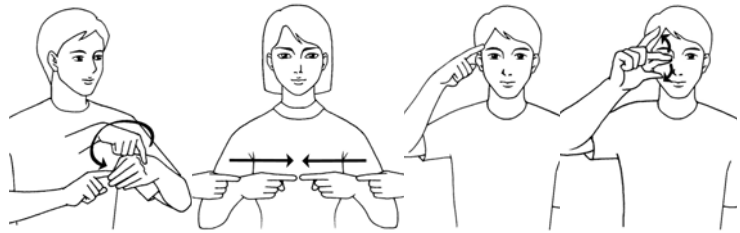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가르치다+ 이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든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
[마음+ 통하다+ 깨닫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끝이 양옆에서 마주보게 하였다가 접근시켜 맞닿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교주(敎主) 명

한 종교 단체의 우두머리.
[종교+ 단체+ 주인²]



왼손의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ㄷ' 모양이 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 1·2지를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빼고,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린다.

교화(敎化) 명 하타 도자

부처님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함.
[가르치다+ 변하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든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구경

구경(究竟) 명

가장 지극한 깨달음.

[정상에 이름을 나타내는 동작]

=이루다. 이룩하다. 최고.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댄다.

구경각(究竟覺) 명

①보살의 수행이 원만하여 궁극적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는 경지. ②무명의 번뇌를 완전히 없애고 본각(本覺)의 이치를 체득한 경지.

[최고+ 깨닫다]

=구경열반. 대각견성. 무상정각. 무상정등각. 삼막삼보리.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뗀다.

구경열반(究竟涅槃) 명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열반. 곧 부처님의 경계를 이룸.

[최고+ 깨닫다]

=구경각. 대각견성. 무상정각. 무상정등각. 삼막삼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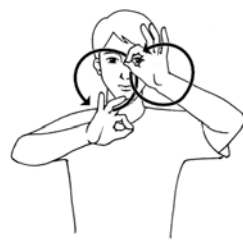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뗀다.

구도(求道) 명 하자

불법의 정도를 구함.

[법+ 찾다]

=구법.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앞에서 엇갈리게 돌린다.

구도자(求道者)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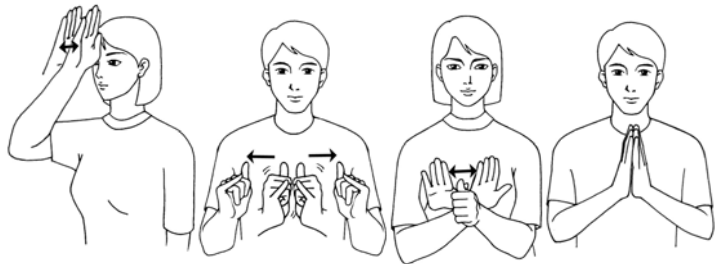
불법의 정도를 구하는 사람.
[구도+ 사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앞에서 엇갈리게 돌리고,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구명시식(救命施食) ㉕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귀신에게 음식을
배풀고 법문(法門)을 읽어주는 의식.
[병자+ 위로+ 합장]
=구명시식.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이마 중앙에 두 번 땀다 텐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주먹 등을 두 번 좌우로 부드럽게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구법(求法) ㉖

불법(佛法)을 구함. 부처님의 진리를
구함.
[법+ 찾다]
=구도.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앞에서 엇갈리게 돌린다.

구법승(求法僧) ㉗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는 스님.
[구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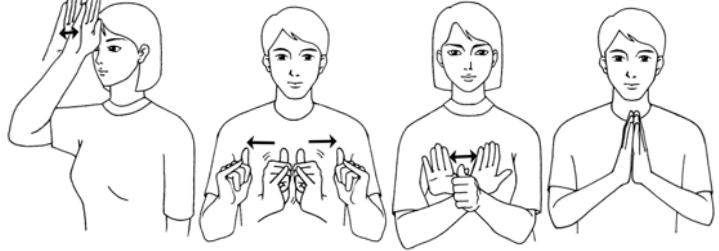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앞에서 엇갈리게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땀다가 내리며 1지를 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구병시식

구병시식(救病施食) ㉞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귀신에게 음식을
배풀고 법문(法門)을 읽어주는 의식.
[병자+ 위로+ 합장]
=구병시식.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이마 중앙에 두 번 댔다 떼고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주먹 등을 두 번 좌우로 부드럽게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구부득고(求不得苦) ㉞

팔고의 하나. 얻고자 하는 바가 있
나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
[탐욕+ 고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입가에 댔다가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아로 물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구악설(口惡說)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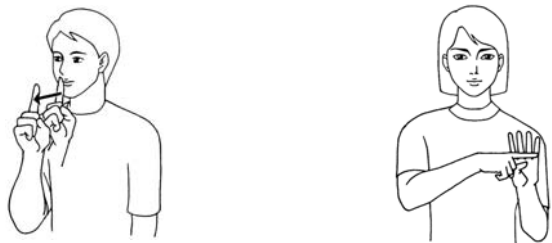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짓는 죄.
[나쁘다+ 말+ 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끝을 왼쪽으로 스쳐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세운다.

구업(口業) ㉞

삼업(三業)중의 하나. 말을 잘못하여
짓는 업을 이름.
[말+ 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댔다.

구족계(具足戒)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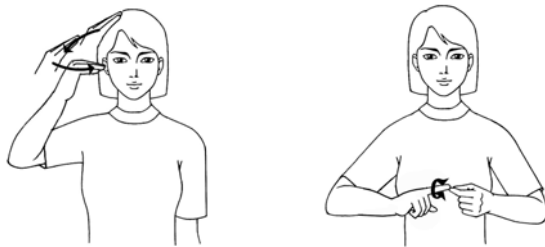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할 계율.
[스님+ 계]
=비구계, 승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손가락 끝을 왼팔에 댈다.

국역장경(國譯藏經) 명

한글로 번역한 불경, 조선 세조 때
설치한 간경도가에서 원각경, 법화
경, 능엄경 따위를 번역하였다.
[한글+ 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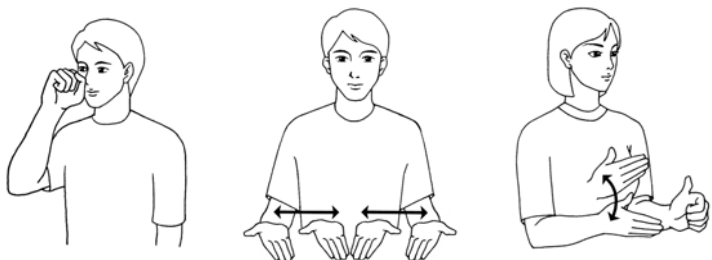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권선(勸善) 명 하타

①착한 일을 짓도록 권장함. ②절을
짓거나 불사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보시(布施)를 청함.
[좋다+ 일+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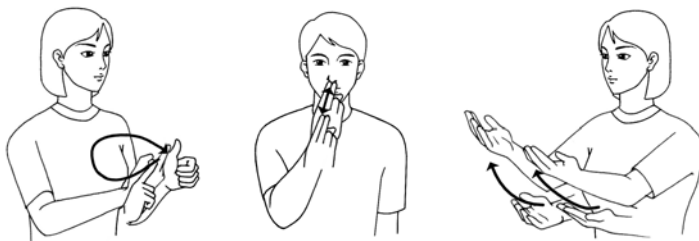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

귀명

귀명(歸命) ㄹ

삼보(三寶)에 돌아가 몸과 마음을 불도에 의지함.

[귀의+ 목숨+ 바치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대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귀명정례(歸命頂禮) ㄹ

①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발에다 머리를 대고 하는 절. ②예불할 때 부르는 말.

[귀명+ 정례]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후,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대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밀고,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웠다가 5지 끝 바닥을 왼 손바닥에 댄다.

귀의(歸依) ㄹ ㄱ

①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의지하는 것. ②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의 집으로 들어가 모든 재난을 피하는 것.

☞ 종교에 귀의하다.

[돌아가감을 나타내는 동작]

=나무(南無).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다.

귀의법(歸依法) 명

귀의할 법문.

[귀의+ 법]

=나무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귀의불(歸依佛) 명

귀의할 부처님.

[귀의+ 부처님]

=나무불(南無佛).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귀의삼보(歸依三寶) 명

불, 법, 승 3보에 귀의하는 것.

[귀의+ 삼보]

=나무삼보(南無三寶).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편다.

귀의승(歸依僧) 명

귀의할 승가.

[귀의+ 스님]

=나무승(南無僧).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잡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귀의심

귀의심(歸依心)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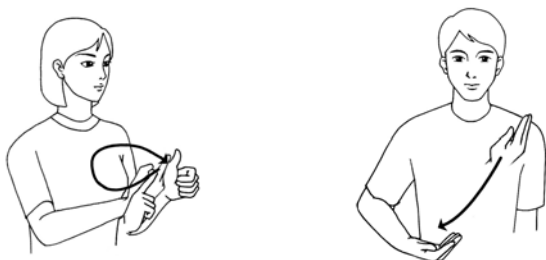
불도에 돌아가 의지하려는 마음.
[귀의+마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귀의자(歸依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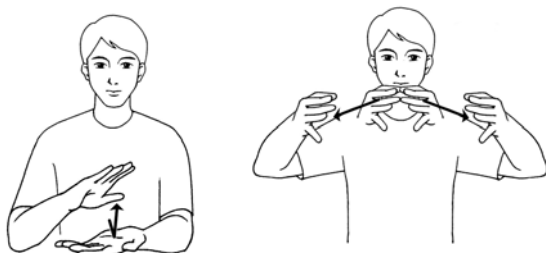
불도에 돌아가 의지하는 사람.
[귀의+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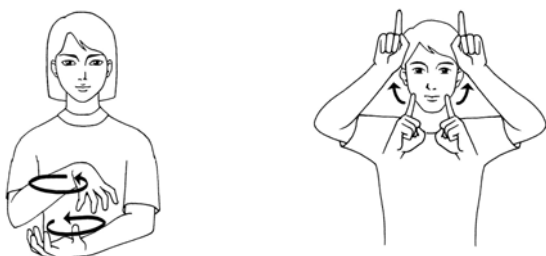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규환지옥(叫喚地獄) 명

가마솥에서 삶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울부짖는 지옥.
[뜨겁다+지르다+혼란+지옥]
=아비지옥.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빠르게 떼어 올리고, 1·5지 끝을 맞댄 두 손을 입가에 나란히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벌리며 내민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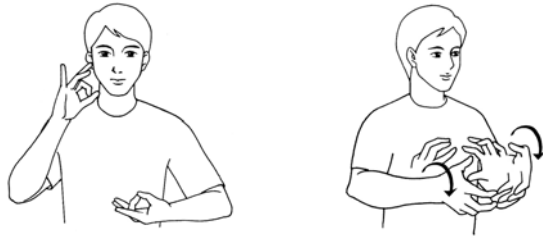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극락(極樂) 명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아미타+ 세계]

=극락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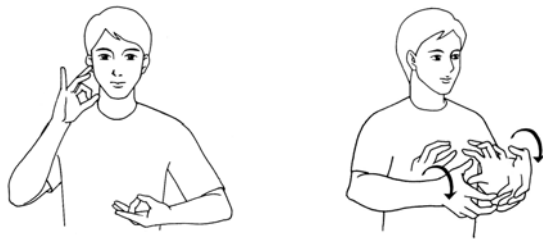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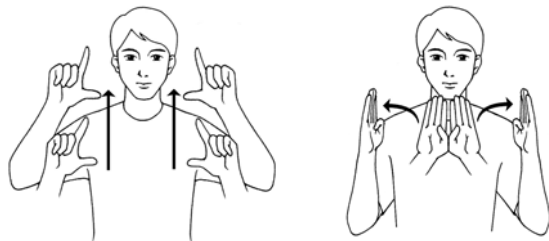
극락동문(極樂東門) 명

극락의 동쪽 문. 이 세계에서 서쪽으
로 가면 극락으로부터 동쪽의 인간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다고 한다.

[극락+ 동②+ 문]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위로 올리고, 5지를
잡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극락만다라(極樂曼陀羅) 명

극락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

[극락+ 그리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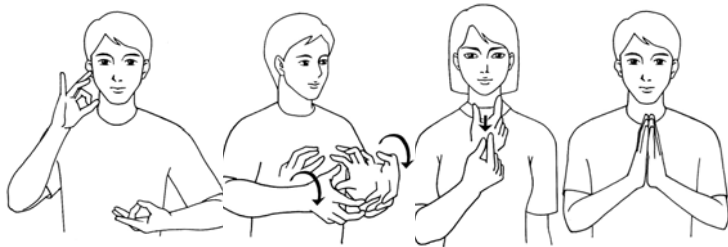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극락발원

극락발원(極樂發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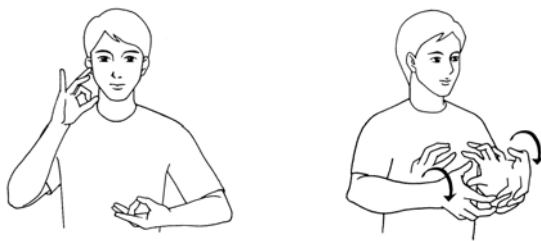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서원(誓願).
[극락+ 원하다+ 합장]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이고,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극락세계(極樂世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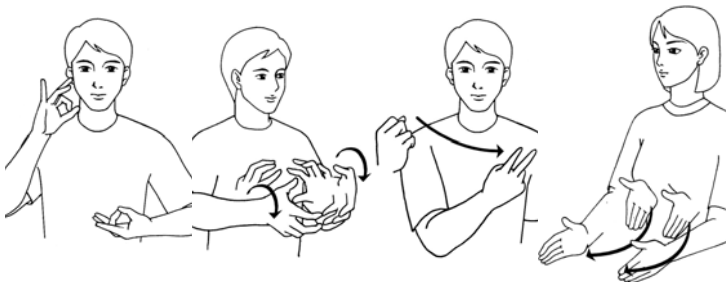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즐겁고 안락한 자유로운 세상. 오직 기쁨만이 넘치고 고통은 전혀 없는 땅.
[아미타+ 세계]
=극락.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극락왕생(極樂往生)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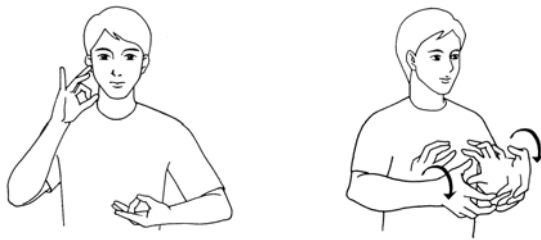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난다.
☞ 선업을 면행한다면 극락왕생하리라 하고 시주승이 말했다.
[극락+ 왕생]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극락원(極樂願) 명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는 소원.
[극락왕생+ 원하다]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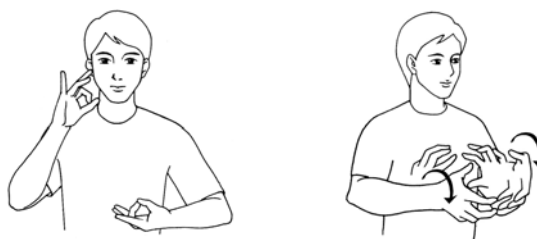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다.

극락장엄(極樂莊嚴) 명

극락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화려하고
엄숙함.

[극락+ 아름답다+ 만들다]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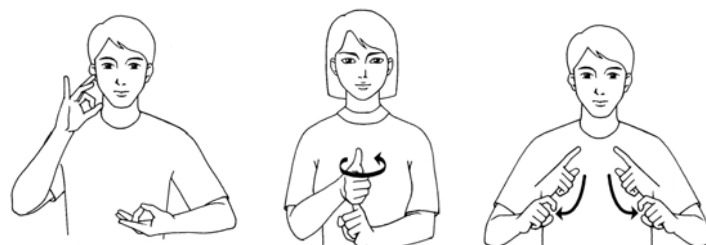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볼에 대고 살짝 돌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눈앞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극락전(極樂殿) 명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모신 법당.

[아미타+ 부처+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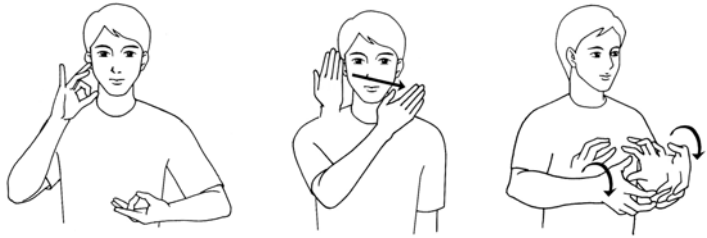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극락정토

극락정토(極樂淨土) [명]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피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아미타+ 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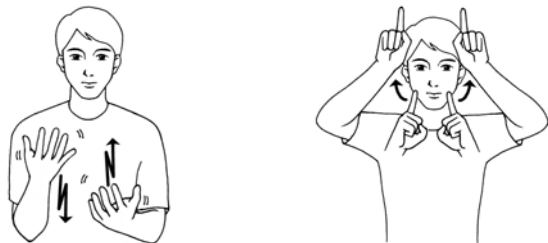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극열지옥(極熱地獄) [명]

살생, 투도, 음행, 음주, 망어의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데 뜨거운 불길로 초열지옥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지옥.

[불+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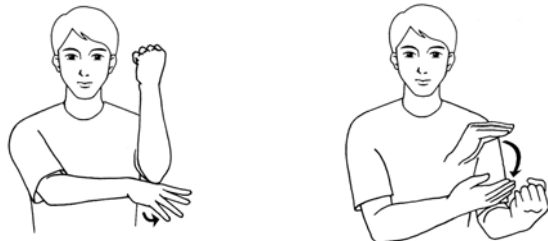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댈다.

근기(根機) [명]

교법을 받을 수 있는 중생의 능력.

[근본+ 능력②]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주먹을 쥐고 반쯤 굽힌 왼팔의 위쪽에 오른손의 5지 옆면을 댔다가 반원을 그리며 내려 팔꿈치 위쪽에 4지 옆면이 닿게 한다.

근본불교(根本佛教) [명]

석가모니 자신의 교설(敎說)과 제자들의 교설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

[근본+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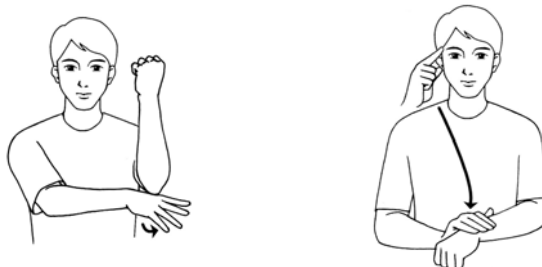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댈다.

근본지(根本智) 명

근본무분별지. 여러지. 바로 진리에
계합하여 능연과 소연의 차별이 없는
절대의 참 지혜.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또 후득지를 내는 근본이
되므로 이와 같이 말한다.

[근본+ 지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댄다.

금강(金剛) 명

대일여래의 지덕(智德)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

[마름모를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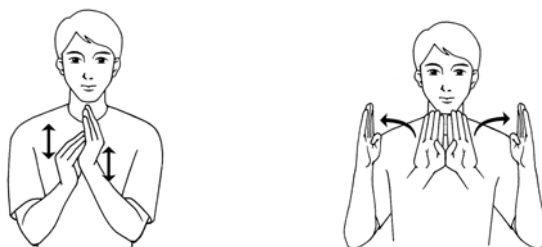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두 손을 상하로 비빈다.

금강문(金剛門) 명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금강
신을 세워 놓은 문.

[금강+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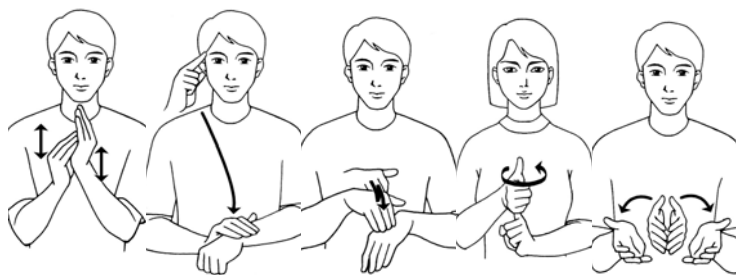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두 손을 상하로 비빈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
波羅密經) 명

지혜의 정체를 금강의 견실함에 비유
하여 해설한 불경으로 우리나라 조계
종의 기본 경전.

[금강+ 지혜+ 수행+ 부처+ 책]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두 손을 상하로 비빈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대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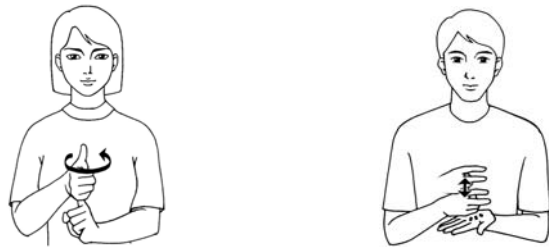
금니경

금니경(金泥經) 명

아교풀에 갠 금박 가루로 쓴 경전.
[금+ 붓글씨+ 경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등글게 권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왼 손등에 오른손의 손가락을 길게 오므려 손목을 대고 좌우로 약간 흔들며 두 손을 안으로 당기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금동부처(金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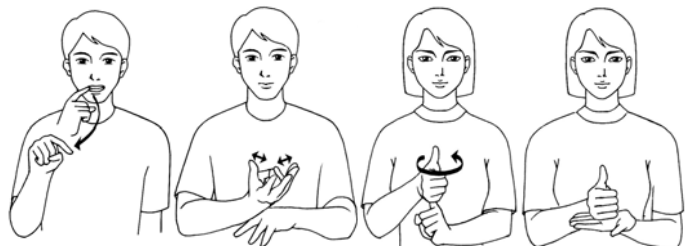
구리로 만든 상 표면에 얇은 금을
입힌 부처님이나 보살의 상.
[금+ 부처님]
=금동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등글게 권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금동불(金銅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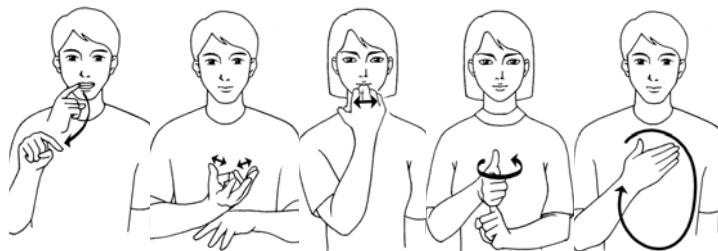
구리로 만든 상 표면에 얇은 금을
입힌 부처님이나 보살의 상.
[금+ 부처님]
=금동부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등글게 권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금색신(金色身) 명

금빛을 칠하여 만든 부처님의 몸.
[금+ 색+ 부처+ 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등글게 권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턱에 대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다.

기도(祈禱) 명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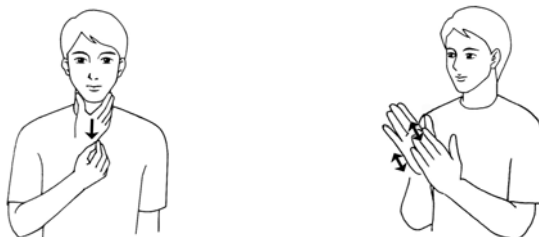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
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뵈. 또는
그런 의식.
[불교의 인사 동작 <彼我一體>]
=합장.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기복(祈福)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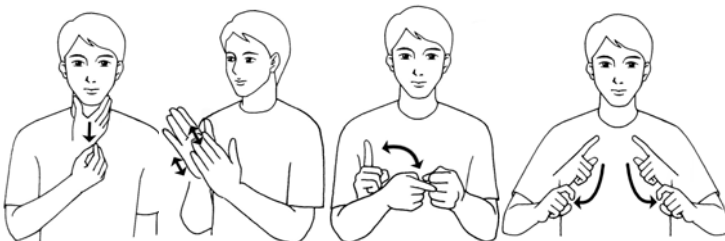
복을 빙.
☯ 기복신앙.
[복+ 빌다]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손을 맞대고 비빈다.

기복도량(祈福道場) 명

고려시대에 임금의 생일에 만수무강
과 나라의 발전을 부처님에게 기원하
던 법회.
[기복+ 절]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손을 맞대고 비비고, 가볍게 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기부

기부(寄附) 명 하자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돈+ 내어주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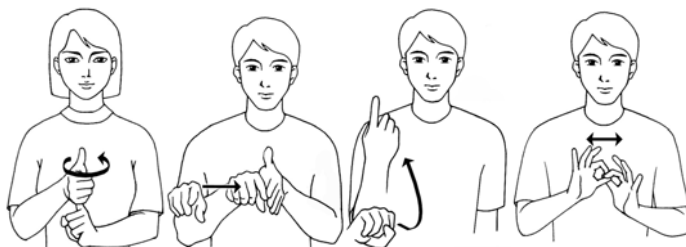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왼손은 앞쪽에, 같은 모양의 오른손은 왼손 뒤쪽 약간 오른편에 위치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편다.

기연(機緣) 명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만한 인연.

[불교+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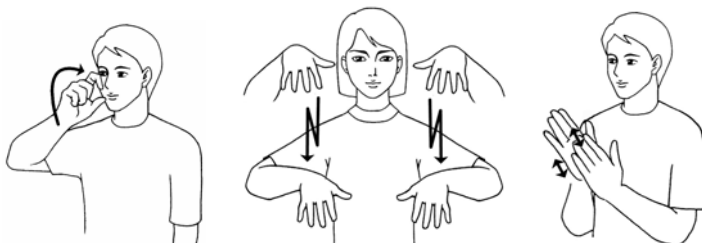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뗌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의 1·5지를 맞대어 서로 끼고 좌우로 움직인다.

기우도량(祈雨道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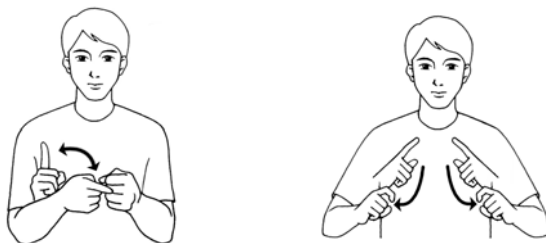
날이 가물 때에 용왕 운우경을 읽으면서 비가 오기를 비는 법회.

[비+ 빌다+ 절]

=기우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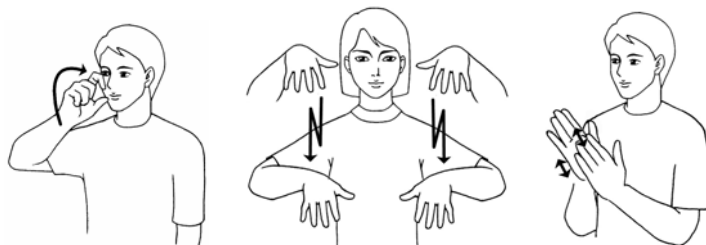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두 번 내리고, 두 손을 맞대고 비빈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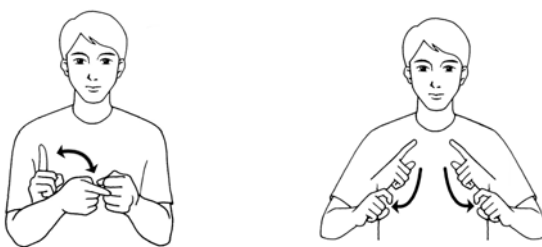
가볍게 켜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기우법석(祈雨法席) ㉔

날이 가물 때에 용왕 운우경을 읽으면서 비가 오기를 비는 법회.
[비+ 빌다+ 절]
=기우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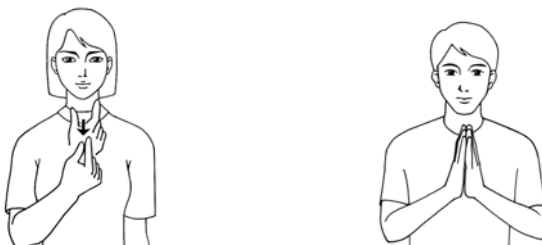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두 번 내리고, 두 손을 맞대고 비빈 다음,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기원(祈願) ㉕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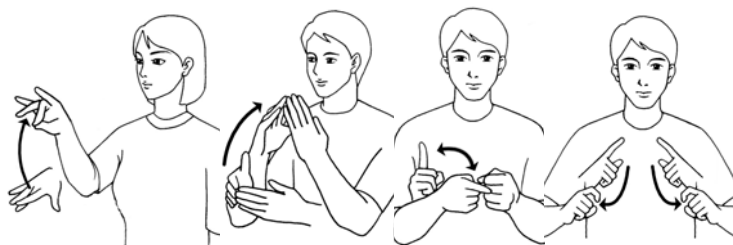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원하다+ 합장]
=발원(發願).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기원정사(祇園精舍) ㉖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설법하고 수도할 수 있도록 수달장자가 세운 인도 중부 마가다 사위성 남쪽의 기수급고독원에 있는 절.
[처음+ 세우다+ 절]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세우고,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길상과

길상과(吉祥果) 명

①길상천의 어머니인 괴자모신이 오른손에 든 과일, 석류를 이르는데 마(魔)를 없애는 과일이라고 한다. ②엽의관음이 염렬의 괴로움을 당하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서원한 표지.
[괴다+ 붉다+ 작다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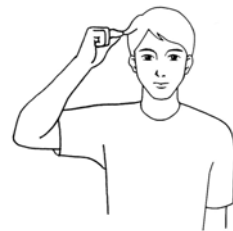


두 주먹을 맞댔다가 손목을 맞댄 채 손가락을 활짝 펴고,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으로 입술 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 마디에 5지 끝을 약간 들어 댄 채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 안에서 원을 그린다.



나모 (명)

부처님의 머리털.
[부처+ 머리카락]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잡는다.

나무(南無) (명)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 믿고 받들며
순종함을 이름. 부처님이나 보살들
의 이름을 앞에 붙인다.
[돌아감을 나타내는 동작]
=귀의.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다.

나무법(南無法) (명)

법에 돌아가 의지함.
[나무+ 법]
=귀의법(歸依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나무불

나무불(南無佛) 명

부처님에 돌아가 의지함.

[나무+ 부처]

=귀의불(歸依佛).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나무삼보(南無三寶) 명

불, 법, 승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함.

[나무+ 삼보]

=귀의삼보.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는다.

나무승(南無僧) 명

승가에 의지함.

[나무+ 스님]

=귀의승(歸依僧).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명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함을 이르는 말.

[나무+ 아미타+ 부처]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대고,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나찰(羅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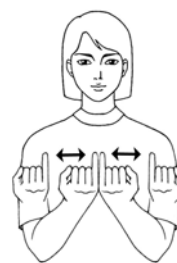
팔부의 하나. 푸른 눈과 검은 몸, 붉은 머리털을 하고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지옥에서 죄인을 못살게 군다고 한다. 나중에 불교의 수호신이 되었다.
[몸에 달라붙는 동작]
=귀신. 마귀. 사탄. 악마.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민다.

나찰녀(羅刹女) (명)

여자 나찰. 사람의 고기를 즐겨먹으며 큰 바다 가운데 산다고 한다.
[귀신+ 여자①]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뗀다.

낙타(落墮) (명)

스님이 속가(俗家)로 돌아감.
[스님+ 포기]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으로 양쪽 가슴을 스쳐낸다.

난생(卵生) (명)

사생(四生)의 하나. 알에서 태어나는 생물을 이른다.
[알+ 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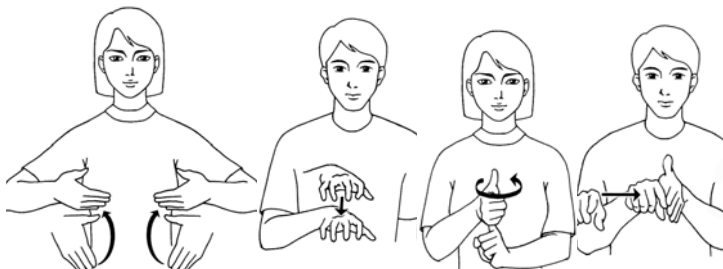
반쯤 구부린 오른손의 1·5지 옆면을 오른쪽 눈앞에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남방불교

남방불교(南方佛教) [명]

동남아시아의 불교. 아소카왕 이후 남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등지에 전파되어 있는 소승 불교이다.

[남②+ 곳+ 불교]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린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다.

남섬부주(南贍部洲) [명]

사주의 하나. 수미산 남쪽에 있다는 대륙으로 인간들이 사는 곳이며,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은 사주(四洲) 가운데 이곳뿐이라고 한다. [남섬부주(南贍部洲)].

[인간+ 세상]

=남염부주. 사바. 사바세계.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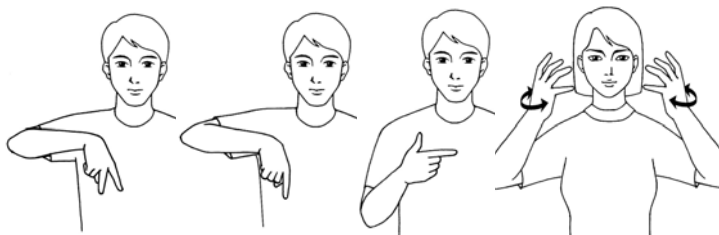
남순동자(南巡童子) [명]

관세음보살의 왼쪽에 있는 보처존(補處尊).

[지문자 '남순'+어린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5지를 접고 1지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린 다음,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2지를 접었다가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바닥이 옆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펴서 약간 구부린 두 손을 얼굴 양옆에 세워 마주 보게 하여 가볍게 좌우로 두 번 흔든다.

남염부주(南閻浮洲) 명

사주(四洲)의 하나. 수미산 남쪽에 있는 대륙으로, 인간들이 사는 곳이며,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은 사주(四洲)가운데 이곳뿐이라고 한다.

[인간+ 세상]

=남염부주. 사바. 사바세계.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위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납골(納骨) 명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

[뼈+ 항아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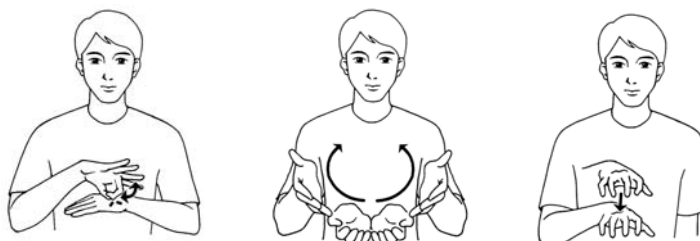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뿔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가슴 앞에서 4지 옆면이 닿게 맞닿다가 좌우로 벌리면서 위로 올리다가 좁히면서 위로 올린다.

납골당(納骨堂) 명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신 곳.

[납골+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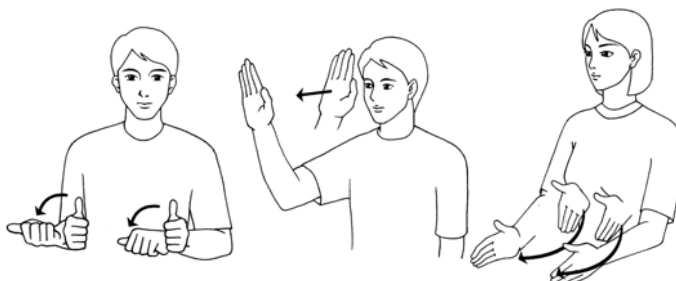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뿔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가슴 앞에서 4지 옆면이 닿게 맞닿다가 좌우로 벌리면서 위로 올리다가 좁히면서 위로 올리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내생(來生) 명

3생의 하나 죽은 뒤의 생애를 이른다.

[죽다+ 다음(미래)+ 태어나다]

=후생(後生).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히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내세(來世) 명

3세의 하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이른다.
[죽다+ 이후+ 세상]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쪽으로 눕힌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노사나불(盧舍那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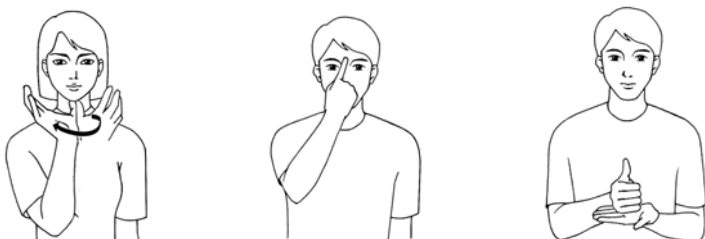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광명으로 이름을 얻은 부처님. 삼신불 가운데 보신불에 해당한다.
[아미타+ 부처]
=아미타불.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노스님(老-) 명

불가에서 스승의 스승이 되는 스님을 이르는 말.
[늙다+ 스님]



오른손의 5지를 턱 약간 아래에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 손바닥이 보이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잡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녹야원(鹿野苑)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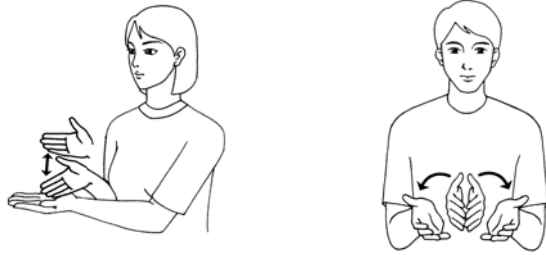
인도 중부에 있던 동산. 석가모니가 다섯 비구를 위하여 처음으로 설법한 곳이다.
[사슴+ 동산]



가볍게 쥔 두 주먹을,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쪽에 대고 교대로 올리면서 1·2지를 벌려 편 다음,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바닥을 왼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넘긴다.

논(論) 명

삼장(三藏)의 하나. 불법(佛法)을 논한 책으로, 부처님이 스스로 문답한 것과 여러 제자와 보살이 해석하여 논변(論辯)한 것을 모아 만들었다.
[논하다+ 책]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논강(論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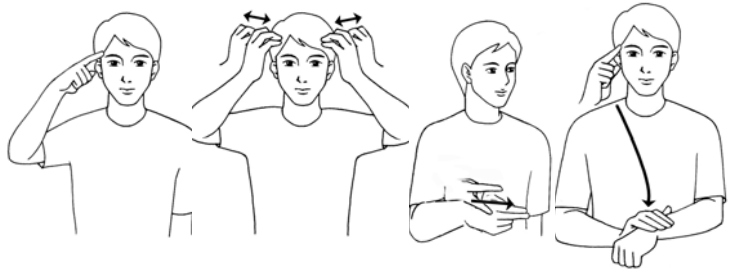
경전을 연구하여 토론함.
=논하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누진명(漏盡明) 명

삼명(三明)의 하나. 현재의 고통을 알아서 일체의 번뇌를 끊는 지혜를 이른다.
[번뇌+ 끊다+ 지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 다음,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리고, 1·2지를 펴서 벌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내밀며 손가락을 붙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권 왼 팔뚝 등에 댔다.

누진통(漏盡通) 명

번뇌를 끊고 다시는 미계(迷界)에 태어나지 않음을 깨닫는 각자(覺者)의 신통력.
[번뇌+ 끊다+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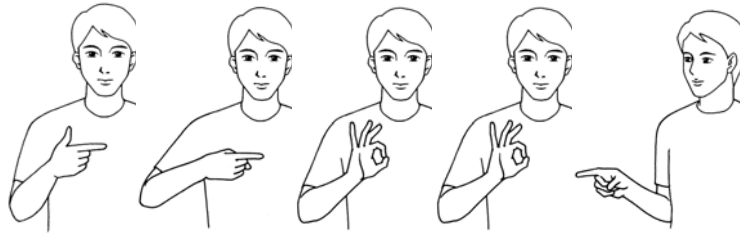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 다음,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리고, 1·2지를 펴서 벌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내밀며 손가락을 붙인 다음, 1·5지를 붙인 오른 손등이 이마를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능엄경(楞嚴經) 명

불경의 하나. 선종의 주요 경전으로, 인연(因緣)과 만유(萬有)를 설명하였다.

[지문자 ‘능엄’+ 경(經)]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5지를 접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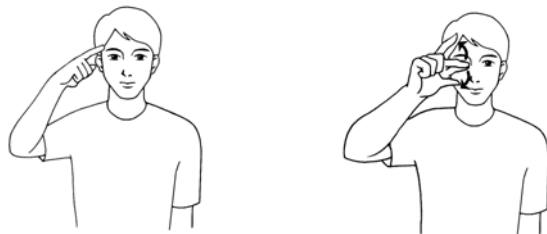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세워 쥔 오른 주먹의 1·2지를 구부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니르바나(nirvāṇa 산) 명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

[생각+ 뜨다²]

=개오. 깨닫다. 대오. 모지. 보리①. 성도. 열반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다.



다라니(陀羅尼)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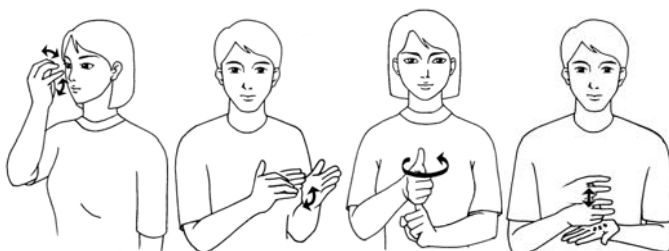
①법문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음(音) 그대로 외는 일. 자체에 무궁한 뜻이 있어 이를 외는 사람은 한없는 기억력을 얻고, 모든 재액에서 벗어나는 등 많은 공덕을 받는 다고 함. ②선법(善法)을 갖추어 악법을 막는다는 뜻 [신비+ 말²]
=다라니주. 진언.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떼는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긁어 들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다라니경(陀羅尼經)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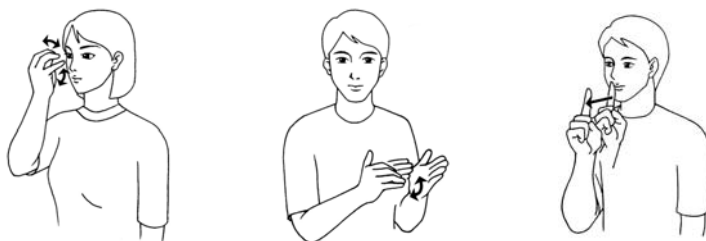
법문으로 된 비밀스러운 주문.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선정(禪定)으로 생겨난 진언(眞言).
[신비+ 경(經)]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떼는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긁어 들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다라니주(陀羅尼呪) ㄷ

법문으로 된 비밀스러운 주문.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선정(禪定)으로 생겨난 진언(眞言)이다.
[신비+ 말²]
=다라니. 진언.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떼는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긁어 들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다문천왕

다문천왕(多聞天王) ㉔

사천왕(四天王)의 하나. 다문천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수미산 중턱 북쪽의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

[북(北)②+ 하늘②+ 왕]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떼는 동작을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다비(荼毘) ㉕

불에 태운다는 뜻. 시체를 화장(火葬)하는 일을 이르는 말. 육신을 원래 이루어진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화장함을 나타내는 동작]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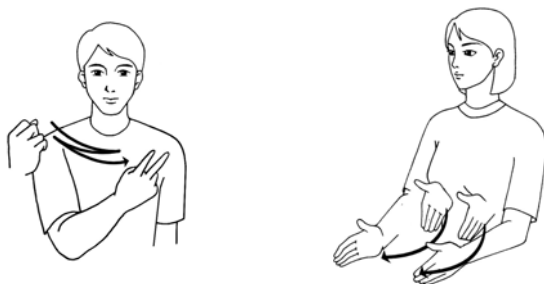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눕히고, 그 안쪽에서 편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움직인다.

다생(多生) ㉖

육도를 윤회하면서 태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

[거듭+ 태어나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 주먹을 왼쪽으로 이동하며 1·2지를 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단결(斷結) ㉗ ㉘

번뇌를 끊어 없앴.

㉗생사번뇌를 단결하다.

[가위로 잘라버리는 동작]

=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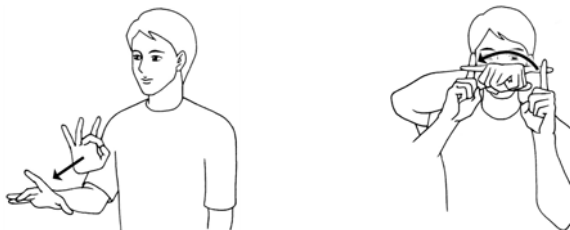
1·2지를 펴서 벌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내밀며 손가락을 붙인다.

단도직입(單刀直入) (명)

생각과 분별과 말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진실의 경계로 바로 들어감.

[①뽀. ②두 눈을 감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무조건.



① 5지와 2지 끝을 맞댔다가 뿔기며 내민다. ②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얼굴 왼쪽에서 '+'자로 맞대어 오른쪽으로 돌려 세운다.

단전(丹田) (명)

배꼽아래 한 치쯤 되는 곳. 보통 좌선할 때 기운을 이곳에 모으면 정신이 어지럽지 않고 또 병을 고치는 데도 효험이 있다. 배꼽아래를 하단전, 양미간을 상단전이라고 한다.

[하단전의 위치를 가리키는 동작]

=차크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배꼽 아래를 가리킨다.

단주(短珠) (명)

54개 이하의 구슬을 꿰어 만든 염주.

[팔찌를 나타내는 동작]

=팔찌.



오른 주먹의 1·5지를 좁게 펴서 끝을 왼 팔목 밖에 좌우로 댔다가 안으로 한 바퀴 돌린다.

달마(達磨) (명)

자연계의 법칙과 인간의 질서를 이르는 말. 인도의 베다에서 법(法)으로 나타낸 말.

[수단(도구)/정하다]

=법. 법규. 법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달마대사

달마대사(達磨大師) 명

달마.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승려. 중국 선종의 시조로, 반야다라에 게 불법을 배워 대승선(大乘禪)을 제창하였다.

[달마대사의 수업을 나타내는 동작 + 크다+ 스님]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을 턱 왼쪽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대각견성(大覺見性) 명

마음속에 품은 불성(佛性)을 찾아내서 크게 깨달음.

[최고+ 깨닫다]

=구경각. 구경열반. 무상정각. 무상정등각. 삼막삼보리.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대반열반경(大盤涅槃經) 명

석가모니의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찬한 불교경전, 소승과 대승의 두 경전이 있는데, 소승은 석가모니 입멸 전후의 역사적 사실을 주로 기록하였으며, 대승은 석가모니의 입멸 직전에 설한 교의를 담았다. ㉔ 열반경.

[크다(너무)+ 지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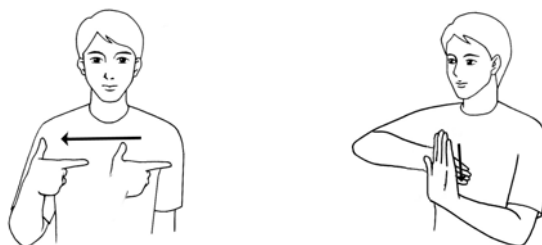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대비(大悲) 명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큰 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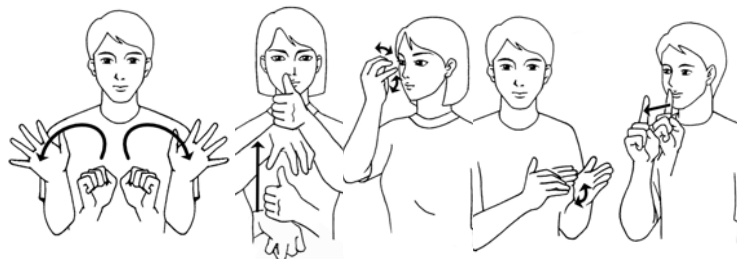
[크다(매우)+ 자비]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등을 쓸어내린다.

대비주(大悲呪)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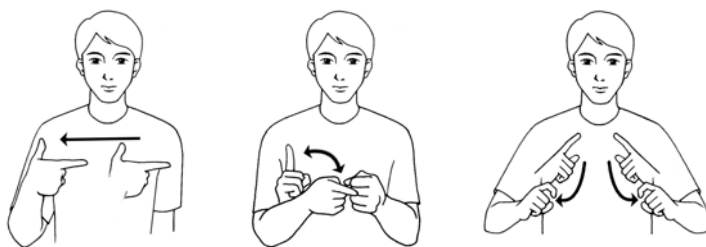
천수관음의 공덕을 찬탄하고 천수관음의 삼매(三昧)를 나타내는 다라니.
[관음+ 다라니]



손등이 가슴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옆으로 반원을 그리며 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고,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떼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긁어 들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대사(大寺) 명

큰 절.
[크다(매우)+ 절¹]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대사(大師) 명

스님을 높여 이르는 말.
[크다(매우)+ 스님]
=대선사.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대선사(大禪師) 명

①선종에서 가장 높은 법계. 선(禪)을 수업하고 비구계, 보살계와 범랍 이십하(二十夏)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줌. ②고려시대의 선종의 법계 가운데 하나. 선종의 법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왕사의 아래, 선사(禪師)의 위이다.
[크다(매우)+ 스님]
=대사(大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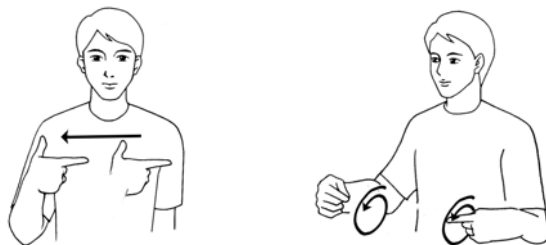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대승

대승(大乘)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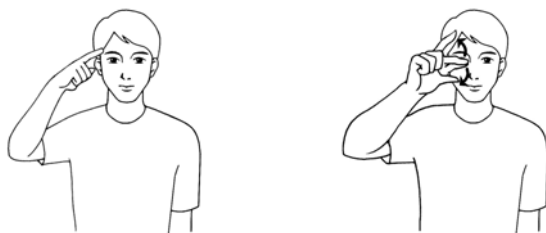
①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 그 교리, 이상, 목적이 모두 크고 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능력도 큰 그릇이라 하여 이렇게 이른다. ②소승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유파로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가 이에 속한다.
[크다(매우)+ 수레]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양쪽 옆구리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두 바퀴 돌린다.

대오(大悟) ㄹ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음.
ㄹ대오각성하다.
[생각+ 뜨다*]
=깨오. 깨닫다. 니르바나. 모지. 보리
①. 성도. 열반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다.

대웅보전(大雄寶殿) ㄹ

부처님을 모셔두는 건물. ㄹ보전.
[부처님+ 궁]
=대웅전.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대웅전(大雄殿) ㄹ

불교 선종 계통의 절에서 본존 불상을 모신 법당.
[부처님+ 궁]
=대웅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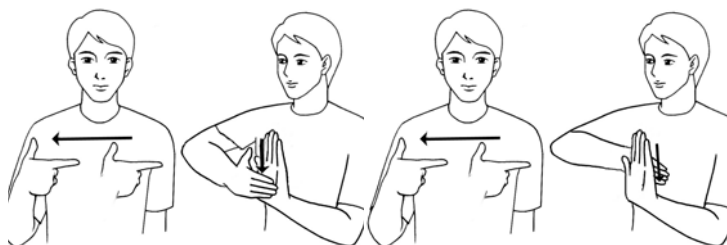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대자대비(大慈大悲) ㉔

넓고 커서 끝이 없는 부처님과 보살의 자비, 특히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 ㉔ 대비. 대자비.

[크다(매우)+ 자비+ 크다(매우)+ 자비]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바닥을 쓸어내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등을 쓸어내린다.

대장경(大藏經) ㉕

불경을 집대성한 경전. 석가모니의 설교를 기록한 경장. 모든 계율을 모은 율장, 불제자들의 논설을 모은 논장을 모두 망라하였다.

[부처+ 법+ 책]

=장경.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대중(大衆) ㉖

많이 모인 스님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모두+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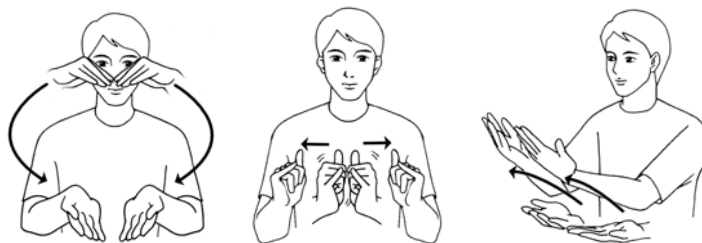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대중공양(大衆供養) ㉗

신자(信者)가 여러 스님에게 대접하는 일.

[대중+ 공양]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리고,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대행

대행(大行) (명)

큰 덕행.

[크다(매우)+ 덕행]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4지 끝을 왼 손바닥에 대고 세워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덕(德) (명)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 덕이 높다.

[사람/준중]

=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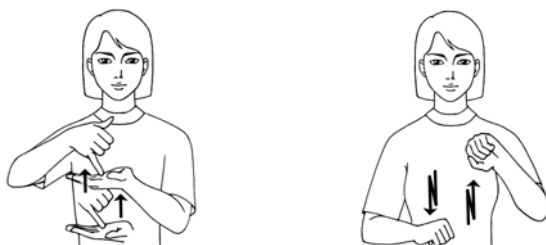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4지 끝을 왼 손바닥에 대고 세워 약간 위로 올린다.

덕행(德行) (명)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

[덕+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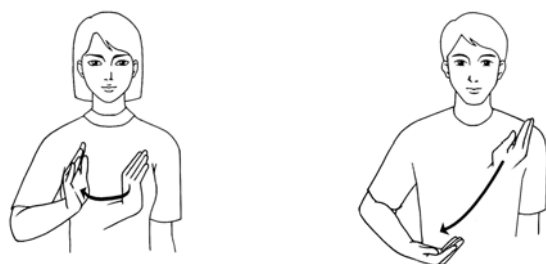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4지 끝을 왼 손바닥에 대고 세워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데바닷타(Devadatta) (명)

석가모니의 사촌동생. 출가하여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가 뒤에 이반(離反)하여 불교 교단에 대항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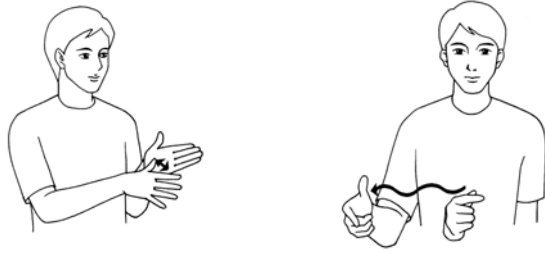
[배반+ 제자]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5지 옆면을 왼쪽 가슴에 댔다가 오른쪽 가슴에 댔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도구(道具)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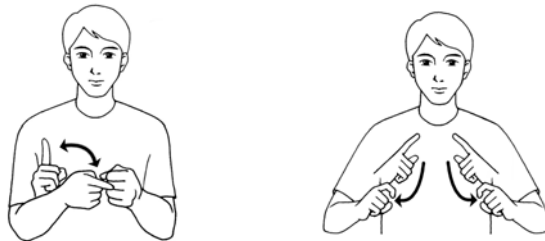
불교를 닦을 때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불상, 바리때 따위가 있다.
[물건+여러 가지]
=연장.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도량(道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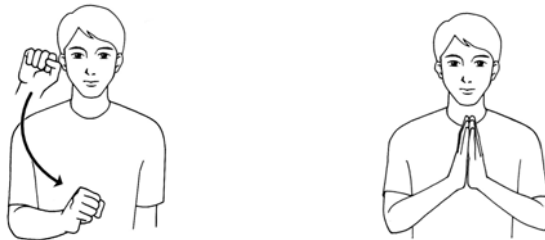
부처님이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뀌어, 불도를 수행하는 절이나 스님들이 모인 곳을 이르는 것도 한다.
[목탁+궁]
=가람. 불도량. 사문². 사찰. 승방. 절.



가볍게 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도량석(道場釋)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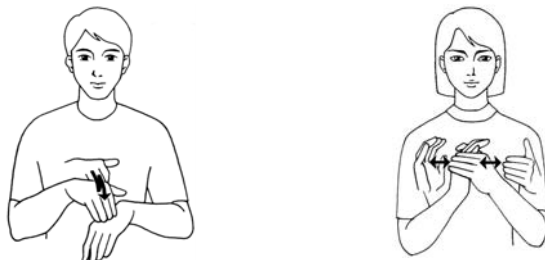
사찰에서 새벽에 치르는 의식의 하나.
[새벽+합장]



오른 주먹을 머리 오른쪽에 댔다가 약간 곡선을 그리며 내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도반(道伴) (명)

함께 도를 닦는 벗.
[단련+친구]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을 두 번 맞잡는다.

도사

도사(道師) [명]

①어리석은 중생에게 바른길을 가르쳐서 깨닫는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②법회 때 그 모임의 주장이 되는 직명.

[크다(매우)+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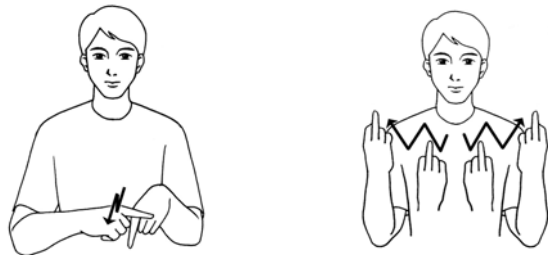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

도산(刀山) [명]

칼 산.

[칼+ 산맥]

=검산.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린 다음, 두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동시에 약간씩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양옆으로 벌린다.

도성제(道聖諦) [명]

사제(四諦)의 하나. 번뇌와 업을 끊고 열반에 도달하는 길에 이른다. ㉔ 도제(道諦).

[길+ 거룩하다+ 진리]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린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끝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도솔궁(兜率宮) [명]

도솔천에 있는 궁전.

[미륵+ 부처+ 궁]



왼손의 2·5지 끝을 붙여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왼 손바닥 아래에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도솔천(兜率天) 명

육육천의 넷째 하늘. 수미산의 꼭대기에서 12만 유순(由旬) 되는 곳에 있는 미륵보살이 사는 곳으로, 내외(内外)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보살의 정토이며, 외원은 천계 대중이 환락하는 장소라고 한다.
[미륵+ 부처+ 하늘②]



왼손의 25지 끝을 붙여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왼 손바닥 아래에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킨다.

도제(度濟) 명

미혹한 세계에서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중생을 건져내어 생사 없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
[붙잡아 끌어올리는 동작]
=건지다. 구원. 구출. 구하다. 제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다.

도제(道諦) 명

사제(四諦)의 하나. 번뇌와 업을 끊고 열반에 도달하는 길에 이른다.
[길+ 진리]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밀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독각(獨覺) 명 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음. 또는 그런 사람.
[스스로+ 깨닫다]
=연각. 자각.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멍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우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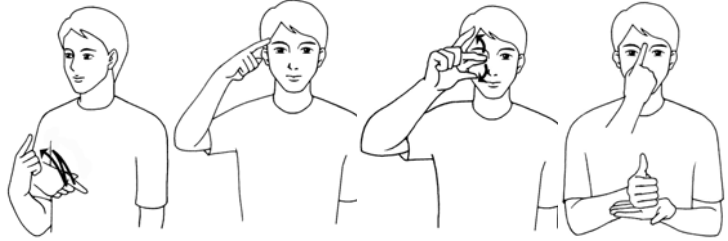
독각승

독각승(獨覺乘) 명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교법을 이른다.

[독각+스님]

=연각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 안으로 향하게 세우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독경(讀經) 명 하자

불경을 소리 내어 읽거나 읽.

[경+읽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으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두 번 오르내린다.

돈오(頓悟) 명 하타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얕고 깊은 차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바로 대승의 깊고 묘한 교리를 듣고 단번에 깨달음.

[금세+깨닫다]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마주 보게 하였다가 1·5지를 펴면서 약간 접근시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다.

통념 명 하타

스님이 시주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곡식.

[구걸하는 동작]

=구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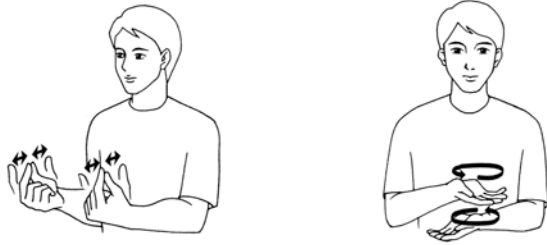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굽힌 두 손을 포개어 밖으로 타원형으로 두 바퀴 돌린다.

동사(同事) ㄷㅇ

보살이 중생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인도함.

[같다+ 교류]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상하로 놓고 엇갈리게 돌린다.

동사섭(同事攝) ㄷㅇ

사섭법의 하나.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의 근기(根機)에 따라 몸을 나타
내어 사업, 고락, 화복 따위를 함께
하여 그들을 진리에 이끌어 드리는
방법을 이른다.

[동사+ 이끌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상하로 놓고 엇갈리게 돌리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밖으로 당긴다.

동승(童僧) ㄷㅇ

나이가 어린 스님, 동자작발을 한 스
님을 이른다.

[꼬마+ 스님]

=동자. 동자승.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끝에 오른 손바닥을 두 번 내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동안거(冬安居) ㄷㅇ

스님들이 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
해 1월 15일까지 일정한 곳에 머물며
수도하는 일.

[겨울(춥다)+ 갇히다+ 참선]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떼는 동작을 한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손으로 내리 덮으며 동시에 약간 내리고,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동자

동자(童子) [명]

①스님이 되려고 절에서 공부하면서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사내아이. ②보살을 달리 이르는 말, 여래의 왕자이고 또 음욕이 없는 아이와 같다하여 이렇게 이른다. ③절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법회 때에 화관을 쓰고 참례하거나 번(幡)을 들기도 한다.

[꼬마+스님]

=동승. 동자승.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끝에 오른 손바닥을 두 번 내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동자승(童子僧) [명]

나이가 어린 스님. 동자삭발을 한 스님을 이른다.

[꼬마+스님]

=동승. 동자.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끝에 오른 손바닥을 두 번 내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동참(同參) [명] [하자]

스님과 신도가 한 법회에서 같이 불도를 닦는 일.

[들어가는 동작]

=가담. 들어가다. 참가. 참석. 참여. 출석.

↔들어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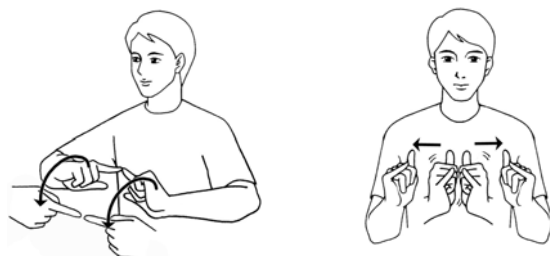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반원을 그리며 밖으로 내민다.

동참재자(同參齋者) [명]

한 법회에 함께 참여하여 정업(淨業)을 닦는 사람.

[동참+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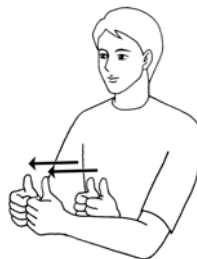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반원을 그리며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동행(同行) 명

①불교의 수행이 같음. ②같은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 또는 같이 불도를 닦는 사람.

[함께 나가는 동작]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밖으로 동시에 내민다.

두타(頭陀) 명

①번뇌의 티끌을 떨어 없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으며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일. ②산과 들로 다니면서 온갖 피로움을 무릅쓰고 불도를 닦는 일. 또는 그런 스님.

[고생+ 단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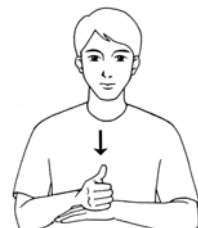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끝으로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득과(得果) 명

불도를 닦아 그 과보를 얻는 일. 깨달음에 이르거나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이른다.

[깨닫다+ 결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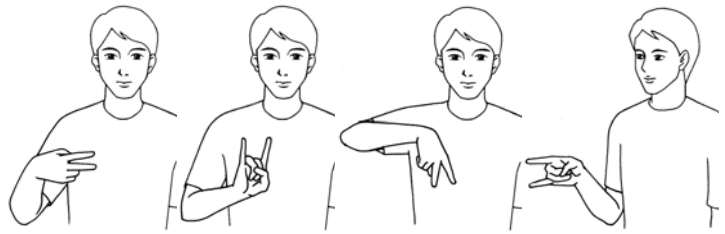
득대세(得大勢) 명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 지혜문을 대표하여 중생을 삼악도에서 건지는 무상한 힘이 있다. 정수리에 보병을 이고 천관을 썼으며, 왼손은 연꽃을 들고 있다.

[지문자 '득대세']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2지를 잡고,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1·2지를 접고 1·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1·4지를 접고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1·2지를 접고 1·4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득도(得度) 명 하자

재가의 사람이 출가하여 스님이 됨.
☞ 득도의 길을 걷는 구도자.
[스님+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우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득도(得道) 명 하자

오묘한 이치나 도를 깨달음.
☞ 아직 한 사람도 설산에서 부지런히 도를 닦아 득도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깨닫다+되다]
=득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득오(得悟) 명 하자

미혹의 세계를 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룸.
[깨닫다+되다]
=득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등산(登山) ㄷ

스님이 수도를 위하여 산에 들어가 머무름.

[산/걸어 오르는 동작]

=등산. 오르다.

↔내려가다. 하산.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으로 왼손의 손목에서부터 2지 끝까지 번갈아 움직이며 올린다.

등신불(等身佛) ㄷ

사람의 크기와 같게 만든 불상.

[몸+ 베끼다+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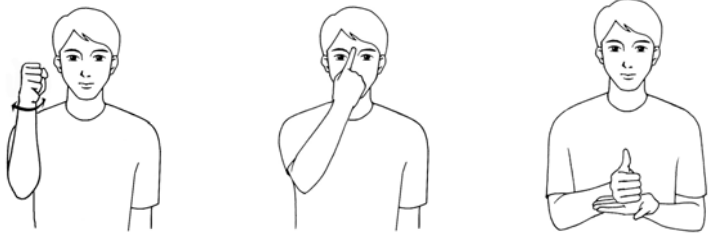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ㄹ

라마(lama) (명)

라마교의 고승.
[티벳+ 스님]
=라마승.



오른 주먹을 오른쪽 어깨 앞에서 좌우로 빠르게 2회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라마교(lama敎)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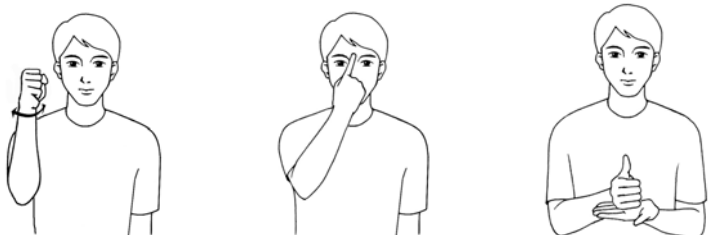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해진 대승불교가 티베트의 고유 신앙과 동화하여 발달한 종교.
[티벳+ 불교]



오른 주먹을 오른쪽 어깨 앞에서 좌우로 빠르게 2회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다.

라마승(lama僧) (명)

라마교를 신봉하는 스님.
[티벳+ 스님]
=라마.



오른 주먹을 오른쪽 어깨 앞에서 좌우로 빠르게 2회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라훌라(Rāhula) 명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석가모니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권유로 출가하여 계율을 엄격히 지켜 밀행의 일인자로 불리웠다. 후에 사미의 시조가 되었다.

[부처+ 아들+ 제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려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룸비니(Lumbini) 명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으로 중인도 카필라바스투의 성 동쪽에 있던 꽃동산. 지금의 인도와 국경을 이루는 네 팔 남부 타라이 지방에 해당.

[부처님+ 태어나다+ 동산]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 다음,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바닥을 왼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넘긴다.



마도(魔道) [명]

악마의 세계.
[악마+ 세계]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민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마애불(磨崖佛) [명]

자연암벽에 부조(浮彫)또는 음각으로 조각한 불상. 인도에서 발생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전하여졌다.
[절벽+ 조각+ 부처님]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거꾸로 세운 오른손의 손바닥으로 스쳐 내린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약간 위로 스쳐 올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마야부인(摩耶夫人) [명]

석가모니의 어머니.
[부처님+ 어머니]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다.

마하(摩訶) ㉔

‘위대함’, ‘뛰어남’, ‘많음’을 나타내는 말.

[점점 늘어남을 나타내는 동작]
=꽤. 너무. 대단하다. 매우. 몹시. 무척. 아주. 펍.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㉕

인도의 스님 쿠바라지마가 홍시(弘始)6년에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제2분을 따로 번역한 경전. 모든 법이 다 같다는 이치를 밝힌 것으로 ‘대품반야경’이라고도 한다. 27권.

[마하+ 반야+ 경]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만(卍) ㉖

인도에서 전하여 오는 길상의 징표. 불보살의 가슴, 손, 발 따위에 나타나는, 공덕이 원만함을 나타내는 상(相)으로 불교나 절의 표지로 쓰인다.

[‘卍’자를 나타내는 동작]



왼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 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의 1지를 ‘+’자 모양이 되게 맞댄다.

만다라(曼陀羅·曼荼羅) ㉗

부처님이 증험(證驗)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갖춘 것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른다.

[경+ 그리다²]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만법

만법(萬法) 명

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사물.
[모두+ 법]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만행(萬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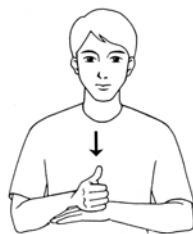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닦는
온갖 수행.
[돌아다니다+ 단련]
=행각.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말법(末法) 명

삼시법의 하나. 정법시, 상법시 다음
에 오는 시기로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 만년 후에 온다. 이시기에는 교법
만 있고 수행, 증파가 없다.
[마지막+ 법]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말사(末寺)

본사(本寺)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또는 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
[계통+ 궁]



5지를 펴서 모로 세운 왼 주먹 밑에 오른 주먹의 손목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며 손가락을 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망상(妄想) ㄹ

이치에 맞지 아니한 그릇된 생각을 함. 또는 그 생각.

[생각/뒤틀림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손의 손가락을 모아 쥐고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손목을 돌린다.

망어(妄語) ㄹ

십악중의 하나. 진실하지 못한 허망한 말을 하는 일을 이른다.

[거짓+ 말^ㄹ]

=거짓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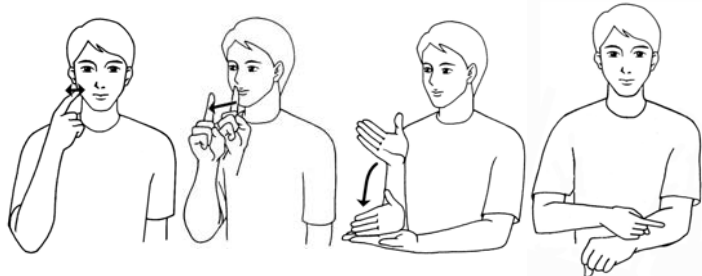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볼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망어계(妄語戒) ㄹ

오계중의 하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율.

[망어+ 말다^ㄹ+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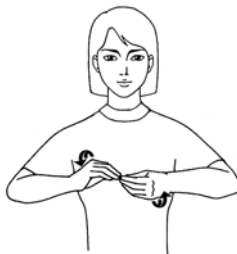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볼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손가락 끝을 왼팔에 댄다.

망업(妄業) ㄹ

번뇌의 원인이 되는 모든 그릇된 행위.

[뒤틀림을 나타내는 동작+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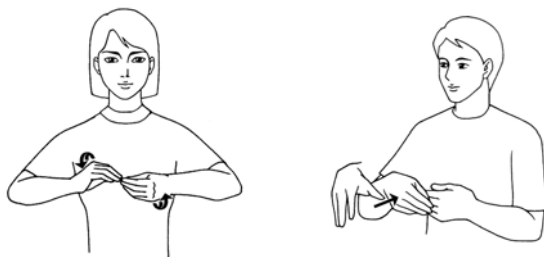


손가락을 모아 쥔 두 손을 마주 대면서 엇갈리게 돌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망염(妄染) ㉔

거짓되고 망령되어 믿음이 적거나
번뇌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일.

[뒤틀림을 나타내는 동작+ 배어들
다(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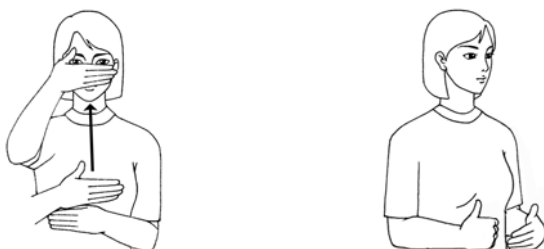


손가락을 모아 쥔 두 손을 마주 대면서 엇갈리게 돌리고,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오른손의 5지 등을 대며 그 바닥에 1·2·3·4지를 댄다.

면벽(面壁) ㉕

벽을 마주 대하고 좌선함. 또는 그런
일.

[벽+ 벽을 마주대고 있음을 나타내
는 동작]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편 왼손 위에 같은 모양의 오른손을 댔다가 위로
올린 다음, 왼손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바닥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한다.

면벽참선(面壁參禪) ㉖

벽을 마주 대하고 앉아 참선 수행을
함. 또는 그런 일.

[면벽+ 참선]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편 왼손 위에 같은 모양의 오른손을 댔다가 위로
올린 다음, 왼손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바닥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멸과(滅果) ㉗

태어나고 죽는 인과(因果)를 없애고
열반에 드는 일.

[없다/없다 <사그라지듯 없어짐을
나타내는 것(용암(溶暗))>]

=사라지다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편다.

멸성제(滅聖諦) 명

사제(四諦)의 하나.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경지를 이상이라고 풀이하는 진리를 이른다. ㉔ 멸제(滅諦).

[사라지다①+ 거룩하다+ 진리]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편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멸제(滅諦) 명

사제(四諦)의 하나.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경지를 이상이라고 풀이하는 진리를 이른다.

[사라지다①+ 진리]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편 다음,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대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명부전(冥府殿) 명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염라대왕과 시왕(十王)을 모신 법당.

[지장보살+ 궁]



두 주먹의 1·2·5지를 펴서 1·2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은 왼쪽으로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동시에 한 바퀴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명상(冥想·瞑想) 명 [하자]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 명상에 잠기다.

[조용하다+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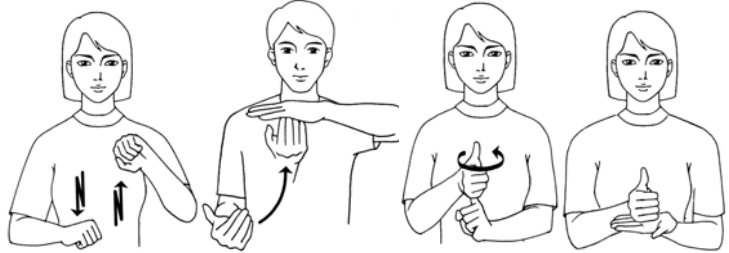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아래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

명행족

명행족(明行足) 명

여래십호(如來十號)의 하나. 삼명(三
明)의 신통한 지혜와 육도만행(六度
萬行)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부처님
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행동+ 최고+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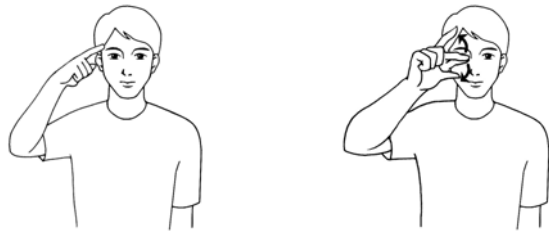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오른손의
손끝을,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모지(←bodhi 산) 명

보디(bodhi)는 ‘깨달음’의 뜻.

[생각+ 뜨다]

=개오. 깨닫다. 니르바나. 대오 보리①.
성도. 열반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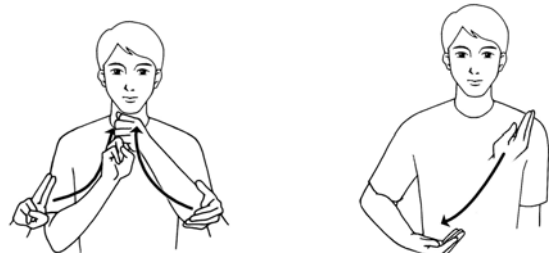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목견련(目鍵連) 명

마우드갈리아야나(Maudgalyayana).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사람.
마가다의 브라만 출신으로, 부처님의
교화를 펼치고 신통(神通) 제일의 성예
(聲譽)를 얻었다.

[발생한 일이 알 수 없는(숨겨진)
일임을 나타내는 동작+ 제자]

=목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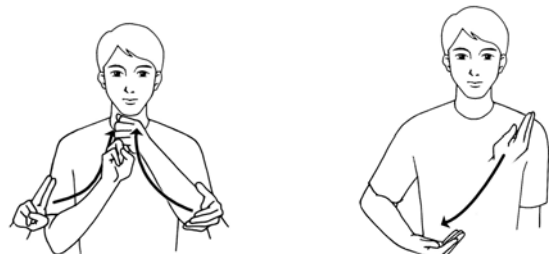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워 위로 올리며 동시에
올린 왼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목련(目連) 명

마우드갈리아야나(Maudgalyayana).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사람.
마가다의 브라만 출신으로, 부처님의
교화를 펼치고 신통(神通) 제일의 성예
(聲譽)를 얻었다.

[발생한 일이 알 수 없는(숨겨진)
일임을 나타내는 동작+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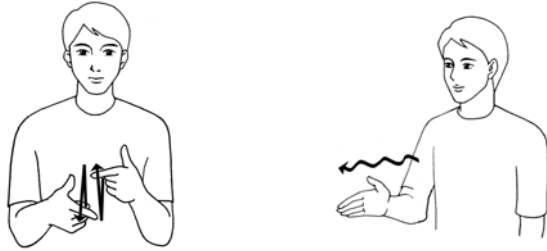
=목건련.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워 위로 올리며 동시에
올린 왼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목어(木魚)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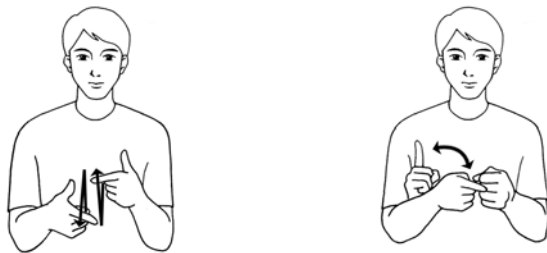
나무를 잉어 모양으로 만들어 매달아 불사(佛事)를 할 때에 두드리는 기구.
[나무+ 물고기]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밖으로 내민다.

목탁(木鐸) 명

불공을 할 때나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두드려 소리를 내는 기구. 나무를 둥글게 깎아 속을 파서 방울처럼 만들고 고리 모양의 손잡이를 땀다.
[나무+ 목탁]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가볍게 켜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다.

몽상(夢想)

꿈과 같은 그릇된 생각.
[코로 기(氣)가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혼이 나가는 것(離魂)>]
=꿈. 부풀다².



약간 구부린 오른손의 손끝을 턱 왼쪽에 댔다가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올린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명

법화삼부경의 하나. 가야성에서 도를 이룬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으로,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경전. 쿠마라지바가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8권 28품.
[연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경]
=법화경.



약간 구부린 왼손과 오른 주먹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돌려 두 손의 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묘연문

묘연문(募緣文) ㉔

스님이 시주에게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게 하여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글.

[후원+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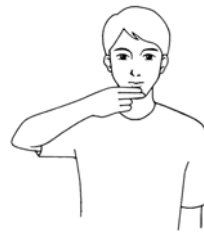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 어깨 너머를 가리킨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무(無) ㉕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본성이 없음.

[0점을 나타내는 동작]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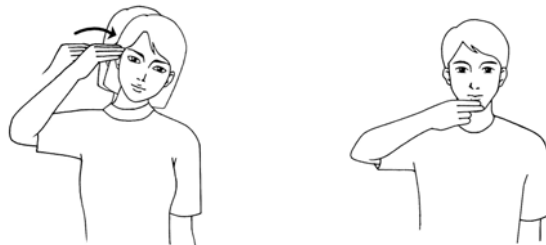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댄다.

무가애(無加碍) 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음.

[방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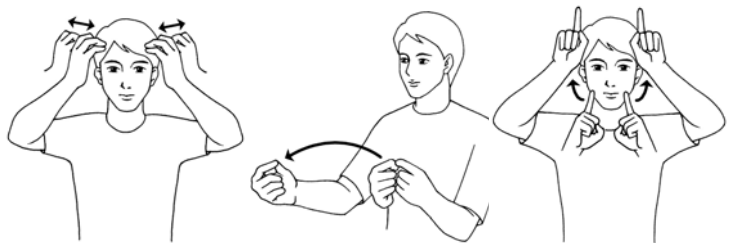


오른 손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민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댄다.

무간지옥(無間地獄) ㉗

팔열 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오역죄를 짓거나, 절이나 탑을 헐거나, 시주한 재물을 축내거나 한 사람이 가는 데, 한 겹(劫)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옥이다.

[고난+ 영원+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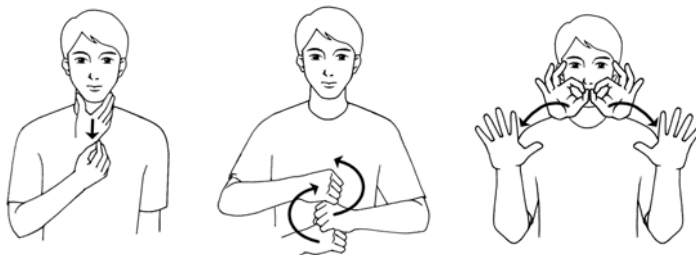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댔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톡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무공덕(無功德) ㉔

선종에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여 자신을 내세우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선행을 하더라도 참다운 공덕이 없음을 이르는 말.

[공덕+없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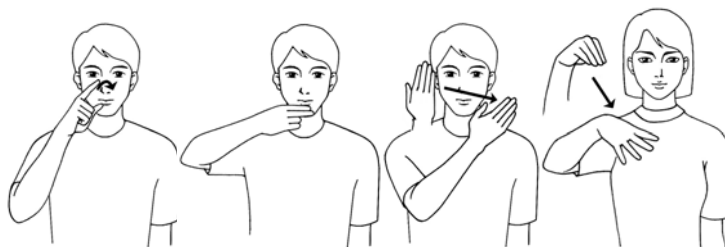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입 앞에서 마주 댔다가 양 옆으로 벌리며 붙였던 손을 활짝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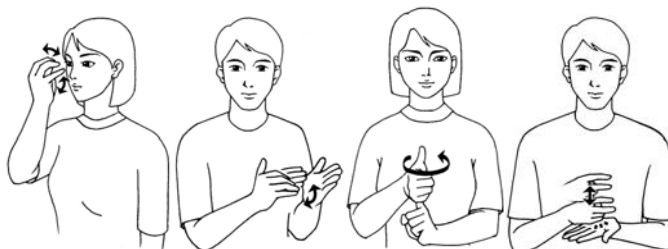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 ㉕

1966년 10월에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다라니경.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불국사를 중창하면서 석가탑을 세울 때 봉안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국보 제126호.

[더럽다+없다+맑다+빛+다라니경]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콧등을 감싸며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턱에 대고,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모아 쥔 오른손을 머리 오른쪽에서 가슴 앞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펴고,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떼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긁어 들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무기(無記) ㉖

석가모니가 다른 종교가로부터 받은 질문에 가부(可否)를 답하지 않고 침묵하였음을 이르는 말.

[입을 닫는 동작]

=침묵.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입에 댄다.

무념

무념(無念) ㄹ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른 상태.

[생각+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

=생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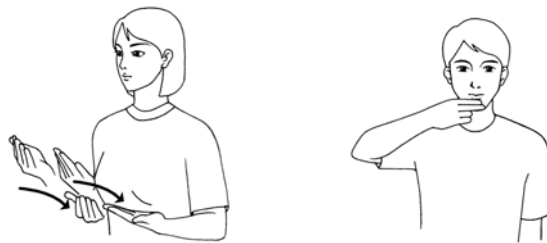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를 두 번 스쳐 올린다.

무득(無得) ㄹ

자기 성품이 청허(淸虛)하여 실로 하나의 법도 얻을 것도 얻는 것도 없음.

[받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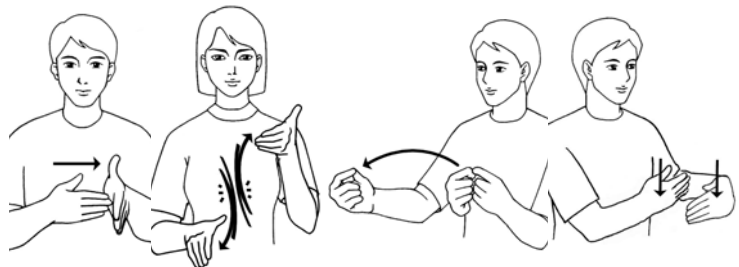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댄다.

무량겁(無量劫) ㄹ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또는 끝이 없는 시간.

[끝+ 없다+ 겹]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 다음,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쳐내고,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댔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민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밖에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을 약간 내린다.

무량광(無量光) ㄹ

십이광의 하나로, 그 이익이 한량이 없어 삼세(三世)에 두루 미치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끝+ 없다+ 빛]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쳐낸 다음, 손가락을 모아 쥔 오른손을 머리 오른쪽에서 가슴 앞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편다.

무량수(無量壽) 명

아미타불 및 그 땅의 백성의 수명이
한량이 없는 일.
[끝+ 없다+ 생명]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쳐낸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다.

무명(無明) 명

십이 연기의 하나.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른다.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된다.
[생각이 떨어지는 동작]
=미련. 어리석다.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을 양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내리며 손등이 위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무상(無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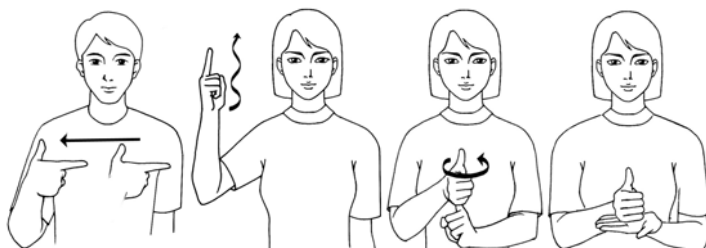
①모든 사물은 공(空)이어서 일정한
형상이 없음. ②차별과 대립을 초월
하여 무한하고 절대적인 상태. ③모
든 집착을 떠난 경지.
[모양+ 없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댄다.

무상사(無上士) 명

여래 십호(如來十號)의 하나. 부처는
정을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위가 없는 대사라는 뜻으로 부처
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너무+ 높다+ 부처님]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목을 좌우로 흔들며 위로 올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무상정각

무상정각(無上正覺) 명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처님의 깨달음.

[최고+ 깨닫다]

=구경각. 구경열반. 대각견성. 무상정등각. 삼막삼보리.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한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뗀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명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처님의 깨달음.

[최고+ 깨닫다]

=구경각. 구경열반. 대각견성. 무상정각. 삼막삼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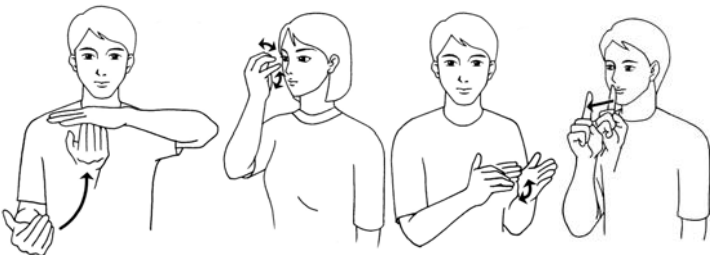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한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뗀다.

무상주(無上呪)

더 높을 것이 없는 주문.

[최고+ 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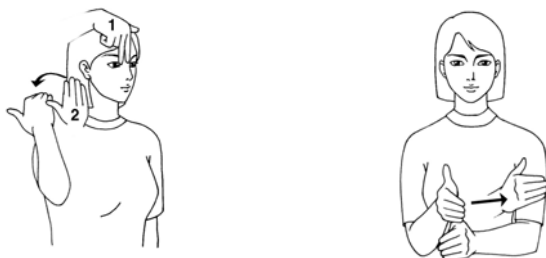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한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뗀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긁어 들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무시이래(無始以來) 명

아주 먼 과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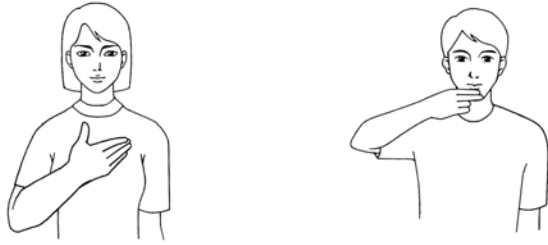
[옛날+ 부터]



오른 주먹의 1·2·5지를 벌려 펴서 1·2지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손을 펴서 오른쪽 어깨 뒤로 넘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동한다.

무아(無我)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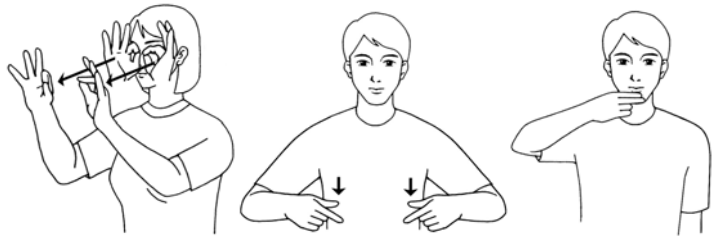
일체의 존재는 모두 무상하며 고(苦)이므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인무아와 범무아 둘로 나뉜다.
[나+ 없다]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댄다.

무안계(無眼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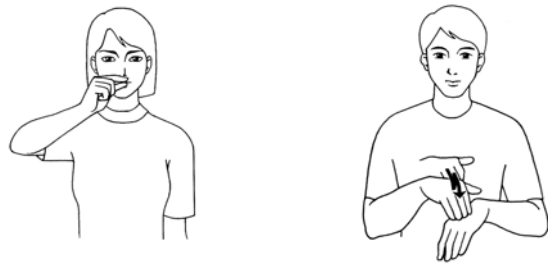
눈의 경계가 없음.
[보다+ 구역+ 없다]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 다음, 1·5지를 편 두 주먹을 마주 보게 모로 세워 내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댄다.

무언행(無言行) 명

말없이 계(戒)를 수행하는 일.
[침묵+ 단련]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입에 댄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무여(無餘) 명

나머지가 없음.
=완전.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는다.

무여열반

무여열반(無餘涅槃) 명

모든 번뇌를 끊고 분별(分別)의 지혜를 떠나 몸까지 없애고 적정(寂靜)에 돌아간 경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열반을 이른다.

[무여+ 깨닫다]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무외시(無畏施) 명

삼시(三施)의 하나. 중생의 온갖 두려움을 없애 주는 일을 이른다.

[두렵다+ 없다+ 베풀다]



두 손의 5지 끝을 몸 중앙의 위와 아래에 대고 손가락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대고,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러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무우수(無憂樹) 명

보리수를 달리 이르는 말. 마야 부인이 보리수 아래에서 싯다르타 태자를 안산하여 근심할 것이 없었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깨닫다+ 나무]

=보리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다.

무위법(無爲法) 명

오위(五位)의 하나.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생멸(生滅)의 변화를 떠나 상주 불변하는 참된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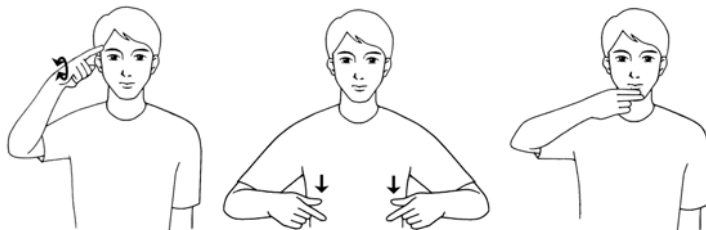
[참+ 법]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톡 중앙에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무의식계(無意識界)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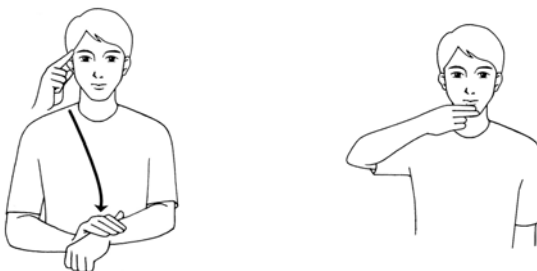
의식의 경계가 없음.
[생각+ 구역+ 없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 다음, 1·5지를 편 두 주먹을 마주 보게 모로 세워 내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댄다.

무지(無智) ㉕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보아도 소득
이 없는 지혜.
[지혜+ 없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권 왼 팔목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댄다.

무진장(無盡藏)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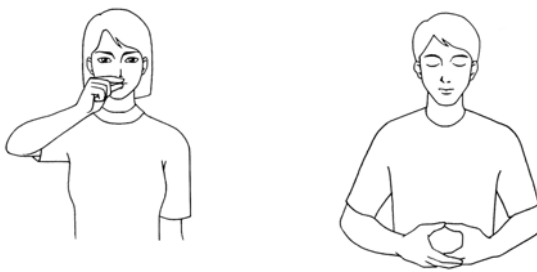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
=무궁무진.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위로 올리며 돌려 왼 손바닥에 내려 모로 세운다.

묵조선(默照禪) ㉗

망상과 잡념을 없애고 고요히 앉아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선.
[침묵+ 참선]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입에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문수보살

문수보살(文殊菩薩) 명

석가모니여래의 왼쪽에 있는 보살. 사보살의 하나이다. 제불(諸佛)의 지혜를 맡은 보살로,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과 함께 삼존불(三尊佛)을 이룬다.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나 보통 사자를 타고 오른손에 지검(智劍),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문화+보살】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ㄷ'자 모양을 만들어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왼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뺀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미래(未來) 명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세상.
卽 미래를 설계하다.

【‘앞으로’를 나타내는 동작】

=내세(來世). 미래. 앞날. 장래. 장차.
↔과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다.

미륵보살(彌勒菩薩) 명

내세에 성불하여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보살. 사보살(四菩薩)의 하나이다. 인도 파라나국의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기(受記)를 받은 후 도솔천에 올라갔다.

【미륵+보살】



왼손을 25지 끝을 붙여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 손바닥 아래에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미륵불(彌勒佛) 명

내세에 성불하여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보살. 사보살(四菩薩)의 하나이다. 인도 파라나국의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기(受記)를 받은 후 도솔천에 올라갔다.

【미륵+부처님】



왼손을 25지 끝을 붙여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 손바닥 아래에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밀교(密敎) 명

①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전, 주문, 진언 따위를 이르는 말. ②7세기 후반 인도에서 성립한 대승 불교의 한 파.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의하여 일어났다.

[비밀+ 종교]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끝으로 두 번 굽어 들인 다음, 왼손의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ㄷ' 모양이 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 1·2지를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뺐다.

밀인(密印) 명

부처님이나 보살이 갖가지 본원(本願)을 나타내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짓는 여러 가지 모양.

[손+ 모양]

=수인(手印).



오른 손바닥을 왼 손등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B

바라(para 산)

산스크리트어로 ‘파라(para)’는 ‘저 언덕, 피안’을 뜻함.

[깨닫다+ 도착]

=피안(彼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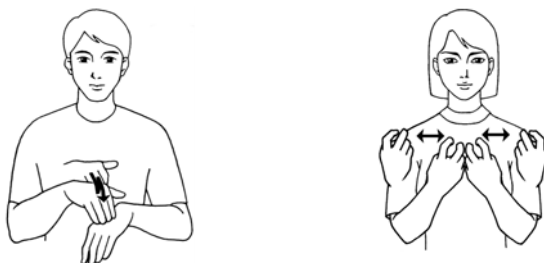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을 오른쪽에서부터 왼 손바닥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천천히 크게 한다.

바라밀(波羅蜜) ㉞

피안, 곧 이상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보살 수행의 총칭.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지인 피안으로 건넌다는 뜻으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을 이르는 말.

[수행+ 방법]

=바라밀다(波羅蜜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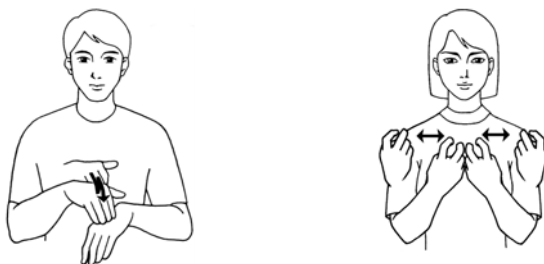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바라밀다(波羅蜜多) ㉞

피안, 곧 이상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보살 수행의 총칭.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지인 피안으로 건넌다는 뜻으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을 이르는 말. ㉞ 바라밀.

[수행+ 방법]

=바라밀.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바라이(波羅夷) 명

계율 가운데, 하지 말라고 가장 엄하게 제지(制止)한 것. 비구는 살생·음행·절도·망언(妄言)의 네 가지가 있고, 비구니는 여기에 또 다른 넷을 더하여 여덟 가지가 있다.

[엄하다+ 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손끝 바닥이 치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손가락 끝을 왼팔에 댄다.

바라지 명

죽은 사람을 위하여 시식(施食)할 때, 법사(法師)가 경문(經文)을 읽으면 그 다음의 송구(頌句)를 받아 읽거나 시식을 거들어 주는 사람.

[돕다+ 사람]

=조수.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바라춤 명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도를 닦는 장소를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추는 불교 의식 무용. 양손에 바라를 쥐고 배꼽을 중심으로 하여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좌우로 돌리고, 빠른 동작으로 전진, 후퇴, 회전하며 추는 춤으로 천수바라, 명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육계바라, 막바라, 내림계바라가 있다.

[쇄+ 바라잡고 치는 동작+ 춤]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을 살짝 문 다음,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두 번 서로 어긋나게 비켜 오르 내리고, 왼 주먹을 왼쪽 어깨 앞에 놓이게 하고 오른 주먹을 오른쪽 어깨 위에 놓이게 하여 두 손목을 좌우로 돌린다.

바루 명

절에서 쓰는 중의 공양 그릇. 나무나 놋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먹다+ 그릇]

=바리. 발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가슴 앞에서 4지 옆면이 닿게 맞닿다가 좌우로 벌리면서 위로 올리다가 좁히면서 위로 올린다.

바리

바리 (명)

절에서 쓰는 중의 공양 그릇. 나무나
돛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 먹다+ 그릇 】

=바루. 발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가슴 앞에서 4지 옆면이 닿게 맞닿다가 좌우로 벌리면서
위로 올리다가 좁히면서 위로 올린다.

반가(半跏) (명)

부처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 한쪽 다리를 구부
려 다른 쪽 다리의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는 자세이다.

【 절반①+ 가부좌 】

=반가부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구부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오른 주먹의 1지 위에 왼 주먹의 1지를 'X'자
모양이 되게 엮는다.

반가부좌(半跏趺坐) (명)

부처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 한쪽 다리를 구부
려 다른 쪽 다리의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는 자세이다.

【 절반①+ 가부좌 】

=반가.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구부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오른 주먹의 1지 위에 왼 주먹의 1지를 'X'자
모양이 되게 엮는다.

반배(半拜) (명)

합장 자세에서 공손히 머리를 숙이는
자세.

【 합장/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동
작 】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대며 고개를 숙인다.

반야(般若) 명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

[생각+ 씩 잘하다]

=슬기. 지혜. 지혜롭다. 현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댄다.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명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완전한 지혜를 성취함.

[지혜+ 바라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대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발고여락(拔苦與樂) 명

자비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

[고난+ 사라지다+ 즐겁다+ 주다]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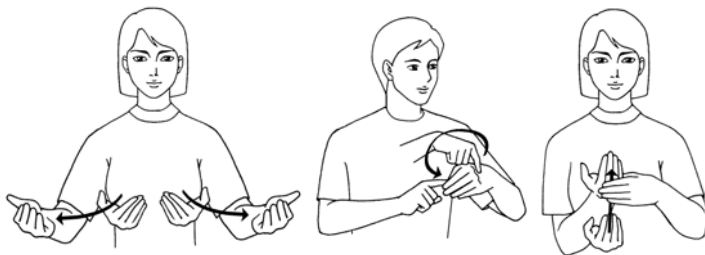


두 손을 약간 구부려 손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민다.

발보리심

발보리심(發菩提心)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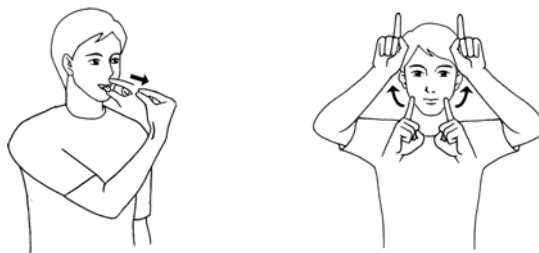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일.
[베풀다+ 마음+ 나오다²]
=발심. 발심보리.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다.

발설지옥(拔舌地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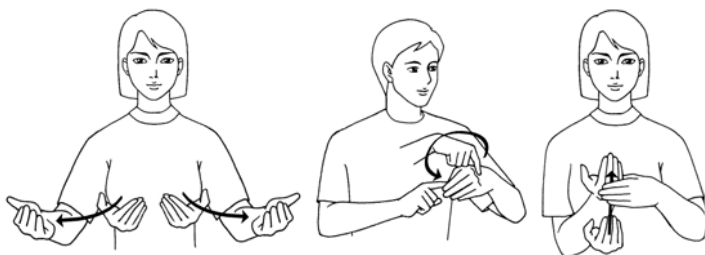
말로써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지옥. 보습으로 혀를 가는 고통을 준다.
[혀를 뽑아내는 동작+ 지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밖으로 내민 혀를 뽑는 동작을 한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발심(發心) 명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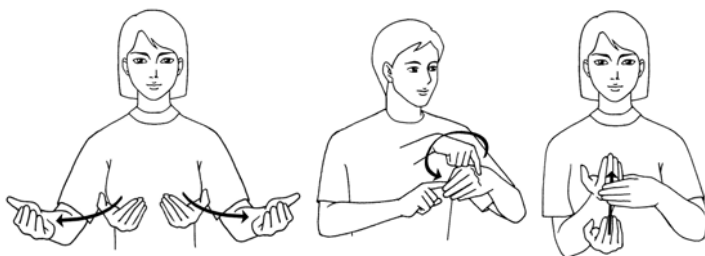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일.
[베풀다+ 마음+ 나오다²]
=발보리심. 발심보리.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다.

발심보리(發心菩提) 명

무상보리를 구하려고 큰마음을 먹는 일. 보살의 수행 과정의 다섯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이다.
[베풀다+ 마음+ 나오다²]
=발보리심. 발심.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다.

발우(鉢盂) ㄹ

사찰에서 스님이 쓰는 밥그릇. 옛날 부처님이 가섭이 모시던 용을 밥그릇에 가둬 항복을 받아낸 일이 있는데, 그 밥그릇에서 유래한다.

[먹다+ 그릇]

=바루. 바리.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가슴 앞에서 4지 옆면이 닿게 맞닿다가 좌우로 벌리면서 위로 올리다가 좁히면서 위로 올린다.

발우공양(鉢盂供養) ㄹ

평상시 스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은 네 가지이다. 제일 큰 그릇은 밥그릇, 두 번째는 국그릇, 세 번째는 청수그릇이며, 가장 작은 그릇은 찬그릇이다.

[발우를 들고 먹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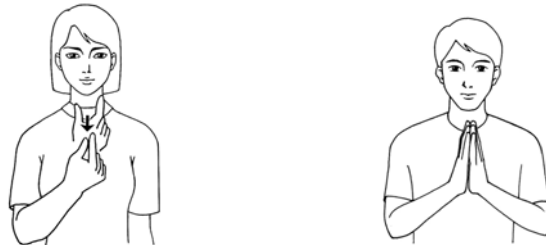
왼손을 둥글게 구부리고 그 약간 위에서 오른 주먹을 입으로 두 번 올린다.

발원(發願) ㄹ ㄱ자타

부처에게 소원을 빌. 또는 그 소원. ㄱ 왕의 발원으로 사찰을 창건하다.

[원하다+ 합장]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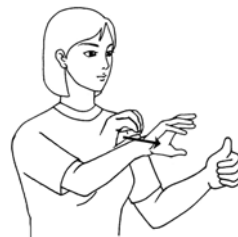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방광(放光) ㄹ

부처님이 광명을 냄.

[뒤에서 빛이 남을 나타내는 동작]

=후광.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쪽에서 손가락을 모아 쥔 오른손을 왼손의 5지 등으로 내밀며 손가락을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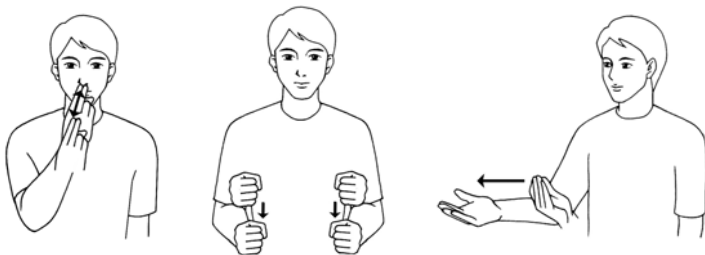
방생

방생(放生) (명) 하타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 물고기를 방생하다.

[생명+ 생존+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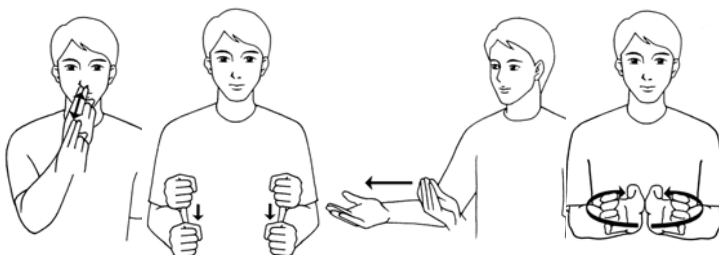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 모로 세워 약간 내리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민다.

방생회(放生會) (명)

사람에게 잡힌 살아있는 물고기와 짐승을 사다가 살려 보내는 의식, 주로 음력 삼월 삼짇날이나 팔월보름에 행한다.

[방생+ 모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 모로 세워 약간 내리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맞댄다.

방장(方丈) (명)

화상(和尙), 국사(國師)등의 고승(高僧)이 거처하는 처소.

[크다(매우)+ 스님+ 방]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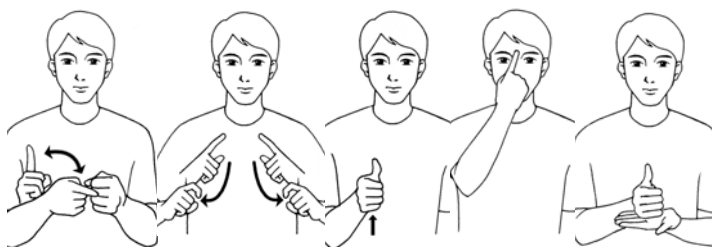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방장화상(方丈和尙) (명)

절을 주관하는 스님.

[절+ 주인+ 스님]

=주지.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방편(方便)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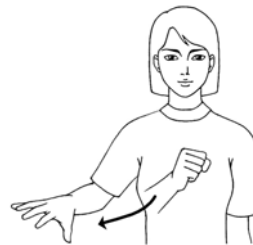
①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 ②십바라밀의 하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묘한 수단과 방법이다.
[필요한 수단(도구)을 모으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방법.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방하(放下)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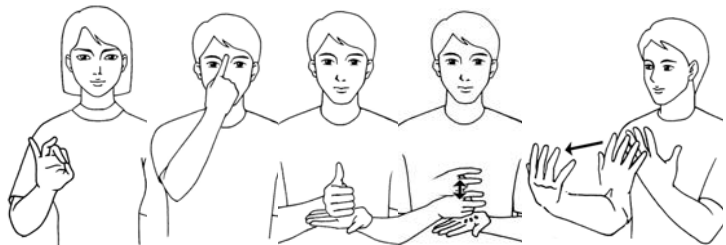
선종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해탈하는 일. 또는 집착을 일으키는 여러 인연을 놓아버리는 일.
[쥐었던 것을 버리는 동작]
=버리다.
↔좁다.



오른 주먹을 왼쪽 어깨 앞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백좌법회(百座法會) ㄹ

사자와 백 개를 만들어 고승 백 명을 모시고 설법하는 큰 법회. 신라 진흥왕 12년에 고구려에서 온 고승 혜량(惠亮) 법사가 처음으로 신라에 설치하였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백②+ 스님+ 법+ 대화①②]



오른 손의 1·2·5지 끝을 붙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벌린 왼 손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백중(百中) ㄹ

음력 칠월 보름. 스님들이 재(齋)를 설(設)하여 부처님을 공양하는 날로 큰 명절을 삼았다.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 고려 시대에는 일반인들까지 참석하여 우란분회를 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하여진다. 근래 민간에서는 여러 과실과 음식을 마련하여 먹고 논다.
[백②+ 중(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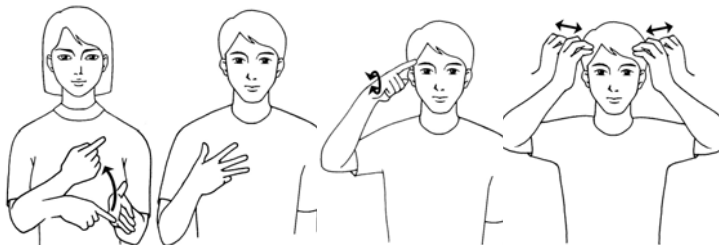
오른 손의 1·2·5지 끝을 붙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워 댄다.

백팔번뇌

백팔번뇌(百八煩惱) ㉔

사람이 가지는 108가지의 번뇌, 6 근(根)에 각기 고(苦), 낙(樂), 불고불락(不苦不樂)이 있어 18가지가 되고, 이에 탐(貪)과 무탐(無貪)이 있어 36가지가 되며, 이것을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각각 풀면 108가지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엄청난 번뇌를 이른다.

[백팔(百八)+ 번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스쳐 올린 다음,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리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백팔염주(百八念珠) ㉕

작은 구슬 108개를 꿰 염주, 백팔번뇌를 상징한다. 이것을 돌리며 염주를 외면 번뇌를 물리쳐 무상(無想)의 경지에 이른다 한다.

[백팔(百八)+ 염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스쳐 올린 다음,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1지 옆면을 두 번 스쳐 내린다.

백호(百毫) ㉖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터럭. 이 광명이 부량세계를 비춘다.

[희다+ 미간에 빛나는 터럭을 가리키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킨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댄다.

백호방광(百毫放光) ㉗

백호가 사방에 빛을 내뿜음.

[백호+ 빛]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킨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대고, 오른 주먹의 등을 이마에 댔다가 앞으로 약간 내밀며 손을 편다.

번(幡) 명

부처님과 보살의 성덕(盛德)을 나타내는 깃발. 꼭대기에 종이나 비단 따위를 가늘게 오려서 단다.

[깃발이 흔들림을 나타내는 동작]
=기.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끝을, 손가락을 벌려 편 오른손의 손목 밑에 대고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다.

번뇌(煩惱) 명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생각+ 고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리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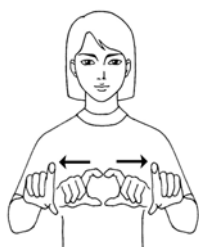
범부(凡夫) 명

번뇌에 얽매어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

¶ 나는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사람]

=서민.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범왕(梵王) 명

①브라만교의 교조(敎祖)인 우주 만물의 조화의 신. ②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우두머리.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는 불법 수호의 신이다.

[하늘②+ 왕]

=바라문천. 범. 범천. 범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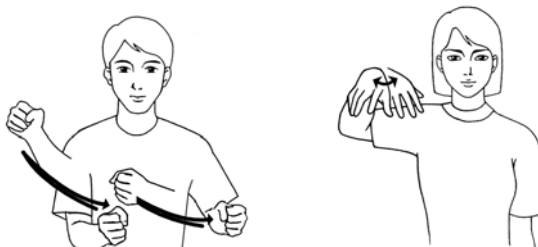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킨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범종

범종(梵鐘) 명

절에 매달아놓고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
[줄을 잡고 종을 치는 동작+ 종]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동시에 오른쪽으로 올렸다가 왼쪽으로 내린 다음, 오른손을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려 오른쪽 귀 옆에서 좌우로 흔든다.

법(法) 명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수단(도구)/정하다]
=규율. 규칙. 법률. 법칙. 제도.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법고(法鼓)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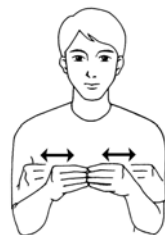
①절에서 예불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치는 큰북. ②부처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북. ③ 북소리가 널리 퍼진다는 뜻으로 '불법(佛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북을 치는 것을 나타낸 동작]
=북.



바닥이 아래로 향한 왼 주먹 밑으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한 오른 주먹을 두 번 움직인다.

법구(法句) 명

불경의 문구(文句).
[법+문장]
=법문.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법구(法具)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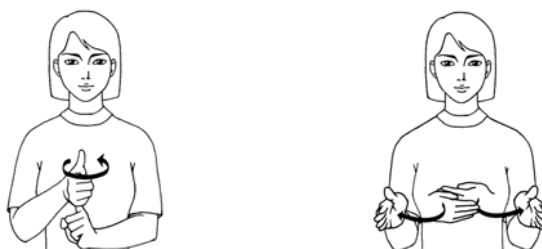
불사(佛事)에 쓰는 기구.
[사찰+ 물건]



가볍게 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낸다.

법당(法堂)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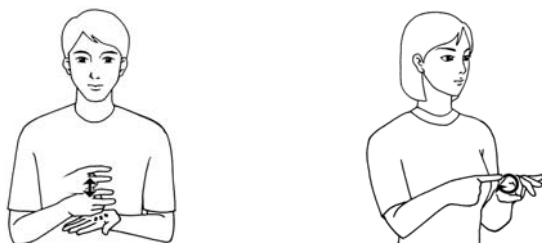
불상을 안치하고 설법도 하는 절의
정당(正堂).
[부처+ 방]
=불당.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법륜(法輪) 명

사륜의 하나. 전륜왕의 금륜(金輪)이
산과 바위를 부스고 거침없이 나아가
는 것에 비유하여 부처님의 교법을
이르는 말.
[법+ 바퀴]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만든 동그라미를 따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돌린다.

법명(法名) 명

①스님이 되는 사람에게 종문(宗門)
에서 지어주는 이름. ②죽은 사람에
게 붙여 주는 이름.
[법+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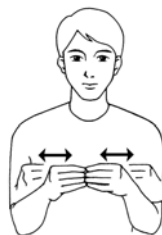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낸다.

법문

법문(法文) ㉞

불경의 글.
[법+문장]
=법구.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법문(法門) ㉞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문. 부처님의 교법.
[법+이야기]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다.

법보(法寶)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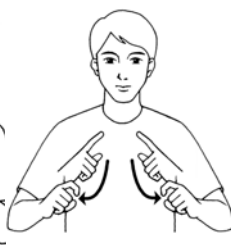
삼보(三寶)의 하나. 오묘한 불교의 진리를 적은 불경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법+보물]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폈다.

법보사찰(法寶寺刹) ㉞

삼보(三寶) 사찰의 하나.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를 이른다.
[법보+ 절]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가볍게 편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법복(法服) 명

스님이 입는 가사나 장삼 따위의 옷.
[스님+ 옷]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가슴 앞의 옷을 살짝 잡아 흔든다.

법사(法師) 명

①설법하는 스님. ②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스님. ③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스님.
[법+ 스승]
=법장.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

법요(法要) 명

①불사를 할 때 행하는 의식. ②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하고 주요한 점.
[법+ 대화¹②]
=법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벌린 왼 손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법우(法友) 명

불법으로 맺어진 벗.
[불교+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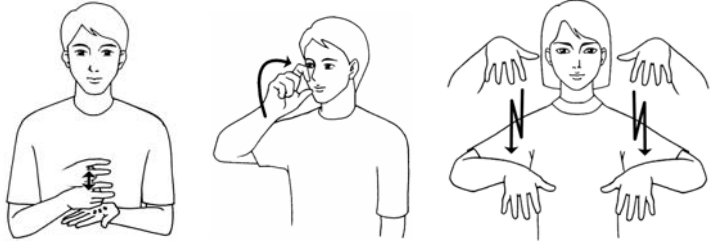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손을 두 번 맞잡는다.

법우

법우(法雨)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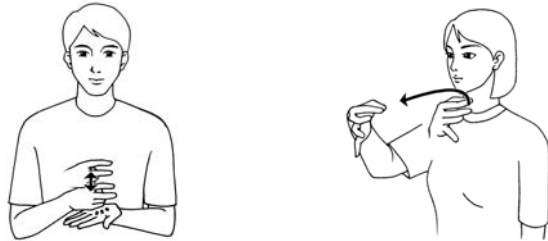
중생을 교화하여 덕화를 입게 하는 것을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법+비²]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두 번 내린다.

법음(法音) ㄷ

설법하거나 독경하는 소리.
[법+음성]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법인(法印) ㄷ

불도를 외도(外道)와 구별하는 표지.
불법이 참되고 부동 불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법+도장을 찍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반쯤 구부린 오른손에 입김을 쉼우고, 손끝을 왼 손바닥에 힘주어 내려 댄다.

법장(法匠)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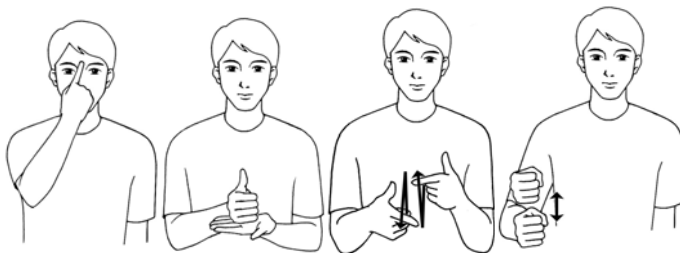
불법을 가르치는 스승.
[법+스승]
=법사.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

법장(法杖) ㉔

스님이 짚고 다니거나 좌선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
[법+ 지팡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우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상하로 약간 움직인다.

법장(法場) ㉕

불사를 행하고 설교, 법회 따위를 하는 장소.
[법회+ 곳]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벌린 왼 손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법화경(法華經) ㉖

법화삼부경의 하나. 가야성에서 도를 이룬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으로,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경전. 쿠마라지바가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8권 28품.

[연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경]

=묘법연화경.



약간 구부린 왼손과 오른 주먹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돌려 두 손의 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법회(法會) ㉗

설법하는 모임.

㉗ 오늘 법회에 오신 신도님들, 점심 공양 많이 하십시오.

[법+ 대화¹②]

=법요.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벌린 왼 손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변상도

변상도(變相圖) 명

경전의 내용이나 교리, 부처님의 생애 따위를 형상화한 그림.

[부처+역사+그리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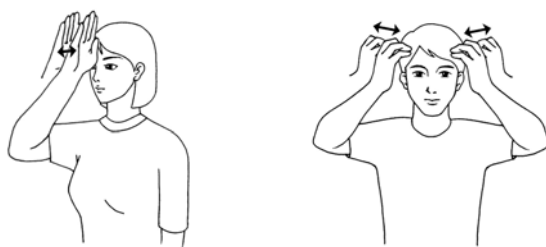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리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병고(病苦) 명

팔고(八苦)의 하나. 병 때문에 겪는 괴로움.

[병+고생]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이마 중앙에 두 번 댔다 떼 다음,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보륜(寶輪) 명

①탑의 상륜부에서 노반(露盤)위에 있는 기둥머리의 금속 장식. ②사륜의 하나. 남방 보생불의 법륜을 이른다.

[보물+바퀴]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편 다음,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만든 동그라미를 따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돌린다.

보리 명

①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②불타정각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닦는 도. 불과(佛果)에 이르는 길을 이른다.

[①생각+뜨다² ②불잡고 있던 것을 내어주는 동작]

=①개오. 깨닫다. 니르바나. 대오. 모지. 성도. 열반①. ②베풀다.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댔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다.
②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보리살타(菩提薩埵) 명

①부처님께서 전생에서 수행하던 시절, 수기를 받은 이후의 몸. ②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 [위로 올리며 비추는 동작 <깨달음을 구하며 빛을 밝히는 것>]
=보살. 정사.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보리수(菩提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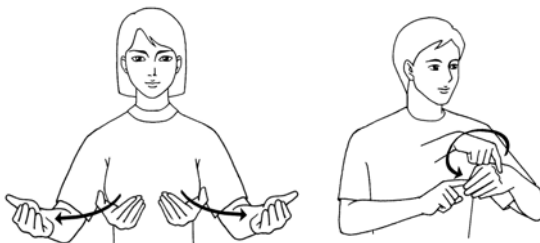
석가모니가 그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아 불도(佛道)를 이루었다고 하는 나무. [깨달다+나무]
=무우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다.

보리심(菩提心) 명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써 널리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 [배풀다+마음]
=보리심.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댈다.

보살(菩薩) 명

①부처님께서 전생에서 수행하던 시절, 수기를 받은 이후의 몸. ②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 [위로 올리며 비추는 동작 <깨달음을 구하며 빛을 밝히는 것>]
=보리살타. 정사.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보살계

보살계(菩薩戒) 명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
[보살+ 계]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손가락 끝을 왼팔에 댄다.

보살상(菩薩像) 명

대승불교에서, 상징적으로 보살을 상으로 만든 것. 보관(寶冠)을 쓰고 천의(天衣)를 입은 모양인데, 표정은 온화하게 하고 팔찌 따위의 장식을 호화롭게 한다.
[보살+ 모습]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보살행(菩薩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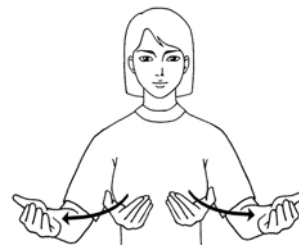
보살이 부처님이 되려고 수행하는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는 원만한 행동.
[보살+ 행동]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보시(布施) 명 하타

①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 ②불가에 재물을 연보함.
[붙잡고 있던 것을 내어주는 동작]
=베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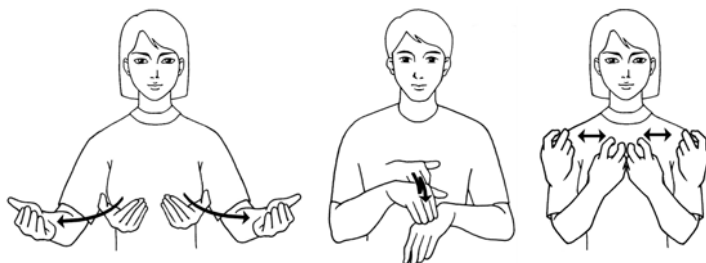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명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수행.

[보시+ 바라밀]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보시함(布施含) 명

불가에 재물을 연보할 때 재물을 넣는 함.

[불전(佛錢)+ 상자]

=희사함.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구부려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시아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위에서 내려 놓는다.

보주(寶珠) 명

위가 뽕족하고 좌우 양쪽과 위에 불꽃 모양의 장식을 단 구슬.

[보물+ 구슬]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면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주먹 등을 대며 1지에 5지를 대고 땡긴다.

보현보살(普賢菩薩) 명

사보살(四菩薩)의 하나. 석가모니여래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로 형상은 크게 흰 코끼리를 탄 모양과 연화대에 앉은 모양 두 가지가 있다.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말았으며, 왼쪽의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의 중생 제도를 돕는다.

[실천+ 보살]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구부려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번갈아 밖으로 내밀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보현행

보현행(普賢行) 명

한 가지 행을 닦으면 일체의 행을 갖추는 묘행(妙行).

[보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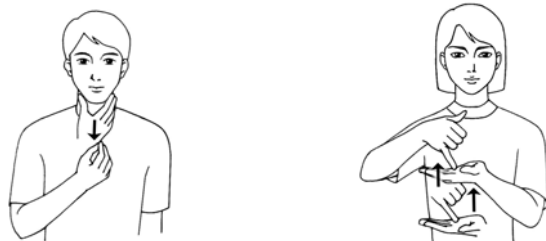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구부려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번갈아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복덕(福德) 명

선행의 과보(果報)로 받는 복덕스러운 공덕.

[복+ 덕]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4지 끝을 왼 손바닥에 대고 세워 약간 위로 올린다.

복장(伏藏) 명

불상을 만들 때, 그 가슴에 금, 은, 칠보와 같은 보화나 서책 따위를 넣음.

[배³+ 보물+ 두다]



오른 손바닥을 배에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밖으로 약간 누른다.

복전(福田) 명

복을 거두는 밭이라는 뜻으로 삼보(三寶), 부모, 가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삼보를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복이 생긴다고 한다.

[복+ 밭]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주먹의 1·2·3지 등에,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을 '+'자로 댄다.

복전함(福田函) 명

불가에 재물을 연보할 때 재물을 넣는 함.

[복전+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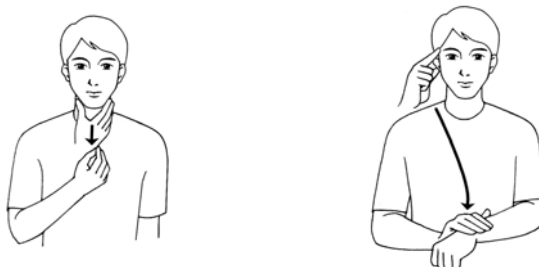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주먹의 1·2·3지 등에,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을 '+'자로 대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으로 네모를 그린다.

복지(福祉) 명

복덕과 지혜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복+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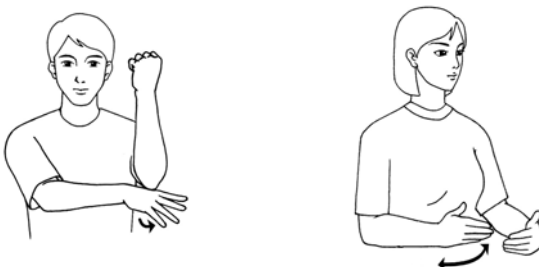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댄다.

본래공(本來空) 명

일체의 만물은 본디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인연으로 생겨난 임시의 것으로서, 근원이 비어 있음을 이르는 말.

[기본+ 비다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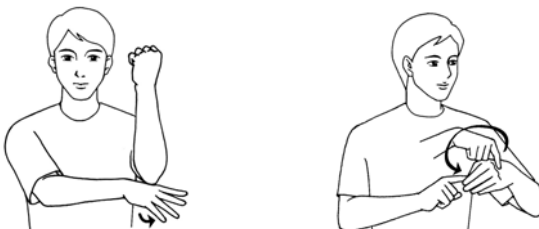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안에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인다.

본래면목(本來面目) 명

중생이 본디 지니고 있는 순수한 심성.

[기본+ 마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본사

본사(本寺) 명

①처음에 출가하여 스님이 된 절. ②말하는 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절을 이르는 말. ③일종(一宗), 일파(一派)의 본종이 되는 큰절. 각 말사(末寺)를 통할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31본사제였으나 광복 후 폐지되고 현재는 25본사로 운영되고 있다.
[본부+ 궁]
=큰절.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맞닿다가 오른손만 위로 올리며 주먹을 쥐고 5지를 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본사(本師) 명

①근본이 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를 이르는 말. ②자기가 믿는 종파의 조사(祖師). ③자기가 법을 받은 스승.
[근본+ 스승]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

본성(本性) 명

①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②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
[근본+ 성격]
=본질.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본원력(本願力) 명

석가모니가 전세에 수행자 시절에 세웠던 본원(本願)의 힘.
[근본+ 원하다+ 힘]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이고, 오른 주먹을 쥐고 팔을 구부려 당긴다.

본존불(本尊佛) [명]

으뜸가는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를 이르는 말
[불상의 수인을 나타내는 동작]
=석가모니불. 석가여래. 항마인. 항마촉지인.



왼손을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려 배꼽 아래쪽에 대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부다가야(Buddha-Gaya)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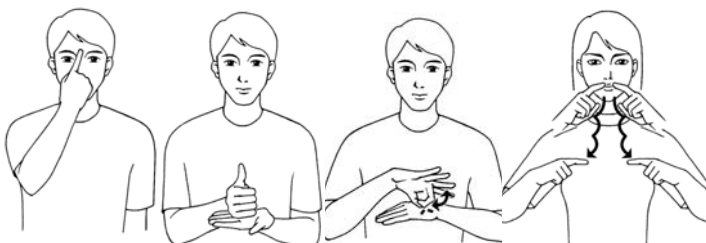
인도 비하르 주 गया 시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불교의 성지. 석가모니가 이곳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깨닫다+ 곳]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부도(浮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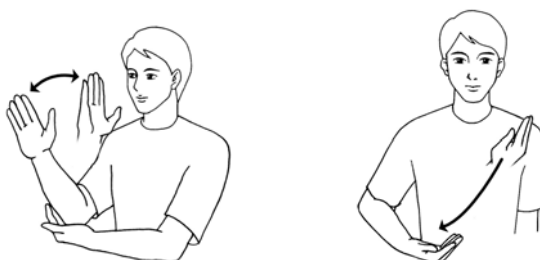
고승(高僧)의 사리를 안치한 탑.
[스님+ 뼈+ 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우고,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땡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등에 두 번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구부렸다 폈다 하며 양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내린다.

부루나(富樓那) [인명]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사람으로 설법을 통해 9만 9천명을 열반에 들도록 하여 설법제일(說法第一)이라고 불림. 평생 인격과 번재로 중생교화에 힘썼다고 함.
[서로 번갈아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제자]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부적

부적(符籙) ㉔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운+ 한자+ 작은 네모]
=호신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을 모로 세워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가락을 벌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오른 손등으로 두 번 두드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우표 모양을 그린다.

부전(副殿) ㉕

불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궁+ 관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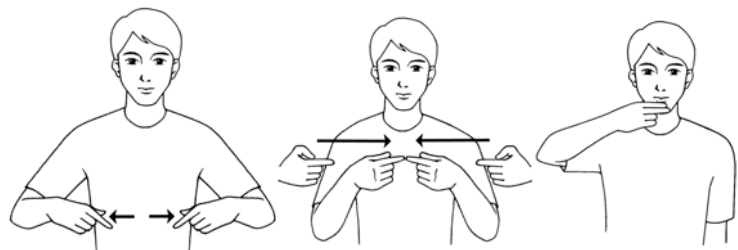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오른 주먹 1·2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두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부증불감(不增不减) ㉖

①모든 존재의 참모습은 공(空)이므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아니함.
②중생의 본성인 불성은, 성불하지 못하여도 줄지 아니하며 성불하여도 늘지 아니함.
[증가+ 감소+ 없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양옆으로 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1지 아랫마디에 대고 1지 끝까지 밀어내면서 두 주먹의 1지 끝을 접근시키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댈다.

부처 명

①'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②불도를 깨달은 성인. ③불상(佛像).

[비로자나불(큰 광명을 내 비춘다는 부처)의 손 모습]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부처님 명

부처의 높임말.

[부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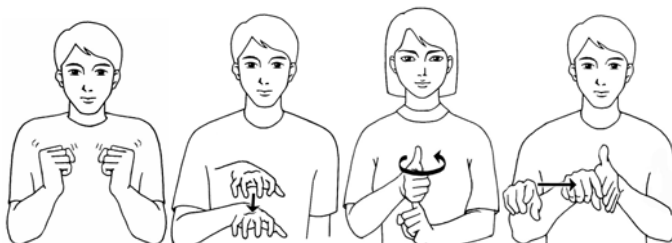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북방불교(北方佛教) 명

기원전 3세기 무렵 인도의 아소카왕 때 부터 발달하여 한국, 티베트, 중국, 일본에 퍼진 불교, 대승불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북②+ 곳+ 불교]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떼는 동작을 한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다.

분별심(分別心) 명

불교에서 너와나,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따위를 헤아려서 판단하는 일.

[판단+ 마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분신

분신(分身) [명]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남. 또는 그 몸.
[몸+ 변하다]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분향(焚香) [명] [하자]

향을 피움.
[성냥불을 켜는 동작+ 연기]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으로 왼 주먹의 1·5지 끝을 쳐내는 동작을 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끝이 위를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반쯤 구부려 왼 주먹의 1지 위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위로 올린다.

불(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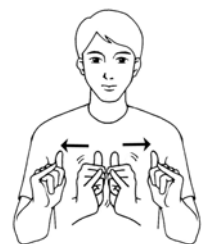
①부처님.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부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
[비로자나불(큰 광명을 내 비춘다는 부처)의 손 모습+ 님]
=부처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불가(佛家) [명]

①불교를 믿는 사람, 또는 그들의 사회. ②절.
[불교+ 사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불가(佛歌) 명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
[부처+ 노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불가설(不可設) 명

참된 이치는 체득할 수 있을 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음.
[설명+ 못하다]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스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옆면과 5지 바닥으로 오른쪽 불을 잡는다.

불경(佛經) 명

불교의 교리를 밝혀 놓은 전적(典籍)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법]
=경. 불법.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불공(佛供) 명

부처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다.
[목탁+ 합장]
=예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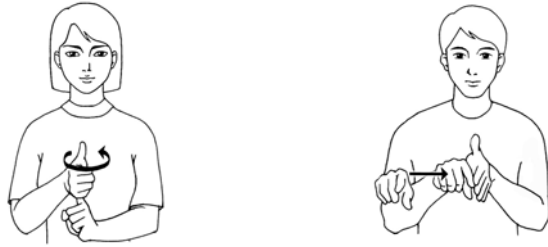


가볍게 편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불교

불교(佛敎)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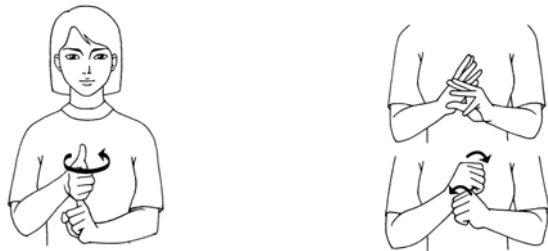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그로부터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 종교.
[부처+ 믿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다.

불기(佛紀) [명]

불가에서 쓰는 연기(年紀). 석가모니
가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부처+ 언제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가슴 앞에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 모로 세운 오른손 올려놓고 5·1·2·3·4지 순으로 손가락을 접는다.

불기(佛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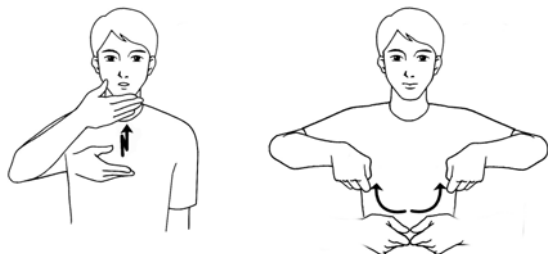
석가모니의 예언을 적은 글.
[미리+ 선언+ 문장]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구부린 오른손을 안으로 당긴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옆면을 입 양옆에 댔다가
동시에 밖으로 내밀며 좌우로 약간 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불기(佛器) [명]

부처님에게 올릴 밥을 담은 돛그릇.
[공양+ 그릇]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좌우로 둥글게 올린다.

불당(佛堂) ㉔

부처님을 모신 집.

[부처+ 방]

=법당.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불도(佛道) ㉔

①부처님의 가르침. ②수행을 쌓아 부처님이 되는 길.

[부처+ 길]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불도량(佛道場) ㉔

불도를 닦는 신성한 곳.

[목탁+ 궁]

=가람. 도량. 사문². 사찰. 승방.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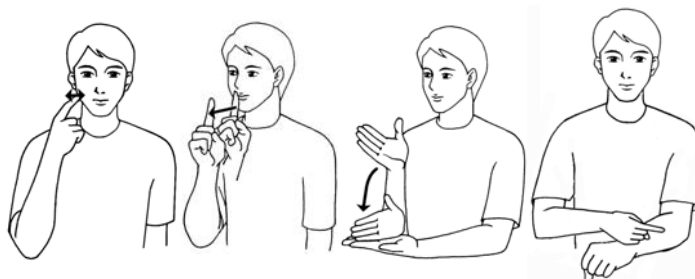
가볍게 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른다.

불망어계(不妄語戒) ㉔

오계(五戒) 중 하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

[거짓말+ 말다²+ 계]

=망어계(妄語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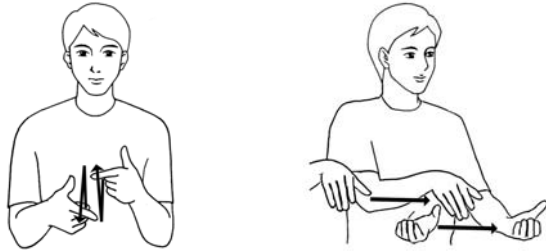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 끝으로 오른쪽 볼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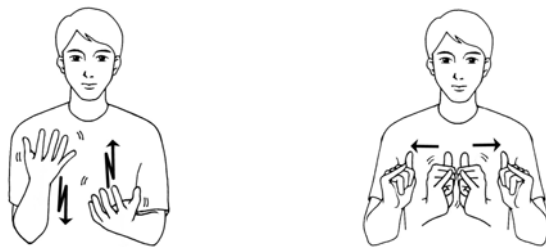
불목지기

불목지기 (명)

절에서 땀나뭇을 하여 들이는 사람.
[나무+아궁이에 넣는 동작+ 불+ 사람]
=화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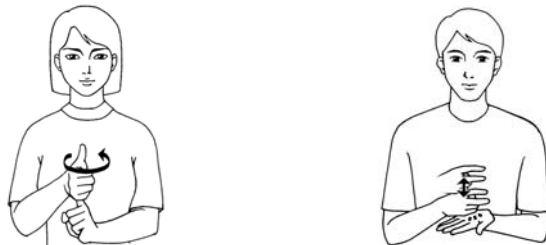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두 손을 구부려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왼손 위쪽 뒤에 놓이게 하여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불법(佛法) (명)

부처님이 말씀하는 교법.
[부처+ 법]
=경(經). 불경(佛經).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불법승(佛法僧) (명)

삼보(三寶)인 부처님, 교법, 스님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불법+ 스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잡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불보(佛寶) 명

삼보(三寶)의 하나로 석가모니불과 모든 부처님을 높여 이르는 말. 부처님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므로 세상의 귀중한 보배와 같다 하여 이르는 말이다.
[부처+ 보물]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다.

불보살(佛菩薩) 명

부처님과 보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부처+ 보살]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펴다.

불사(佛事) 명

①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 ② 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절+ 식(式)]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가볍게 왼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손가락을 활짝 펴다.

불사음계(不邪淫戒) 명

오계(五戒)의 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자와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는 계율.
[음란+ 말다+ 계]
=사음계.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이 코끝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움직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불살생

불살생(不殺生) ㄷ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음.
[죽이다+금지]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려친다.

불살생계(不殺生戒) ㄷ

오계(五戒)의 하나. 생물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계율이다.
[불살생+계]
=살계. 살생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려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불상(佛相) ㄷ

부처님의 얼굴 모습.
[부처+얼굴+모습]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얼굴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불상(佛像) ㄷ

부처님의 형상을 표현한 상. 나무, 돌, 쇠, 흙 따위로 만든, 부처님의 소상(塑像)이나 화상(畵像)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부처+모습]
=부처님. 불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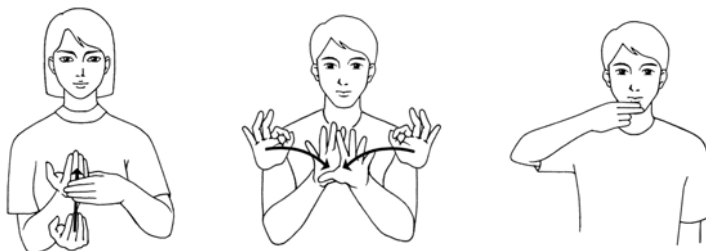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불생불멸(不生不滅) [명]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음. 모든 존재
의 실상을 이른다.

[나오다②+ 사라지다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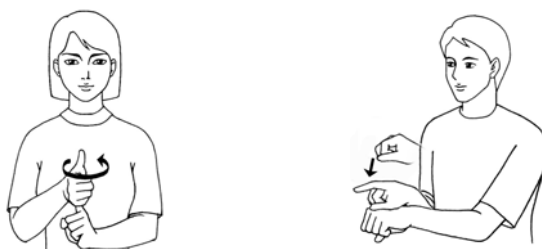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펴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톅에 댄다.

불성(佛性) [명]

①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본성. ②
중생이 본디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될 성질.

[부처+ 성격]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불세존(佛世尊) [명]

여래 십호(如來十號)의 하나. 세상에
서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부처님
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귀하다+ 부처님]



오른 손바닥을 왼뺨에 댔다가 내려 손등이 닿게 왼 손바닥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불십호(佛十號) [명]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열 가지 칭
호.

[부처+ 십②+ 이름]

=여래십호.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불은

불은(佛恩) 명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은혜]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불음주계(不飲酒戒)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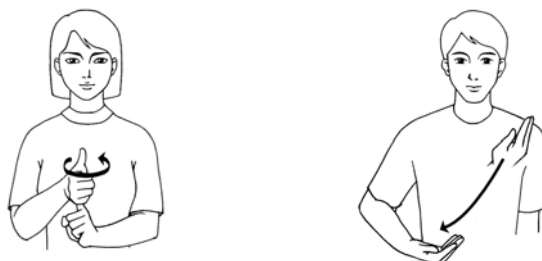
오계의 하나로,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계율.
[술+금지+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댔다가 이마에 댄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려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불자(佛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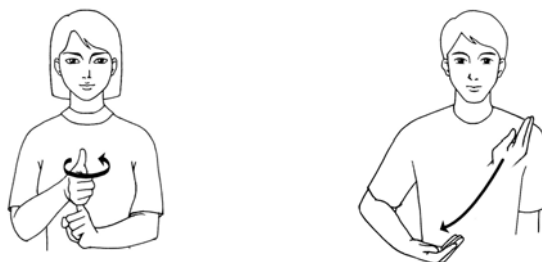
①석가모니의 제자. ②보살(菩薩)을 달리 이르는 말. ③계를 받아 출가한 사람. ④불교 신자. ⑤부처님의 아들 딸, 곧 모든 중생을 이르는 말.
[부처+제자]
=불자(佛者). 불제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불자(佛者) 명

불교에 귀의한 사람.
[부처+제자]
=불자(佛子). 불제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불전(佛前)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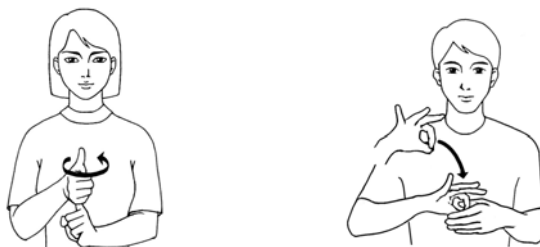
부처님의 앞.
[부처+ 앞+ 곳]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불전(佛錢)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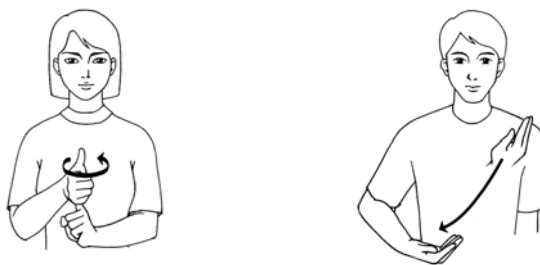
부처님 앞에 바치는 돈.
[부처+ 돈을 넣음을 나타내는 동작]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구부려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시아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위에서 내려 놓는다.

불제자(佛弟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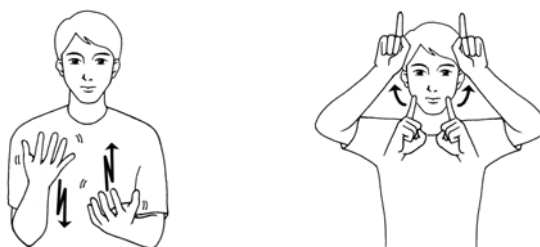
불교에 귀의한 사람.
[부처+ 제자]
=불자(佛子), 불자(佛者).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불지옥(-地獄) [명]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
[불+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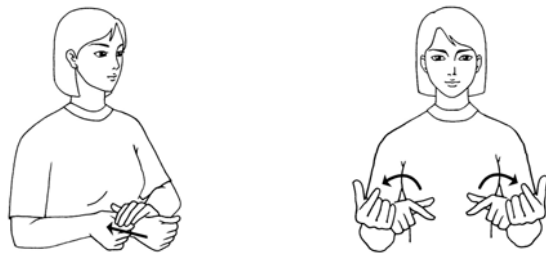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불퇴전

불퇴전(不退轉) 명

①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②신심(信心)이 두터워 흔들리지 아니함.
[비겁+ 아니다]



오른 주먹의 5지를 펴고 등을 왼손으로 덮은 다음, 오른손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다.

불투도계(不偷盜戒) 명

오계(五戒)의 하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계율.
[훔치다+ 말다+ 계]
=투도계.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옆면으로 왼 손바닥을 빠르게 긁어 들이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붓다(Buddha)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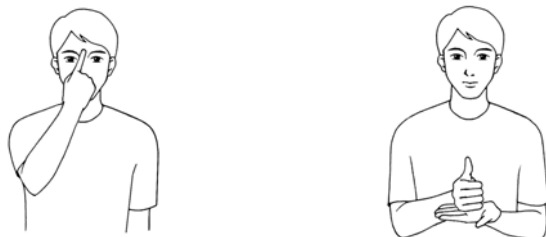
부처님.
[비로자나불(큰 광명을 내 비춘다는 부처)의 손 모습]
=부처, 불.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비구(比丘) 명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스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
=비구승. 사문⁴. 스님. 승². 승가. 승려.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비구계(比丘戒) 명

비구가 지켜야할 계율. 250계가 있다.

[스님+ 계]

=구족계. 승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비구니(比丘尼) 명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스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여]

=승녀. 여스님. 여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비구니계(比丘尼戒) 명

비구니가 지켜야할 계율. 348계가 있다.

[비구니+ 계]

=구족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손가락 끝을 왼팔에 댄다.

비구승(比丘僧) 명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독신으로 불도를 닦는 스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

=비구. 사문⁴. 스님. 승². 승가. 승려.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명

연화장 세계에 살며 그 몸은 법계(法界)에 두루 차서 큰 광명을 내비치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 천태종에서는 법신불, 화엄종에서는 보신불, 밀교에서는 대일여래라고 한다.

[비로자나+ 부처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았다가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비로전(毘盧殿) 명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

[비로자나+ 부처+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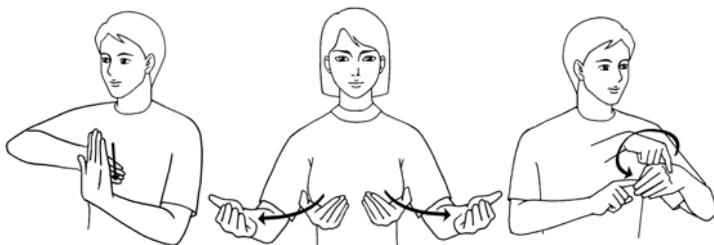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았다가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비무량심(悲無量心) 명

사무량심(四無量心)의 하나.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의 기쁨을 얻게 하려는 한없는 마음을 이른다.

[자비+ 베풀다+ 마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등을 쓸어내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사경(寫經) 명 하타

후세에 전하거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경문(經文)을 베끼는 일. 또는 그런 경전.

[모방+ 쓰다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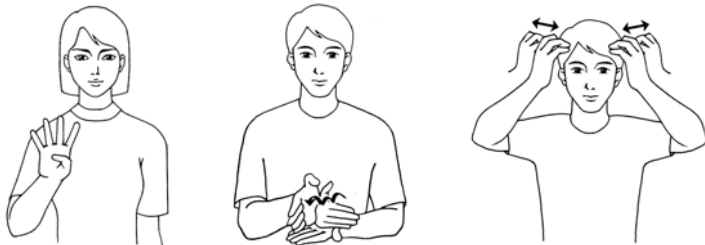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오른 주먹의 1·5지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사고(四苦) 명

인생의 네 가지 고통.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을 이른다.

[사(四)①+ 종류①+ 고난]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사념처(四念處) 명

소승의 수행자가 3현위(顯位)에서 5정심관(停心觀) 다음에 닦는 관(觀). 몸이 부정(不淨)한 것을 아는 신념처(身念處), 감수하는 모든 것이 고통인 것을 아는 수념처(受念處), 마음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아는 심념처(心念處), 제법은 무아인 것을 아는 법념처(法念處)를 이른다.

[사(四)①+ 종류①+ 생각+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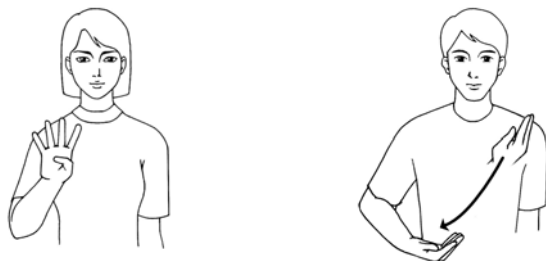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사대제자

사대제자(四大弟子) [명]

석가모니의 으뜸가는 네 제자, 수보리, 가전연, 가섭, 목건련을 이른다.
[사(四)①+ 제자]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사대천왕(四大天王)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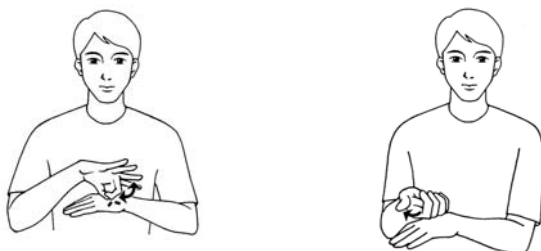
사천왕의 주신(主神)으로 사방을 진호(鎮護)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네 신. 동쪽의 지국천왕, 남쪽의 증장천왕, 서쪽의 광목천왕, 북쪽의 다문천왕이다. 위로는 제석천을 섬기고 아래로는 팔부중(八部衆)을 지배하여 불법에 귀의한 중생을 보호한다.
[사(四)①+ 하늘②+ 왕]
=사천왕.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약간 위로 올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사리(舍利 · 奢利) [명]

①석가모니나 성자의 유골. 후세에는 화장한 뒤에 나오는 구슬 모양의 것만 이른다. ②부처님의 법신의 자취인 경전.
[뼈+ 구슬]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뿜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 다음, 왼 손등에 오른 주먹 등을 대며 1지에 5지를 대고 뿜긴다.

사리병(舍利瓶) [명]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병. 보통 수경이나 납석으로 만드는데, 그 모양은 일정하지 아니하다.
[사리+ 항아리]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뿜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 다음, 왼 손등에 오른 주먹 등을 대며 1지에 5지를 대고 뿜기고, 오른손의 손끝을 약간 구부려 치아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마주 보게 하여 각각 반원을 그리며 올린다.

사리불(舍利弗) ㉔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칭송되었다고 전해진다. 주로 교화 활동에 종사하였다.

[지혜+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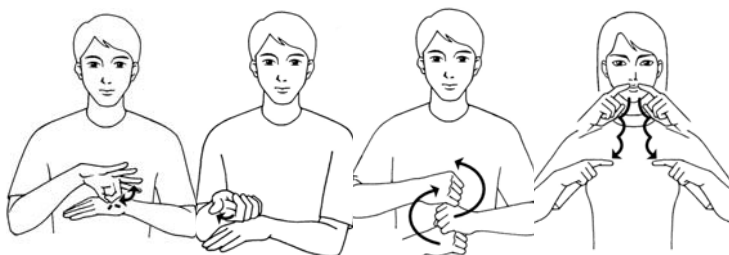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왼 팔목 등에 댄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사리탑(舍利塔) ㉕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 둔 탑.

[사리+ 쌓다②+ 탑]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뿜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 다음, 왼 손등에 오른 주먹 등을 대며 1지에 5지를 대고 뿜기고,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은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구부렸다 폈다 하며 양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내린다.

사리함(舍利函) ㉖

사리용기.

[사리+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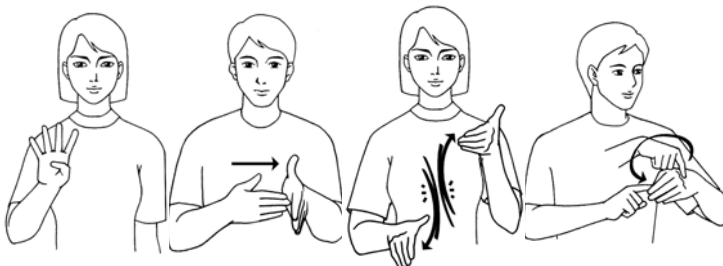


오른손의 2지 손톱을 5지 끝 바닥에 뿜겨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 다음, 왼 손등에 오른 주먹 등을 대며 1지에 5지를 대고 뿜기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으로 네모를 그린다.

사무량심(四無量心) ㉗

모든 원한을 버리고 중생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보살의 네 가지 마음.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捨無量心).

[사(四)①+ 끝+ 없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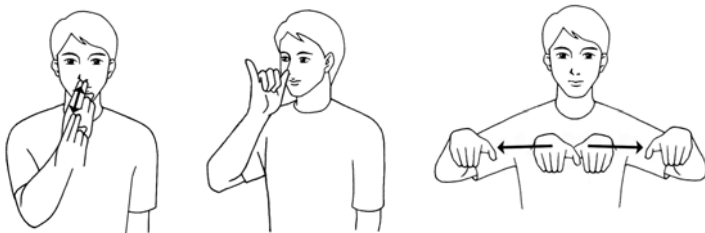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처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사무량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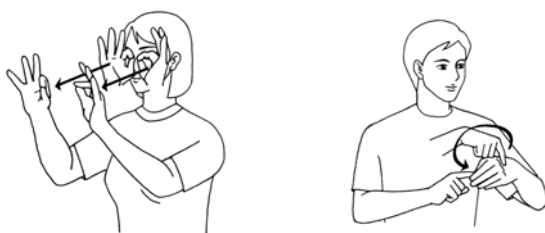
사무량심(捨無量心) ㉔

사무량심(四無量心)의 하나.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친원(親怨)의 구별을 두지 아니하려는 마음.

[중생+ 평등+ 보다+ 마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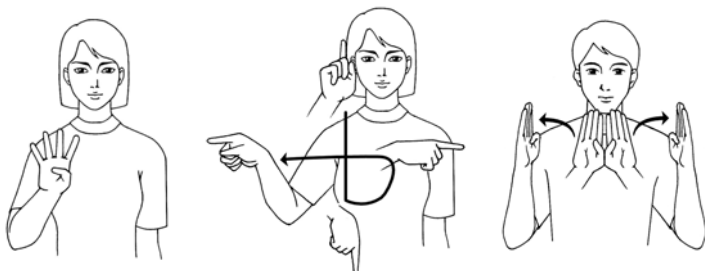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사문(四門) ㉕

①천태종에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의 방법을 크게 나눈 네 문, 유문(有門), 공문(空門), 역유역공문, 비유비공문이다. ②밀교에서, 진언 다라니의 네 방위의 문, 동쪽의 발심문, 남쪽의 수행문, 서쪽의 보리문, 북쪽의 열반문이다.

[사(四)①+ 방향+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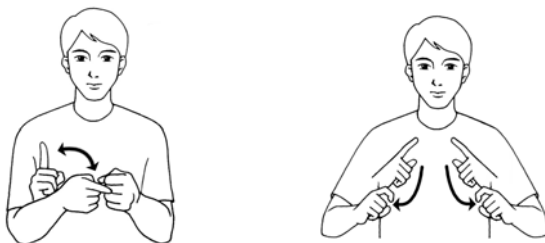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사방을 가리키고,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사문(寺門) ㉖

절.

[목탁+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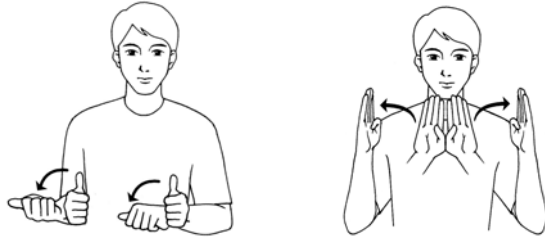
=가람. 도량. 불도량. 사찰. 승방. 절.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사문(死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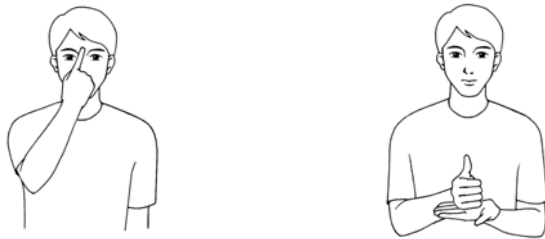
저승의 문, 죽음을 이른다.
[죽다+ 문]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힌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사문(沙門) 명

부지런히 모든 좋은 일을 닦고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문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사람을 이르는 말.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닦]
=비구. 비구승. 스님. 승. 승가. 승려.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사문유관(四門遊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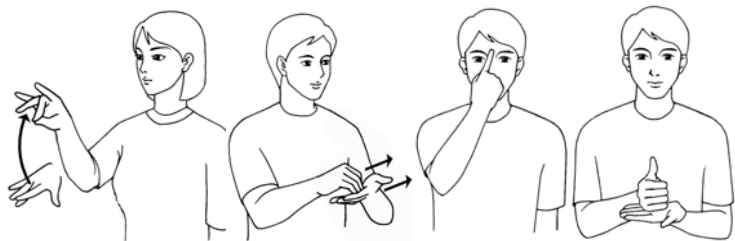
석가모니가 태자 때 가비라성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동문 밖에서 노인을,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을, 북문 밖에서는 스님을 만나,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기로 결심했다는 고사.
[사(四)①+ 문+ 구경]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오른손의 1지 옆면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

사미(沙彌) 명

십계(十戒)를 받고 구족계(具足戒)를 받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어린 남자 스님.
[처음+ 등록+ 스님]
=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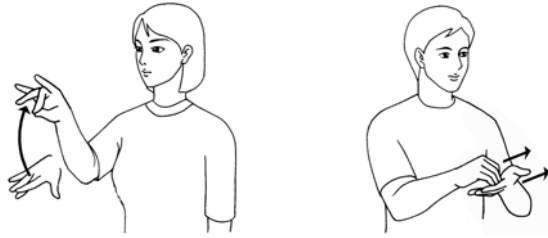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 오른 손가락을 약간 구부러 끝을 대고 동시에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사미계

사미계(沙彌戒) 명

사미와 사미니가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 오계(五戒)외에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 것.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제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재물을 모으지 말 것이다.

[사미+ 계]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끝을 대고 동시에 밖으로 내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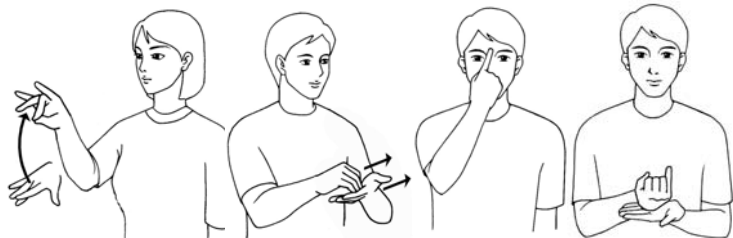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사미니 명

십계(十戒)를 받은 18세 미만의 어린 여자 스님.

[처음+ 등록+ 비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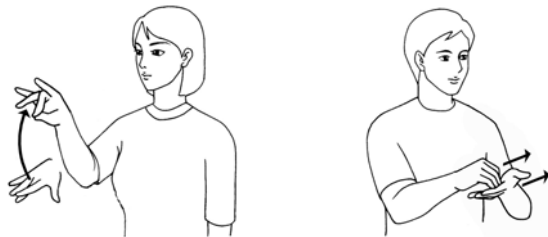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끝을 대고 동시에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사미니계 명

사미와 사미니가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

[사미니+ 계]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끝을 대고 동시에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사바(娑婆) 명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석가모니 불이 교화하는 세계를 이른다.

[사람+ 세상]

=남섭부주. 남염부주. 사바세계.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사바세계(娑婆世界) 명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석가모니 불이 교화하는 세계.

[사람+ 세상]

=남섭부주. 남염부주. 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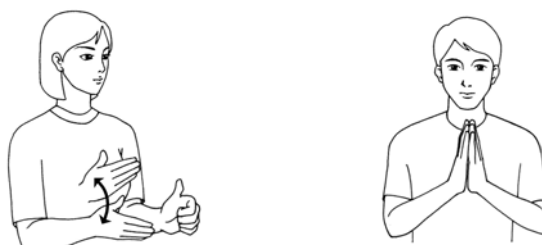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사바하(svaha 산)

스바하(svaha)는 ‘영원하라, 행복하라’는 의미. 의역하면 바램의 뜻.

[부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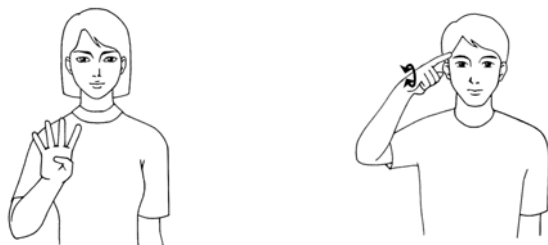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사상

사상(四相) 명

중생이 실체라고 믿는 네 가지 상.
아상(我相), 인상(人相), 수자상(壽
者相), 중생상(衆生相).

[사(四)①+ 생각]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사섭법(四攝法) 명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방
법. 동사섭,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사(四)①+ 인도하다+ 방법]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밖으로 당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사성제(四聖諦) 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성스러
운 진리. 고제(苦諦), 집제(集諦), 멸
제(滅諦), 도제(道諦)를 이른다.

[사(四)①+ 성스럽다+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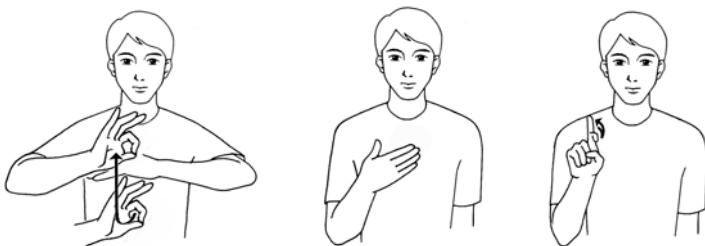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사시(巳時) 명

십이시의 여섯째 시, 오전 아홉 시부
터 열한 시까지이다.

[아침+ 구(九)+ 십일(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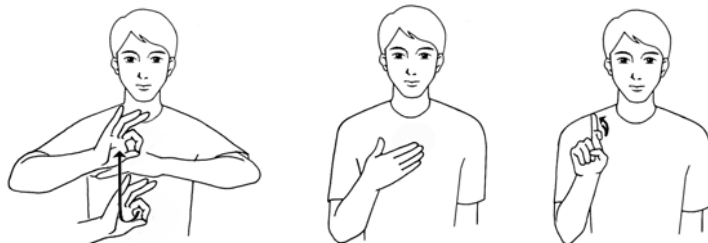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슴 앞에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 밑으로 내보내어 위로 올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굽혔다 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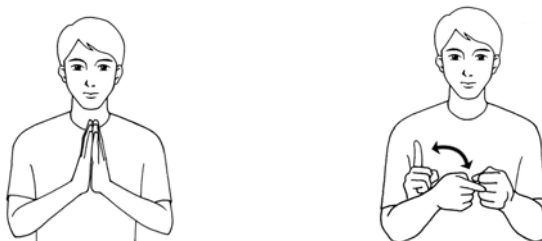
사시불공(巳時佛供) 명

사시인 오전 아홉 시에서 열한 시 사이에 올리는 불공.

[사시+ 불공]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슴 앞에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 밑으로 내보내어 위로 올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굽혔다 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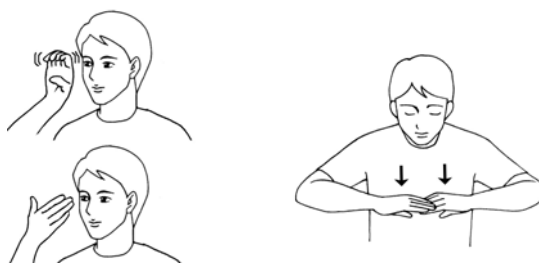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 다음,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다.

사십구재(四十九齋) 명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 삼계(三界)와 육도(六道)에 가서 누리는 후생의 안락을 위하여 명복을 빈다.

[지숫자 49+ 절²]



5지를 잡고 1·2·3·4지를 벌려 반쯤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 다음,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다.

사월초파일(四月初八日) 명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4월 8일로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다. 이날에는 과일등을 단다. 8일 및 9일의 이틀 밤에는 집집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등에 불을 켜 달고 그 아래서 물장구를 치거나 풍악을 하고, 딱총과 불놀이 등을 하며 느티나무 잎을 넣어 만든 시루떡과 검정콩을 찌서 먹는다.

[음력+ 사월+ 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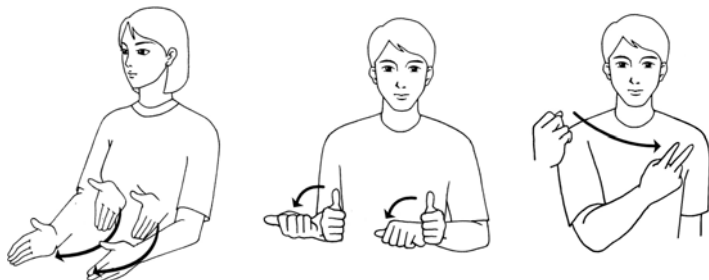
턱 바로 밑에서 오른 주먹의 1지 끝에 5지 끝을 댔다가 뺀 5지 끝을 턱에 댄 다음, 가슴 앞에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 모로 세운 오른손을 올려놓고 5·1·2·3·4지 순으로 손가락을 잡고, 왼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 약간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붙여 왼손 밑에 댔다가 벌리며 내리다가 좁히며 내려 다시 붙인 다음, 오른손을, 4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다.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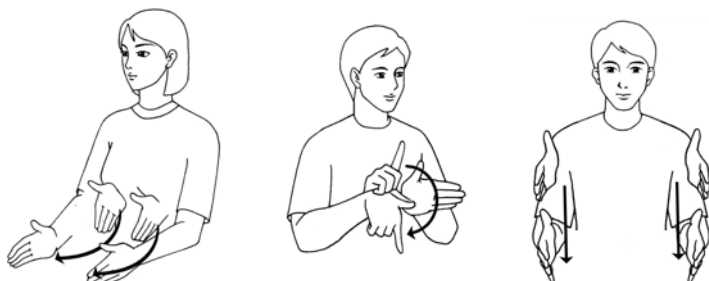
사유(四有) ㄹ

중생이 나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넷으로 나눈 것.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 중유(中有)이다.

[태어나다+ 죽다+ 다시+ 태어나다+ 기간]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히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리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지를 밖으로 돌린 다음,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린다.

사음계(邪淫戒) ㄹ

오계(五戒)의 하나. 음탕한 짓을 금하는 계율.

[음란+ 말다+ 계]
=불사음계.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이 코끝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움직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사자좌(獅子座) ㄹ

부처님이 앉는 자리. 부처님은 인간 세계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짐승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였다.

[사자+ 앉다]



두 손을 약간 구부려 손가락 끝을 양쪽 뺨에 댔다가 밖으로 길게 내밀며 손가락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바닥을 댄다.

사자후(獅子吼) 명

부처님의 위엄 있는 설법을 사자의 울부짖음에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사자+ 선언]



두 손을 약간 구부려 손가락 끝을 양쪽 뺨에 댔다가 밖으로 길게 내밀며 손가락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옆면을 입 양옆에 댔다가 동시에 밖으로 내밀며 좌우로 약간 벌린다.

사제(四諦) 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제(苦諦), 집제(集諦), 멸제(滅諦), 도제(道諦)를 이른다.
[사(四)①+ 진리]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사찰(寺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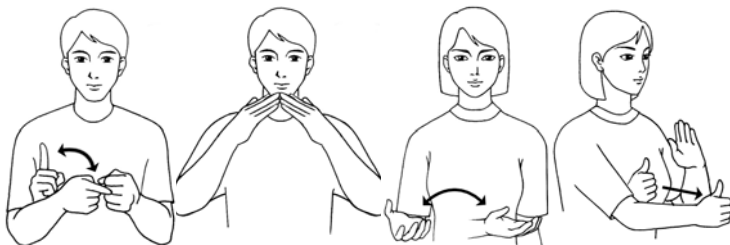
절. 스님이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목탁+ 궁]
=가람. 도량. 불도량. 사문°. 승방절.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사찰 순례(寺刹巡禮) 명

발생지, 본상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의미가 있는 사찰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함.
[절+ 이동+ 방문]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우고,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 오른쪽에서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밖으로 내린다.

사천왕

사천왕(四天王) 명

사천왕의 주신(主神)으로 사방을 진호(鎮護)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네 신. 동쪽의 지국천왕, 남쪽의 증장천왕, 서쪽의 광목천왕, 북쪽의 다문천왕이다. 위로는 제석천을 섬기고 아래로는 팔부중(八部衆)을 지배하여 불법에 귀의한 중생을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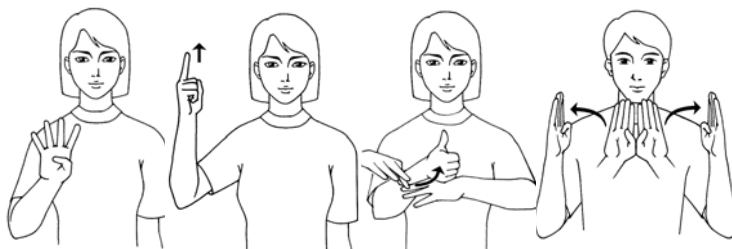
[사(四)①+ 하늘②+ 왕]
=사대천왕.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위로 올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사천왕문(四天王門) 명

절을 지키기 위하여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만들어 좌우에 세운 문.
[사대천왕+ 문]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위로 올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우고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의 1지 옆면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사홍서원(四弘誓願) 명

모든 보살의 네 가지 큰 서원.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사(四)①+ 원하다+ 맹세]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이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위에 세운다.

삭도(削刀) 명

스님의 머리털을 깎는 칼.
[삭발+ 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바닥 앞에서 그 뒤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넘긴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린다.

삭발(削髮)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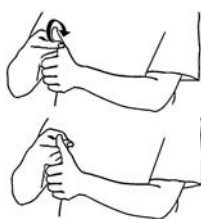
스님들이 머리털을 깎음.
[스님들의 머리를 깎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바닥 앞에서 그 뒤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넘긴다.

삭발날(削髮-) ㄷ

스님들이 머리털을 깎기 위하여 정한 날.
[삭발+ 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바닥 앞에서 그 뒤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넘긴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위로 올린다.

산보살(-菩薩) ㄷ

보살처럼 덕이 높은 스님.
[생존+ 보살]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 모로 세워 약간 내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산부처 ㄷ

①도를 통하여 부처님처럼 된 스님.
②아주 착하고 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생존+ 부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 모로 세워 약간 내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산사

산사(山寺) [명]

산속에 있는 절.
[산+ 절]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산사체험(山寺體驗)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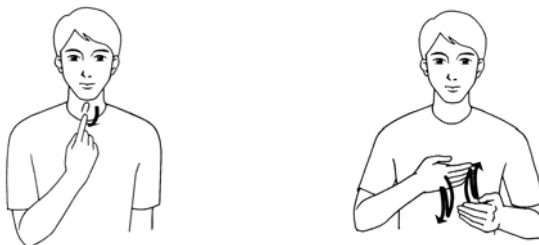
일반인들에게 사찰에 숙박하게 하며
사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절+ 생활+ 체험]

=템플스테이(Temple stay).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1·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목을 스쳐 내리고,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쥔 두 손을 전후로 두 번 스쳐 낸다.

산신각(山神閣) [명]

절에서 산신을 모신 전각.

☞ 우리나라의 절에는 산신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무속이 반
영된 것이다.

[산+ 귀신+ 집]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쥔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산신행화(山神眞晝) 명

산신을 그린 족자.
[산+ 귀신+ 그리다²]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밀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살계(殺戒) 명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
[죽이다+ 말다²+ 계]
=불살생계. 살생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려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살생(殺生) 명 하자

십악의 하나. 생물을 죽이는 일을 이른다.
[칼로 목을 베는 동작]
=죽이다. 해치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다.

살생계(殺生戒) 명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
[죽이다+ 말다²+ 계]
=불살생계. 살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려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살생죄

살생죄(殺生罪) ㉔

살생계를 범한 죄.
[죽이다+ 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세운다.

삼각(三覺) ㉕

부처에 있어서의 각의 삼상(三相). 즉, 자각(自覺), 각타(覺他), 각행(覺行)이다.
[삼(三)①+ 깨닫다]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다.

삼계(三界) ㉖

①중생이 생사 왕래하는 세 가지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②불계(佛界), 중생계(衆生界), 심계(心界)의 세 가지. ③하늘, 땅, 사람의 세 가지 세계.
[삼(三)①+ 세계]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삼계개고(三界皆苦) ㉗

삼계의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있음.
[삼계+ 모두+ 고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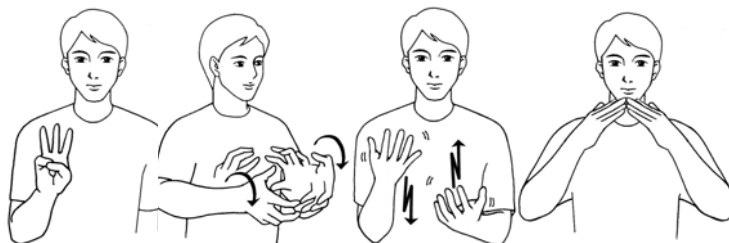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하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삼계화택(三界火宅) 명

삼계의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

[삼계+ 불+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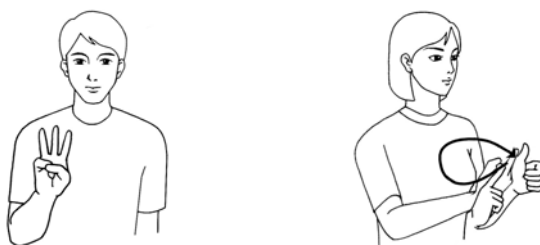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삼귀의(三歸依) 명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함.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을 이른다.

[삼(三)①+ 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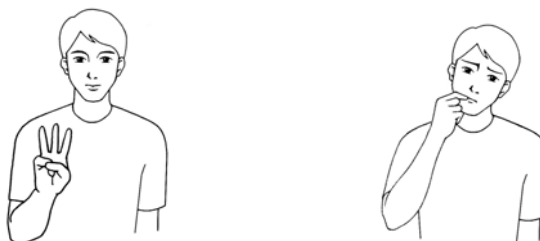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다.

삼독(三毒) 명

사람의 착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번뇌, 욕심, 성냄, 어리석음 따위를 독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삼(三)①+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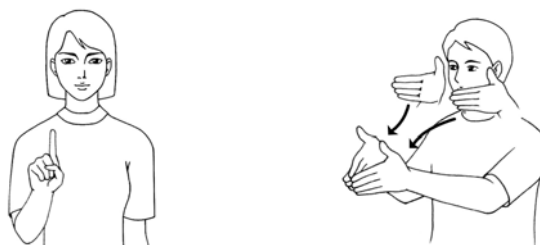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입가를 가볍게 찌르면서 목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인다.

삼매(三昧) 명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 이경지에서 바른 지혜를 얻고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된다.

[일(一)①+ 집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천천히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댄다.

삼막삼보리

삼막삼보리(三藐三菩提) 명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

[최고+ 깨닫다]

=구경각. 구경열반. 대각견성. 무상정각. 무상정등각. 삼막삼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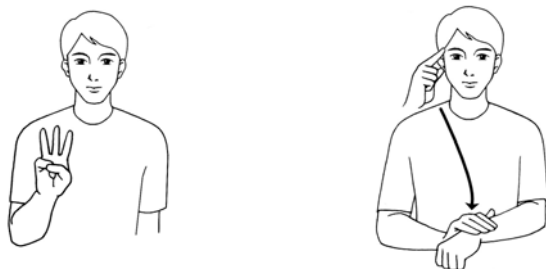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한 오른손의 손끝을 반원을 그리며 올려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삼명(三明) 명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혜.

[삼(三)①+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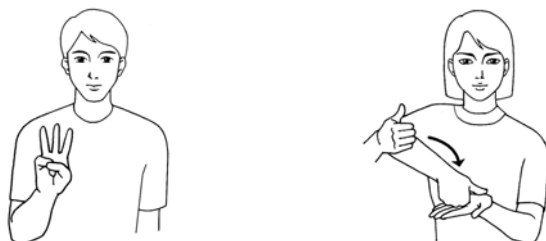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권 왼 팔목 등에 댄다.

삼배(三拜) 명 하자

①세 번 거듭 절함. ②세 번 무릎을 꿇고 배례(拜禮)함.

[삼(三)①+ 정례]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웠다가 5지 끝 바닥을 왼 손바닥에 댄다.

삼법인(三法印) 명

소승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敎義). 무상인, 무아인, 열반적정인을 이른다.

[①삼(三)①+ 법+ 인. ②삼(三)①+ 법+ 가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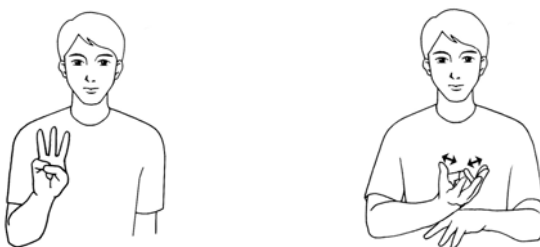
①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반쯤 구부린 오른손에 입김을 쉼주고, 손끝을 왼 손바닥에 힘주어 내려 댄다.



②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든다.

삼보(三寶)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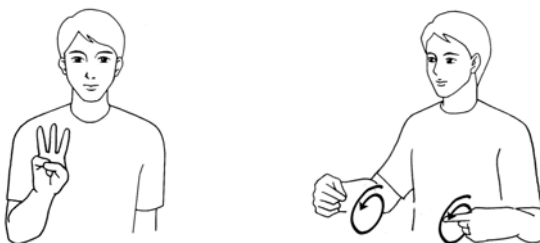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과 그 가르침을 펴는 중. 곧 불·법·승.
[삼(三)①+ 보물]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는다.

삼승(三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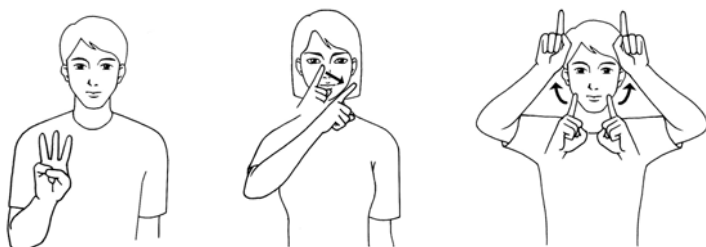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교법.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三)①+ 수레]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양쪽 옆구리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두 바퀴 돌린다.

삼악도(三惡道) 명

악인이 죽어서 가는 세 가지의 괴로운 세계.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이다.
[삼(三)①+ 악+ 지옥]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끝을 왼쪽으로 스쳐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댈다.

삼욕

삼욕(三慾) 명

사람의 세 가지 욕심.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慾), 음욕(淫慾)을 이른다.
[삼(三)①+ 욕심]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아로 문다.

삼장(三障) 명

①불도를 수행하여 착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번뇌장, 업장, 보장이다. ②신체의 부위에 비유한 세 가지 번뇌. 심번뇌장(心煩惱障) 따위가 있다. ③선정(禪定)을 닦는 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침혼암폐장(沈昏闇蔽障), 악념 사유장(惡念思惟障), 경계궤박장(境界逼迫障).

[삼(三)①+ 방해]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민다.

삼장(三藏) 명

①세 가지 불서(佛書)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경장, 율장, 논장이다. ②삼승(三乘)을 위한 교법. 성문장, 연각장, 보살장이다. ③삼장법사(三藏法師) 경, 율, 논 삼장에 통달한 스님, 또는 삼장을 번역한 스님.

[삼(三)①+ 법+ 책]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삼재(三災) 명

①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 도병(刀兵), 기근(饑饉), 질병(疾病)이 있으며 십이지(十二支)에 따라 든다. ②화재, 수재, 풍재의 세 가지 재앙. 卍 드는 삼재보다 나는 삼재가 더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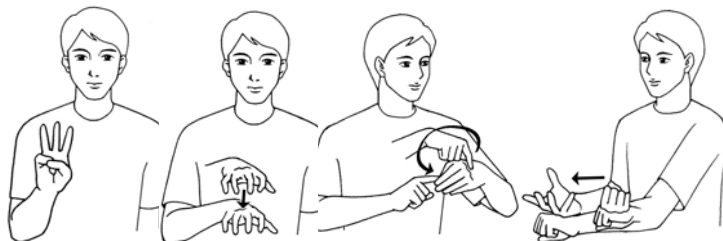
[삼(三)①+ 불행]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을 왼쪽 불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불에 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오른손의 2지 끝을 5지 끝에 대고 턱 밑으로 올리며 뒤편 편다.

삼처전심(三處傳心)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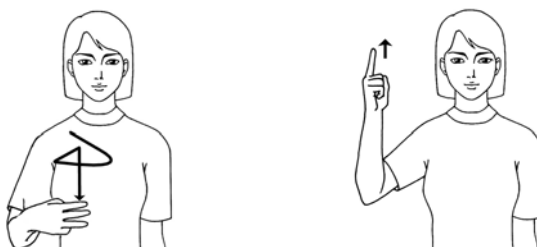
선종에서, 석가모니가 세 곳에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한 일. 현악 영상회상에서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염화미소를 지어 보인 일. 다자탑 앞에서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한 일,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 마하가섭이 오자 쌍림수 아래의 관(棺) 속에서 발을 내밀어 보인 일을 이른다.
[삼(三)①+ 곳+ 마음+ 전하다]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가볍게 쥔 왼 주먹 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주먹 등을 대고 동시에 밖으로 내밀며 오른 주먹을 활짝 편다.

삼천대천(三千大千)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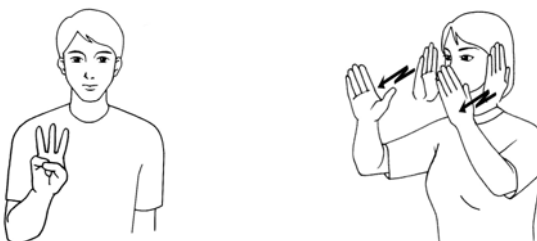
삼천 대천세계. 소천, 중천, 대천의 세 종류의 천세계가 이루어진 세계. 이 끝없는 세계가 부처 하나가 교화하는 범위가 된다.
[삼천+ 하늘②]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千’(천)자를 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킨다.

삼학(三學) ㉞

불교를 배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닦아야 하는 세 가지 내용. 계학, 정학, 혜학이다.
[삼(三)①+ 공부]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상구보리(上求菩提) ㉞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노력+ 깨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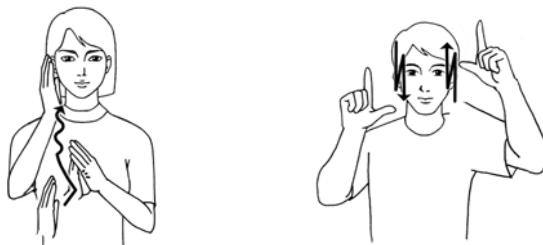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양 볼 밑에서 약간 흔들며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상호

상호(相好) ㄹ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 부처님의 화신에는 뚜렷해서 보기 쉬운 32가지의 상과 미세해서 보기 어려운 80가지의 호가 있다.
[빛나다①+ 모습]



오른 손바닥으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탁 친 다음, 손목을 좌우로 약간 흔들며 위로 올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색(色)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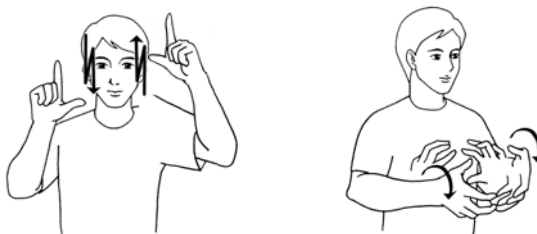
넓은 의미로 물질적 존재의 총칭.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구조. 꼴. 모습. 상태. 상황. 형태.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색계(色界)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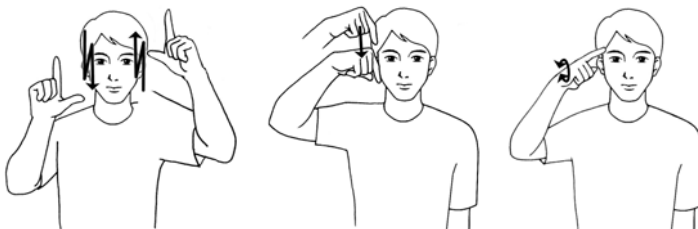
삼계(三界)의 하나. 욕계에서 벗어난 깨끗한 물질의 세계를 이른다. 선정(禪定)을 닦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 세계이다.
[색(色)+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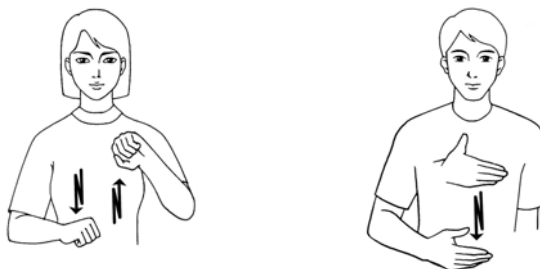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색수상행식(色受相行識) ㄹ

생멸·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모양+ 느끼다+ 생각+ 행동+ 알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쓸어내린다.

생로병사(生老病死) [명]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태어나다+ 늙다+ 병+ 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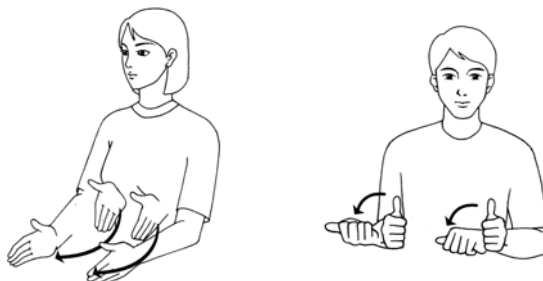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손의 5지를 턱 약간 아래에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 손바닥이 보이게 하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을 이마 중앙에 두 번 댔다 떼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힌다.

생사(生死) [명]

①모든 생물이 과거의 업(業)의 결과로 개체를 이루었다가 다시 해체되는 일. 생로병사의 시작과 끝이다. ②중생의 업력(業力)에 의하여서 삼계(三界)육도(六道)의 미혹한 세계를, 태어나고 죽음을 되풀이하여 돌고 도는 일.

[태어나다+ 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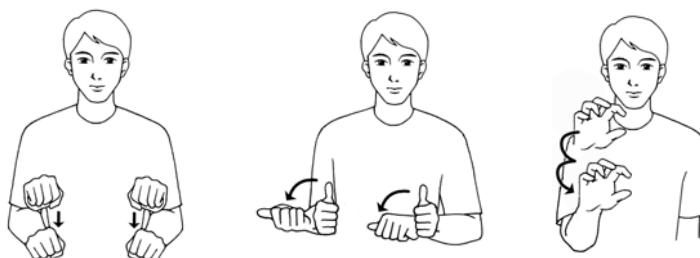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힌다.

생사윤회(生死輪廻) [명]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

[생사+ 윤회]

=윤회생사.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시에 내린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히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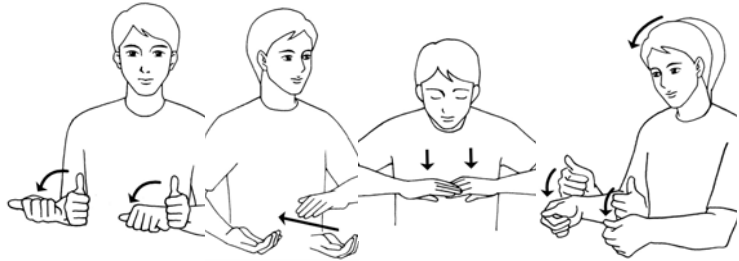
생전예수

생전예수(生前豫修) ㉔

생전에 미리 지내는 자신을 위한 제.
죽은 후에 극락에 가게 해 달라고
지낸다.

[죽다+ 미리+ 제사]

=생전예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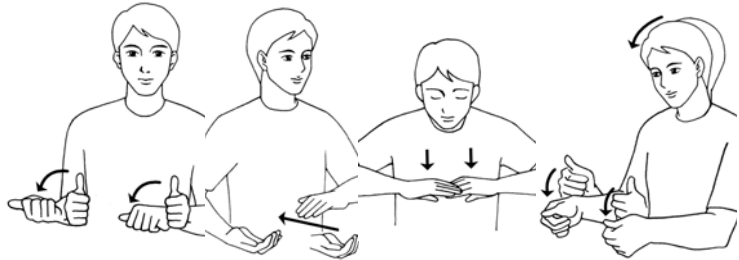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힌 다음,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구부린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㉔

생전에 미리 지내는 자신을 위한 제.

[죽다+ 미리+ 제사]

=생전예수.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힌 다음,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구부린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서방극락(西方極樂) ㉔

서쪽으로 십만 억의 국토를 지나면
있는 아미타불의 세계.

[서(西)①+ 극락]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리고,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서방정토(西方淨土) ㉔

서쪽으로 십만 억의 국토를 지나면
있는 아미타불의 세계.

[서(西)①+ 정토]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리고,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명]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모시어 이르는 말. 삼신불 가운데 화신불에 해당한다.

[불상의 수인을 나타내는 동작]
=본존불. 석가여래. 항마인. 항마촉지인.



왼손을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려 배꼽 아래쪽에 대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석가여래(釋迦如來) [명]

석가모니를 신성하게 이르는 말.

[불상의 수인을 나타내는 동작]
=본존불. 석가모니불. 항마인. 항마촉지인.



왼손을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려 배꼽 아래쪽에 대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석굴암(石窟庵) [명]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 사원. 신라 경덕왕 때에 김대성이 축조한 것으로, 화강암을 석굴 모양으로 쌓아올려 그 위에 흙을 덮었으며, 굴 가운데에 있는 흰 화강암에 조각한 석가여래 좌상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여러 불상이 있는데, 간단하고도 기묘한 모양과 영묘함이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석굴암 석굴이다. 불국사와 더불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국보 제24호.

[돌+ 굴+ 불상]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치아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두 번 내려 댄 다음, 왼손을 약간 구부려 손바닥이 밑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 밑으로 내밀고,

를 이루고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석굴암 석굴이다. 불국사와 더불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국보 제24호.

[돌+ 굴+ 불상]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선

선(禪) 명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히 생각하는 일.

[참선의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
=선. 선정. 참선.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선교(善巧) 명

중생을 교화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주 빼어남.

[포교+ 잘하다]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입 앞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며 활짝 펴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팔등을 스쳐 내린다.

선근(善根)

온갖 선을 낳는 근본.

[좋다+ 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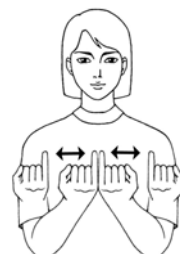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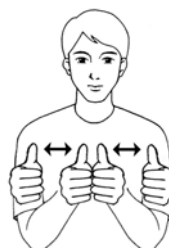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선남선녀(善男善女) 명

불법에 귀의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

[귀의+ 남+ 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떼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떼다.

선남자(善男子) 명

불법에 귀의한 남자.
[귀의+ 남자]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떼는다.

선문답(禪問答)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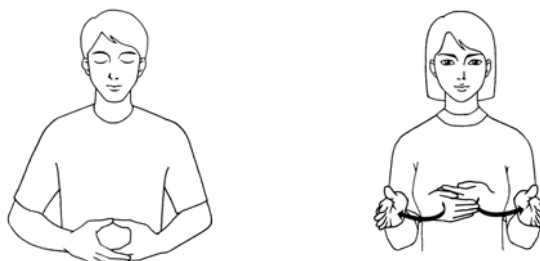
참선하는 사람들끼리 진리를 찾기
위하여 주고받는 대화.
[참선+ 대화]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오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세워 번갈아 좌우로 움직이며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다.

선방(禪房)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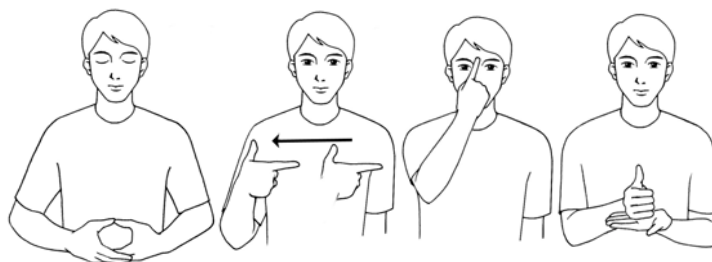
참선하는 방.
[참선+ 방]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선사(禪師) 명

①선종의 법리(法理)를 통달한 스님.
②스님의 높임말. ③고려시대에, 선
종의 법계 가운데 하나. 대선사의 아
래, 삼중대사의 위이다. ④조선시대
에 선종의 법계 가운데 하나. 대선사
의 아래, 중덕의 위이다.
[참선+ 크다(매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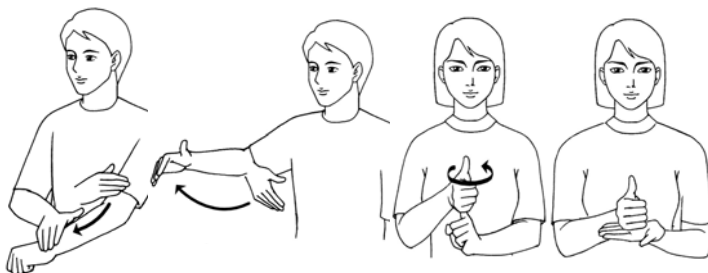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려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선서

선서(善逝) 명

여래십호(如來十號)의 하나. 잘 가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피안(彼岸)에 가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다.

[잘+ 가다+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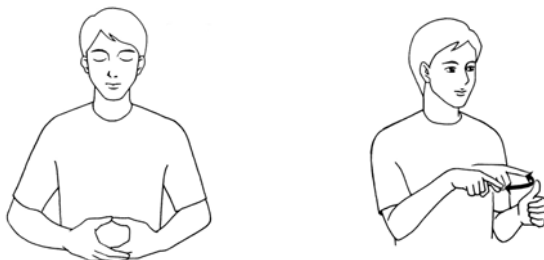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왼 팔뚝을 스쳐 내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내밀며 손끝을 약간 들어 올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선어(禪語) 명

선종(禪宗)의 가르침.

[참선+ 가르치다]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든다.

선업(善業) 명

삼성업의 하나. 착한 일을 이른다.

[좋다+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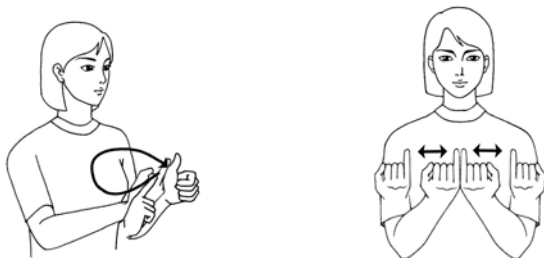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선여자(善女子) 명

불법에 귀의한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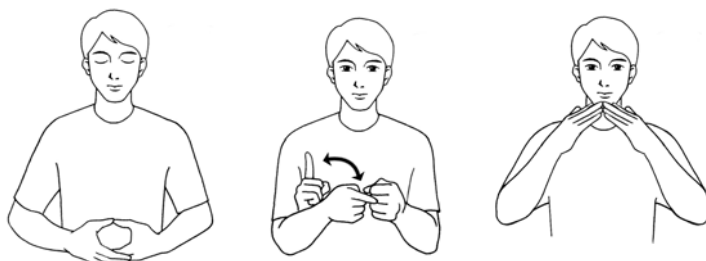
[귀의+ 여자]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 다음,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댄다 댄다.

선원(禪院)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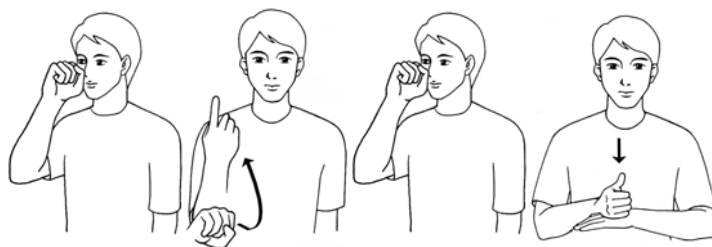
선정(選定)을 닦는 도량.
[참선+ 절']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선인선과(善因善果) 명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따름.
[좋다+ 동기+ 좋다+ 결과]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뺀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선정(禪定) 명

한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하여 흐트러짐이 없음.
[참선의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
=선. 참선. 정근.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명

한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수행.
[참선+ 수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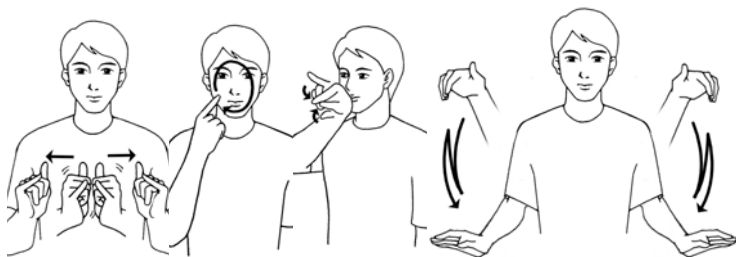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선조

선조(仙鳥) 명

불경에 나오는 사람의 머리를 한 상상의 새.

[사람+ 얼굴+ 새]
=가릉빈가.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얼굴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을 입 앞에 대고 1·5지 끝을 붙인 다음, 두 손을 옆으로 벌려 상하로 흔든다.

선종(禪宗) 명

참선으로 자신의 본성을 구명하여 깨달음의 묘경(妙境)을 터득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교설(敎說) 외에 이심전심으로 중생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하는 종파. 중국 양나라 때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중엽에 전해져 구산문이 성립되었다.

[참선+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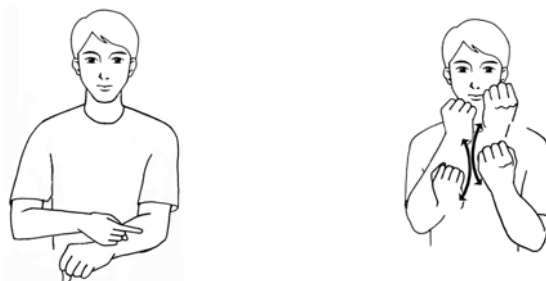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약간 구부러 편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왼 손바닥을 스쳐 내린다.

설계(設戒) 명 하타

①계(戒)를 받을 사람에게 계율을 일러 주는 일. ②계율을 설명하여 들려 주는 일. ③포살(布薩)을 하는 날에 계법(戒法)을 읽는 일.

[계+ 설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스친다.

설법(說法) 명 하자

불교의 교의를 풀어 밝힘.

[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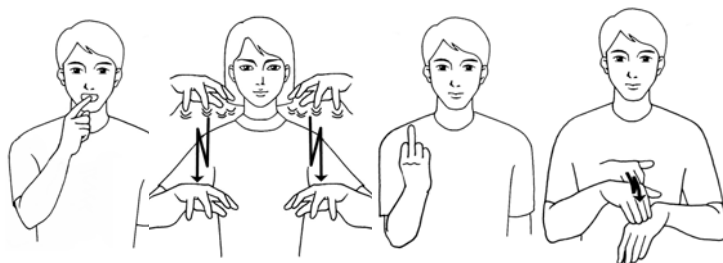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스친다.

설산수도(雪山修道) 명

석가모니가 전세(前世)에 설산에서 행한 수도.

[눈²+ 산+ 수행]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킨 다음,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가락을 번갈아 움직이며 눈앞에서 상하로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설판재자(設辦齋者) 명

한 법회의 모든 비용을 마련하여 내는 사람.

[법회+ 투자+ 사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벌린 왼 손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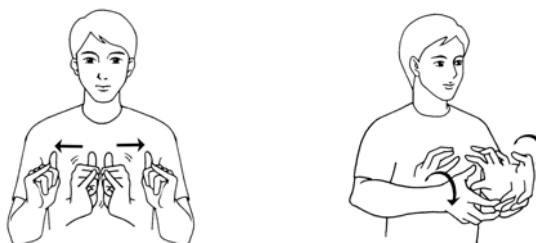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밖으로 내밀며 편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섬부주(贍浮洲) 명

사주(四洲)의 하나. 수미산 남쪽에 있는 대륙으로, 인간들이 사는 곳이며,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은 사주(四洲) 가운데 이곳뿐이라고 한다.

[사람+ 세계]

=인도(人道).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섭수

섭수(攝受) 명

①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임. ②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들어서 보살핌.

[안다+ 보호②]

=섭취(攝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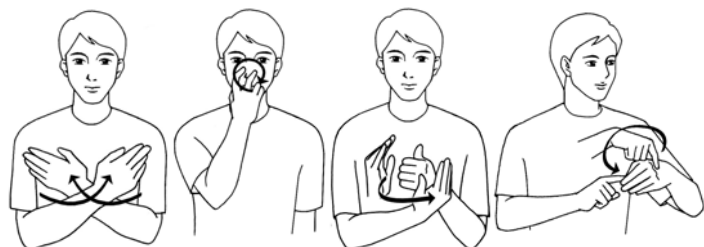


두 팔을 크게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대고, 오른 주먹 1·2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다.

섭심(攝心) 명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함.

[안다+ 보호+ 마음]



두 팔을 크게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대고, 오른 주먹 1·2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린 다음, 펴서 세운 오른손을,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감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섭취(攝心) 명

자비심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임.

[안다+ 보호②]

=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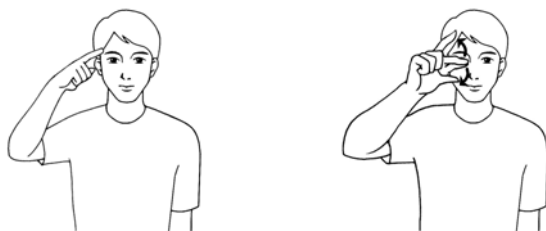
두 팔을 크게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대고, 오른 주먹 1·2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다.

성도(成道) 명

깨달아 부처님이 되는 일. 특히 석가모니가 음력 12월 8일에 보리수 아래서 큰 도(道)를 이룬 일을 이른다.

[생각+ 뜨다]

=개오, 깨닫다. 니르바나. 대오. 모지. 보리①. 열반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댄다.

성도절(成道節) ㉔

석가모니의 성도(成道)를 기념하는 날. 음력 12월 8일이다.
[깨닫다+ 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올린다.

성불(成佛)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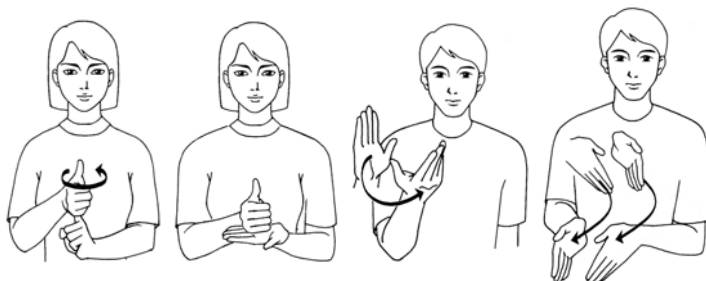
부처님이 되는 일. 보살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덕을 완성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을 이른다.
[부처님+ 되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성불도(成佛道)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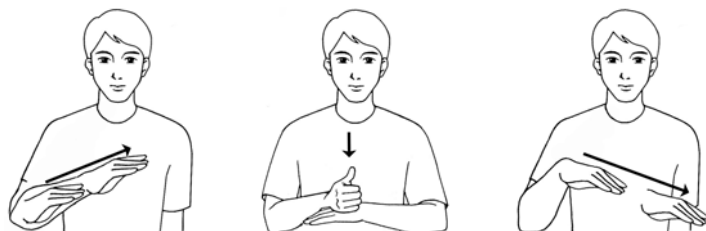
부처님이 되는 일. 보살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덕을 완성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을 이른다.
[성불+ 길]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린다.

성자필쇠(盛者必衰) ㉗

융성하는 것은 결국 쇠퇴해짐.
[오르막+ 결과+ 내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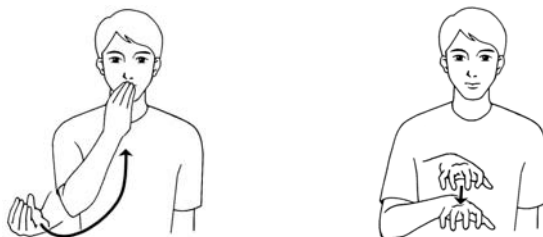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비스듬히 왼쪽 위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비스듬히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고,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비스듬히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비스듬히 내린다.

성지

성지(聖地)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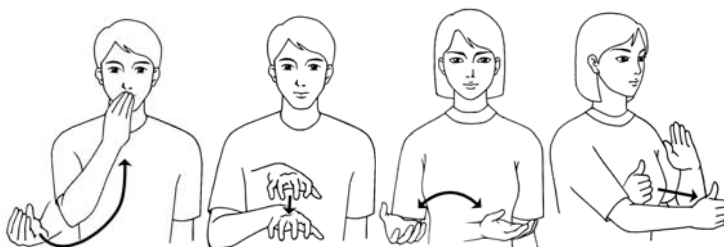
종교의 발상지나 순교가 있었던 지역으로 신성시하는 장소.
[성스럽다+ 곳]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은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성지순례(聖地巡禮) (명)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호와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성지 또는 본산(本山) 소재지를 차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
[성지+ 순례]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은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 오른쪽에서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밖으로 내민다.

세간해(世間解) (명)

여래십호(如來十號)의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세계+ 이해+ 부처님]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 다음,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벌린 다음, 그 사이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안에서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세속(世俗) (명)

불가에서 일반 사회를 이르는 말.
[보통+ 사회]
=속세(俗世).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닿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린다.

세존(世尊) 명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세계+ 존경]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린다.

소승(小乘) 명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가르치는 교법. 석가모니가 죽은 지 약 100년 뒤부터 시작하여 수백 년간 지속된 교법으로 성문승과 연각승이 있다. 소극적으로 개인적인 열반만을 중시한 나머지, 자유스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참된 인간성의 구현을 소홀히 하는데 반발하여 대승이 일어났다.

[작다②+ 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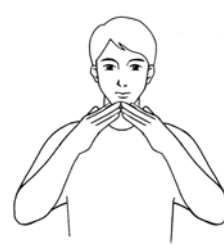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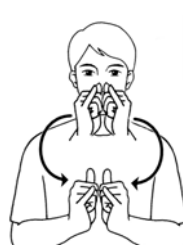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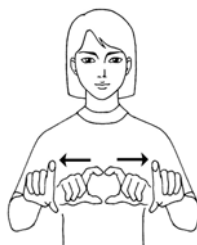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 끝에 5지 끝을 댔다가 뗀 뒤,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양쪽 옆구리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두 바퀴 돌린다.

속가(俗家) 명

①불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집.
②스님이 되기 전에 태어난 집.

[세속+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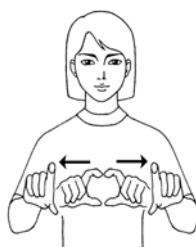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리고,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속세(俗世) 명

불가에서 일반 사회를 이르는 말.
¶ 속세와의 인연을 끊다.

[보통+ 사회]

=세속(世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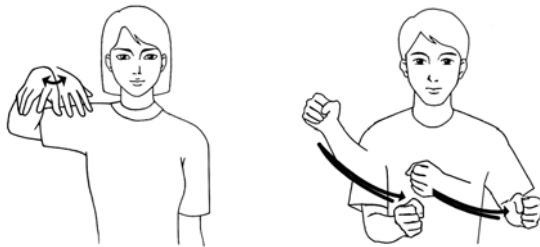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린다.

씻송

씻송(-頌) 명

아침저녁에 드리는 예불의 준비로 종 따위를 치며 진언(眞言)이나 법계(法戒)를 외우는 일. 지전(知殿)이나 그 대리가 한다.

[종+ 치다]



오른손을 펴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려 오른쪽 귀 옆에서 좌우로 흔든 다음,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오른쪽으로 올렸다가 왼쪽 밖으로 내린다.

수(受) 명

십이 연기의 하나.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이어서 느끼는 작용을 이른다. 근(根), 경(境), 식(識)이 화합한 촉(觸)으로부터 생긴다.

[받아들이는 동작]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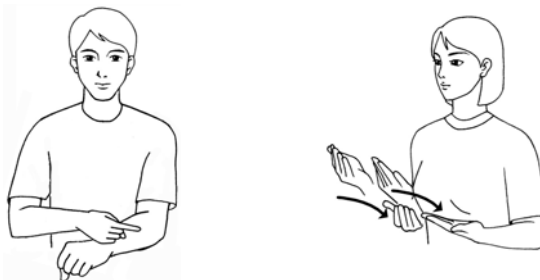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수계(受戒)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받음.

[계+ 받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수기(受記) 명

부처님으로부터 내생에 부처님이 되리라고 예언을 받음.

[선언 받음을 나타내는 동작+ 받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옆면을 밖에서 입 앞으로 동시에 당기며 약간 좁힌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수도(修道)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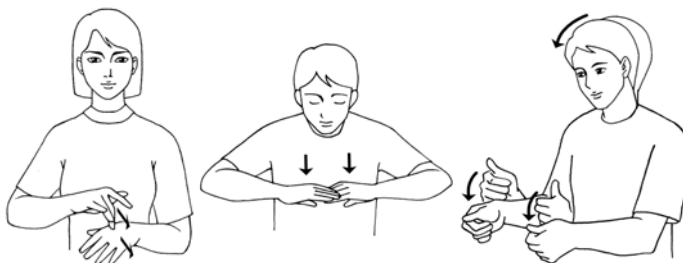
도를 닦음.
[두드려 펴는 동작]
=단련, 수행.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수륙재(水陸齋)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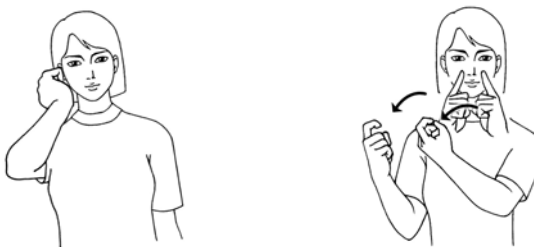
물과 육지의 홀로 떠도는 귀신들과
아귀(餓鬼)에게 공양하는 제.
[귀신+ 제사]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밀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수면(隨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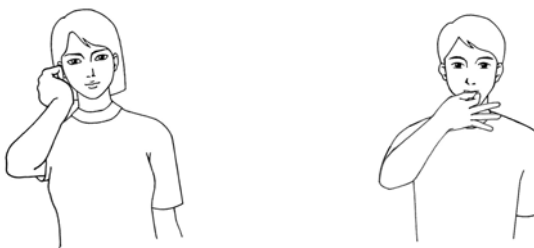
번뇌를 달리 이르는 말. 번뇌가 중생
을 늘 따라다니며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잠자는 것과 같다는 뜻으
로 이르는 말이다.
[잠+ 유혹당하다]



오른 주먹을 베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자세를 취한 다음, 졸린 표정을 지으며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코 양옆에 댔다가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1지를 구부린다.

수면욕(睡眠慾)

삼욕의 하나. 잠을 자고 싶어 하는
욕심.
[잠+ 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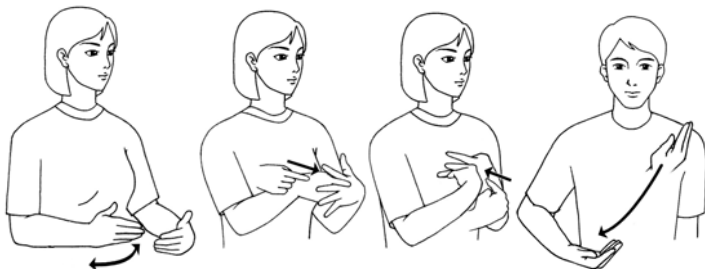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베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자세를 취한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아로 문다.

수보리

수보리(須菩提) 명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온갖 법이 공(空)하다는 이치를 처음 깨달은 사람이다.

[비다+ 이해+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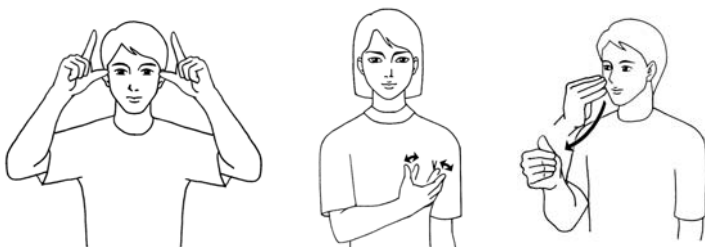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안에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벌린 다음, 그 사이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안에서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수유(酥油) 명

우유를 끓여서 만든 기름. 병든 수행승(修行僧)이 약으로 복용하거나, 밀교에서 호마(護摩)때에 오탁에 섞어 태우는 데에 쓴다.

[우유+ 기름²]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머리 양쪽에 대고 세운 다음,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두 번 구부렸다 펴고, 오른 손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면서 5지로 나머지 손가락을 4지부터 차례로 비빈다.

수인(手印) 명

모든 불보살과 제천선신의 깨달음의 내용이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 가운데, 양쪽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모양.

[손+ 모양]

=밀인(密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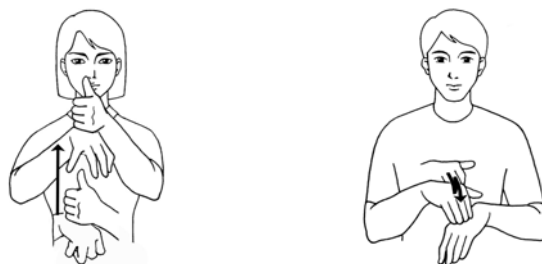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을 왼 손등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수인(修因) 명

불과(佛果)를 얻게 되는 원인인 보살행을 닦음.

[보살+ 수행]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편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수인(酬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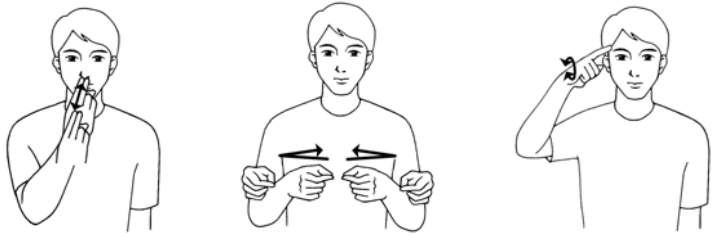
보살의 수행이 보답을 받는 일.
[수행+보답]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X'표를 그린다.

수자상(壽者相) 명

사상(四相)의 하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나 태어날 때 일정한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른다.
[생명+길이+생각]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약간 돌린다.

수좌(首座) 명

선원(禪院)에서 참선하는 스님. 또는 염불당의 염불승.
[지배②+스님]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등에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돌려 끌어들이며 주먹을 쥐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수행(修行)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데 힘씀.
☞ 수행을 쌓다.
[두드리며 펴는 동작]
=단련.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수행문

수행문(修行門) 명

사문(四門)의 남쪽에 있는 문을 이르는 말. 발심, 수행, 보리, 열반의 네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이다.
[수행+문]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수행자(修行者)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사람.
[수행+사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숙명통(宿命通) 명

전생을 아는神通한 능력.
[전생+ 꿰뚫다+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 다음,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세워 등을 댔다가 오른손만 안으로 당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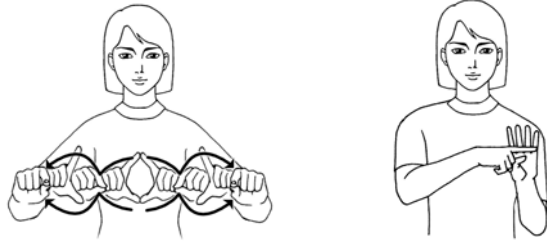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손가락을 벌려 모로 세운 왼손의 1·2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끼워 넣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숙업(宿業) 명

지난 세상에서 지은 여러 가지 선악의 업.

[여러 가지임을 나타내는 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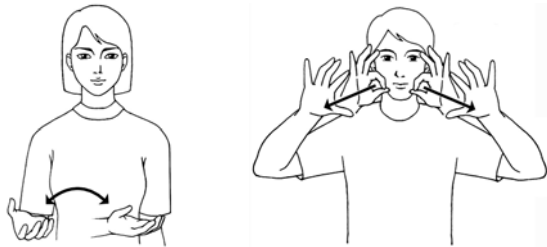


두 주먹 각각 1·5지를 두 번 벌렸다 붙이며 양옆으로 벌린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순교(巡敎) 명

석장(錫杖)을 짚고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스님이 여러 곳으로 다니며 포교하는 일.

[이동+ 입으로 퍼뜨리는 동작]
=순석. 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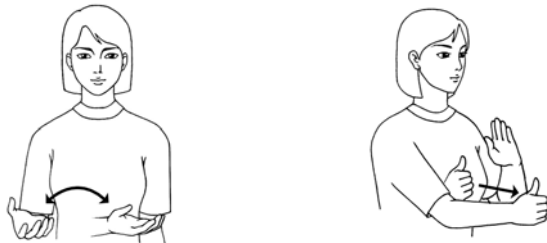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입 앞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며 활짝 편다.

순례(巡禮) 명 하타

종교의 발생지, 본산(本山)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여 참배함.

¶ 순례의 길을 떠나다.
[이동+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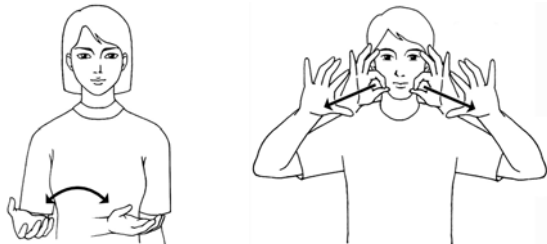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바닥 오른쪽에서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밖으로 내민다.

순석(巡錫) 명

석장(錫杖)을 짚고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스님이 여러 곳으로 다니며 포교하는 일.

[이동+ 입으로 퍼뜨리는 동작]
=순교. 순화.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입 앞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며 활짝 편다.

순수

순수(順修) 명

미혹을 버리고 진리에 따라 수행하는 일.

[진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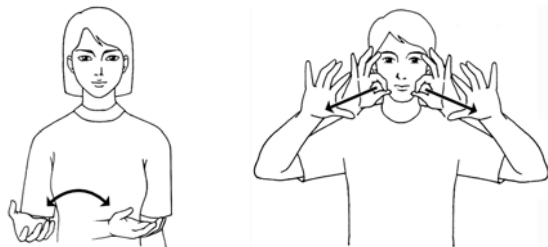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순화(巡化) 명

석장(錫杖)을 짚고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스님이 여러 곳으로 다니며 포교하는 일.

[이동+입으로 퍼뜨리는 동작]

=순교, 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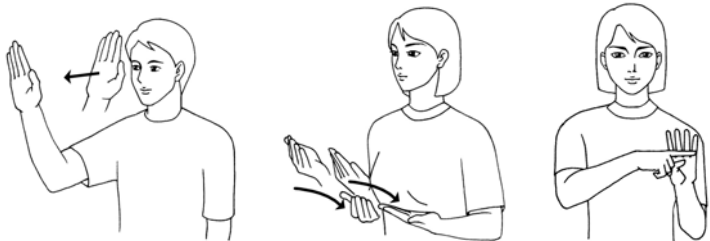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입 앞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며 활짝 편다.

순후업(順後業) 명

삼시업의 하나. 삼생(三生)이후에 과보(果報)를 받을 업(業)을 이른다.

[미래+받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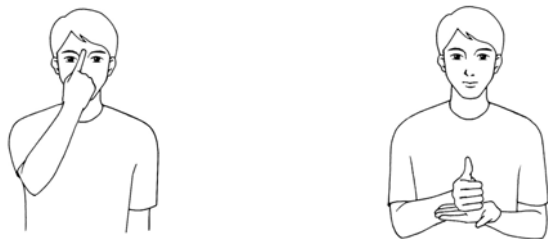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기고,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스님 명

스님이 자신의 스승을 이르는 말. 스님을 높여 이르는 말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님]

=비구, 비구승, 사문⁴, 승², 승가, 승려,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스투파 [명]

답.
[쌓다②+ 궁]
=답.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은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습생(濕生) [명]

사생(四生)의 하나.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생물을 이른다. 뱀이나 개구리 따위가 있다.
[①습기+ 생기다. ②습기+ 태어나다]



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5지 등을 대면서 나머지 손가락을 모아 5지 바닥에 대고,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다.



②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5지 등을 대면서 나머지 손가락을 모아 5지 바닥에 대고,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승(←sam 산)

상(sam)'은 '완전히'라는 의미이다.
=완전하다.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는다.

승

승(乘) 명

불교의 교의를 달리 이르는 말. 중생을 태워서 생사의 고히를 건너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뜻.

[바퀴가 돌아감을 나타내는 동작]
=수레.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양쪽 옆구리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두 바퀴 돌린다.

승(僧) 명

중.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

=비구. 비구승. 사문⁴. 스님. 승가. 승려.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승가(僧伽) 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불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단. 세 사람 이상의 화합된 무리라는 뜻으로 '중(衆)'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

=비구. 비구승. 사문⁴. 스님. 승². 승려.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승계(僧戒) 명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

[스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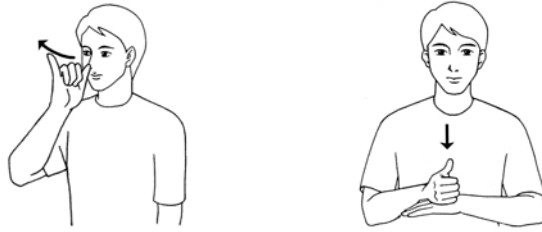
=구족계. 비구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승과(勝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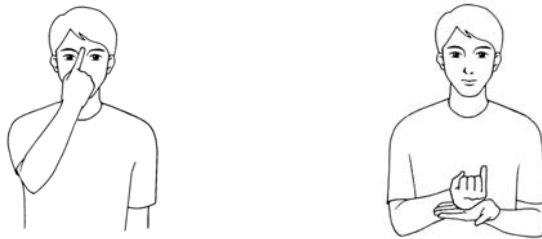
훌륭한 과보(果報).
[훌륭하다②+ 결과]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댔다가 약간 위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승녀(僧女) [명]

여자 스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여]
=비구니, 여스님, 여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승니(僧尼) [명]

비구와 비구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스님+ 남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오른쪽으로 약간 옮기며 5지를 접고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승당(僧堂) [명]

선원에서, 스님이 좌선하며 기거하는 집. 대개 절의 안쪽 오른쪽에 있는데 선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로서 엄격한 규칙이 있다.
[스님+ 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승려

승려(僧侶) 명

불교의 출가 수행자.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님]

=비구. 비구승. 사문⁴. 스님. 승². 승가. 출가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승방(僧房) 명

여승들이 사는 절.

[목탁+궁]

=가람. 도량. 불도량. 사문². 사찰. 절.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승보(僧寶) 명

삼보(三寶)의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스님+보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폈다.

시무외(施無畏) 명

①중생에게 두려움을 없애 주고 구원하여 주는 일. ②'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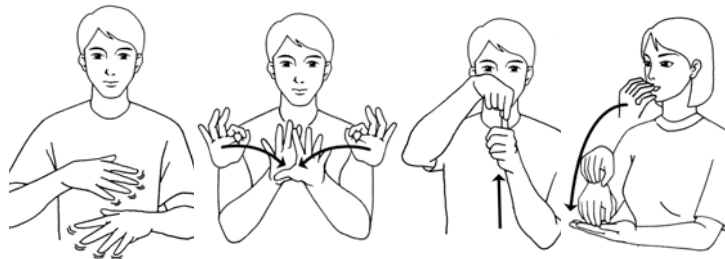
[두렵다+사라지다①+구원]



두 손의 5지 끝을 몸 중앙의 위와 아래에 대고 손가락을 흔든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펴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다.

시무외인(施無畏印) 명

부처님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 주기 위하여 나타내는 형상.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펴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물건을 주는 시늉을 하고 있다.
[시무외+증]



두 손의 5지 끝을 몸 중앙의 위와 아래에 대고 손가락을 흔든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양쪽 가슴 앞에 세웠다가 두 손을 맞부딪치며 1·5지를 펴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 다음, 반쯤 구부린 오른손에 입김을 쉼하고, 손끝을 왼 손바닥에 힘주어 내려 댄다.

시방세계(十方世界) 명

온 세계.
[모두+세계]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시방제불(十方諸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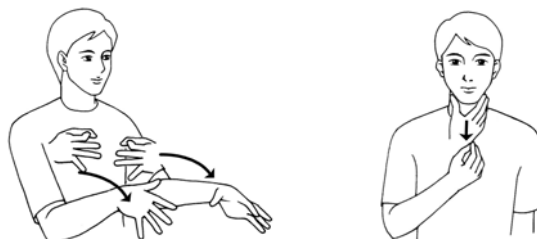
시방의 모든 부처님.
[모두+부처]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시복(施福) 명

시주가 많이 들어오는 일.
[시주+복]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밖으로 내밀며 편 다음,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다.

시주

시주(施主) 명 하타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스님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돈을 내놓는 동작]

=투자.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밖으로 내밀며 편다.

식(識) 명

십이 연기의 하나. 대상을 다르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른다.

[받아들이며 식이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알다.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쓸어내린다.

식욕(食慾) 명

삼욕(三慾)의 하나, 먹고자 하는 욕심을 이른다.

[먹다+ 욕심]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아로 문다.

신경통(神境通) 명

뜻대로 모습을 바꾸거나 마음대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

[귀신+마찬가지②+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신족통.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민 다음, 왼 주먹을 1지를 펴서 모로 세우고 1지 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2회 내려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신심(信心) ㄷ

종교를 믿는 마음.
[믿다+ 마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신업(身業) ㄷ

삼업(三業)의 하나. 몸으로 짓는 일체의 죄업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邪淫) 따위이다.
[몸+ 업]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신장(神將)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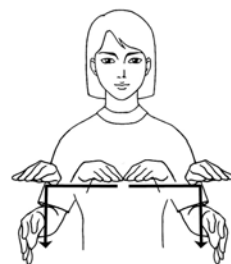
화엄신장. 화엄경을 보호하는 신장. 곧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장이다.
[귀신+ 대장]
=신중.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 끝으로 왼주먹의 손목 등을 스쳐 올린다.

신장단(神將壇) ㄷ

불법을 지키는 화엄신장을 모시는 단.
[신장+ 단]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 끝으로 왼주먹의 손목 등을 스쳐 올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맞댄 다음, 옆으로 벌리다가 손목을 돌려 밑으로 약간 내린다.

신족통

신족통(神足通) 명

뜻대로 모습을 바꾸거나 마음대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

[귀신+ 마찬가지+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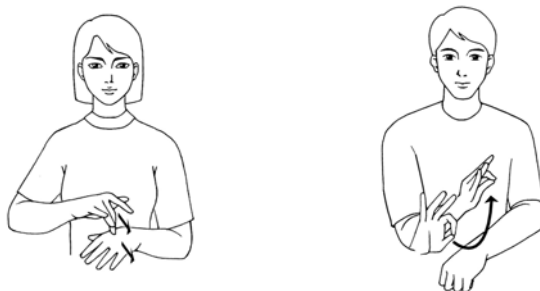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민 다음, 왼 주먹을 1지를 펴서 모로 세우고 1지 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2회 내려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신중(神衆) 명

화염경을 보호하는 신장. 곧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장이다.

[귀신+ 대장]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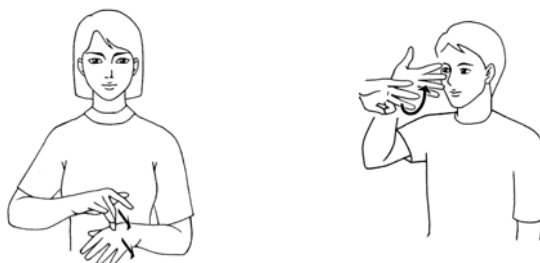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약간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 끝으로 왼주먹의 손목 등을 스쳐 올린다.

신통(神通) 명

무슨 일든지 해낼 수 있는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힘이나 능력. 불교에서는 선정(禪定)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귀신+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실상(實相) 명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참+ 모습]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실상관(實相觀) ㉔

만유(萬有)의 실상을 관찰함.
[실상+ 관찰(조사)]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러 벌려 끝이 두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십대제자(十代弟子) ㉕

석가모니의 제자 열 사람. 두타 제일 마하가섭, 다문 제일 아난타, 지혜 제일 사리불,神通(神通) 제일 목건, 천안(天眼) 제일 아나율, 해공(解空) 제일 수보리, 설법 제일 부루나, 논의(論議) 제일 가전연, 자율 제일 우바리, 밀행 제일 나후라 등을 이른다.
[십(十)②+ 크다(매우)+ 제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십바라밀(十波羅蜜)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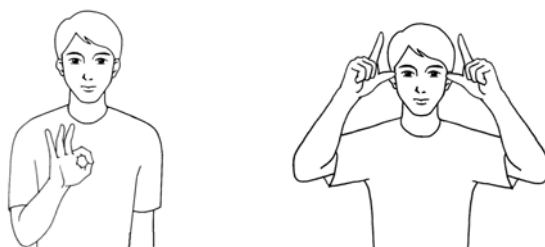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열 가지 덕목.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바라밀, 역 바라밀, 지바라밀을 이른다.
[십(十)②+ 바라밀]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힌다.

십우(十牛) ㉗

선(禪)을 수행하여 자기의 본심(本心)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를 열 단계로 나타낸 것. 본심을 소에 비유하여, 심우(尋牛), 견적(見迹), 견우(見牛), 득우(得牛), 목우(牧牛), 기우귀가(騎牛歸家), 망우존인(忘牛存人), 인우구망(人牛俱忘), 반본환원(返本還源), 입전수수(入塵垂手)의 열 단계로 설명한다.
[십(十)②+ 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머리 양쪽에 댄다.

십우도

십우도(十牛圖) [명]

십우(十牛)를 그린 그림.
[십우+그리다*]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머리 양쪽에 댄 다음,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십이연기(十二緣起) [명]

범부로서의 인간의 괴로운 생존이 열두 가지 요소의 순차적인 상관관계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 것. 진리에 대해 무지(無知)한 무명(無明)을 근본 원인으로 하여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처(六處),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가 순차적으로 있게 된다고 한다.
[십이(十二)+연기(緣起)]



오른 주먹의 1지를 굽히고 2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뗀다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십이인연(十二因緣)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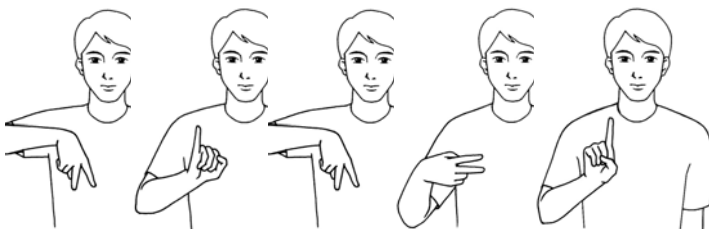
범부로서의 인간의 괴로운 생존이 열두 가지 요소의 순차적인 상관관계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 것.
[십이(十二)+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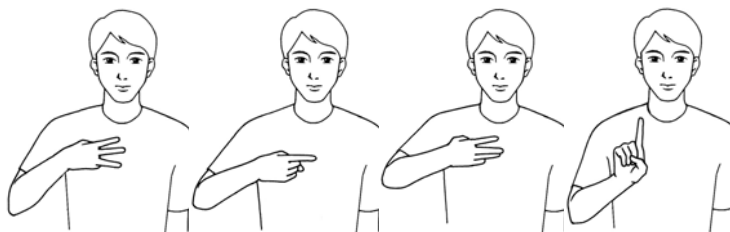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굽히고 2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뗀다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의 1·5지를 맞대어 서로 끼고 좌우로 움직인다.

싯다르타(Siddhartha Gautama) [명]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 태자 때의 이름.
[지문자 '싯다르타']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1·2지를 접고 4지를 펴서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4지를 접고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1:2:3지를 펴서 벌려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2:3지는 붙이고 1지는 떼고,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쌍림열반(雙林涅槃) 명

석가모니가 사라쌍수의 숲에서 죽음.

[나무+ 기둥+ 열반②]

=쌍림입멸.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두 주먹을 들어 팔을 세우고,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쪽으로 눕힌다.

쌍림입멸(雙林入滅) 명

석가모니가 사라쌍수의 숲에서 죽음.

[나무+ 기둥+ 열반②]

=쌍림열반.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두 주먹을 들어 팔을 세우고,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쪽으로 눕힌다.



아견(我見) 명

칠건의 하나. 하나이며 모든 것을 주재하는 '나'를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이다.

[나+ 중(中)+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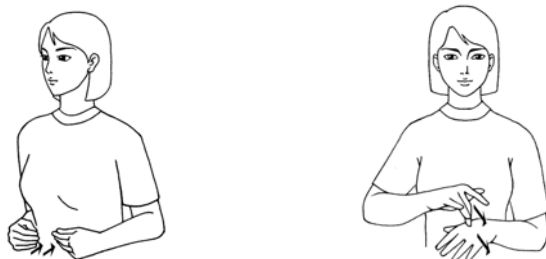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아귀(餓鬼) 명

팔부의 하나. 계율을 어기거나 탐욕을 부려 아귀도에 떨어진 귀신으로,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

[배고프다+ 귀신]



자연스럽게 편 두 손의 5지 등을 배에 대고 5지 바닥에 나머지 손가락을 모아대고 누르면서 몸을 약간 구부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민다.

아귀도(餓鬼道) 명

오도(五道)의 하나. 아귀들이 모여 사는 세계. 이곳에서 아귀들이 먹으려는 음식은 불로 변하여 늘 굶주리고, 항상 매를 맞는다고 함.

[아귀+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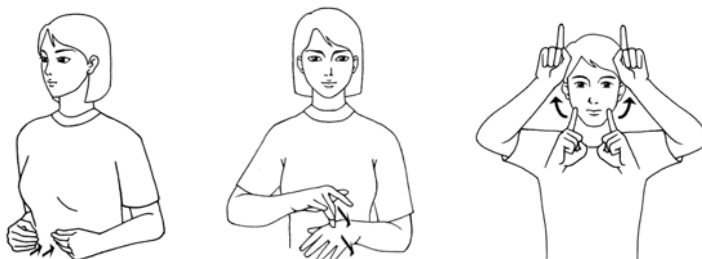


자연스럽게 편 두 손의 5지 등을 배에 대고 5지 바닥에 나머지 손가락을 모아대고 누르면서 몸을 약간 구부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밀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아귀지옥(餓鬼地獄) [명]

삼악도의 하나. 아귀들이 모여 사는 세계. 이곳에서 아귀들이 먹으려는 음식은 불로 변하여 늘 끓주리고, 항상 배를 맞는다고 한다.

[아귀+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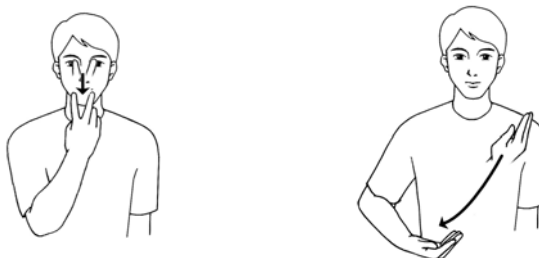


자연스럽게 편 두 손의 5지 등을 배에 대고 5지 바닥에 나머지 손가락을 모아대고 누르면서 몸을 약간 구부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아나율(阿那律) [명]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육안을 못 쓰는 대신 천안(天眼)이 열려 천안제일(天眼第一)이라고 부른다. 석가가 경전을 결집할 때 참석하여 일익을 담당하였다.

[맹(盲)+ 제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벌려 펴서 끝 바닥을 두 눈에 대고 아래로 내린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아나다(Anada) [명]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십육 나한의 한 사람으로 석가모니 열반 후에 경전 결집에 중심이 되었으며, 여인 출가의 길을 열었다.

[크다+ 귀+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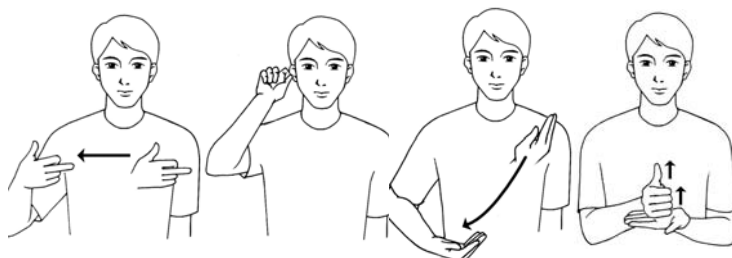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2·5지를 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로 오른쪽 귀를 잡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아난존자(阿難尊者) [명]

아난다를 높여 이르는 말.

[아나다+ 제자]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2·5지를 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로 오른쪽 귀를 잡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약간 올린다.

아당안지

아당안지(我當安之)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나+ 안심+ 주다]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약간 구부린 왼손은 배에, 오른손은 그 위쪽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며 손가락을 모으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민다.

아미타(阿彌陀) 명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님,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님으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님을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한다.
[아미타불의 수인을 나타내는 동작]
=가만있다. 멈추다.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다.

아미타불(阿彌陀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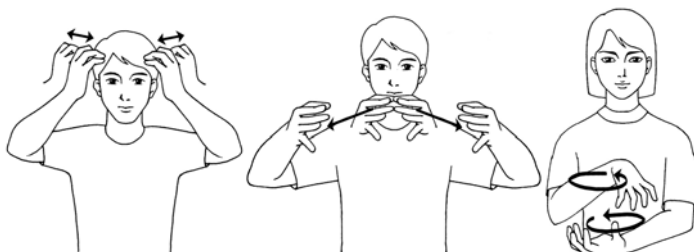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님,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님으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님을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한다.
[아미타+ 부처]
=노사나불.



두 손 각각 2·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은 오른쪽 얼굴 옆에 세우고, 왼손은 배 왼쪽 앞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아비규환(阿鼻叫喚) 명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 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난+ 소리치다+ 혼란(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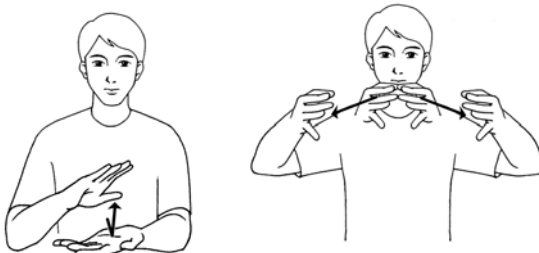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리고, 1·5지 끝을 맞댄 두 손을 입가에 나란히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벌리며 내민 다음,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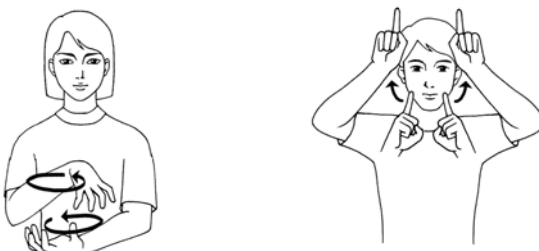
아비지옥(阿鼻地獄) 명

팔열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오역죄를 짓거나 절이나 탑을 헐거나, 시주한 재물을 축내거나 한 사람이 가는데, 한 겹(劫)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옥이다.

[뜨겁다+ 지르다*+ 혼란+ 지옥]
=규환지옥.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빠르게 떼어 올리고, 1·5지 끝을 맞댄 두 손을 입가에 나란히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벌리며 내민 다음,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아상(我相) 명

사상(四相)의 하나. 오온(五蘊)이 화합하여 생긴 몸과 마음에 참다운 '나'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를 이른다.
[나+ 있다+ 생각]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아수라(阿修羅) 명

팔부중의 하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으로, 항상 제석천과 싸움을 벌인다.

[싸우다+ 중독①+ 귀신]



손등이 밖으로 향한 두 주먹의 손가락 등을 두 번 맞부딪친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입에 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민다.

아수라장

아수라장(阿修羅場)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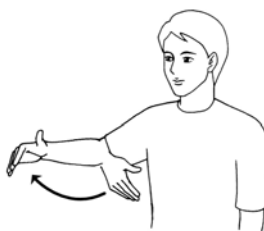
①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혹은 그런 상태. ②아수라왕이 제석천과 싸운 마당.
[싸우다+ 혼란+ 장소]



손등이 밖으로 향한 두 주먹의 손가락 등을 두 번 맞부딪치고, 두 손을 구부려 머리 양쪽에 대고 좌우로 두 번 돌린 다음,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리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아제(←gate 산)

산스크리트어로 ‘가테(gate)’는 ‘가는 이여’, ‘가자’라는 뜻.
[나가는 동작]
=가다.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내밀며 손끝을 약간 들어 올린다.

아집(我執) ㉔

자신의 심신 가운데 사물을 주재하는 상주불멸의 실체가 있다고 믿는 집착, 선천적인 것인 구생(俱生)과 후천적인 것인 분별(分別)로 나눈다.
㉔ 아집을 버리다.
[나+ 중(中)+ 고집]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5지 등이 닿게 이마에 댄다.

악견(惡見) ㉔

육번뇌의 하나. 모든 법의 진리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번뇌.
[악+ 생각]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 끝을 왼쪽으로 스쳐 낸 다음, 1지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악업(惡業) 명

삼성업의 하나. 나쁜 과보(果報)를 가져올 악한 행위를 이른다.

[악+ 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 끝을 왼쪽으로 스쳐 낸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악연(惡緣) 명

①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주위의 환경. ②종지 못한 인연.

[악+ 인연]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 끝을 왼쪽으로 스쳐 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뺀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의 1·5지를 맞대어 서로 끼고 좌우로 움직인다.

안거(安居) 명 하자

출가한 스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제도.

[감히다+ 참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손으로 내리 덮으며 동시에 약간 내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암자(庵子) 명

①큰 절에 딸린 작은 절 ②도를 닦기 위하여 만든 자그마한 집.

[작다②+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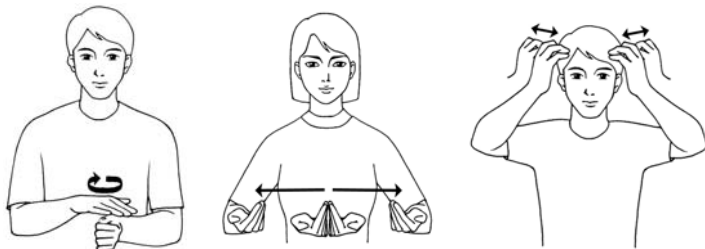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 끝에 5지 끝을 댔다가 뺀 뒤, 가볍게 켜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리면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애별리고

애별리고(愛別離苦) [명]

팔고(八苦)의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사랑+ 헤어지다+ 고난]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가슴 앞에서 마주 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애어(愛語) [명]

부드럽고 따뜻하며 사랑이 담긴 말.

[사랑+ 말]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애어섭 [명]

사섭법(四攝法)의 하나. 보살이 중생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살과 친하여지게 하고 믿고 따르게 함으로써 불도에 이끌어 들이는 방법.

[애어+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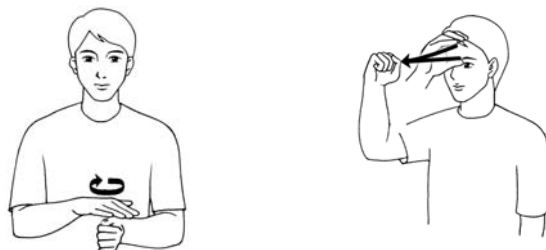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밖으로 당긴다.

애집(愛執) [명]

좋아하여서 집착함.

[사랑+ 무소불]

=애착.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을 반쯤 오므려 1·5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며 주먹을 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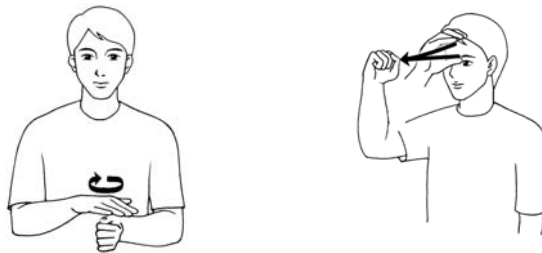
애착(愛着) 명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떨어지지 아니함.

¶ 그는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사랑+ 무소불.]

=애집.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을 반쯤 오므려 1·5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며 주먹을 쥐다.

야단법석(野壇法席) 명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법+ 대화¹②]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려 벌린 왼 손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약사여래(藥師如來) 명

열두 가지 서원(誓願)을 세워 중생의 질병 구제, 수명 연장, 재화 소멸, 의식(衣食) 만족를 이루어 주며, 중생을 바른길로 인도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처님. 큰 연꽃 위에 앉아서 왼손으로는 약병을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시무외인을 맺고 있다.

[약+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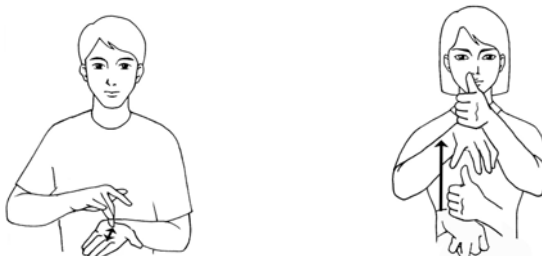


오른손의 2지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전후로 두 번 문지르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약왕보살(藥王菩薩) 명

중생에게 좋은 약을 주어 몸과 마음의 병고를 덜어 주고 고쳐주는 보살.

[약+ 보살]



오른손의 2지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전후로 두 번 문지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양설

양설(兩舌) ㄹ

십악의 하나. 서로에게 다른 말을 하여 이간질함.

[벽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다른 말을 하고 저쪽에서 다른 말을 함을 나타내는 동작]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손의 4지 옆면에 왼손의 1지 옆면을 대고 얼굴 앞에서 좌우로 동시에 움직인다.

양족존(兩足尊) ㄹ

두발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이라는 뜻. '부처님'을 높여 이르는 말. 양족(兩足)은 복덕과 지혜, 계(戒)와 정(定), 대원(大願)과 수행을 원만하게 갖추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처님의 두발을 떠 받치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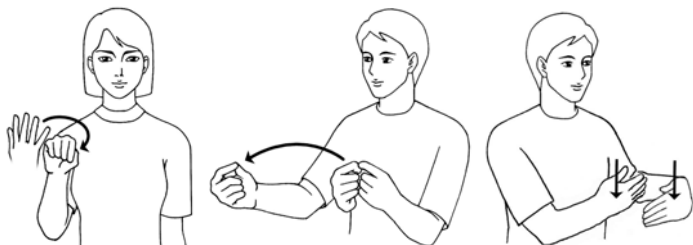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으로 올린다.

억겁(億劫) ㄹ

무한하게 오랜 시간.

[억+겁]



오른손의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벌렸다가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돌리며 5·1·2·3·4지 순으로 손가락을 잡고,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댔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민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밖에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을 약간 내린다.

업(業) ㄹ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

[글자 '業'(업)을 구성하는 동작]
=카르마.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업경대(業鏡臺) ㄷ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 지나는 사람의 생전의 행실을 그대로 비춘다고 한다.

[업+거울]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대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포개어 왼 손바닥에 대고 두 번 튕긴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얼굴로 향하게 세운다.

업보(業報) ㄷ

①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果報). ②업(業)과 과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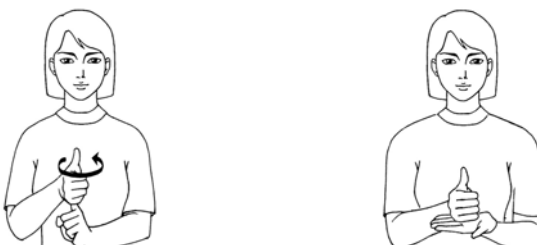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여래(如來) ㄷ

여래 십호의 하나.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비로자나불상(큰 광명을 내 비춘다는 부처)의 손 모습+님]
=부처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여래십호(如來十號) ㄷ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열 가지 칭호. 여래(如來),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이다.

[부처+십(十)①+이름]

=불십호.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댈다.

여법

여법(如法)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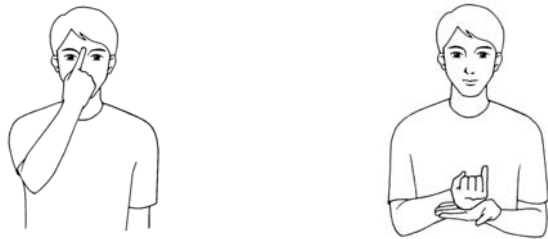
여래의 교훈에 맞음.
[법+ 같다]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여스님(女-)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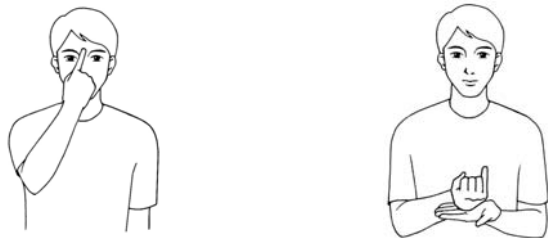
여자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여]
=비구니. 승녀. 여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여승(女僧)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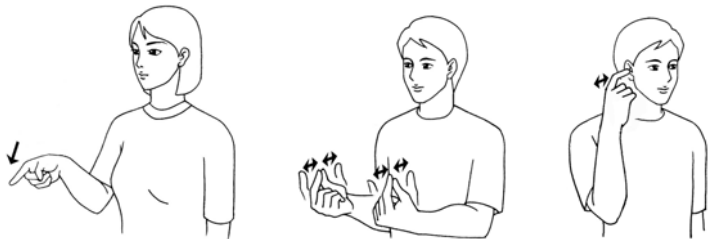
여자 스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여]
=비구니. 승녀. 여스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여시아문(如是我聞) (명)

모든 불경의 첫머리에 붙은 말.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불경이 석가모니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서 불경이 곧 부처님의 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증하는 말이다.
[이것+ 같다+ 듣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오른쪽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여여(如如) 명

한결같고 변함이 없음.

[과거/현재/같다]

=그만하다②. 여전하다. 전과 똑같다. 한결같다.



두 주먹의 1·5지 끝이 양쪽 어깨 뒤로 향하게 하였다가 앞으로 내리며 1·5지 끝을 두 번 맞댄다.

연각(緣覺) 명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도를 깨달은 성자(聖者). 그 지위는 보살의 아래, 성문(聲聞)의 위이다.

[스스로+ 깨닫다]

=독각. 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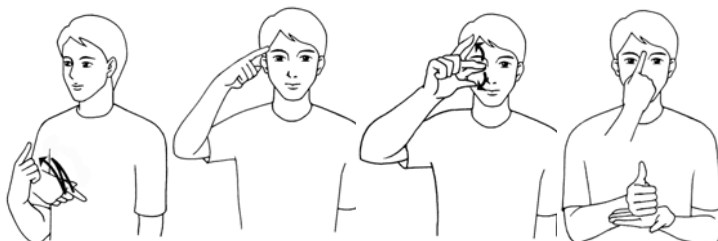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우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나.

연각승(緣覺乘) 명

삼승(三乘)의 하나.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교법을 이른다.

[독각+스님]

=독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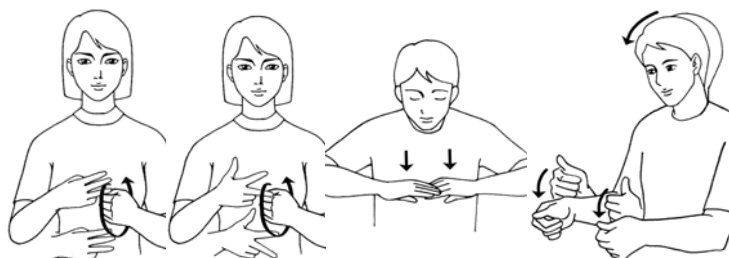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우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연기(年忌) 명

사람이 죽은 뒤 3년, 7년이 되는 기일에 그 사람의 명복을 비느라고 불사(佛事)하는 일.

[3년+7년+제사]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주위를 위로부터 밖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3지를 접고 5지를 펴서 한 바퀴를 돌리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연기(緣起) 명

①모든 현상이 생기(生起) 소멸하는 법칙, 이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원인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하며,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우주 만유 모든 존재는, 서로 얽힌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생겨나 있다는 것). ②중생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법하는 일.

[연관+ 동기]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뺀 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연꽃(蓮-) 명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초로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고결한 모습을 잃지 않으며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꽃.

[연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약간 구부린 왼손과 오른 주먹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돌려 두 손의 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연등(燃燈) 명

연등놀이를 할 때에 밝히는 등불.
[등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관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왼 손목에 대고 왼손의 손가락을 모아 쥐었다가 편다.

연등행렬 명

연등을 들고 줄을 지어 나아감.
[연등+ 행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왼 손목에 대고 왼손의 손가락을 모아 쥐었다가 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한 손은 앞에, 다른 손은 뒤에 놓이게 하여 손끝을 반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동시에 밖으로 내민다.

연화(緣化) ㄹ

설법을 들을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인도하여 교화하는 일.

[인연+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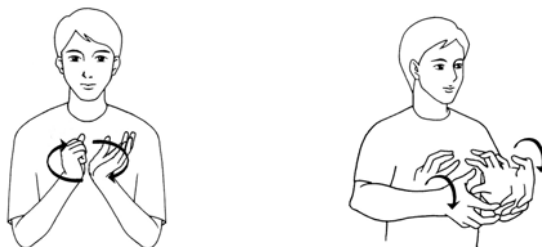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뺌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의 1·5지를 맞대어 서로 끼고 좌우로 움직이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밖으로 당긴다.

연화세계(蓮花世界) ㄹ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즐겁고 안락한 자유로운 세상. 오직 기쁨만이 넘치고 고통은 전혀 없는 땅.

[연꽃+세계]



약간 구부린 왼손과 오른 주먹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돌려 두 손의 바닥이 마주 보게 한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열반(涅槃) ㄹ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 [①생각+뜨다². ②쓰러짐을 나타내는 동작]

=①개요. 깨닫다. 니르바나. 대오. 모지. 보리①. 성도. ②입멸. 입적.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②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쪽으로 눕힌다.

열반경(涅槃經) ㄹ

대반열반경의 준말.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의 형식을 통하여 설한 경. 내용은 첫째, 불신의 상주(常住), 둘째 열반의 상락아정(常樂我淨), 셋째 일체 중생의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는 세 가지의 사상을 밝히고 있다.

[열반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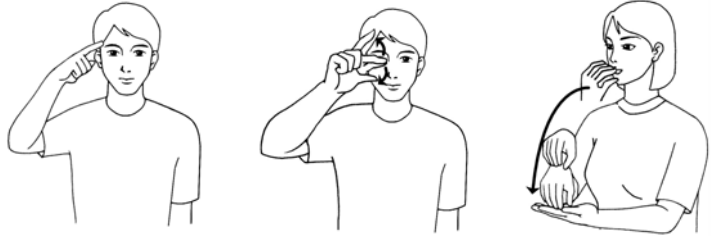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열반인

열반인(涅槃印) 명

삼법인(三法印)의 하나 소승불교에서, 삼계(三界)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적정(寂靜)의 경계에 들게 하기 위하여 열반의 진리를 말한 교리.

[열반①+ -증]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반쯤 구부린 오른손에 입김을 쉼고, 손끝을 왼 손바닥에 힘주어 내려 댄다.

열반적정(涅槃寂靜) 명

열반의 경지는 고요하고 청정하여 안정(安定)한 곳이라는 뜻.

[열반①+ 평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부터 손끝으로 천천히 스쳐낸다.

염(念) 명

주관인 마음이 객관인 대경(對境)을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여 두고 잊지 아니하는 정신. 과거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행하여서 마음이 객관 대상을 분별할 때에 반드시 존재한다.

[정신이 들어있는 곳을 가리키는 동작]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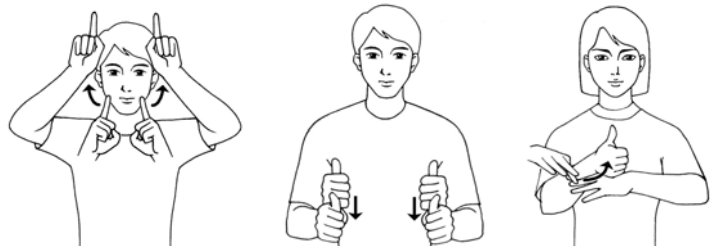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러 끝으로 머리 오른쪽을 두 번 친다.

염라대왕(閻羅大王) 명

저승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은 생전의 선악을 심판하는 왕. 지옥에 살며 십팔장관(十八將官)과 팔만 옥졸을 거느리고 저승을 다스린다. 불상(佛像)과 비슷하고 왼손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깃발을 들고 물소를 탄 모습이었으나, 뒤에 중국옷을 입고 노기를 띤 모습으로 바뀌었다.

[지옥+ 재판+ 왕]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염라지옥(閻羅地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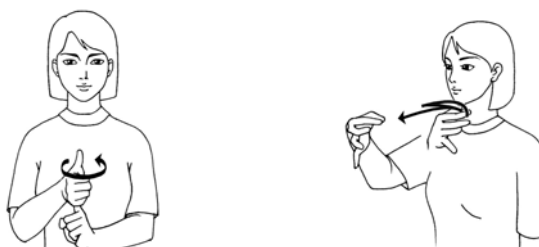
‘저승’을 달리 이르는 말.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재판+ 지옥]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염불(念佛)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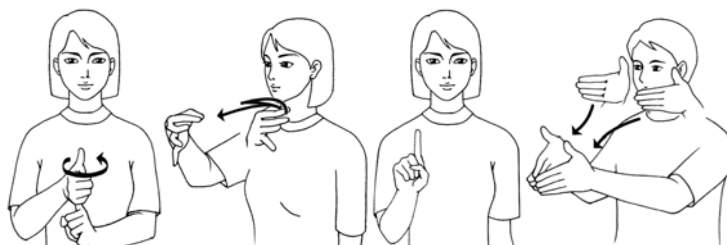
①부처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 ②불경을 외는 일.
[부처+ 부르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염불삼매(念佛三昧) 명

①염불로 잡념을 없애고, 제법 실상을 보기에 이르는 경지. ②정토문에서,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경지.
[염불+ 삼매]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천천히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댄다.

염주(念珠) 명

염불할 때에, 손으로 돌려 개수를 세거나 손목 또는 목에 거는 법구(法具).
[목주 또는 염주를 돌리는 동작]
=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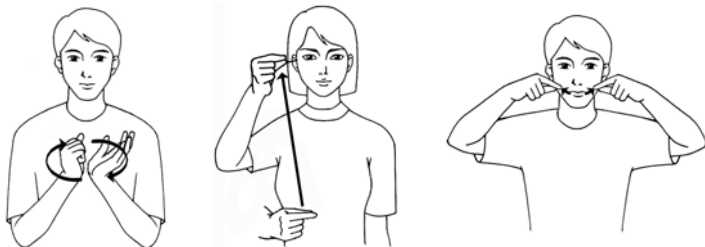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1지 옆면을 두 번 스쳐 내린다.

연화미소

연화미소(拈華微笑) [명]

‘꽃을 집어 들고 웃음을 띠다.’란 뜻으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傳)하는 일을 이르는 말. 석가모니가 영산회(靈山會)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이자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으므로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고 하는데서 유래한다.

[연꽃+ 들어 올리는 동작+ 미소]



약간 구부린 왼 손과 주먹 쥔 오른손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천천히 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을 1·5지 끝을 맞대고 위로 올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맞대어 끝을 입 양옆에 대고 미소를 지으며 양옆으로 벌리며 약간 올린다.

영가(靈駕) [명]

죽은 사람의 넋.

[혼이 떠오름을 나타내는 동작]

=영혼(靈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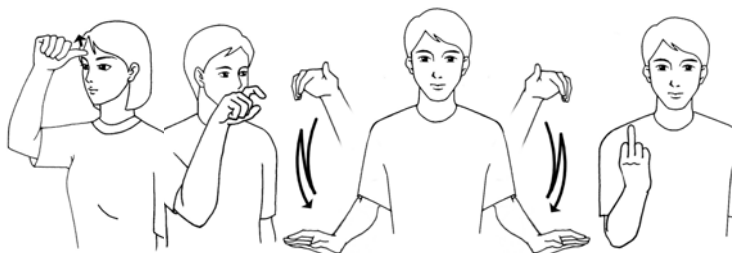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려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다.

영산회(靈山會) [명]

석가모니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모임. 주로 법화경을 설하였다.

[인도①+ 독수리+ 산]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이마 중앙에 대고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등을 입에 댄 다음, 두 손을 벌려 상하로 흔들고,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영산회상(靈山會上) [명]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하던 자리.

[영산+ 집합]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이마 중앙에 대고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등을 입에 댄 다음, 두 손을 벌려 상하로 흔들고,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다.

예불(禮佛) 명

부처님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 의식을 행함.

☞ 예불을 드리다.

[목탁+ 합장]

=불공.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예수(豫修) 명 하자

역수(逆修). 죽은 뒤의 명복을 위하여 생전에 불사(佛事)를 닦는 일.

[미리+ 제사]

=예수재.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구부린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예수재(豫修齋) 명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생전에 부처님에게 올리는 재.

[미리+ 제사]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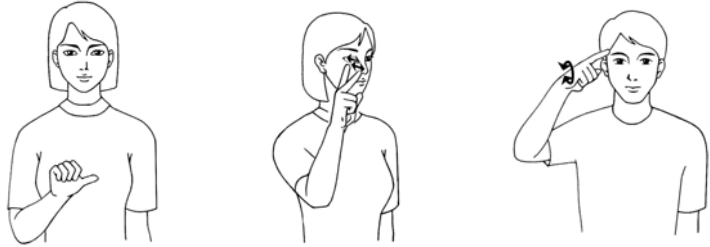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구부린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오견

오견(五見) ㉔

다섯 가지의 잘못된 생각. 신견(身見), 변견, 사견(邪見), 견취견, 계급취견을 이른다.

[오(五)+ 틀리다+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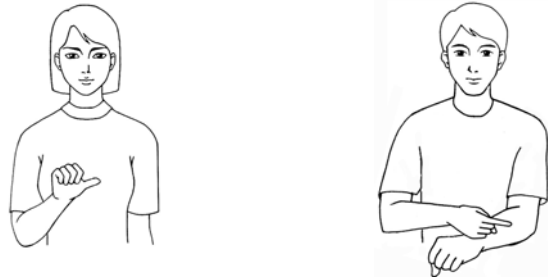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겹쳐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눈 밑에 세워 두 번 텅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오계(五戒) ㉔

속세에 있는 신자(信者)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淫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오(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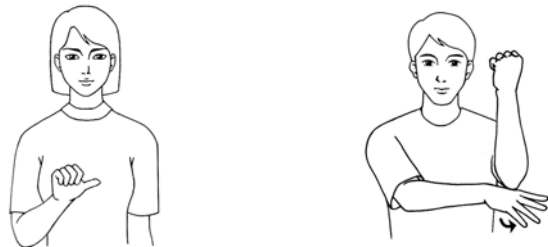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오근(五根) ㉔

바깥 세상을 인식하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 또는 그런 다섯 가지 기능, 시각을 일으키는 안근(眼根), 청각을 일으키는 이근(耳根), 후각을 일으키는 비근(鼻根), 미각을 일으키는 설근(舌根), 촉각을 일으키는 신근(身根)을 이른다.

[오(五)+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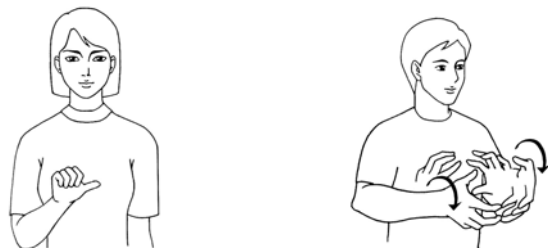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편다.

오도(五道) ㉔

중생이 선악의 업보에 따라 가는 다섯 세계. 천도, 인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오(五)+ 세계]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오도송(悟道頌) 명

고승들이 부처님의 도를 깨닫고 지은 시가.

[깨닫다+ 노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오백나한(五百羅漢) 명

석가모니가 남긴 교리를 결집하기 위하여 모였던 오백 명의 아라한.

[오백+ 부처+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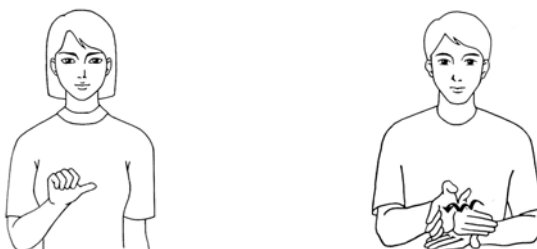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으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스쳐 올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오온(五蘊) 명

생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곧 물질인 색온(色蘊), 감각 인상인 수온(受蘊), 지각 또는 표상인 상온(想蘊), 마음의 작용인 행온(行蘊), 마음인 식온(識蘊)을 이른다.

[오(五)+ 종류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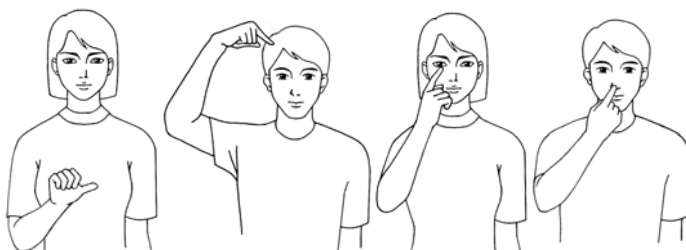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간다.

오음성고(五陰盛苦)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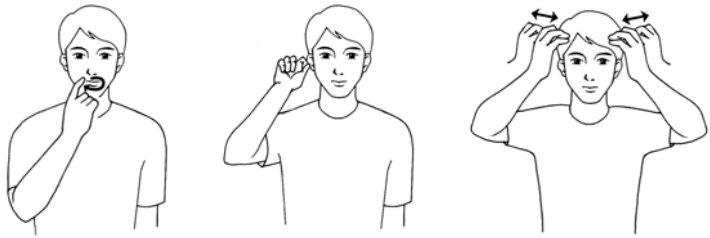
팔고(八苦)의 하나. 중생이 이루어 놓은 오음(五陰)이 불같이 일어나서 생기는 괴로움을 이른다.

[오(五)+ 머리+ 눈+ 코+ 입+ 귀+ 고난]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머리 위를 가리키고, 오른쪽 눈을 가리킨 다음, 끝 바닥을 코에 댔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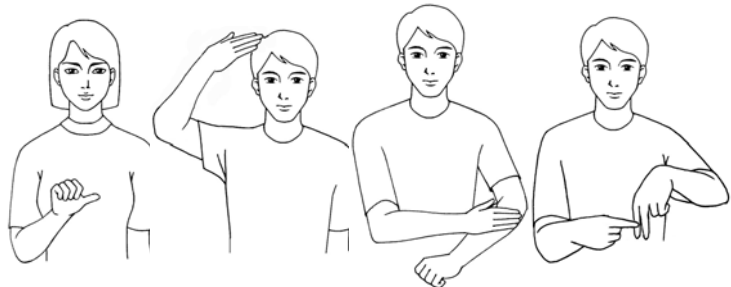
오체



입 주위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로 오른쪽 귀를 잡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오체(五體)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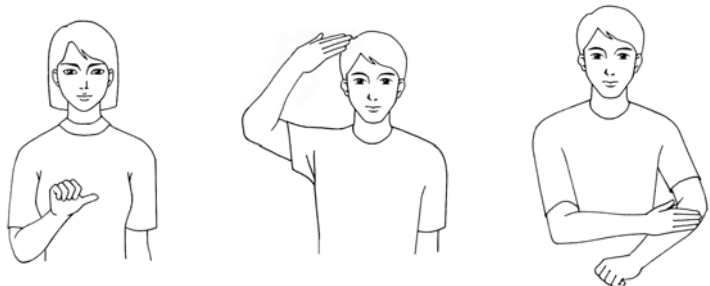
사람의 머리와 양 팔, 양다리.
[오(五)+ 머리+ 팔+ 다리]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손가락 끝 바닥을 머리에 댔다가 주먹을 쥔 왼 팔에 대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댄다.

오체투지(五體投地) 명

불교에서 절하는 법의 하나. 먼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
[오체+ 절²]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손가락 끝 바닥을 머리에 댔다가 주먹을 쥔 왼 팔에 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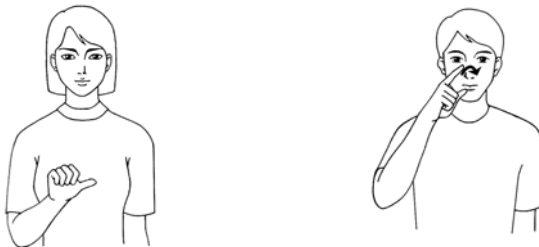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웠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오탁(五濁) [명]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 명탁(明濁), 중생탁(衆生濁), 번뇌탁(煩惱濁), 견탁(見濁), 겁탁(劫濁)을 이른다

[오(五)+ 더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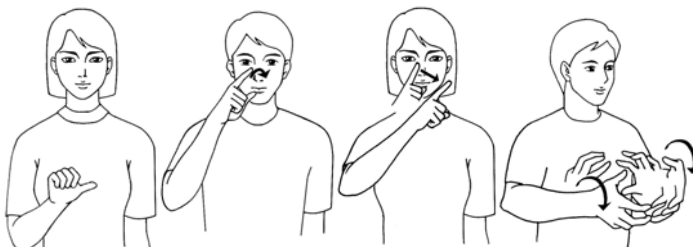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콧등을 감싸며 왼쪽으로 돌린다.

오탁악세(五濁惡世) [명]

①오탁(五濁)으로 가득 찬 최악의 세상. ②'말세'를 달리 이르는 말.

[오탁+ 나쁘다+ 세계]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콧등을 감싸며 왼쪽으로 돌리고, 끝 바닥으로 코끝을 왼쪽으로 스쳐낸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옴마니밧메흠 [명]

라마교 신자가 외는 주문. 연화수보살에 귀의하여 극락왕생을 바라면서 이 주문을 외면 죽은 후에 육도(六道)에 유전(流轉)하는 제약을 벗어난다고 한다. 또한 이것을 적어 몸에 지니거나 집 안에 두면 생사 해탈의 길을 얻는다고 한다.

[연꽃+ 변하다+ 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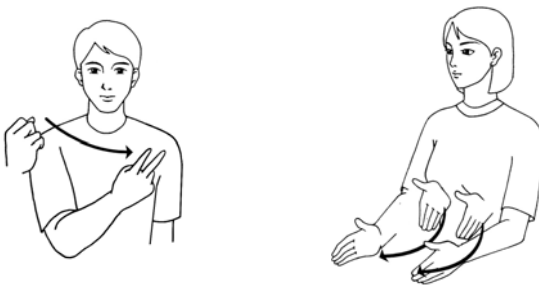
약간 구부린 왼손과 주먹을 권 오른손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천천히 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손가락 등에 오른손의 손등을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편다.

왕생(往生) [명]

목숨이 다하여 다른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다]

=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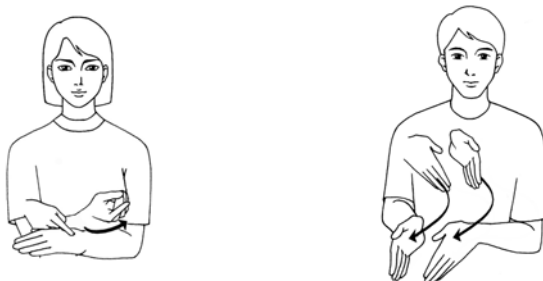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외도

외도(外道) ㄹ

불교 이외의 종교, 또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외+ 길]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가리키며 바닥이 위로 향하게 돌려 왼쪽 밖으로 내밀며 약간 올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요령(鑊鈴 · 搖鈴) ㄹ

종 모양의 법구(法具). 종 모양으로 솔발보다 조금 작으며, 법요를 행할 때 흔든다.

[손잡이가 달린 종을 흔드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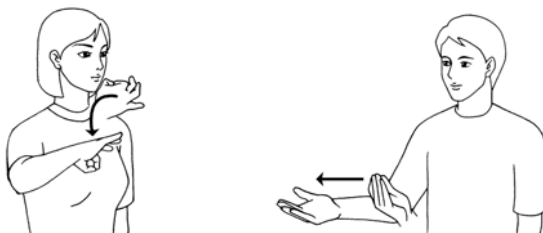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모로 세우고 그 4지 밑면에 왼손을 손등이 닿게 대고 왼손만 전후로 흔든다.

요익(饒益) ㄹ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에게 넉넉하게 이익을 줌. 또는 그 이익.

[이익+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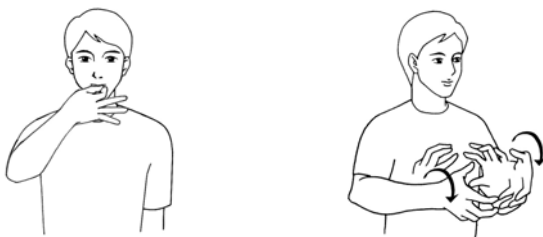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입에 댔다가 안으로 기울여 내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민다.

욕계(欲界) ㄹ

삼계(三界)의 하나. 유정(有情)이 사는 세계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욕욕천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 있는 유정에게는 식욕, 음욕, 수면욕이 있어 이렇게 이른다.

[욕심+ 세계]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아로 문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용맹정진(勇猛精進) 명

용맹스럽게 불도(佛道)를 수행(修行)함.

[용기+ 정진]



오른 손바닥을 배에 댔다가 주먹을 쥐고 손가락 등으로 왼 손바닥을 친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손끝을 대고 밖으로 내민다.

우담바라(優曇婆羅) 명

불교 경전에 나오는 상상의 꽃.

[상상+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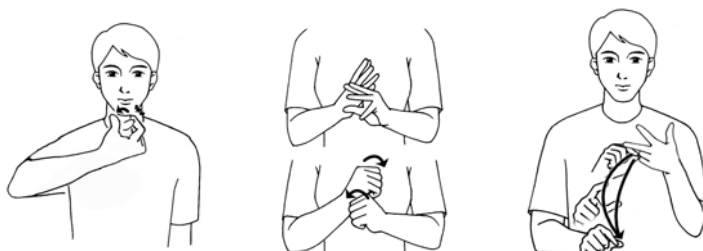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약간 구부린 오른손의 손끝을 턱 왼쪽에 댔다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리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천천히 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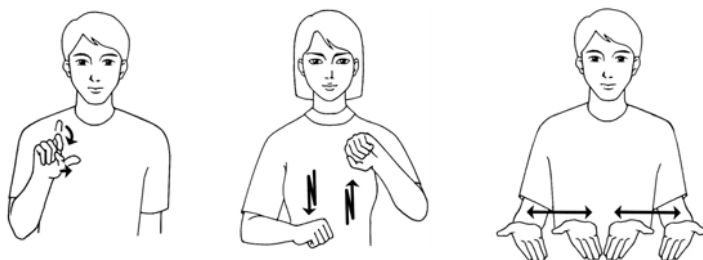
우란분재(盂蘭盆齋) 명

아귀도에 떨어진 망령을 위하여 여는 불사(佛事). 목련 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수행승에게 올린 공양에서 비롯한다. 하안거(夏安居)의 끝 날인 음력 칠월 보름을 앞뒤로 한 사흘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이나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음력+ 7월+ 15일+ 행사]



턱 바로 밑에서 오른 주먹의 1지 끝에 5지 끝을 댔다가 뺏겨 5지 끝을 턱에 댄 다음, 가슴 앞에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 모로 세운 오른손을 올려놓고 5:1:2:3:4지 순으로 손가락을 접고, 왼 주먹의 1:2:5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그 밑에서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붙여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내리면서 벌리다가 좁히면서 내려 두 손가락 끝을 맞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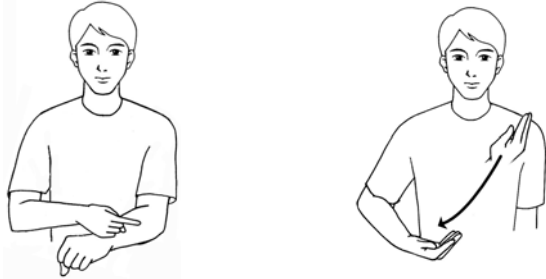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굽히며 5지를 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켜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우바리

우바리(優婆離) 명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계율에 정통하여 ‘지율제일(持律第一)’이라 일컬어졌다.

[계+ 제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린다.

우바새(優婆塞) 명

①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②불교를 믿는 남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민다+ 남자①]

=거사. 처사. 청신남. 청신사.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떼다.

우바이(優婆夷) 명

①불교를 믿고 삼귀(三歸), 오계(五戒)를 받은 세속의 여자. ②불교를 믿는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민다+ 여자①]

=청신녀.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떼다.

운수(雲水) 명

①탁발하는 스님. ②여러 곳으로 스승을 찾아 도를 묻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아다니다+ 수행+ 스님]

=운수납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운수납자(雲水納子) ㉔

여러 곳으로 스승을 찾아 도를 묻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아다니다+ 수행+ 스님]
=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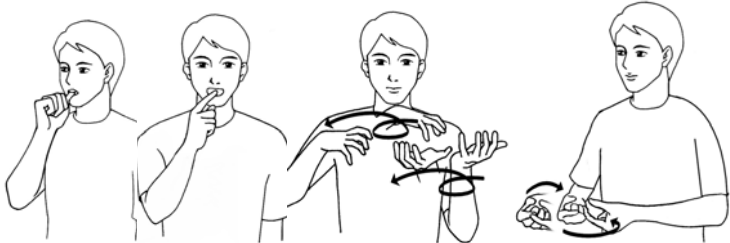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운판(雲版) ㉕

절에서 재당(齋堂)이나 부엌에 달아 놓고 식사 시간을 알리려고 치는 기구. 구리나 쇠로 만든, 구름 모양의 금속판이다.

[쇠+ 구름+ 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을 살짝 물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치아를 가리킨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가슴 앞에서 상하로 마주 보게 하여 서로 엇갈리게 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마주 보게 하여 맞닿다가 수평으로 돌리며 넓게 벌렸다가 안으로 돌려 다시 맞닿다.

원(願) ㉖

십바라밀의 하나.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는 힘.

[바람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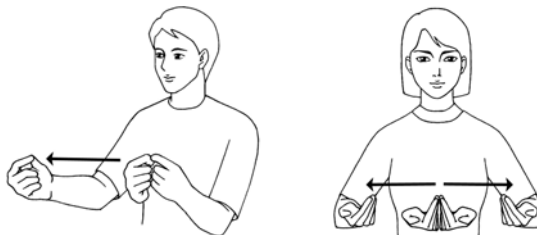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붙여 목에 댄다.

원리(遠離)

전도(顛倒)된 몽상(夢想)이 멀리 떠났다는 말.

[멀다+ 이별]



두 주먹의 1·5지 끝을 붙여 마주 댔다가 오른손을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가슴 앞에서 마주 댔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원불교

원불교(圓佛敎) [명]

1916년 박중빈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충분사를 두고 세운 불교 교파. 믿음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法身佛一圓相)이며 정각 정행(正覺正行), 지은 보은(知恩報恩), 불법 활용(佛法活用), 무아 봉공(無我奉公)을 강령으로 한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주장하여 각자 직업에 종사하며 교화 사업을 한다.

[원+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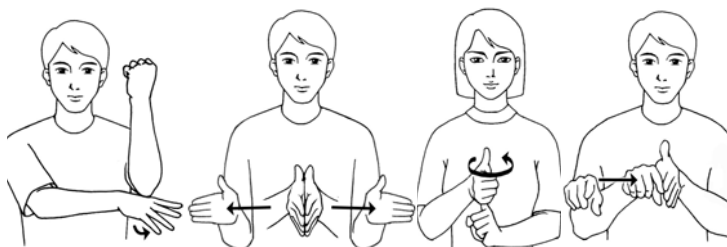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원을 그리고, 가볍게 켜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다.

원시불교(原始佛敎) [명]

석가모니 때부터 각 부파(部派)로 갈라지기 전까지의 불교.

[기본+ 시작②+ 불교]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편 다음,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댄다.

원융하다(圓融-) [형]

모든 법이 이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융합하여 구별이 없다.

[완전+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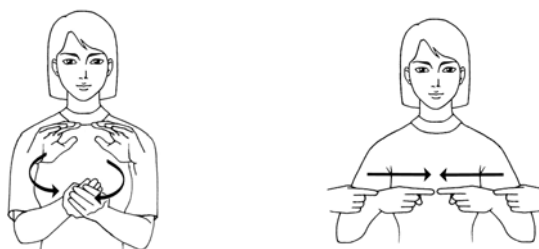


두 손을 손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자연스럽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등을 댔다가 올리며 주먹을 쥐고 1지를 편다.

원통(圓通) [명]

지혜로써 진여(眞如)의 이치를 깨달은 상태에 있음. 또는 그 이치. 그 본질이 원만하여 널리 모든 존재에 두루 통하고 그 작용은 자재(自在)하여 거리낌이 없이 모든 존재에 작용한다.

[완전+ 통하다]



두 손을 손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끝이 양옆에서 마주보게 하였다가 접근시켜 맞닿게 한다.

유식(唯識) 명

마음의 본체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實在)도 없음을 이르는 말.
[오직+ 식(識)]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대고 2지를 뿔긴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쓸어내린다.

유심(唯心) 명

마음은 만물의 본체로서 오직 단 하나의 실재(實在)라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직+ 마음]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대고 2지를 뿔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댈다.

육경(六境) 명

육식(六識)으로 깨닫는 색(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육(六)+ 대상]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앞뒤로 마주 세웠다가, 편 오른 주먹의 1지 끝으로 펴서 세운 왼 주먹의 1지를 가리킨다.

육계(六界) 명

만물을 생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 지대(地大), 수대(水大), 풍대(風大), 공간대(空大), 식대(識大)를 이른다.
[육(六)+ 필요+ 종류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두 손을 구부려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끝으로 배 양쪽을 두 번 두드리고,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간다.

육근

육근(六根) ㉔

육식(六識)을 낳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 근원.

[육(六)+근본]

=육입.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육도(六度) ㉔

육바라밀.

[육(六)+바라밀]

=육바라밀.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육도윤회(六道輪廻) ㉔

선악의 응보(應報)에 따라 육도(六道)를 윤회하는 일.

[육(六)+곶+윤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린다.

육바라밀(六波羅蜜) ㉔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를 이른다.

[육(六)+바라밀]

=육도(六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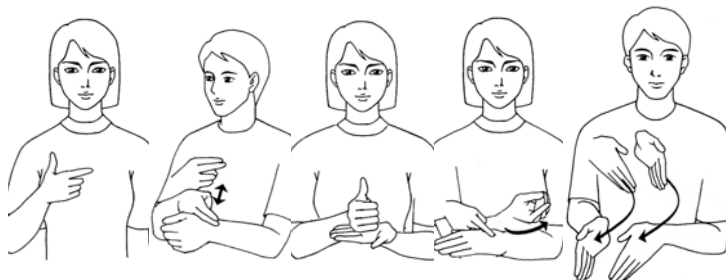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육사외도(六師外道) [명]

석가모니 때에 중부 인도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외도(外道)의 여섯 사상가. 아지타 케시캄바라, 산자야 벨라 티풋타, 막카리 고살라, 파쿠다 갈차야나, 푸라나 캣사파, 니간타 나타풋다이다.

[육(六)+ 선생님+ 외도]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가라키며 바닥이 위로 향하게 돌려 왼쪽 밖으로 내밀며 약간 올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육신통(六神通) [명]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의 여섯 가지 신통한 능력.

[육(六)+ 귀신+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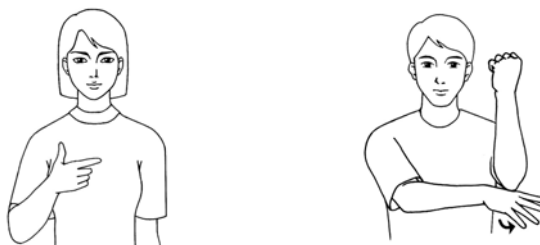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육입(六入) [명]

육식(六識)을 낳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 근원.

[육(六)+ 근본]
=육근.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육자명호(六字名號) [명]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로 된 아미타불의 명호.

[육(六)+ 글자+ 이름]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낸다.

윤회

윤회(輪廻) (명)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되풀이. 윤회전생.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린다.

윤회생사(輪廻生死) (명)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

[생사+ 윤회]

=생사윤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시에 내린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히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린다.

윤회전생(輪廻轉生) (명)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되풀이. 윤회.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린다.

율(律) (명)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계+ 차례]

=계율(戒律).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율사(律師)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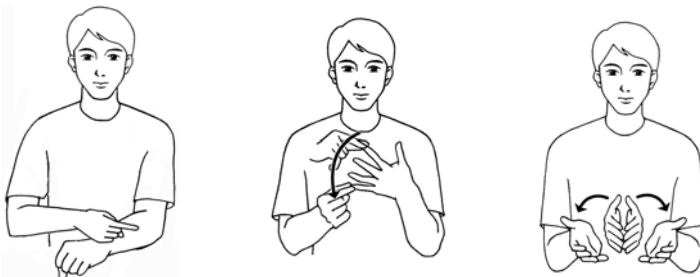
계율에 정통한 스님.
[계율+ 스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모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율장(律藏)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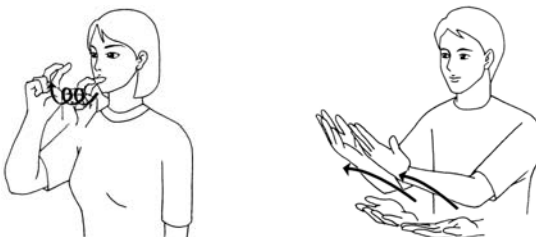
삼장(三藏)의 하나.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의 조례(條例)를 모은 책.
[계율+ 책]
=계율장.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모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음성공양(音聲供養)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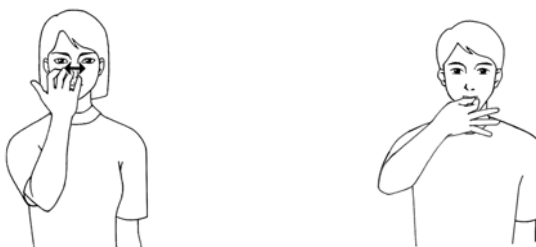
사물(四物), 곧 목어(木魚), 운판(雲版), 법고(法鼓), 대종(大鐘)으로 반주하면서 범음(梵音)을 낭송하는 공양.
[노래+ 드리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음욕(淫慾)

삼욕의 하나. 색(色)에 대한 욕심.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
▶ 음욕을 품다.
[음란+ 욕심]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이 코끝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움직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야로 문다.

음주계

음주계(飲酒戒) 명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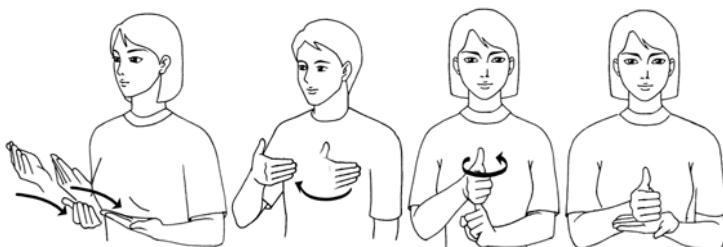
[술+ 금지+ 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댔다가 이마에 댄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응공(應供) 명

여래 십호의 하나.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天上)의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
[받다+ 충분하다+ 부처님]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끝을 왼쪽 가슴에 댔다가 오른쪽 가슴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의발(衣鉢) 명

가사(袈裟)와 바리때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옷+ 발우]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가슴 앞의 옷을 살짝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입으로 올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가슴 앞에서 4지 옆면이 닿게 맞댔다가 좌우로 벌리면서 위로 올리다가 좁히면서 위로 올린다.

의업(意業) 명

삼업(三業)의 하나. 마음으로 하는 의지의 활동을 이른다.

[생각+ 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이생(一生) 명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현재+ 세상]

=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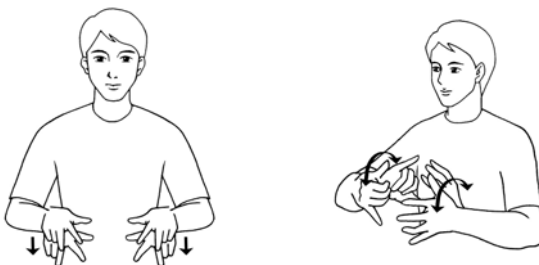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이승 명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현재+ 세상]

=이생.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이판승(理判僧) 명

속세를 떠나 수도에만 전념하는 스님.

[수행+ 전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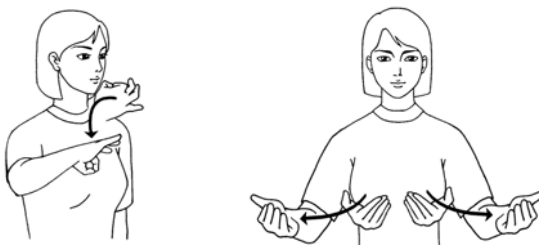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곧바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이행(利行) 명

선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함.

[이익+ 베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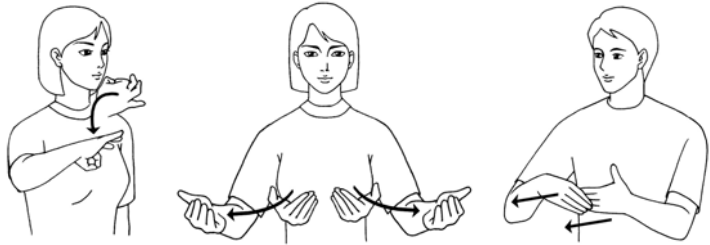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입에 댔다가 안으로 기울여 내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이행섭

이행섭(利行攝) 명

선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여 불도에 이끌어 들이는 방법.

[이행+ 인도]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입에 댔다가 안으로 기울여 내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러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리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밖으로 당긴다.

인(因) 명

원인을 이루는 근본 동기. 인명(印銘)에서 논증의 근거가 되며 논증을 성립시키는 이유. 이유(理由)의 의미로 사물을 생기(生起)하게 한다.

[하나가 생김을 나타내는 동작]
=동기.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뺀 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인가(印可) 명

①사승(師僧)이 제자의 득법(得法) 또는 설법을 증명하고 인가함. ②대상이 옳음을 소상하게 밝혀 인정함.
=수락. 승낙. 승인. 허락.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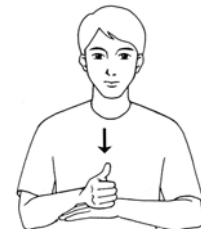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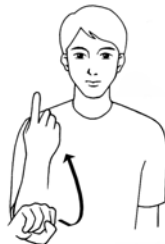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손목을 왼손의 1·5지 사이에 대고 숙인다.

인과(因果) 명

①원인과 결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선악의 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果報)를 받는 일.

[동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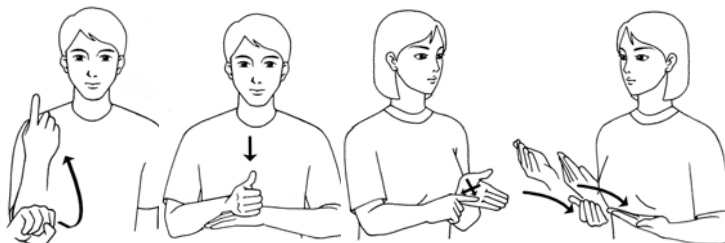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뺀 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인과응보(因果應報) 명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인과+ 보상+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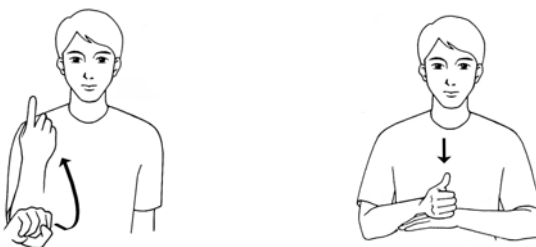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튕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 손바닥에 'X'표를 그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인과응보설(因果應報說) 명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주장.

[인과응보+ 이야기]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튕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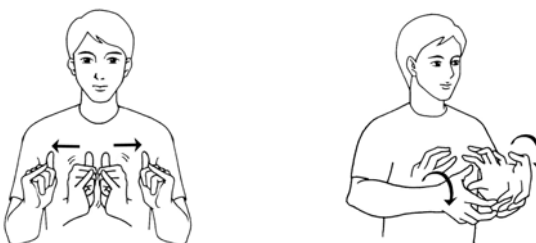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 손바닥에 'X'표를 그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기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다.

인도(人道) 명

오도(五道)의 하나로 인간세상을 이 름.

[사람+ 세계]

=섬부주.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인도

인도(引導) 명

미혹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함.
[끌어감을 나타내는 동작]
=이끌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밖으로 당긴다.

인상(人相) 명

사상(四相)의 하나. 오온(五蘊)이 화합하여 생긴 '나'는 사람이니 지옥취나 축생취와 다르다고 집착하는 견해를 이른다.
[사람+ 참+ 생각]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인연(因緣) 명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인(因)과 연(緣)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과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이다.
[동기+ 관계]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뿔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인욕(忍辱) 명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음.
[도로 내리는 동작]
=견디다. 인내. 자제. 참다.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가슴에 대고 천천히 아래로 내린다.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명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수행방법.

[인욕+ 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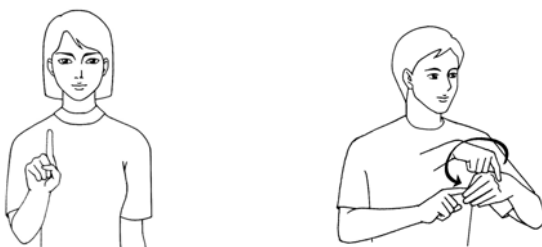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가슴에 대고 천천히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일념(一念) 명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전심으로 염불함.

[일(一)①+ 마음]

=일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댈다.

일념불퇴(一念不退) 명

결심이 굳어 흔들리지 아니함.

[일념+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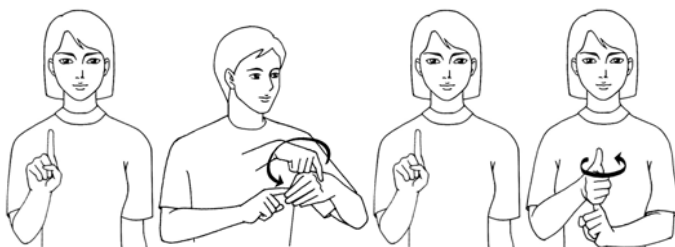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오른 손바닥을 배에 댔다가 주먹을 쥐고 손가락 등으로 왼 손바닥을 친다.

일념일불(一念一佛) 명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일.

[일념+ 일(一)①+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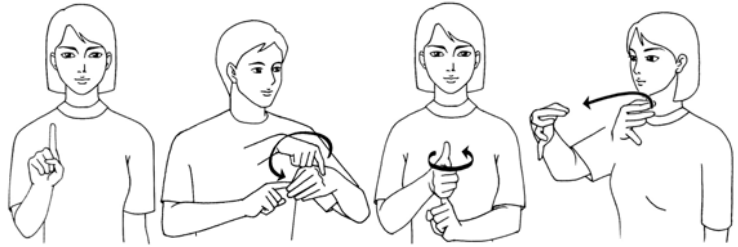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일념칭명

일념칭명(一念稱名) 명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일.

[일념+ 부처+ 부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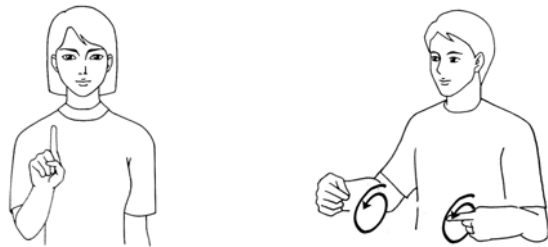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일승(一乘) 명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함께 성불한다는 석가모니의 교법. 일체(一切) 것이 모두 부처님이 된다는 법문이다.

[일(一)①+ 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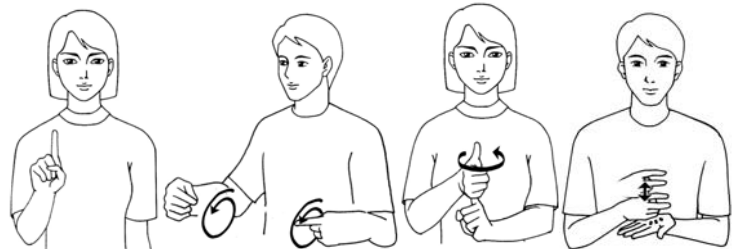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양쪽 옆구리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두 바퀴 돌린다.

일승경(一乘經) 명

‘법화경’을 달리 이르는 말. 주로 일승(一乘)의 법문을 말하였다 하여 이르는 말이다.

[일승+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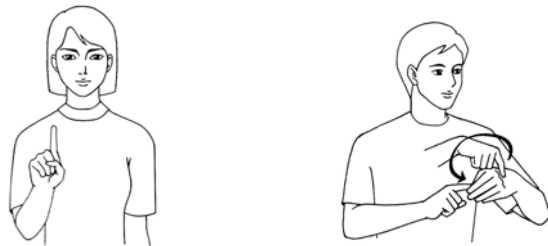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양쪽 옆구리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두 바퀴 돌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일심(一心) 명

①단 하나의 심성(心性)이라는 뜻으로, ‘진여’를 이르는 말. ②단 하나의 근본식(根本識). 곧 온갖 것을 변화시키는 마음으로서의 아뢰야식을 이른다.

[일(一)①+ 마음]

=일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댔다.

일심경례(一心敬禮) ㉔

마음을 하나로 하고 삼보(三寶)를 공경하여 예배하는 일.

[일심+ 합장하며 머리를 숙인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대며 고개를 숙인다.

일심염불(一心念佛) ㉕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염불하는 일.

[일심+ 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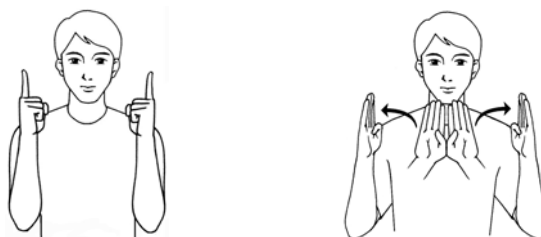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일주문(一柱門) ㉖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山門) 중 첫 번째 문. 기둥이 한 줄로 되어있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수행자는 먼저 지극한 일심으로 부처나 진리를 생각하며 이 문을 통과해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둥을 나타내는 동작+ 문]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마주보게 팔을 세운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일체개고(一切皆苦) ㉗

사람이 무상(無常)함과 무아(無我)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집착하여 온갖 고통에 빠져 있음을 이르는 말.

[모두+ 고난]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하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다.

일체고액

일체고액(一切苦厄) 명

모든 고뇌와 재액.
[모두+ 고난+ 피해]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하고,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왼 손바닥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으로 스쳐 낸다.

일체중생(一切衆生) 명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 특히
사람에 대하여 쓰인다.
[모두+ 중생]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하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댄다.

입멸(入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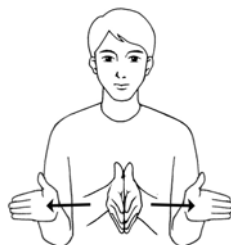
스님이 죽음.
[쓰러짐을 나타내는 동작]
=열반②, 입적(入寂), 적멸②, 죽다.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쪽으로 눕힌다.

입재(入齋) 명

재(齋)를 시작하는 일 또는 그 의식.
=개시, 시발②, 시작②, 착수, 출발.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입적(入寂) ㉔

스님이 죽음.

[쓰러짐을 나타내는 동작]

=열반②. 입멸. 적멸②. 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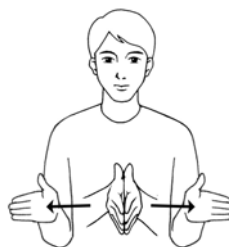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쪽으로 눕힌다.

입정(入定) ㉕

①삼업(三業)을 그치게 하고 선정(禪定)에 들어가는 일. ②수행하기 위하여 방안에 들어가는 일.

[참선+ 시작②]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ㅈ

자각(自覺) ㉠

삼각(三覺)의 하나. 스스로 깨달아 증득(證得)하는 각(覺)을 이른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른다.

[스스로+ 깨닫다]

=독각. 연각.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우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낸다.

자력염불(自力念佛) ㉡

자신의 힘을 다하여 일념으로 정진하여 해탈하려는 염불.

[스스로+ 집중+ 염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힘주어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자리아타(自利利他) ㉢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하여 불도를 닦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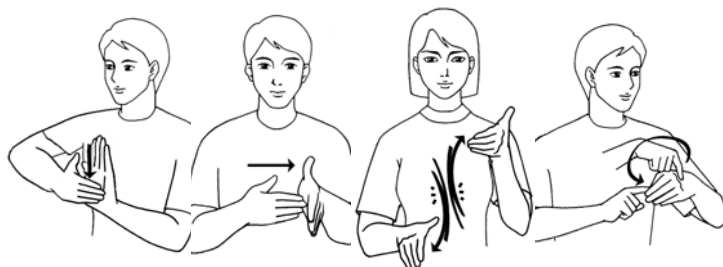
[같다+ 이익]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앞뒤로 놓고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입에 댔다가 안으로 기울여 내린다.

자무량심(慈無量心) 명

사무량심(四無量心)의 하나. 무진(無瞋)을 근본으로 하여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을 이른다.
[자비+ 끝+ 없다+ 마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등을 쓸어내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처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자비(慈悲) 명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게 함.

¶ 자비를 베푼다.

[손바닥과 손등을 쓰다듬는 동작]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바닥을 쓸어 내렸다 올려, 왼 손등을 쓸어내린다.

자비심(慈悲心) 명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자비+ 마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바닥을 쓸어 내렸다 올려, 왼 손등을 쓸어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자생(自生) 명

저절로 생겨남. 인(因)이 스스로 과(果)를 낳음.

[스스로+ 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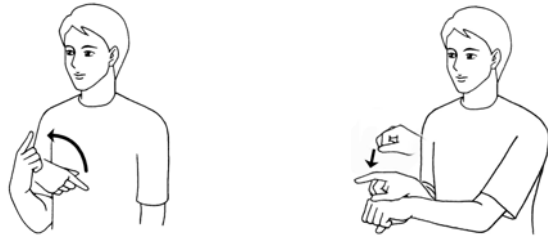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다.

자성

자성(自性) ㉔

모든 법(法)이 갖추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성.

[스스로+ 성격]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자승자박(自繩自縛) ㉕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움을 만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흥기로 목을 찌르는 동작]

=자살.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오른 주먹이 안쪽에 놓이게 이어 대고 목으로 당긴다.

자업자득과(自業自得果) ㉖

자업자득으로 말미암은 과보(果報).

[스스로+ 만들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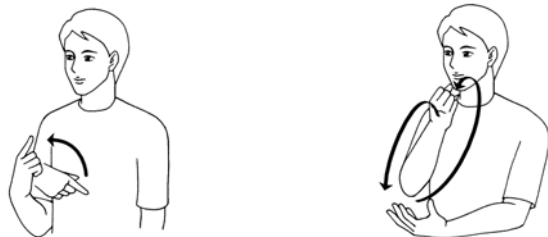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자자(自恣) ㉗

하안거(夏安居)를 마칠 때 하는 행사. 안거에 들었던 스님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스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한다.

[스스로+ 고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끝을 모은 두 손을 번갈아 턱 아래에서 밖으로 내밀며 편다.

자자일(自恣日) 명

하안거(夏安居)의 마지막 날. 음력 7월 보름날로 이날에는 스님들이 안거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훈계하는 행사를 한다.

[자자+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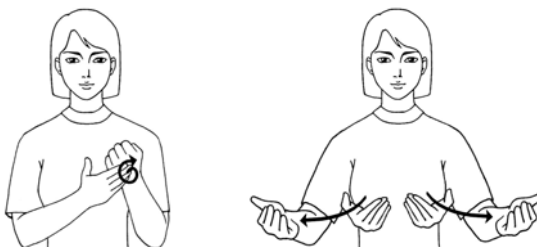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끝을 모은 두 손을 번갈아 턱 아래에서 밖으로 내밀며 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올린다.

자해(慈惠) 명

자애롭게 베푸는 은혜.

[은혜+ 베풀다]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장경(藏經) 명

불경을 집대성한 경정. 석가모니의 설교를 기록한 경장. 모든 계율을 모은 율장, 불제자들의 논설을 모은 논장을 모두 망라하였다.

[부처+ 법+ 책]

=대장경.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장군죽비(將軍竹卑) 명

나무로 만든 제구(祭具). 법당의 정면에 걸었다가 불전(佛前) 의식을 마치고 신중단에 의식을 할 때에 세 번 친다.

[막대기를 손바닥에 치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경책, 죽비.



약간 구부린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왼손으로 향하게 하여 내리며 왼 주먹을 친다.

재가승

재가승(在家僧)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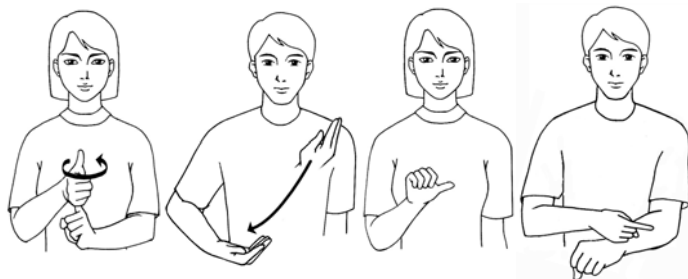
속가(俗家)에서 불법을 닦는 사람.
[집+ 수행+ 스님]
=재가출가.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재가오계(在家五戒) 명

재가 불자가 지켜야 할 소승의 다섯 가지 계율.
[부처+ 제자+ 오계]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4지 옆면을 왼쪽 어깨 앞에 댔다가 배 오른쪽으로 스쳐 내리고,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놓힌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댈다.

재가출가(在家出家)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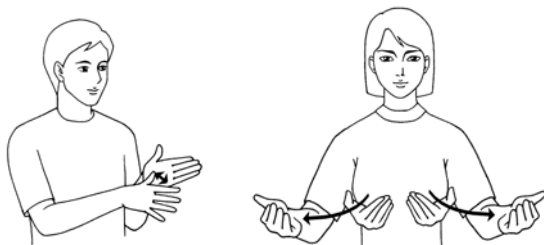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출가한 스님처럼 세속을 벗어나는 일.
[집+ 수행+ 스님]
=재가승.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재보시(財布施)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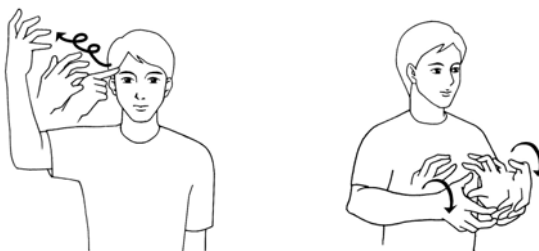
출가한 스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일.
[물건+ 보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저승 (명)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영혼+세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려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적멸(寂滅) (명)

열반의 번역. 번뇌를 모두 끊어 더 이상 나고 죽는 인(因)·과(果)를 멸하여 다시는 미혹한 생사를 계속하지 않는 적정한 경계.
[①생각+뜨다. ②쓰러짐을 나타내는 동작]
=열반.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댔 다음, ② 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오른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쪽으로 눕힌다.

전가부좌(全跏趺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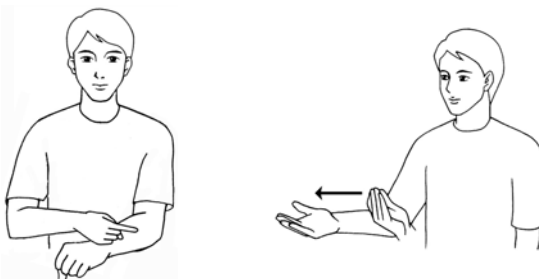
부처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은 방법의 하나. 왼쪽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오른쪽 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앉는 것을 길상좌라고 하고 그 반대를 향마좌라고 함.
[앉은 모습을 나타내는 동작]
=가부좌, 결가부좌.



두 주먹의 1지를 구부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오른손의 1지 위에 왼손의 1지를 'X'자 모양이 되게 엇는다.

전계(傳戒) (명)

계법(戒法)을 전함.
[계+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댔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민다.

전계사

전계사(傳戒師) 명

계법(戒法)을 전하여 주는 사승(師僧).

[전계+ 스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전도(顛倒) 명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일.

[손바닥을 뒤집는 동작]

=뒤집다.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가 뒤집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다.

전법륜(轉法輪) 명

①석가모니가 성도한 뒤에 사제(四諦), 팔정도 따위를 설법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을 이른다. ②교법을 설함.

[전달+ 법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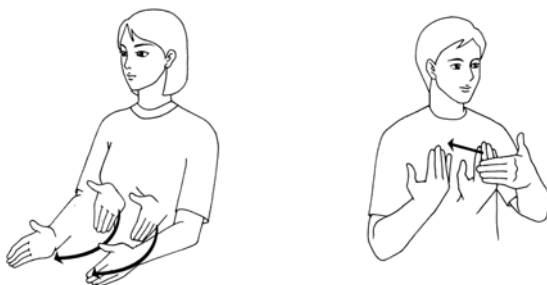
가볍게 쥔 왼 주먹 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주먹 등을 대고 밖으로 내밀며 오른 주먹을 활짝 펴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만든 동그라미를 따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돌린다.

전생(前生) 명

삼생(三生)의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이른다.

¶ 전생의 인연.

[태어나다+ 이전]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 다음,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세위 등을 댔다가 오른손만 안으로 당긴다.

절 명

스님이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목탁+궁]

=가람. 도량. 불도량. 사문. 사찰. 승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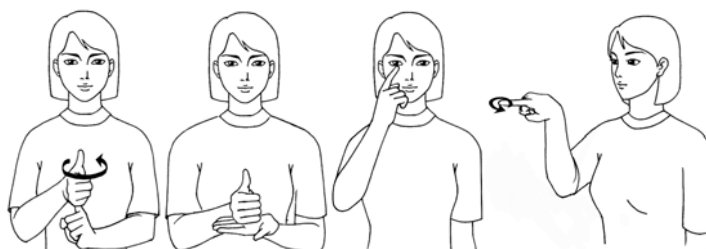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점안(點眼) 명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음. 또는 그런 일.

[부처님+눈+눈을 그리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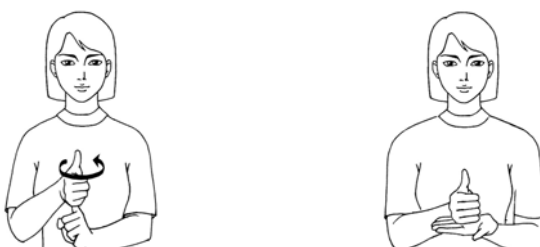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킨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작게 원을 그린다.

점안불사(點眼佛事) 명

점불정할 때에 잡귀를 물리치려고 올리는 불공.

[점안+행사]

=점안식.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킨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작게 원을 그리고,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가볍게 쥔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손가락을 활짝 편다.

점안식

점안식(點眼式)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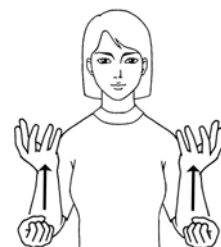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 의
식.

[점안+ 행사]

=점안불사.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킨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작게 원을 그리고,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가볍게 쥔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손가락을 활짝
편다.

정(定) ㉞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아니하
는 안정된 상태. 생득정과 수득정의
두 가지가 있다.

[참선의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

=선. 선정. 참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정각(正覺) ㉞

올바른 깨달음. 일체의 참된 모습을
깨달은 더할 나위 없는 지혜.

[참+ 깨닫다]

=정등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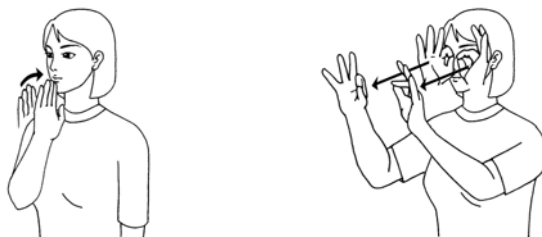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뗀다.

정견(正見) 명

팔정도의 하나. 사제(四諦)의 이치를 알고, 제법(諸法)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이다.

[참+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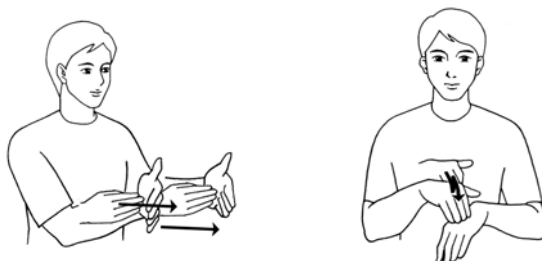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다.

정근(正勤) 명

선법(善法)을 더욱 자라게 하고 악법(惡法)을 멀리하려고 부지런히 닦는 수행법.

[정진+ 수행]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손끝을 대고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정근(定根) 명

오근의 하나. 일체의 공덕을 낳게 한다는 뜻으로 선정(選定)을 이르는 말이다.

[참선의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

=선. 선정. 정. 참선.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정념(正念) 명

팔정도의 하나. 정견(正見)으로 파악한 모든 법의 본성과 모습을 바로 기억하여 잊지 않는 일이다.

[참+ 기억]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펴서 세운 오른손을 머리 오른쪽에서 귀 옆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쥘다.

정등각

정등각(正等覺) 명

올바른 깨달음. 일체의 참된 모습을 깨달은 더할 나위 없는 지혜이다.

[참+ 깨닫다]

=정각.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낸다.

정례(頂禮) 명

가장 공경하는 뜻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려 절을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절.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웠다가 끝 바닥을 왼 손바닥에 댄다.

정명(正命) 명

팔정도의 하나. 삼업(三業)으로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바른 생활 수단에 의하여 다섯 가지 사명(邪命)을 여의는 일이다.

[참+ 생활]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1·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켜 두 주먹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린다.

정바라밀(淨波羅蜜) 명

사바라밀의 하나.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열반을 성취함을 이른다.

[깨끗하다+ 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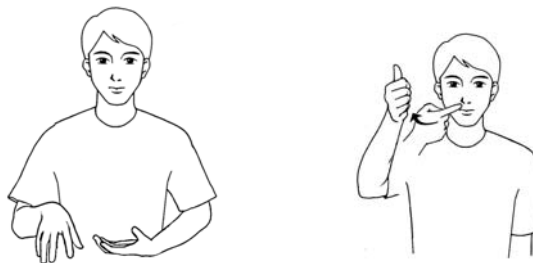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정반왕(淨飯王) ㉔

‘슈도다니(Suddhodana)’의 한자식 이름.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의 왕. 석가모니의 아버지이다.

[석가모니+ 아버지]



왼손을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려 배꼽 아래쪽에 대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정변지(正遍知) ㉕

여래십호의 하나.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모르는 것이 없이 바로 안다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

[모두+ 알다+ 부처]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쓸어내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정사(正士) ㉖

바른 법리(法理)를 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살’을 달리 이르는 말.

[위로 올리며 비추는 동작 <깨달음을 구하며 빛을 밝히는 것>]

=보리살타. 보살.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므린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정사유(正思惟) ㉗

팔정도의 하나. 무루(無漏)의 지혜로 사제(四諦)의 이치를 추구, 고찰하고 지혜를 더욱 향상하는 일이다.

[참+ 생각]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정어

정어(正語) 명

팔정도의 하나. 사제(四諦)의 진리를 깨달아 정견(正見)에 맞는 바른 말만을 하는 일이다.

[참+ 말²]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정업(正業) 명

팔정도의 하나. 일체의 행동을 사제(四諦)의 진리에 맞는 정견(正見)과 정사유에 따라 행하는 일.

[참+ 행동]

=정행.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정정(正定) 명

팔정도의 하나. 번뇌로 인한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안정하는 일.

[참+ 참선]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둥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정정진(正精進) 명

팔정도의 하나. 일심 노력하여 아직 나지 않은 악을 나지 못하게 하고, 나지 않은 선을 나게 하는 일이다.

[참+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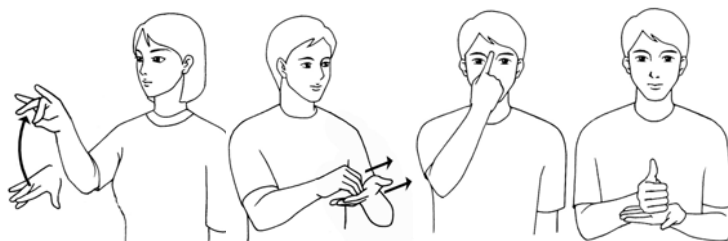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손끝을 대고 밖으로 내민다.

정좌(定座) 명

불좌(佛座)의 주위를 돌 때 향로를 들고 앞서 가는 사미(沙彌), 법사처럼 차린 어린 두 사미가 맡는다.

[처음+ 등록+ 스님]

=사미.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 오른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끝을 대고 동시에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정진(精進) 명 하자

일심(一心)으로 불도를 닦아 게을리 하지 않음.

[정진함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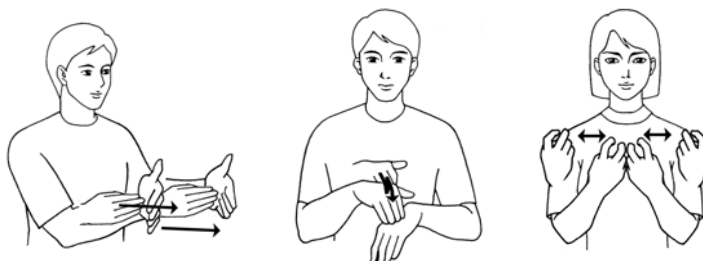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손의 손끝을 대고 밖으로 내민다.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 명

일심으로 불도를 닦아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

[정진+ 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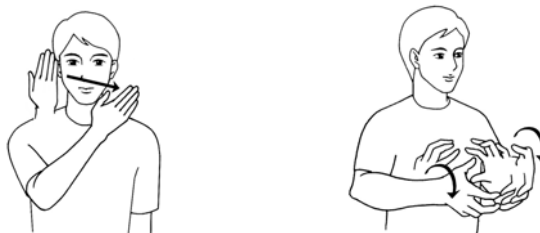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손의 손끝을 대고 밖으로 내밀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정토(淨土) 명

부처나 보살이 사는,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

[깨끗하다+ 세계]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정토발원

정토발원(淨土發願)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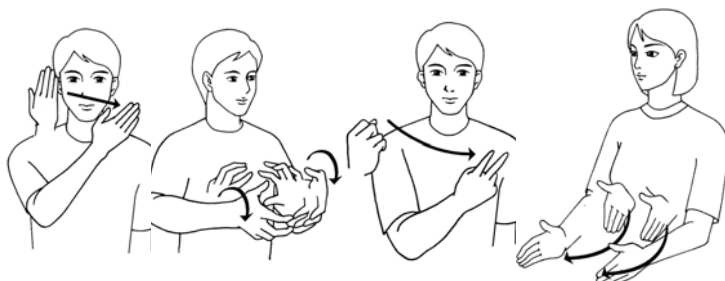
극락에 가기를 위하여 비는 일.
[정토+가다+발원]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정토왕생(淨土往生)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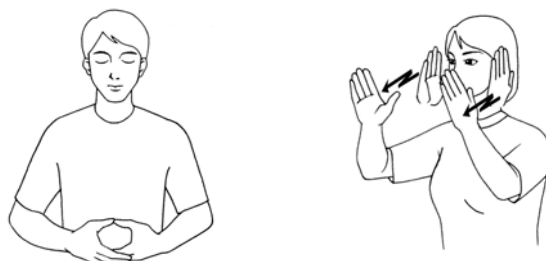
죽어서 극락에서 다시 태어남.
[정토+다시+태어나다]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정학(定學) ㉖

삼학(三學)의 하나. 흩어진 마음을 한곳에 모아 무루(無漏)와 적정(寂靜)의 경지에 이르는 법을 이른다.
[참선+공부]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린다.

정행(征行) ㉗

①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바른 행위. 팔정도, 육도행, 독경, 관불 따위이다. ②정토종에서, 극락에 왕생하기 위하여 닦는 행업(行業). 독송, 관상, 예배, 청명, 공양의 다섯을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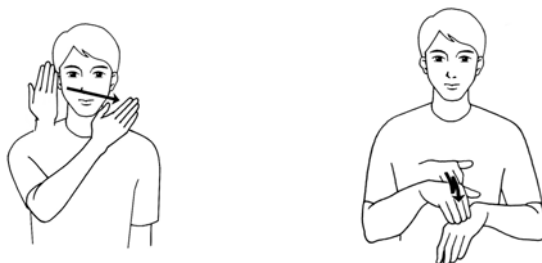
[참+행동]
=정업.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정행(淨行) 명

청정한 수행.
[깨끗하다+ 수행]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제도(濟度)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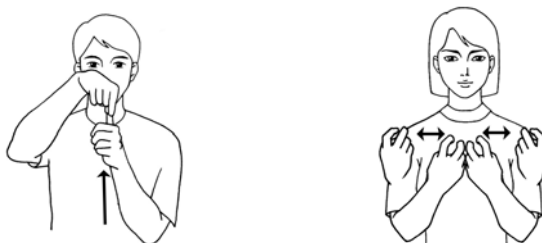
미혹한 세계에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중생을 건져내어 생사 없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
[붙잡아 끌어올리는 동작]
=건지다. 구원. 구출. 구하다. 도제.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다.

제도방편(濟度方便)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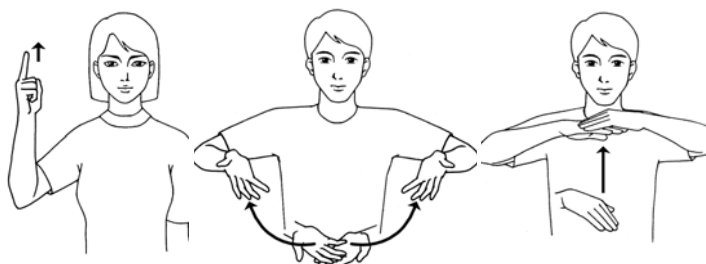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수단과 방법.
[제도+ 방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제망찰해(帝網刹海)

제석천궁을 덮어 드리운 그물. 저 바다처럼 널리 두루 계시는 부처님을 뜻함.
[하늘②+ 그물+ 가득]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킨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손가락을 벌린 두 손을 상하로 포갠다가 양옆으로 넓게 벌리며 올리고,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올려댄다.

제법개공

제법개공(諸法皆空) 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모두+ 법+ 비다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안에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인다.

제법무아(諸法無我) 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나+ 없다+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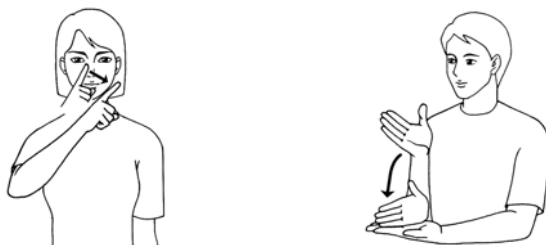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제악막작(諸惡莫作) ㉖

어떠한 악도 행하여서는 안 됨.

[악+ 말다²]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 끝을 왼쪽으로 스쳐 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친다.

제행무상(諸行無常) ㉗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 모양, 형태가 고정됨이 없다.

[모두+ 변하다]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조계사(曹溪寺) 명

대한불교 조계종이 직할하고 있는 절이자 총본사이다.

[삼보륜 마크+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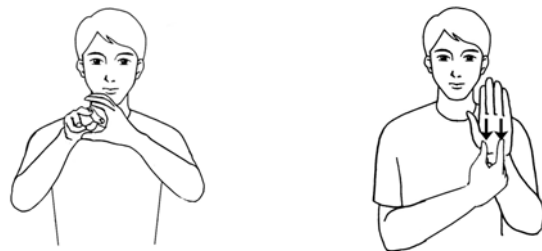


왼손을 구부려 'C'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점을 찍고,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조계종(曹溪宗) 명

우리나라 선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고려 시대에 보조 국사(普照國師)가 송광산 길상사에서 정혜사를 창건하고, 뒤에 '송광산'을 '조계산', '정혜사'를 '수선사'라고 고친 다음부터 붙인 이름이다. 1941년에 북한산 '태고사'를 현재의 자리에 옮겨 짓고 선교(禪敎) 양종(兩宗)을 통합하여 조선 불교 총본산을 설립하였다.

[삼보륜 마크+ 교파]



왼손을 구부려 'C'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점을 찍은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약간 구부려 편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왼 손바닥을 스쳐 내린다.

조복(調伏) 명 하타

①몸과 마음을 고르게 하여 여러 가지 악행을 굴복시킴. ②부처님에게 기도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원수나 악마를 굴복시킴.

[머리를 받치는 동작 <생사를 맡기는 것>]



오른 손바닥을 이마에 댔다가 내리며 손끝을 모아 쥐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 밑으로 내밀어 올리며 편다.

조불(造佛) 명

불상이나 부처님의 화상(畵像)을 만듦.

[부처+ 모습+ 만듦다]

=조상.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조사서래의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명

선원에서, 불법의 근본이 되는 뜻을 이르는 말. 조사(祖師) 달마가 전한 불법의 의취(意趣)라는 뜻이다.

[달마대사의 수업을 나타내는 동작 + 서①+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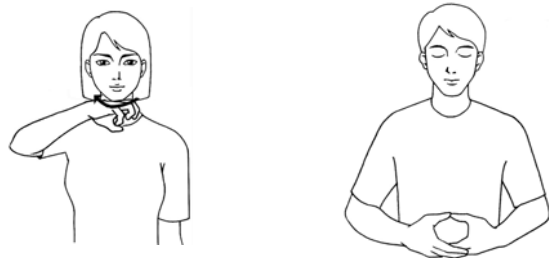


구부린 오른손의 손등을 턱 왼쪽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리고,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긴다.

조사선(祖師禪) 명

조사(祖師)들이 이룩한 선(禪)사상. 글자의 뜻풀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선법(禪法)을 이른다.

[달마대사의 수업을 나타내는 동작+ 참선]



구부린 오른 손등을 턱 왼쪽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조상(彫像) 명

불상이나 부처님의 화상(畵像)을 만듦.

[부처+ 모습+ 만들다]
=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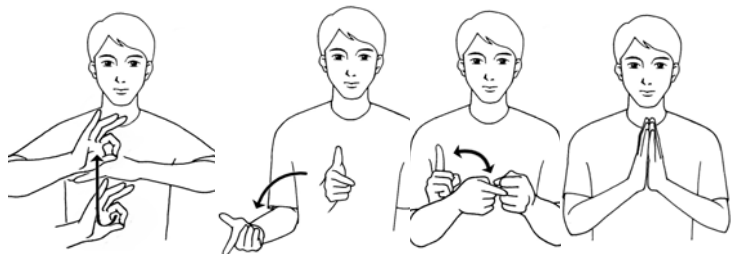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조석예불(朝夕禮佛) 명

아침저녁으로 부처님에게 절하는 일.

[아침+ 저녁+ 불공]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슴 앞에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 밑으로 내보내어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가슴 중앙에서 손을 뒤집으며 오른쪽으로 살짝 내리고,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조실(祖室)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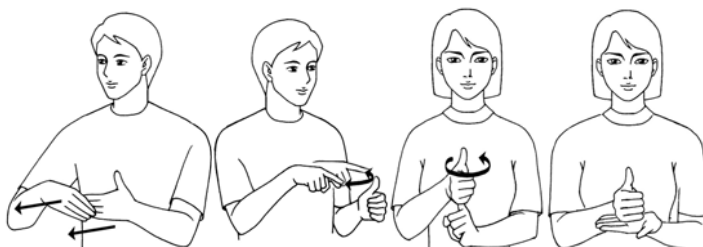
조사(祖師)가 거처하는 방.
[크다(매우)+스님+방]
=방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조어장부(調御丈夫) ㄹ

여래십호(如來十號)의 하나. 중생을 잘 이끌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끌다+가르치다+부처님]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밖으로 당긴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들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종(宗) ㄹ

①경(經)이나 논(論) 따위의 교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교의. ②존중하는 교의를 함께하는 교단.
[휘어잡는 동작]
=지배②.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왼쪽 아래에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주먹을 쥔다.

종(鐘) ㄹ

어떤 시간 또는 시각을 알리거나 신호를 하기 위하여 치거나 흔들어 소리를 내는 금속기구.
[종을 흔드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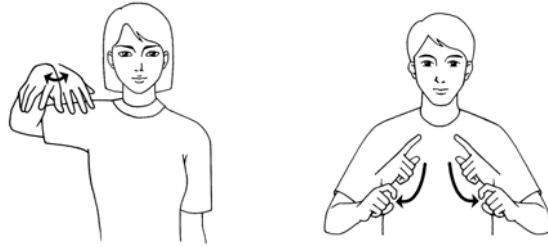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려 오른쪽 귀 옆에서 좌우로 흔든다.

종각

종각 (명)

큰 종을 달아 두기 위하여 지은 누각.
[종(鐘)+ 궁]



오른손을 펴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려 오른쪽 귀 옆에서 좌우로 흔든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종두(鐘頭)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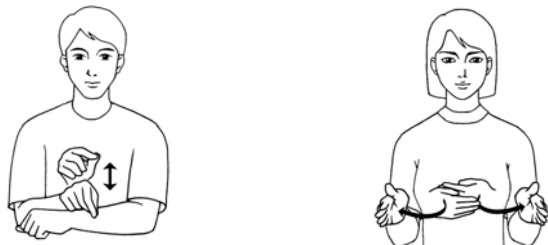
선원에서 입승(入繩)의 명을 따라 종을 치고 잔심부름을 하는 소임. 또는 그 소임을 맡은 사람.
[돕다+ 담당]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놓는다.

종무소(宗務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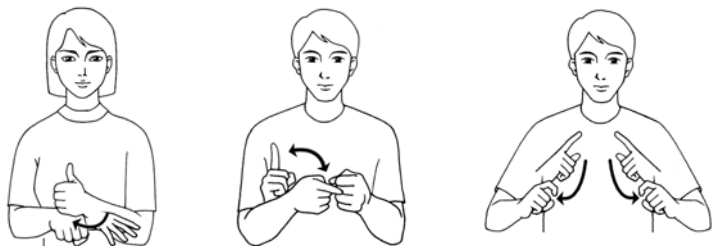
절의 사무소.
[사무+ 방]
=사무실.



주먹을 쥔 왼 팔등에 1·5지 끝을 맞댄 오른 주먹을 올려놓고 전후로 움직인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종사(宗寺) (명)

①여러 종파의 중심이 되는 절. ②여러 말사(末寺)를 다스리는 각 지역의 으뜸 되는 절.
[지배②+ 절]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왼쪽 아래에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주먹을 쥐고,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종파(宗派) 명

불교의 갈래. 석가모니가 입멸한 후에 교의(敎義), 행사(行事), 작법(作法) 따위에 따라 갈려졌다.

[교과+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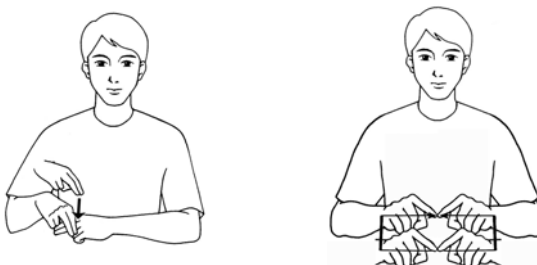


왼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약간 구부려 편 오른 주먹의 1·2지 끝으로 왼 손바닥을 스쳐 내린 다음, 5지를 펴서 모로 세운 왼 주먹 밑에 오른 주먹의 손목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며 손가락을 편다.

좌구(坐具) 명

①앉을 때 밑에 까는 방식. ②불교의 육물 가운데 하나. 앉거나 누울 때 밑에 까는 방식으로 비구의 생활필수품이다.

[앉다+ 네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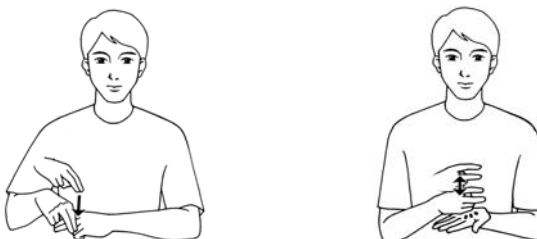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바닥을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네모를 그린다.

좌법(坐法) 명

결과부와 따위의 부처나 불도들이 앉는 법식.

[앉다+ 법]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바닥을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좌선(坐禪) 명

고요히 앉아서 참선함. 인도에서 석가모니 이전부터 행하던 수행법으로 석가모니가 불교의 실천 수행법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수행법이다.

[앉다+ 참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바닥을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죄

죄(罪) 명

①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②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더럽다/으뜸/정하다 <가장 더러운 것>]
=범죄.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세운다.

죄보(罪報) 명

죄업(罪業)에 따른 응보(應報).
[벌+ 받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대고 누르며 돌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죄업(罪業)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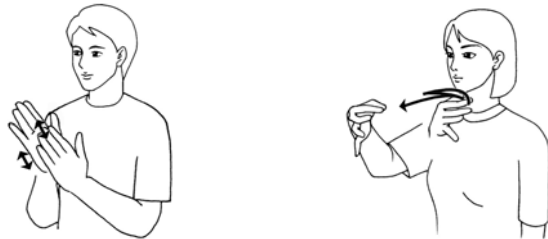
훗날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인(因)이 되는 죄악의 행위.
[죄+ 업]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세운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주문(呪文) 명

다라니의 글. ①법문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음(音) 그대로 외는 일. 자체에 무궁한 뜻이 있어 이를 외는 사람은 한없는 기억력을 얻고, 모든 재액에서 벗어나는 등 많은 공덕을 받는다고 함. ②선법(善法)을 갖추어 악법을 막는다는 뜻.
[빌다+ 목소리]



두 손을 맞대고 비빈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미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주장자(拄杖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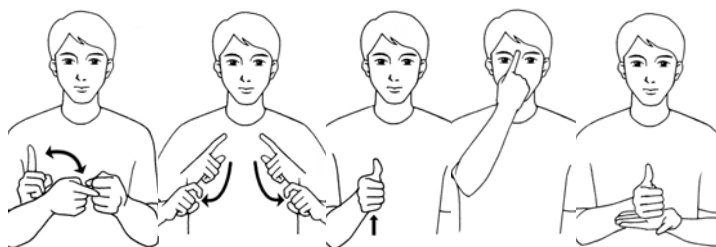
선사(禪師)들이 좌선할 때에나 설법할 때에 가지는 지팡이.
[나무+ 짚는 동작]
=지팡이.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상하로 약간 움직인다.

주지(住持) 명

①세상에 머물러 교법(敎法)을 보존하고 유지함. ②절을 주관하는 스님.
[절¹+ 주인²+ 스님]
=방장화상.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죽비(竹篋)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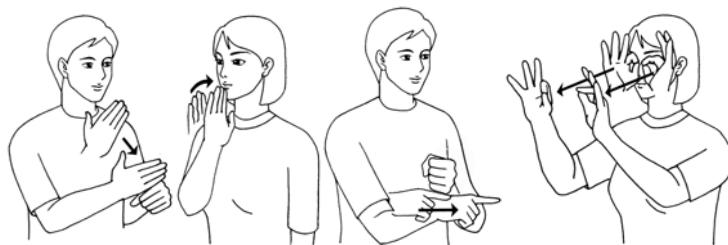
불사(佛事) 때에 스님이 손바닥 위를 쳐서 소리를 내어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쓰는 불구(佛具). 두개의 대쪽을 합하여 만든다.
[막대기를 손바닥에 치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경채. 장군죽비.



약간 구부린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왼손으로 향하게 하여 내리며 왼 주먹을 쥔다.

중관(中觀) 명

삼관의 하나. 중제(中諦)의 이치를 직관(直觀)하여 중도의 진리를 구명하는 일을 이른다.
[중(中)+ 진리+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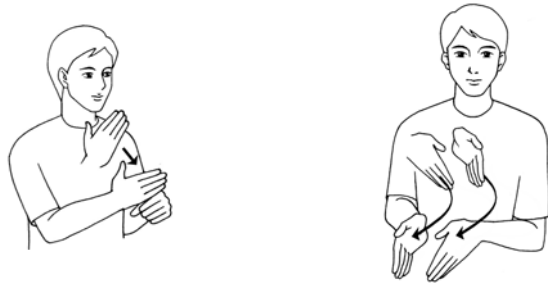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우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밀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다.

중도

중도(中道)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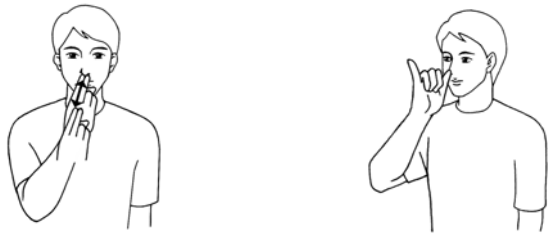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
[중(中)+ 길]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우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중생(衆生) ㉕

모든 살아 있는 무리.
[생명+ 있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댄다.

중생계(衆生界)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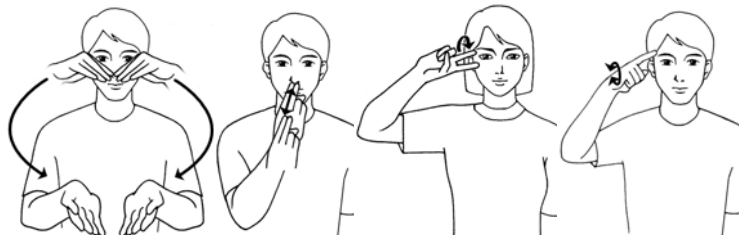
중생이 사는 세계.
[중생+ 세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중생상(衆生相) ㉗

사상(四相)의 하나. 중생이 자신의 몸을 오온(五蘊)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참된 실체라고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를 이른다.
[모두+ 생명+ 착각+ 생각]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눈 오른쪽에 댔다가 손목을 돌려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중생심(衆生心) ㄷ

중생이 가지는 마음. 종파에 따라 뜻하는 바가 다른데, 기신론에서는 세간(世間)과 출세간의 모든 것, 화엄종에서는 대법승의 본체인 여래심, 천태종에서는 나날의 망심(妄心)인 대승법의 본체라고 본다.

[중생+ 마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댈다.

중생은(衆生恩) ㄷ

모든 중생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의 생활은 모두 중생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중생의 은혜의 크기는 한량이 없다고 한다.

[중생+ 은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중생인(衆生忍) ㄷ

보살이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는 마음.

[도로 내리는 동작]

=견디다. 인내. 자제. 참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가슴 중앙에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손바닥으로 눌러 내린다.

중생제도(衆生濟度) ㄷ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미혹(迷惑)의 고해(苦海)로부터 건져 내어 불과(佛果)를 얻게 하는 일.

[중생+ 구하다]

=하화중생.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다.

중선봉행

중선봉행(衆善奉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함.
[좋다+따르다+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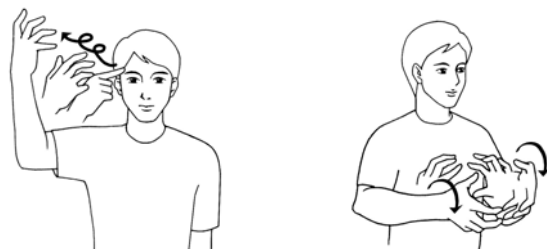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뒤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같이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중음(中陰) ㉔

사유(四有)의 하나. 사람이 죽은 뒤 생(生)을 받을 때까지의 49일 동안을 이르며, 이 동안에 다음 삶에서의 과보(果報)가 결정된다고 한다.
[중음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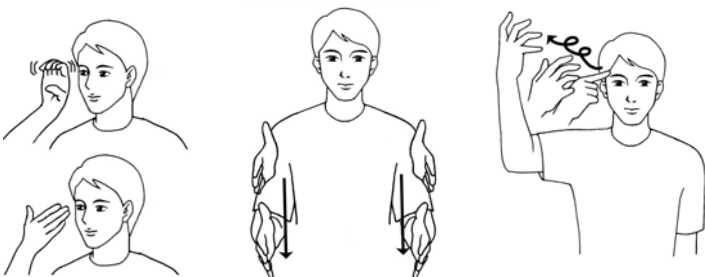
5지를 접고 1·2·3·4지를 벌려 반쯤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 다음, 5지도 펴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려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중음신(中陰身) ㉔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상태.
[49일+동안+영혼]



5지를 접고 1·2·3·4지를 벌려 반쯤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 다음, 5지도 펴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우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려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다.

중죄(重罪) 명

십중금계(十重禁戒)를 범한 무거운 범죄.

[무겁다+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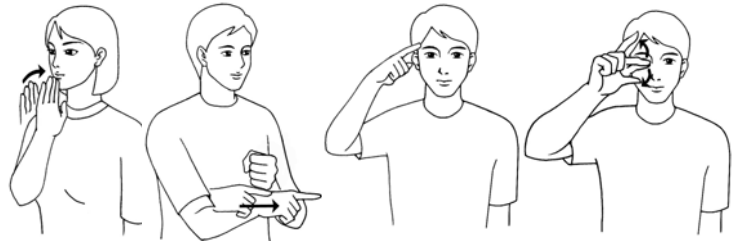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약간 누른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세운다.

증득(證得) 명

바른 지혜로써 진리를 깨달아 얻음.

[진리+ 깨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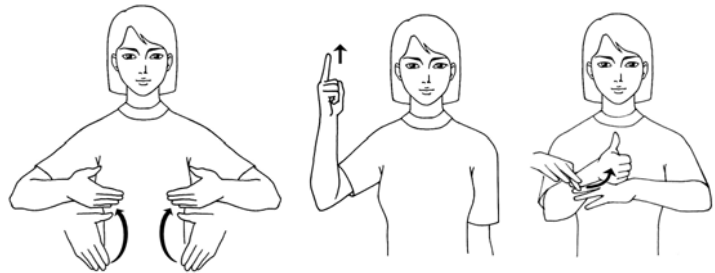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낸다.

증장천왕(增長天王) 명

사천왕(四天王)의 하나. 증장천을 다스리며, 남쪽 세계를 지킨다. 붉은 몸에 천의(天衣)로 장식하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용이 들려 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푸는 서원을 의미한다.

[남②+ 하늘②+ 왕]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지객(知客) 명

절에서 오고 가는 손님을 접대하고 안내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손님+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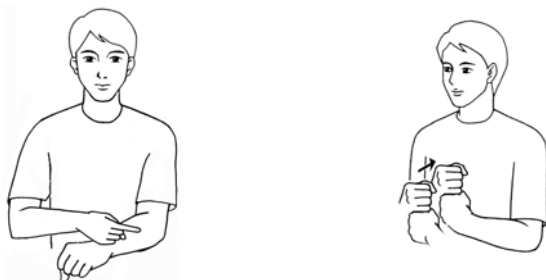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안으로 당긴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좌우로 스쳐낸다.

지계

지계(持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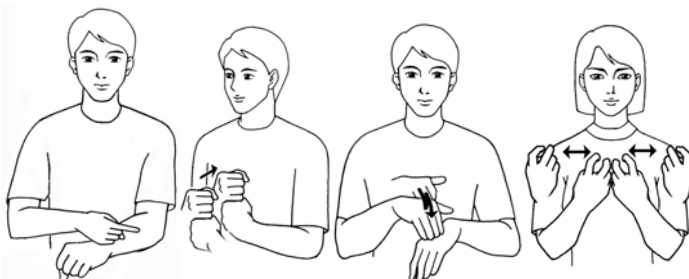
계를 받은 사람이 계법(戒法)을 지킴.
[계+ 지키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올려놓고 안으로 당긴다.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중생세계에서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생사고(生死苦)의 바다를 넘어 깨달음의 피안(彼岸)으로 건네주는 묘한 계율.
[지계+ 바라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손가락 끝을 왼팔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올려놓고 안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힌다.

지국천왕(持國天王)

사천왕(四天王)의 하나. 지국천을 다스리며, 동쪽 세계를 지킨다. 붉은 몸에 천의(天衣)로 장식하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에는 대체로 보주(寶珠)를 들고 있다.
[동①+ 하늘②+ 왕]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지권인(智拳印)

금강계 대일여래의 인상(印相). 왼손 집게손가락을 뺀치어 세우고 오른손으로 그 첫째 마디를 쥔다. 오른손은 불계를, 왼손은 중생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깊은 뜻을 나타낸다.
[비로자나불의 손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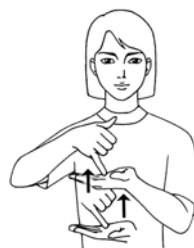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는다.

지덕(智德)

여래가 평등한 지혜로 일체 만법을 모두 비추는 덕.

[지혜+ 인격]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4·5지를 펴서 4지 끝을 왼 손바닥에 대고 세워 약간 위로 올린다.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㉔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과 선지식에 귀의함.

[노력+ 마음+ 귀의]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양 볼 밑에서 약간 흔들며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리다가 손목을 돌려 1지 등을 왼 주먹의 5지 등에 댄다.

지옥(地獄) ㉕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 또는 그런 생존, 섬부주의 땅 밑, 철위산의 바깥 변두리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한다.

[도깨비의 이빨과 빨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지옥계(地獄界) ㉖

십계(十界)의 하나.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계를 이른다.

[지옥+ 세계]

=지옥도, 지옥세계.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지옥도

지옥도(地獄道) 명

삼악도의 하나. 죄를 지은 중생이 죽은 뒤에 태어나는 지옥의 세계.
[지옥+ 세계]
=지옥계. 지옥세계.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지옥세계(地獄世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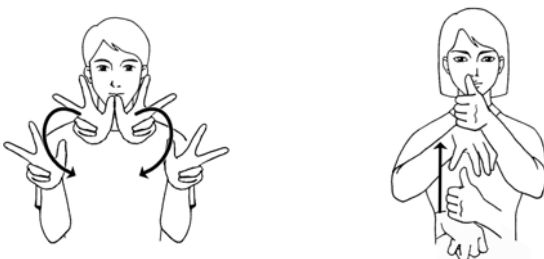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계. ㉔ 지옥계(地獄界).
[지옥+ 세계]
=지옥계. 지옥도.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지장보살(地藏菩薩) 명

중생구제 보살. 무불 세계에서 육도 중생(六道衆生)을 교화하는 대비보살. 천관(天冠)을 쓰고 가사(袈裟)를 입었으며, 왼손에는 연꽃을 오른손에는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㉕ 지장(地藏).
[지장+ 보살]



두 주먹의 1·2·5지를 펴서 1·2지 끝이 위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은 왼쪽으로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동시에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오른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편다.

지혜(智慧) 명

제법(諸法)에 환하여 앎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菩提)를 성취함.
¶ 지혜가 뛰어나다.
[생각+ 씩 잘하다]
=슬기. 현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때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댄다.

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 명

제법(諸法)에 환하여 잃고 얻음과 잃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菩提)를 성취함. ㉔ 지혜.

[지혜+ 바라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대고,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지혜안(智慧眼) 명

온갖 사물과 현상을 비추어 보는 지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혜+ 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손바닥을 주먹을 쥔 왼 팔목 등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킨다.

진실(眞實) 명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敎義)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참+ 정직]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댔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둥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오른 주먹이 위에 놓이게 배에 대고 오른 주먹을 위로 올린다.

진언(眞言) 명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비밀스러운 어구를 이르는 말.

[신비+ 말]

=다라니. 다라니주.



오른쪽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이 눈으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두 번 붙였다 댔 다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가락으로 두 번 굽어 들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진여

진여(眞如) 명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우주 만유의 본체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적 진리를 이르는 말,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참+ 같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집성제(集聖諦) 명

사제의 하나. 괴로움의 원인은 끝없는 애집(愛執)에 있다는 진리를 이른다. ㉔ 집제(集諦).

[모으다+ 거룩하다+ 진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집제(集諦) 명

사제(四諦의) 하나. 괴로움의 원인은 끝없는 애집(愛執)에 있다는 진리를 이르는 말.

[모으다+ 진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으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ㄸ

차수(叉手) 명 하자

두 손을 어긋매껴 마주잡음. 앉았을 때, 걸어갈 때, 서 있을 때 하는 모습으로 사찰 안에서의 기본예절에 속한다.
[]



왼 손바닥을 오른 손등에 대고 배에 댄다.

찬불(讚佛) 명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탄함. 또는 그런 일.
[부처+ 존경]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린다.

찬불가(讚佛歌) 명

석가모니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 그 원형은 무량수경 따위에 나온다.
[찬불+ 노래]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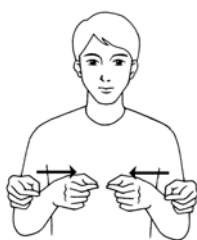
찰나

찰나(刹那) [명]

매우 짧은 시간. 탄지경(彈指頃)보다는 짧은 시간이나, 염(念), 탄지 따위와의 관계는 해석에 따라 다르다.

[짧다+ 동안]

=순간, 잠깐.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좌우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여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린다(동작을 빠르게 한다).

찰중(察衆) [명] [하자]

대중의 허물을 규찰함.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시선을 돌림을 나타내는 동작]

=감시. 감찰. 검사. 살펴보다. 살피다. 수사. 조사.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벌려 끝이 두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참구(參究) [명]

참선하여 진리를 탐구함.

[참선+ 집중]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 위치하게 하였다가 힘주어 비스듬히 내리며 두 손끝을 맞댄다.

참배(參拜) [명] [하자타]

신이나 부처에게 절함.

☞ 부처님께 참배하고 복을 받았다.

[큰절을 하는 동작]

=절?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다.

참선(參禪) 명

선사(禪師)에게 나아가 선도를 배워
닦거나, 스스로 선법을 닦아 구함.
[참선의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
=선. 선정. 정근.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참선방(參禪房) 명

참선하는 방.
[참선+ 방]
=선방(禪房).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끝이 옆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두 손을 앞뒤로 놓았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돌린다.

참회(懺悔)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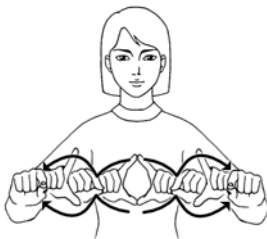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 보살,
사장(師長), 대중 앞에 고백하여 용
서를 구함.
[생각+ 후회]
=반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 손끝으로 두 번 내려댄다.

채두(菜頭) 명

절에서 부식물을 만들거나 그 재료인
야채를 관리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반찬+ 담당]



두 주먹 각각 1-5지를 두 번 벌렸다 붙이며 양옆으로 벌린 다음,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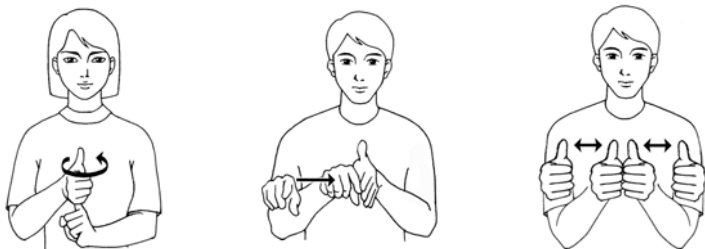
처사

처사 (명)

①출가하지 않고 재가(在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고 법명(法名)을 받은 재가(在家)의 남자. ②속인(俗人)으로서 임시로 절에 머무는 남자.

[부처+ 민다+ 남자①]

=거사. 우바새. 청신남. 청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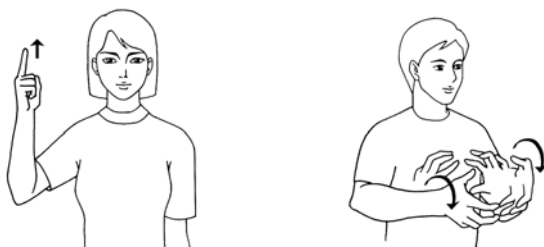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땀다 땀다.

천도(天道) (명)

삼선도의 하나. 중생들이 윤회하는 길의 하나인 천상 세계로, 육욕천·색계천·무색계천을 통틀어 이른다.

[하늘②+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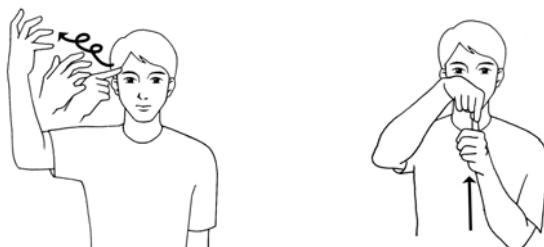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킨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천도(薦度) (명)

죽은 사람의 넋이 정도나 천상에 나도록 기원하는 일. 불보살에게 재(齋)를 올리고 독경, 시식(施食) 따위를 한다.

[영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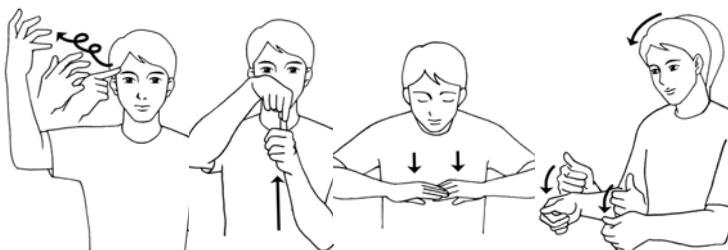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러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다.

천도재(薦度齋) (명)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행하는 의식

[천도+ 제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러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리고,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손가락 끝을 맞대어 눈앞에서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머리를 숙이며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숙인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명]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음.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한다.

[천상천하+ 나+ 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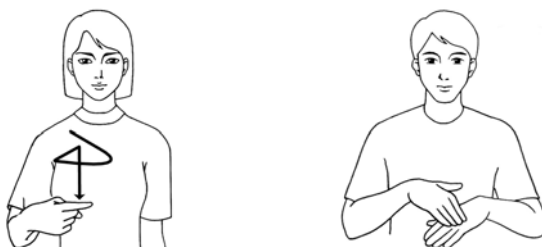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손바닥을 왼편에 댔다가 내려 손등이 닿게 왼 손바닥에 댄다.

천수(千手) [명]

천수관음. 칠관음의 하나. 과거세(過去世)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갖기를 발원하여 이루어진 관음으로, 눈과 손은 자비로움과 구제의 힘이 끝없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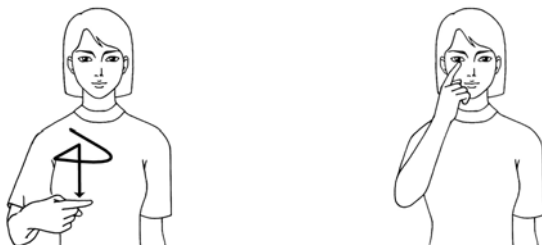
[천(千)②+ 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千'(천)자를 쓴 다음, 오른 손바닥을 왼 손등에 댄다.

천안(千眼) [명]

[천(千)+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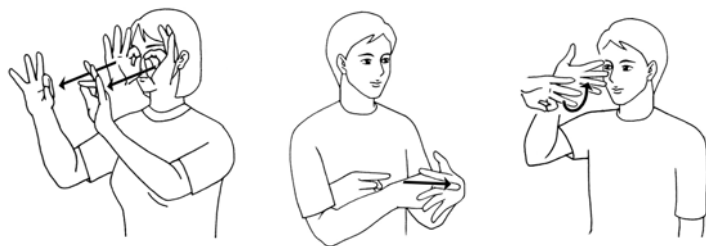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千'(천)자를 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킨다.

천안통(天眼通) [명]

세간(世間) 일체의 멀고 가까운 모든 고락의 모양과 갖가지 형(形)과 색(色)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고, 자기와 남의 미래세에 관한 일을 내다볼 수 있는神通한 능력.

[보다+ 알아맞히다+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손가락을 벌려 모로 세운 왼손의 1·2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끼워 넣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펴낸다.

천왕문

천왕문(天王門) ㉔

절의 입구에 있는, 사천왕을 모신 문. 불법을 지키고 밖에서 오는 사마(邪魔)를 막으려고 세운다.

[하늘②+ 왕+ 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우고,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천이통(天耳通)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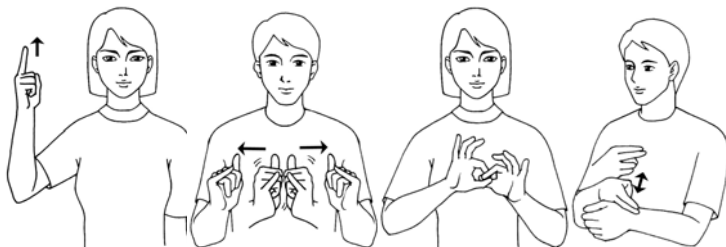
세간의 좋고 나쁜 모든 말과 멀고 가까운 말, 여러 나라 각 지역의 말, 나이가 짐승과 귀신의 말에 이르기까지 듣지 못할 것이 없는神通한 능력. [듣다+ 알아맞히다+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오른쪽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손가락을 벌려 모로 세운 왼손의 1·2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끼워 넣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천인사(天人師)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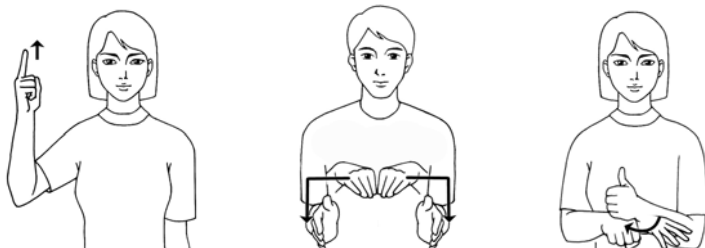
여래십호의 하나. 하늘과 인간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하늘②+ 사람+ 의+ 스승]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리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긴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

천태종(天台宗)

약 1400년 전인 594년 수나라 개황 14년 중국의 지자대사(智者大師)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5시 8교 교관과 일심삼관의 수행법으로 선(禪)과 교(敎)를 통합하여 만든 종파(宗派). [하늘②+ 무대+ 지배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두 손을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 아래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이 닿게 댔다가 양옆으로 크게 벌리다가 모로 세워 밑으로 내린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왼쪽 아래에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주먹을 쥔다.

철굴지옥(鐵屈地獄) ㄷ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이 떨어지는 지옥. 쇠 벌레·쇠칼 따위로 죄인을 괴롭히는, 쇠로 된 굴이다.

[쇠+ 굴+ 지옥]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을 살짝 문 다음, 왼손을 약간 구부려 바닥이 밑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 밑으로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청법가(淸法哥) ㄷ

부처님의 법을 청할 때 부르는 노래.

[법+ 부탁+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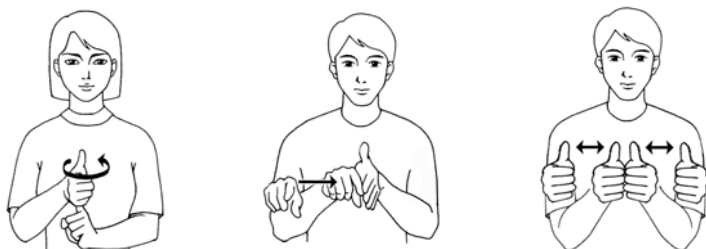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들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청신남(淸信男) ㄷ

①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②불교를 믿는 남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믿다+ 남자①]

=거사. 우바새. 처사. 청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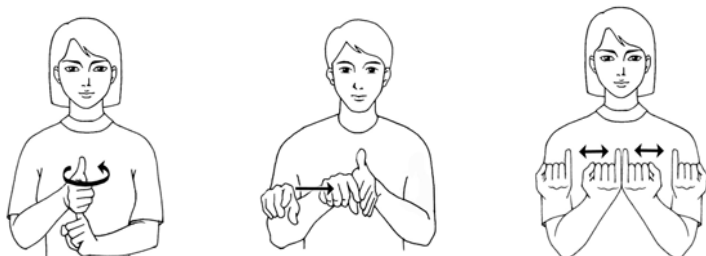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댄다.

청신녀(淸信女) ㄷ

①불교를 믿고 삼귀(三歸), 오계(五戒)를 받은 세속의 여자. ②불교를 믿는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믿다+ 여자①]

=우바이.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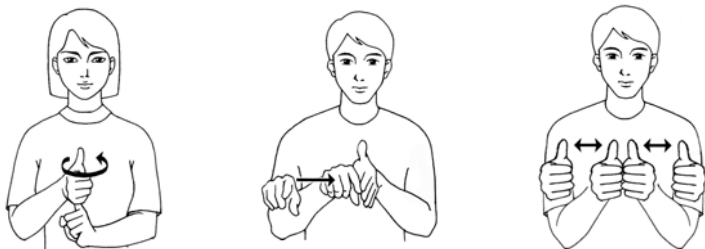
청신사

청신사(淸信士) ㄹ

①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②불교를 믿는 남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처+ 믿다+ 남자①]

=거사. 우바새. 처사. 청신남.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대고,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떼다.

청정(淸定) ㄹ

①나쁜 짓으로 지은 허물이나 번뇌의 더러움을 벗어나 깨끗함. ②계행(戒行)이 매우 조출함.

[티가 없음을 나타내는 동작]

=깨끗하다.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청혼(淸魂) ㄹ

설법을 할 때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일.

[영혼+ 부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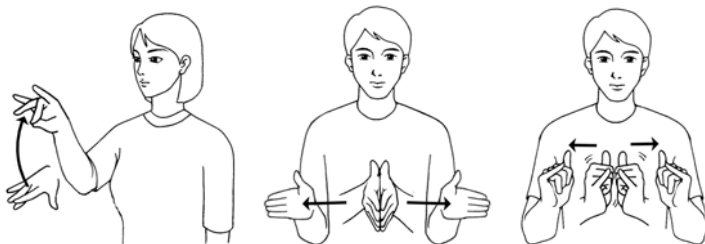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을 펴서 약간 구부러 두 바퀴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초심자(初心者) ㄹ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

¶ 이 개론서는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곁들였다.

[처음+ 시작②+ 사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초전법륜(初轉法輪) [명]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후, 최초의 설법.

[처음+ 전법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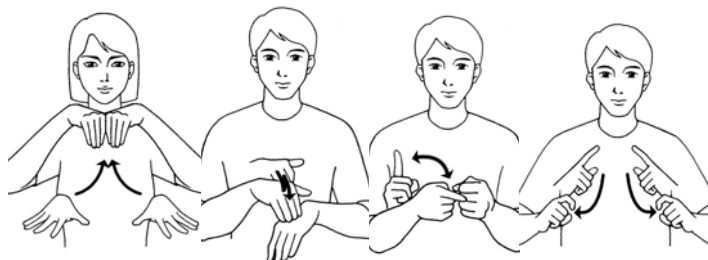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가볍게 쥔 왼 주먹 등에 같은 모양의 오른 주먹 등을 대고 밖으로 내밀며 오른 주먹을 활짝 펴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만든 둥그라미를 따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돌린다.

총림(叢林) [명]

많은 스님이 모여 수행하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선원(禪院), 강원(講院), 율원(律院) 따위가 이에 속한다.

[종합+ 수행+ 절]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벌려 편 두 손을 중앙으로 모아 올리며 1지 옆면이 닿게 손끝을 모아 댄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총무원(總務院) [명]

대한 불교 조계종의 총무(宗務) 집행 기관. 총무원장을 장(長)으로 하여, 총무부, 교무부, 재무부, 사회부 따위를 둔다.

[총무+ 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총무원장(總務院長) [명]

총무원의 우두머리.

[총무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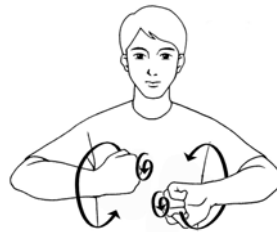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우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축생

축생(畜生) ㄷ

사람이 기르는 온갖 짐승.
[동물의 걸음걸이를 나타내는 동작]
=동물.



가슴 앞에서 두 주먹을, 손목을 돌리며 밖으로 엇갈리게 크게 돌린다.

축생계(畜生界) ㄷ

십계(十界)의 하나. 천태종에서 생전에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죽은 뒤에 짐승이 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세계를 이른다.
[축생+ 세계]
=축생도.



가슴 앞에서 두 주먹을, 손목을 돌리며 밖으로 엇갈리게 크게 돌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축생도(畜生道) ㄷ

삼악도의 하나. 죄업 때문에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나 괴로움을 받는 세계이다.
[축생+ 세계]
=축생계.



가슴 앞에서 두 주먹을, 손목을 돌리며 밖으로 엇갈리게 크게 돌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축원(祝願) ㄷ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원함.
[원하다+ 기도]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축원문(祝願文) ㉔

부처님에게 축원하는 뜻을 적은 글.
[축원+ 문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출가(出家)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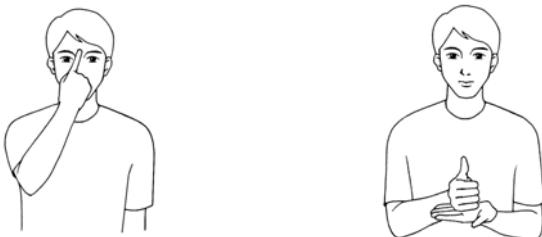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성자(聖者)의 수행 생활에 들어감.
[스님+ 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출가승(出家僧)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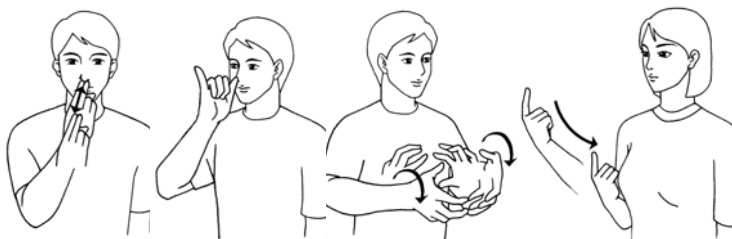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절로 들어가
성자의 수행 생활을 하는 스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미간 백
호를 나타내는 동작+ -님]
=비구. 비구승. 사문(沙門). 스님. 승
(僧). 승가. 승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출세(出世) ㉗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중생의
세계에 나타남.
[중생+ 세계+ 오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긴다.

ㅋ

카르마(karma 산)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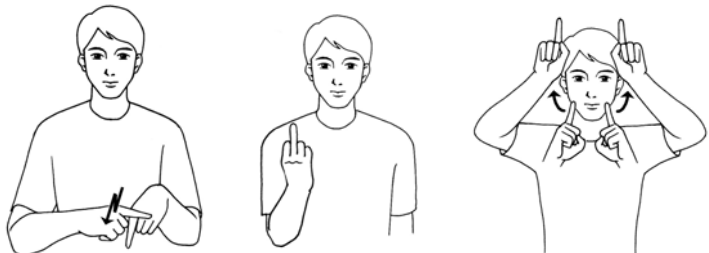
업(業).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 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
[글자 ‘業’(업)의 ‘业’을 나타내는 동작]
=업.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칼산지옥(-山地獄) [명]

칼산으로 된 지옥.
[칼+ 산+ 지옥]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중간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큰스님 [명]

덕이 썩 높은 생불을 높여 이르는 말.
[크다(매우)+ 스님]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손바닥에 세운다.

큰절 명

말사(末寺)에 대하여 본사(本寺)를
이르는 말.
[본부+궁]
=본사.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옆으로 향하게 맞닿다가 오른손만 위로 올리며 주먹을 쥐고 5지를 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E

타계(他界) 명

불교의 십계(十界) 가운데 인간계 이외의 세계.
[이외+ 세계]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가리키며 바닥이 위로 향하게 돌려 왼쪽 밖으로 내밀며 약간 올린 다음,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타락(墮落) 명

도심을 잃고 속심으로 떨어짐.
[나쁘다+ 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끝을 왼쪽으로 스쳐낸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타력(他力) 명

부처님이나 보살의 능력, 또는 그것을 자기의 성불의 힘으로 삼는 일.
[자신을 향해 밀어주는 동작]
=도움을 받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두 번 댄다.

타력염불(他力念佛) ㉔

아미타불의 본원에만 의지하여 해탈 하려는 염불.
[타력+ 염불]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두 번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민다.

타심통(他心通)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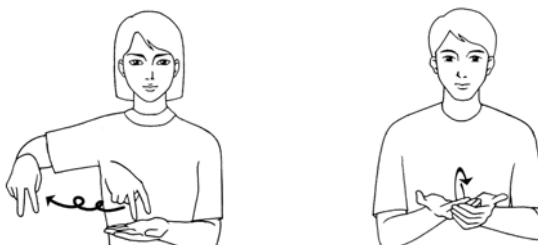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
[마음+ 알아맞히다+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손가락을 벌려 모로 세운 왼손의 1·2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끼워 넣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 앞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편다.

탁발(托鉢) ㉖

도를 닦는 스님이 경문(經文)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가장 간단한 생활을 표방하는 동시에 아집(我執)과 아만(我慢)을 없애고,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 주는 공덕이 있다고 하여 부처님 당시부터 행하였다.
[돌아다니다+ 구걸]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굽힌 두 손을 포개어 밖으로 타원형으로 두 바퀴 돌린다.

탁발승(托鉢僧) ㉗

탁발하는 스님.
[탁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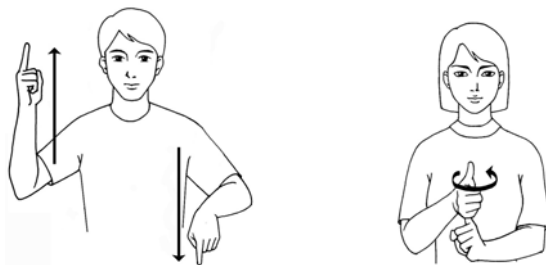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굽힌 두 손을 포개어 밖으로 타원형으로 두 바퀴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탄생불

탄생불(誕生佛) 명

석가모니가 탄생하여 탄생계를 외우던 모습을 나타낸 불상.

[천상천하+ 부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탐(貪) 명

육번뇌의 하나. 자기의 뜻에 잘 맞는 사물에 집착하는 번뇌이다.

[부러워 침이 흐름을 나타내는 동작]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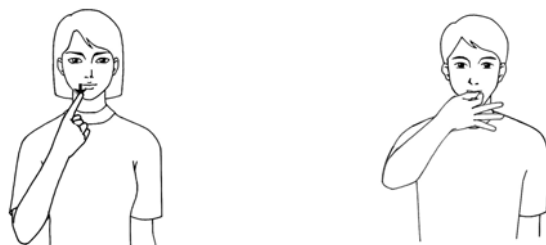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입가에 댔다가 약간 내린다.

탐욕(貪慾) 명

십악의 하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하고 또 구하는 마음을 이른다.

¶ 탐욕을 채우다.

[탐+ 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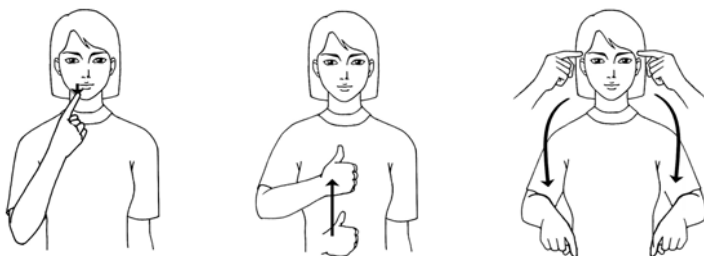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입가에 댔다가 약간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치아로 문다.

탐진치(貪瞋癡) 명

탐(貪)은 사물에 집착하는 번뇌, 진(瞋)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하게 여겨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되는 번뇌, 치(癡)는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번뇌를 이른다.

[부럽다+ 화+ 어리석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입가에 댔다가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배에서 위로 약간 힘주어 올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을 양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내리며 손등이 위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탑(塔) ㄱ

석가모니의 사리나 유골을 모시거나 특별한 영지(靈地)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그 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 본디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묻고 그 위에 돌이나 흙을 높이 쌓은 무덤이나 묘(廟)였다. 깎은 돌이나 벽돌 따위로 층을 지어 쌓으며, 3층 이상 홀수로 층을 올린다.

[쌓다②+ 궁]

=스투파.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은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탑돌이(塔-) ㄱ

초파일에 절에서 밤새도록 탑을 돌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제각기 소원을 비는 행사. 불교 의식에서 차츰 민속놀이로 변한 것으로, 열 가지의 형태로 진행된다.

[탑+탑 주위를 도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을 번갈아 서로 다른 주먹 위로 올려놓은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돌리며 1·2지를 번갈아 움직인다.

태고종(太古宗) ㄱ

태고보우국사의 통불교사상과 원융정신의 실천을 종지로 삼고 있는 보살종단.

[너무+ 옛(과거)+ 종(교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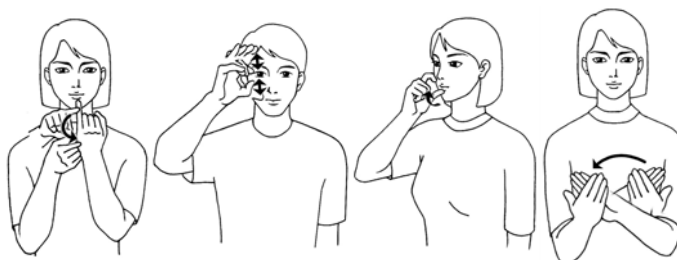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기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약간 구부러 편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왼 손바닥을 스쳐 내린다.

태란습화(胎卵濕化) ㄱ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임신+ 알+ 물+ 변하다]



왼손의 4지 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옆에 오른 주먹의 1지로 반원을 그린 다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의 1·5지 옆면을 오른쪽 눈앞에 대고 손끝을 두 번 오므렸다 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탱화

탱화(幀畵) [명]

부처님, 보살, 성현들을 그려서 벽에 거는 그림.

[부처+ 그리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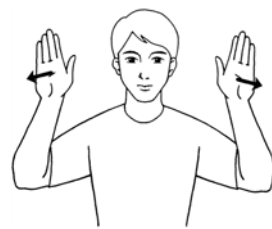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탱화불사(幀畵佛事) [명]

탱화를 봉안하는 불사.

[탕화+ 불이다+ 행사]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내고, 두 손을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템플스테이(temple stay)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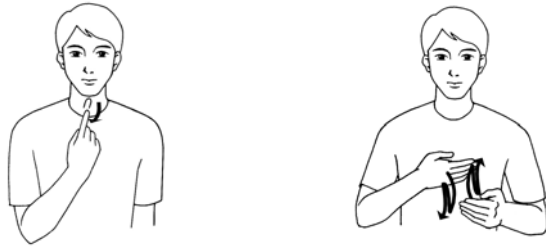
관광객에게 절에 숙박하게 하며 사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절+ 생활+ 체험]

=산사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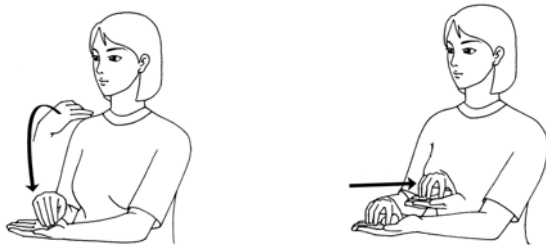
가볍게 쥔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1·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목을 스쳐 내리고,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전후로 두 번 스쳐 낸다.

퇴공(退供) 명 하자

부처님 앞에 공양하였던 물건을 물
림. 또는 그런 일.
[환원+ 가져오다②]



오른손을, 손끝이 오른쪽 어깨 뒤로 향하게 하였다가 내리며 손끝을 모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안으로 당긴다.

퇴치(退治) 명 하타

불도 수행에 전념하기 위하여 번뇌의
악마를 없애고 여러 장애를 끊음. 또
는 그런 수행과정.
[쓸림을 나타내는 동작]
=내쫓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손의 손끝으로 쓸어낸다.

투도(偷盜) 명

십악의 하나.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이른다.
[갈고리로 끌어들이는 동작]
=도난. 도둑. 도적. 절도. 훔치다.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옆면으로
왼 손바닥을 빠르게 긁어 들인다.

투도계

투도계(偷盜戒) 명

오계(五戒)의 하나. 투도를 금하는 계율.

[훔치다+ 말다²+ 계]
=불투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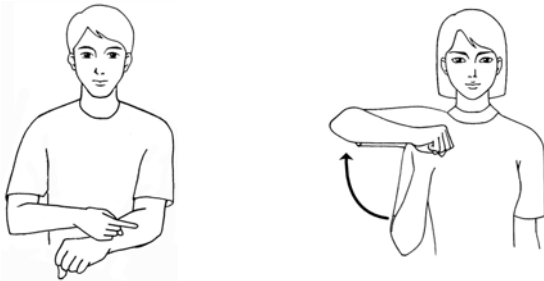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옆면으로 왼 손바닥을 빠르게 긁어 들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다.

표

파계(破戒)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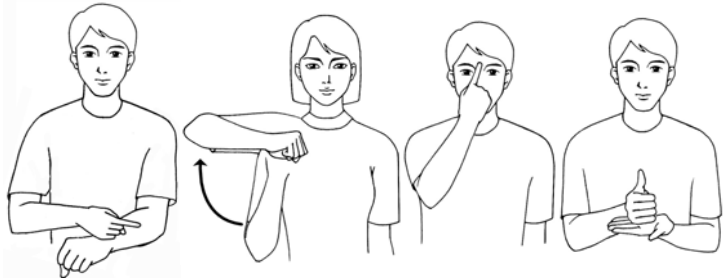
계를 받은 사람이 그 계율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함.
[계+ 어기다²]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주먹을 쥔 오른 팔꿈치를 오른쪽 옆구리에 댔다가 옆으로 올린다.

파계승(破戒僧)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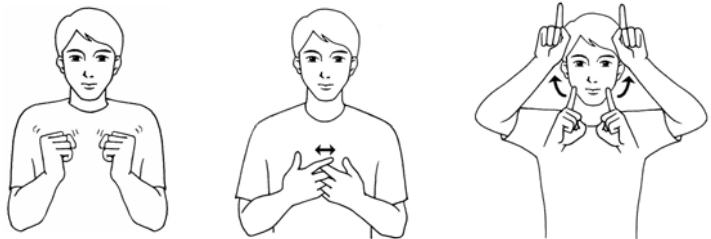
계를 깨뜨린 스님.
[파계+ 스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주먹을 쥔 오른 팔꿈치를 오른쪽 옆구리에 댔다가 옆으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파두마(波頭摩) ㄷ

팔한 지옥의 하나. 심한 추위로 몸이 얼어 터져 연꽃처럼 된다는 지옥이다.
[춥다+ 얼다+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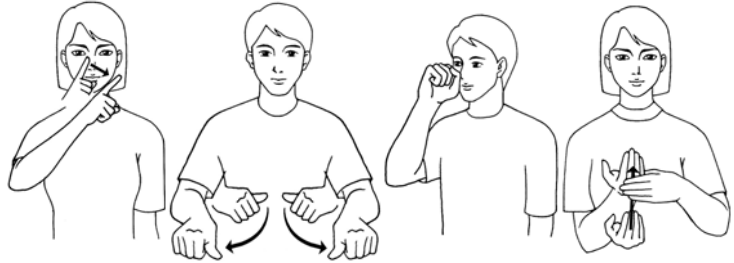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떼는 동작을 한 다음, 구부린 두 손의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깎지 끼우고 좌우로 움직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턱 양옆에 댔다가 머리 양쪽에 올려 댄다.

파사현정

파사현정(破邪顯正) 명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政法)을 드러내는 일. 삼론종의 근본 교의이다.

[나쁘다+ 깨다+ 좋다+ 생기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끝을 왼쪽으로 스쳐낸 다음,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이 옆으로 향하게 하여 가까이 댔다가 5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리고,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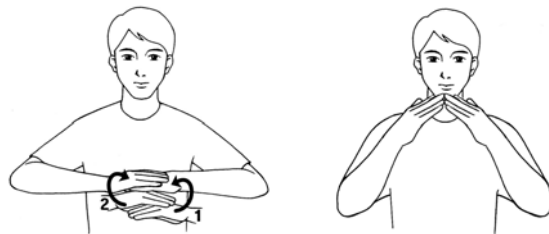
판각(版閣) 명

경판(經板)을 쌓아 두는 전각.

[경+ 조각+ 쌓다③+ 집]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모로 세운 왼 주먹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약간 위로 스쳐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교대로 올려놓고,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명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에 걸쳐 완성한 대장경.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경판(經板)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다.

[팔(八)+ 만(萬)+ 대장경]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5지 끝에 나머지 손가락 끝을 모아 붙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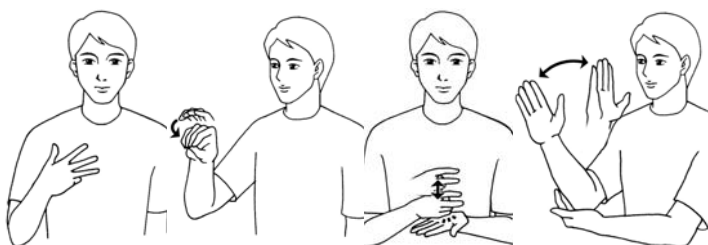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맞댔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팔만법문(八萬法門) ㉔

부처님의 일대교(一代敎)를 통틀어 이르는 말. 중생에게 팔만사천의 번뇌가 있어, 이를 다스리려고 팔만사천의 법문을 설(設)하였다고 한다. 팔만사천은 인도에서 ‘많은 수’를 이르는 데에 사용한다.

[팔(八)+ 만(萬)+ 법+ 이야기]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5지 끝에 나머지 손가락 끝을 모아 붙이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다.

팔복전(八福田) ㉕

복을 받기 위하여 공경, 공양하거나 보시하여야 할 대상을 발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불전(佛田), 승전(僧田), 화상전(和尚田), 아사리전(阿闍梨田), 부전(副殿), 모전(母田), 병전(病田)을 이른다.

[팔(八)+ 복+ 말²]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다음,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팔상전(八相殿) ㉖

팔상을 그린 그림과 존상(尊像)을 봉안한 법당

[팔(八)+ 부처+ 그리다²+ 궁]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린다.

팔성도

팔성도(八聖道) 명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올바른 여덟 가지 길.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팔(八)+ 성스럽다+ 길]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다음,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으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팔정도(八正道) 명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올바른 여덟 가지 길.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팔(八)+ 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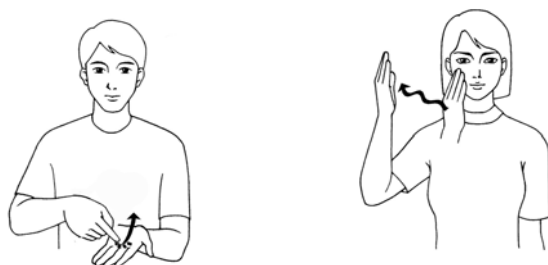


오른손을, 4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다음, 5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대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패다라엽(貝多羅葉) 명

옛날 인도에서 불경을 새기던 다라수(多羅樹)의 잎. 종려의 잎과 비슷하며 두껍고 단단하다. ☞ 패엽.

[새기다+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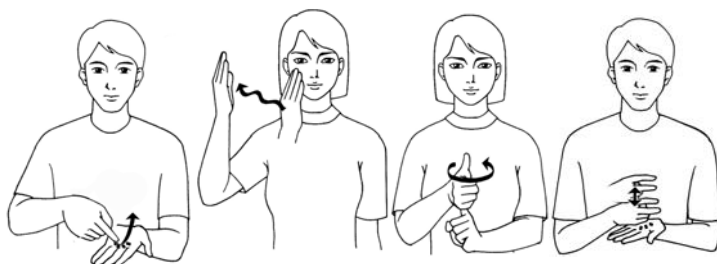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파내는 동작을 한 다음, 오른 손바닥을 오른쪽 뺨에 댔다가 떼면서 흔든다.

패엽경(貝葉經) 명

패다라엽에 바늘로 새긴 불경.

[패다라엽+ 경]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파내는 동작을 한 다음, 오른 손바닥을 오른쪽 뺨에 댔다가 떼면서 흔들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포교사(布教師) 명

교리를 널리 펴는 스님이나 신도.
[부처+ 포교+ 선생]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입 앞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며 활짝 펴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

포살(布薩)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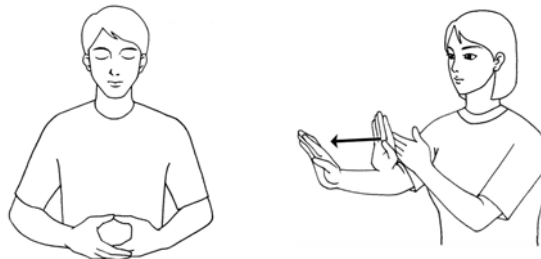
같은 지역의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행하는 의식. 매월 만월(滿月) 때와 신월(新月) 때에 행하는데, 이 때는 설계(設戒)와 더불어 지나간 반달 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참회한다.
[스님+ 고백+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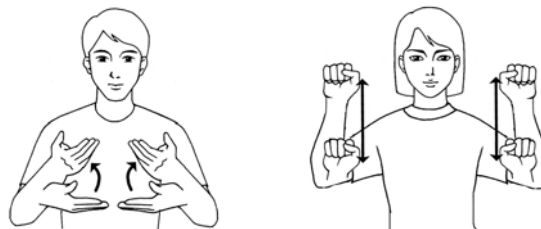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끝을 모은 두 손을 번갈아 턱 아래에서 밖으로 내밀며 펴고,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마주 댄다.

포행 명

좌선(坐禪)과 더불어 하는 것으로 선방에서 50분 좌선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며 몸을 푸는 것.
[참선+ 후+ 가볍다+ 운동]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아래에서 손목을 구부리며 가볍게 올린 다음, 두 주먹을 어깨 위로 동시에 두 번 올렸다 내린다.

풍경

풍경(風聲) [명]

차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봉어 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

『 바람에 우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

[절+ 중]



가볍게 왼 주먹을 모로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왼 주먹의 손가락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좌우로 비스듬히 마주 보게 세워 내리며 구부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 손목에 대고 구부린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다.

피안(彼岸) [명]

①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 ②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이룸. 또는 그런 경지.

[깨닫다+ 도착]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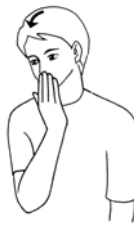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을 오른쪽에서부터 왼 손바닥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천천히 크게 한다.

능

하심(下心) 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겸손+ 마음]



오른손을 펴서 세위 손바닥을 코에 대고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하안거(夏安居) ㉕

스님이 여름 장마철의 90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한곳에 모여서 수행함.
[여름+ 안거]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둘레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한 바퀴 돌린 다음, 두 손을 가볍게 펴서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끝을 이마 양쪽에 댔다가 얼굴을 스쳐 내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손으로 내리 덮으며 동시에 약간 내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는다.

하화중생

하화중생(下化衆生) ㉔

아래로 중생을 제도(濟度)함. 상구보리와 이를 완전히 구비하면 대보리심(大菩提心)이라고 한다.

[중생+ 구하다]

=중생제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밀어 올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 올린다.

합장(合掌) ㉕ 하자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법. 본디 인도의 예법으로, 보통 두 손바닥과 열손가락을 합한다.

[불교의 인사 동작 <彼我一體>]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댄다.

합장배례(合掌拜禮) ㉖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절함.

[합장하며 반배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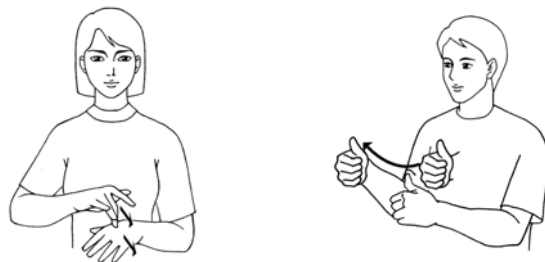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맞대며 고개를 숙인다.

항마(降魔) ㉗

악마를 항복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수행자는 선정에 들어 지혜의 힘으로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마와 천마를 항복하게 하여야 한다.

[귀신+ 승리①]



손등이 위로 향하게 벌려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펴서 끝을 대고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약간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밖으로 스쳐 낸다.

항마인(降魔印) ㉔

항마촉지인.

[불상의 수인을 나타내는 동작]
=본존불. 석가모니불. 석가여래. 항
마촉지인.



왼손을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려 배꼽 아래쪽에 대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㉕

악마를 항복하게 하는 인상(印相).
왼손을 무릎위에 두고 오른손은 내리
어 땅을 가리키는 인상이다. ㉕ 항마
인.

[불상의 수인을 나타내는 동작]
=본존불. 석가모니불. 석가여래. 항
마인.



왼손을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려 배꼽 아래쪽에 대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항복(降伏) ㉖

①몸과 마음을 고르게 하여 여러 가
지 악행을 굴복시킴. ②부처님에게
기도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원수나
악마를 굴복시킴.

[서로 앞서거나 이기려고 경쟁하여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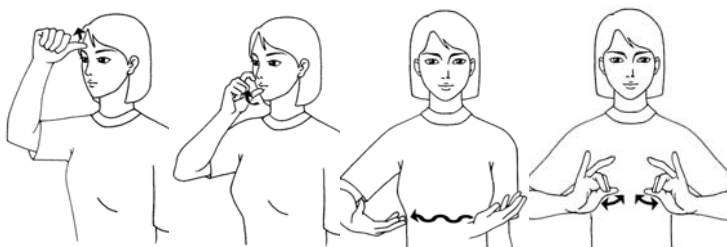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밖으로 스쳐 낸다.

항하사(恒河沙 · 恒河砂) ㉗

갠지스 강의 모래라는 뜻으로, 무한
히 많은 것. 또는 그런 수량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인도①+ 강+ 모래]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이마 중앙에 대고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구부려 입으로 약간 기울여 올린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편 두 손 각각 1·2·5지 끝을 맞대고 비빈다.

해우소

해우소(解憂所) [명]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절에서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

[지문자 'W'/지문자 'C']

=화장실.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2·3·4지를 벌리고 1·5지를 'C'자 모양으로 구부린다.

해제(解制) [명]

안거(安居)를 마침.

=풀려나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었다가 오른 손목을 돌리며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다.

해탈(解脫) [명]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남. 본디 열반과 같이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 유위(有爲) 해탈, 무위(無爲) 해탈, 성정(性淨) 해탈, 장진(障盡) 해탈 따위로 나뉜다.

[생각+ 뜨다*]

=깨닫다. 해탈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다.

해탈도(解脫道) [명]

사도(四道)의 하나,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해탈을 얻은 경지를 이른다.

[생각+ 뜨다*]

=깨닫다. 해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다.

해탈문(解脫門) ㉔

열반에 들어가는 문인 세 가지 선정(禪定)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공 해탈문, 무상 해탈문, 무작 해탈문의 세 가지가 있다.

[깨닫다+ 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해탈성불(解脫成佛) ㉕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님이 됨.
[깨닫다+ 부처+ 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댔다가 떼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행(行) ㉖

①모든 변화하는 존재. ②십이 연기의 하나. 무명(無明)으로부터 몸, 입,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이른다. ③스님이나 수행자(修行者)가 정하여진 업(業)을 닦는 일. 특히 고행(苦行)을 이른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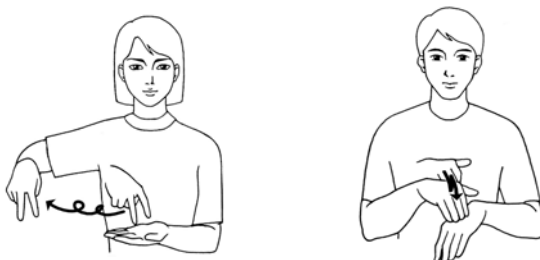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행각(行脚) ㉗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행함.

[돌아다니다+ 단련]

=만행.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린다.

행각승

행각승(行脚僧) 명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스님.

[행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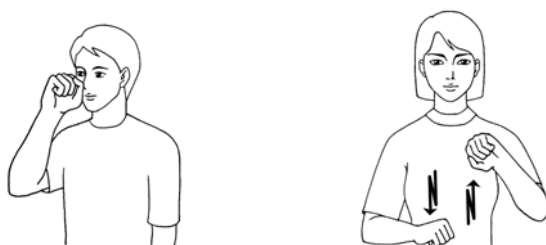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워 돌리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손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행선(行善) 명

소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善).

[좋다+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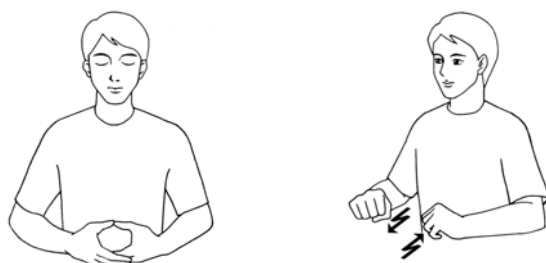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행선(行禪) 명

①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선(禪)을 닦는 일. ②행동하면서 하는 참선. ③선(禪)의 실천.

[참선+ 활동]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은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행업(行業) 명

①고락의 과보를 받을 선악의 행위. 곧 몸, 입,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이다. ②왕생의 인(因)이 되는 행(行). ③불도를 닦음.

[행동+ 업]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손의 1·2·3·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중간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댄다.

행원(行願) ㄷ

①신행(身行)과 심원(心願)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다른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과 그 실천 수행이다. ②실천의 서원(誓願). ③큰 자비로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고자 하는 마음. ④정정업과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원하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다.

행자(行者)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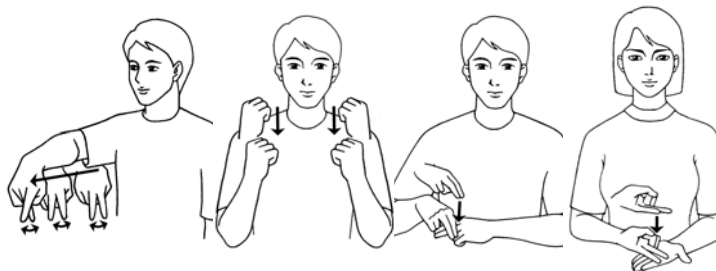
①불도를 닦는 사람. ②여러 곳의 성지(聖地)를 돌아다니며 참배하는 사람. ③스님이 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사람. [계+아직+스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팔에 댄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앞에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상하로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이마 중앙에 댔다가 내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세운다.

행주좌와(行住坐臥) ㄷ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걷다+머무르다+앉다+눕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번갈아 내민 다음, 두 주먹을 어깨 앞에서 아래로 내리다 멈추고,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등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바닥을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을 댔다.

향공양(香供養) ㄷ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움. [향+공양]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위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반쯤 구부러 오른쪽으로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린다.

허공

허공(虛空) 명

①다른 것을 막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것에 의하여 막히지도 아니하며, 사물과 마음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는 공간. ②아무것도 없는 세계. 모양도 빛도, 아무런 사랑(思量)도 없는 무위(無爲), 무루(無漏)의 세계이다. [하늘/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위를 가리킨 다음, 손을 펴서 손등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흔든다.

헌다(獻茶) 명

신불(神佛)에게 차를 올림. 또는 그런 일. [녹차+ 공양]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아래쪽을 오른손의 5지와 1·2·3·4지로 잡았다 내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헌화(獻花) 명

신불(神佛)에게 꽃을 올림. 또는 그런 일. [꽃+ 공양]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손목을 천천히 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현생(現生) 명

삼생(三生)의 하나. 이승의 생애를 이른다. [지금+ 생존]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 모로 세워 약간 내린다.

혜(慧) 명

사리를 분별하고 의심을 끊는 슬기.
[생각+ 씩 잘하다]
=지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왼 팔목 등에 댄다.

혜명(慧命) 명

①지혜의 생명이라는 뜻으로, 법신은 지혜가 수명이어서 지혜의 명이 다하면 법신의 몸을 잃음을 이르는 말. ②불법의 명맥을 이어 가는 비구를 높여 이르는 말. 들은 바가 많고 식견이 있는 비구에게는 지혜가 생명이라는 뜻이다.
[지혜+ 생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왼 팔목 등에 댄 다음, 1·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린다.

혜심(慧心) 명

불도의 지혜로운 마음. 거리끼는 것이 없고 그 자체가 맑고 밝아서 이것으로 모든 사리를 달관한다고 한다.
[지혜+ 마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왼 팔목 등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호법(護法) 명

①불법을 지킴. ②염불 기도로 요괴나 질병을 물리치는 일. 또는 그런 법력.
[법+ 보호②]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 1·2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다.

호신부

호신부(護身符) 명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지니는 부적.

[운+ 한자+ 작은 네모]
=부적.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을 모로 세워 왼쪽으로 돌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가락을 벌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오른 손등으로 두 번 두드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우표 모양을 그린다.

호신불(護身佛) 명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지니는 부처님.

[보호①+ 부처]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돌린 다음, 펴서 세운 오른손을,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을 감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다.

화두(話頭) 명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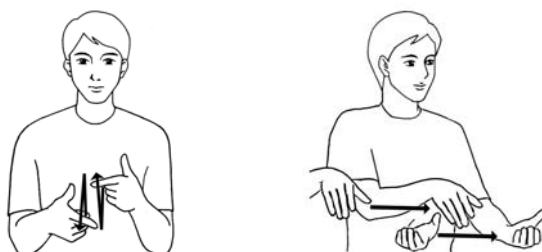
[참선+ 숙제]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동그랗게 포개어 배꼽 아래쪽에 대며 눈을 감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왼 손목 쪽으로 당기면서 손가락을 모은다.

화목한(火木漢) 명

절에서 땀나무를 하여 들이는 사람.
[나무+ 아궁이에 넣는 동작+ 불+ 사람]
=불목지기.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두 손을 구부려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왼손 위쪽 뒤에 놓이게 하여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화장(火葬) ㉔

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 지냄.
[화장함을 나타내는 동작]
=다비.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눕히고, 그 안쪽에서 편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움직인다.

화택(火宅) ㉕

불타고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르는 말.
[집+ 불]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면서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환생(幻生) ㉖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남. 또는 그런 일.
[다시+ 태어나다]
=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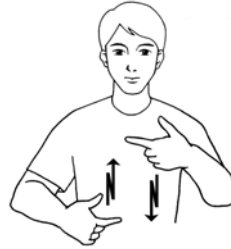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환희

환희(還喜) ㄷ

몸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기의 뜻에 알맞은 경계를 만났을 때의 기쁨. 죽어 극락왕생하는 것에 대한 기쁨. 불법(佛法)을 듣고 믿음을 얻어 느끼는 기쁨 따위를 이른다.

[지문자 'ㄱ'/즐겁다]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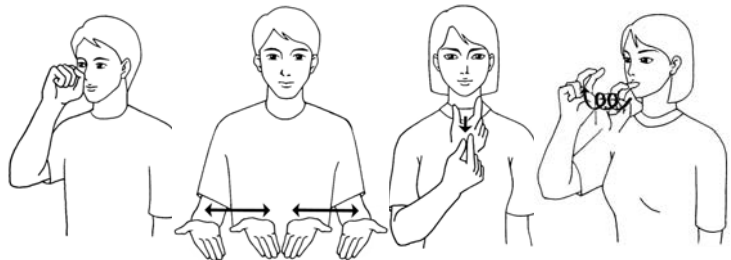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1지 끝을 양쪽 가슴 앞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엇갈리게 움직인다.

회심곡(悔心曲) ㄷ

스님이 집집을 돌아다니며 돈이나 쌀을 동냥할 때에 팽과리를 치며 어진 마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공과 덕을 쌓으라고 축원하거나 덕담하는 소리.

[좋다+ 일+ 원하다+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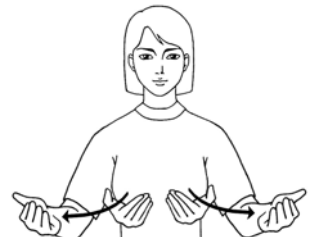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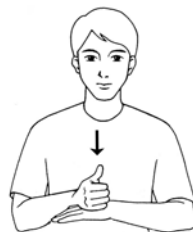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코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회향(回向) ㄷ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이나 자기 자신에게 돌림.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의 세 가지 또는 왕상회향과 환상회향의 두 가지로 나뉜다.

[①마지막. ②붙잡고 있던 것을 내어주는 동작]

=①결과. 기어이. 끝끝내. 끝장. 드디어. 마침내. 최종. 최후. ②베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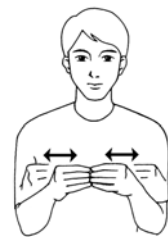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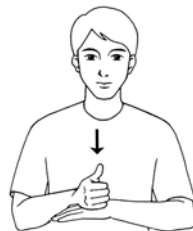


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②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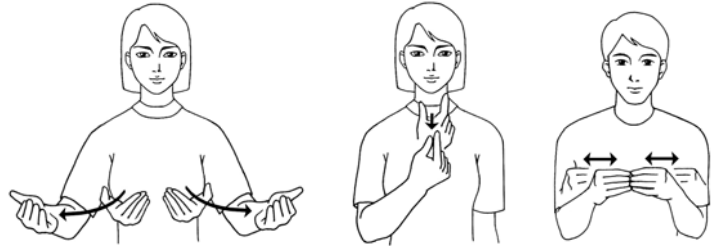
회향문(回向文) ㄷ

회향을 기원하는 글. 불사의 맨 나중에 읽는다.

[①마지막+ 문장. ②베풀다+ 원하다+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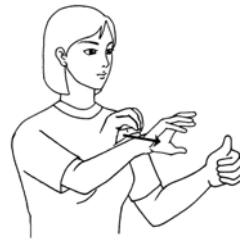
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② 두 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려 밖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 바닥을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이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후광(後光) ㉔

불보살의 몸 뒤로부터 내비치는 빛.
[뒤에서 빛이 남을 나타내는 동작]
=방광.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쪽에서 손가락을 모아 왼 오른손을 왼손의 5지 등으로 내밀며 손가락을 편다.

후불탱화(後佛幀畵)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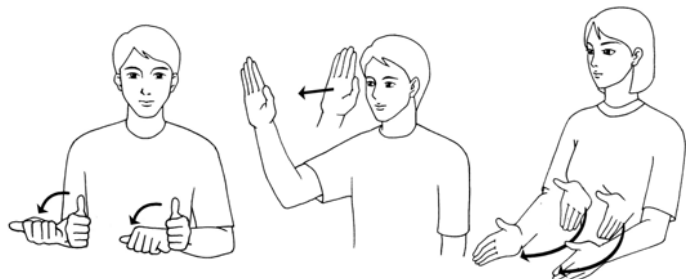
불상 뒤에 모시는 탱화.
[부처+ 뒤+ 부처+ 그리다²]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어깨 너머 뒤를 가리키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후생(後生) ㉔

삼생(三生)의 하나. 죽은 뒤의 생애를 이른다.
[죽다+ 다음(미래)+ 태어나다]
=내생(來生).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히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손의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4지 옆면을 배 양옆에 댔다가 아래로 힘주어 내린다.

회각지

회각지(喜覺支)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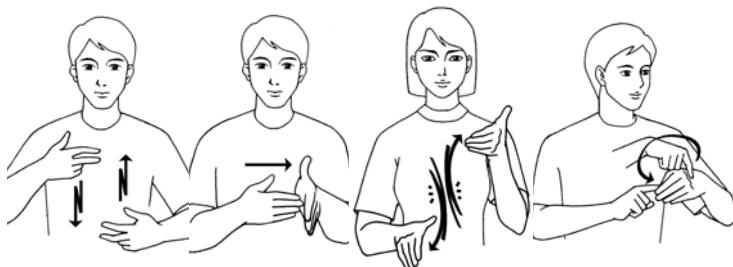
참된 법을 얻어 기뻐하는 일.
[깨닫다+ 기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쪽 눈앞에서 오른 주먹의 1·5를 펴서 맞닿다가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1지 끝을 양쪽 가슴 앞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엇갈리게 움직인다.

희무량심(喜無量心) 명

사무량심(四無量心)의 하나. 다른 이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무량한 마음을 이른다.
[즐겁다+ 끝+ 없다+ 마음]



1·2·5지를 편 두 주먹을 양쪽 가슴에 대고 서로 엇갈리게 두 번 올렸다 내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쳐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

희사함(喜捨函) 명

예불하는 사람의 보싯돈을 받기 위하여 불전(佛前)에 놓아두는 함.
[불전(佛錢)+ 상자]
=보시함.



5지를 펴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주먹의 1지를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구부려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사이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위에서 내려 놓는다.